

영어과 초임교사 입문 프로그램

- 중등 초임교사 수업컨설팅 자료집 -

- 교과연구자_ 장 경 숙
- 연구책임자_ 최 승 현

| 영어과 초임교사 입문 프로그램
- 중등 초임교사 수업컨설팅 자료집 - |

연구보고 ORM 2008-31-4

발행일 | 2008년 12월 29일

발행인 | 김 성 열

발행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 서울 종로구 가회로 142

전 화 | (02)3704-3704

팩 스 | (02)730-7487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ISBN | 978-89-6313-043-9 94370

978-89-6313-039-2 94370(전4권)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개발·검토·협의·협력진

김덕경(대영중)

Bill Green(Charles Sturt University, Australia)

김지영(도봉중)

David Hayes(Brock University, Canada)

노경순(영남중)

Peeter Mehisto(London University, UK)

박정희(안남중)

Jo-Anne Reid(Charles Sturt University, Australia)

이을희(구로중)

Shelagh Rixon(Warwick University, UK)

이주연(석정중)

정구창(신일여중)

황경옥(석정중)

차 례

I. 영어과 내용교수지식	1
1. 내용교수지식과 수업컨설팅	3
가. 수업 전문성과 내용교수지식	3
나. 내용교수지식 측면의 수업컨설팅	9
다. 내용교수지식과 초임교사 입문 프로그램	14
2. 영어과 내용교수지식 특징과 의미	16
3.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 컨설팅(안) 개발 틀	19
4.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 컨설팅(안) 개발 단계	25
II. 영어과 중등 초임교사 수업 컨설팅 실제	33
1. 교과내용지식 측면의 수업컨설팅	35
가. 교사의 영어과 모국어 사용	35
나. 어휘 학습 이론에 대한 이해	38
다.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의 습득과 활성화	40
라. 학생의 목표어 사용 기회	41
2. 교수법 지식 측면의 수업컨설팅	42
가. 학습목표 제시	42
나. 학급 운영 및 통제	44
다. 본시 학습을 위한 준비 활동: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략	47
라. 오류 수정	48
마. 짝 활동/소집단 활동	49
바. 교구 활동: 칠판	54
3. 상황 지식 측면에서의 수업컨설팅	55
가. 학습자 이해: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따른 동기 부여	55
나. 교육과정 이해: 언어 기능의 통합, 문화, 진정성이 높은 자료에 대한 이해	62
다. 사회 맥락적 이해: 학교 분위기와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64



C O N T E N T S

III. 자료 1: 초임교사 A	67
1. 수업 1	69
가. 지도안	69
나. 자료	71
다. 수업 녹취	74
라. 자기 관찰	84
마.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87
2. 수업 2	102
가. 지도안	102
나. 자료	104
다.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111
3. 수업 3	122
가. 지도안	122
나. 자료	130
다. 수업 녹취	133
라. 자기 관찰	146
마.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150
IV. 자료 2: 초임교사 B	173
1. 수업 1	175
가. 지도안	175
나. 자료	176
다. 수업 녹취	179
라. 자기 관찰	186
마.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189
2. 수업 2	213
가. 지도안	213
나. 자료	214
다. 수업 녹취	217



라. 자기 관찰	224
마.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227
V. 자료 3: 초임교사 C	239
1. 수업 1	241
가. 지도안	241
나. 수업 녹취	242
다. 자기 관찰	252
라.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255
2. 수업 2	273
가. 지도안	273
나. 자료	274
다. 수업 녹취	279
라. 자기 관찰	285
마.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288
참 고 문 헌	303



C O N T E N T S

표 차 례

<표 I-1> 교사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의 유형 12

<표 I-2> 영어과 교과내용 지식 영역의 하위 구성요소 20

<표 I-3> 영어과 교수법 지식 영역 하위 구성요소 22

<표 I-4> 영어과 학습자에 대한 지식 영역 23

<표 I-5>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영역 24

<표 I-6> 영어과 사회 맥락에 대한 지식 영역 24

<표 I-7>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컨설팅 연구진 구성 26

<표 I-8> 영어과 초임교사 1차 수업 분석 27

<표 I-9> 내용교수지식(PCK) 영역에 따른 수업 관찰 도구 29

<표 I-10> 일반 교수법 지식 관련 관찰 도구 29

그림 차례

[그림 I-1]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구성요소	20
[그림 I-2]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컨설팅 절차	25
[그림 I-3] 영어과 수업 관찰 및 분석 구조	28
[그림 I-4] 영어과 수업컨설팅 협의회 절차	31



영어과 내용교수지식

1

내용교수지식과 수업컨설팅

2

영어과 내용교수지식 특징과 의미

3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 컨설팅(안) 개발 틀

4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 컨설팅(안) 개발 단계

I. 영어과 내용교수지식

1. 내용교수지식과 수업 컨설팅

가. 수업 전문성과 내용교수지식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주장이지만, 충분히 논의되거나 실천되지 않는 주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교사의 전문성, 그 중에서도 수업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수준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실천은 미미한 편이다. 특히 수업 전문성 일반이 아닌 교과 수업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실천을 찾아보기는 더욱 쉽지 않다. 그래도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교사 변인을 교육의 중요한 변수로 보고, 교사의 교과 수업 전문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움직임(곽영순 외, 2007; 이화진 외 2005, 2006, 2007; 임찬빈 외, 2004, 2005, 2006)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특징에 초점을 둔 교사 효과성(teacher effectiveness) 연구와는 달리, 교사가 갖고 있는 교과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두는 교사 전문성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과 지식이 서로 다른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발달시키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외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특히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를 이론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수업 장학 및 평가를 위한 실제적인 기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임찬빈 외, 2004).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1986년부터 ‘교직의 전문직화’(teacher professionalism)라는 화두를 내걸고 교직의 위상을 보다 존경받고 보람 있고 보상 받는 직업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고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교직에도 교수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식기반(knowledge bases for teaching)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주창자인 Shulman은 카네기재단의 요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문직으로서 교사가 지닌 교수(teaching)에 대한 고유한 지식기반에 대해 논의하였다(Shulman, 1986; 1987). Shulman은 교사 지식의 가설적 영역들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과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인지적 이해에 대한 연구, 교과 내용 이

해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수 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교육 연구에서 ‘잃어버린 프로그램(missing program)’이라고 주장하였다(Shulman, 1986). Shulman은 초기 모델에서 교사의 내용 이해와 내용 이해가 수업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교과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교육과정 지식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수정된 모델에서 교과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으로 명명하였다(Shulman, 1986).

Shulman은 내용교수지식(PCK)을 내용 표상의 가장 유용한 형태, 가장 강력한 유추, 예화, 사례, 설명, 실연 등 한 마디로 교과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연하는 방식들이라고 기술하였다(Shulman, 1986). 이후 Shulman과 그의 동료들은 후속 논문들을 통해서 교사 지식 영역의 발전된 개념들을 제공하였다. 1987년, Shulman은 교사 지식을 구성하는 7가지 지식기반의 하나로, 내용교수지식(PCK)을 교과 내용 지식, 일반 교수법 지식, 교육과정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육적 상황에 대한 지식, 교육의 철학적·역사적 목적에 대한 지식과 함께 제시하였다(Shulman, 1987).

Shulman과 동료들은 후속 연구들에서 내용교수지식(PCK)을 때로는 내용 지식의 하위에 두기도 했지만, 내용교수지식(PCK)이 다른 형태의 지식의 통합과 변형임을 인식하였다(Wilson, Shulman, & Richert, 1987). 그리고 이후 연구들에서 교수 활동의 지식기반에 대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기술은 그로스만(Grossman)에서 찾을 수 있다. 그로스만은 교수 전문성의 핵심으로 일반 교수법 지식, 교과 내용 지식, 내용교수지식(PCK), 상황 지식 등으로 정의했고, 이러한 네 가지 지식기반 중에 내용교수지식(PCK)이 교사의 수업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Grossman, 1990).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교사 수업 전문성을 구성하는 여러 지식기반 중에서 내용교수지식(PCK)은 연구와 실천의 영역 모두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Shulman 등의 논의를 정리하면 소위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 즉 교수 활동에 대한 지식기반을 지닌 교사는 교과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킨다. 이 때 교사는 구체적인 교과 내용 맥락에 맞추어 교수 지식을 변경함으로써 고유의 내용교수지식(PCK)을 개발하게 된다. 따라서 내용교수지식(PCK)은 교과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및 상황에 대한 지식과 신념 등 교사 지식을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로부터의 지식들이 변형된 결과이다(곽영순, 2007).

그리고 이러한 변형은 크게 교사의 전문적 지식기반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 간의 물리적 통합과 화학적 변환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용교수지식(PCK)을 뒷받침하는 교사 전문 지식의 영역들은 교과별로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 교과내용지식, (2)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3) 학생(상황)에 대한 지식 등이 공통으

로 포함된다. 수업에서 PCK라는 양식으로 표출되는 교사의 전문적 실천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특정 PCK 양태를 띠게 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가 지향하는 목표나 지도하는 수업 주제에 따라 명시화되는 PCK는 때로는 내용 지식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교수 방법이나 전략에 중점을 두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태로 표출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내용교수지식(PCK)이라는 양식으로 표출되는 교사의 전문적 실천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특정 내용교수지식(PCK) 양태를 띠게 되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가 지향하는 목표나 지도하는 수업 주제에 따라 명시화되는 내용교수지식(PCK)은 때로는 내용 지식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교수 방법이나 전략에 중점을 두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태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내용교수지식(PCK)은 수업 그 자체에 나타난 말과 행동 등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과 행동의 직접적인 배경 지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의 수업 전문성 중 수업 실체에 나타난 수업 아이디어와 수업 실천 행위,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천 지식을 내용교수지식(PCK)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순수한 형태의 교과내용지식이나 교수법 지식은 내용교수지식(PCK)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순수 내용 지식의 일반적인 제시나 순수 교수법 지식의 일방적인 적용 역시 내용교수지식(PCK)으로 보기 어렵다.

요약하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수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이라면, 내용교수지식(PCK)은 교과 수업에 드러난 교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배경 지식으로 교과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상황 지식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개별 교사의 종합적인 실천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사 지식을 구성하는 교과내용지식, 교수법 지식 및 상황 지식 영역의 영향을 받아서 재구성되는 지식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사 지식의 한 구성요소이면서 다른 지식들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교사 지식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통합과 변형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Shulman이 내용교수지식(PCK)을 제안한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내용교수지식(PCK)과 교사 지식의 영역에 대한 다양한 변형 모델을 제안하였다(Gess-Newsome, 1999; Grossman, 1990; Marks, 1990; Smith, 1999). 내용교수지식(PCK)에 대한 의미 규정과 특징 추출은 Shulman의 초기 정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하위 구성요소나 구체적인 특징

에 있어서는 연구자들마다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교수지식(PCK)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곽영순, 2007에서 재인용).

첫째,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사의 개인적 지식 영역으로서 각 교사별로 고유한 전문성이다. 즉,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사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내용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실천 지식으로서 교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험을 통하여 개발하고 축적해 온 것이다. 따라서 내용교수지식(PCK)은 주어진 교과 영역의 모든 교사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단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가르치는 상황, 내용, 경험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 각 교사별로 고유한 전문성의 영역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일부 교사들에게서 유사점이 발견되고 일부 교사들에게는 다른 점이 나타나지만, 내용교수지식(PCK)은 어디까지나 개별 교사들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의 지표(Loughran et al., 2004)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내용교수지식(PCK)의 위상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교과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학생 변인, 상황 변인 등 다양한 영역들이 내용교수지식(PCK)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임청환, 2003; Gess-Newsome, 1999; Loughran et al., 2004; Marks, 1990). 내용교수지식(PCK)은 그 본성상 내용 영역과 교수법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고유한 특징과 성질을 지닌 다양하고 복잡한 교사 지식의 혼합물(화합물)이다. 따라서 내용교수지식(PCK)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과 교수법이 결합된 혼합물로서 여러 영역에 걸친 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근원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이연숙, 2006). 또한 내용교수지식(PCK)은 다른 지식 영역을 완전히 포섭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지식 영역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독특한 지식 영역이다. 따라서 내용교수지식(PCK)과 교과 내용 지식, 교수법 및 상황 지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지식 영역들 간에는 호혜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Gess-Newsome, 1999).

셋째,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실수업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험적, 실천적 지식이다(임청환, 2003; Baxer & Lederman, 1999; Gess-Newsome, 1999; Grossman, 1990; Magnusson et al., 1999).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사의 실천 속에 내재된 암시적인 것이며, 오랜 기간의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서서히 개발된다(Loughran et al., 2004). 내용교수지식(PCK) 개발에서 교과 내용 지식은 필요조건으로 미리 전제되며,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사의 실제 교수 활동을 통하여 발달된다고 한다(Van Driel et al., 2002; van Dijk & Kattmann, 2006). 내용교수지식(PCK) 개발에서 가르친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하면, 예비교사나 초임교사는 대개 내용교수지식(PCK)을 거의 또는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van Dijk & Kattmann, 2006). 그래서 Marks(1990)는 내용교수지식(PCK)이 교수 활동과 전혀 무관한 교과 내용 전문가나 교과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는

교사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인 차원의 지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내용교수지식(PCK)은 실제 교실 수업에서의 반성과 적용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한다(임청환, 2003). 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과 교사의 실제 교실 수업은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은 수업 준비 및 수업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수업 활동은 그들의 내용교수지식(PCK)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교사의 반성적 수업 실천을 통하여 내용교수지식(PCK)은 향상될 수 있다고 한다(Osborne, 1998). Bond-Robinson(2005)은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화학과 대학원생들(조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내용교수지식(PCK)을 분석하여 발달 단계별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관련된 변인들을 진술하였다. 즉, 조교들이 지닌 화학적 지식과 요구되는 교수법적 세련됨을 기준으로 4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각 단계별 내용교수지식(PCK)은 그 이전 단계까지의 내용교수지식(PCK)을 선결 조건으로 필요로 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획득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이처럼 내용교수지식(PCK)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반성적 실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실천 지식이다.

다섯째, 내용교수지식(PCK)은 주제별로 달라진다(조희형 외, 2006; Van Driel, et al., 2001). 조희형 외(2006)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내용교수지식(PCK) 변형체들(variants)을 제안하지만, 내용교수지식(PCK)의 공통점은 가르치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실제 적용 과정에서 공유하거나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조희형 외(2006)는 내용교수지식(PCK)을 주어진 주제를 학생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상화하거나 형식화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조희형 외(2006)는 과학 내용교수지식(PCK)은 주제에 고유한 실제적 지식으로, 과학 내용교수지식(PCK)의 효과는 과학 분야나 주제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의 의사소통에서 학생 오개념을 극복하고 나아가 보다 유의미한 학습이 기여하기 위해 교사의 과학 내용지식을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Van Driel, Veal, & Janssen, 2001). Van Driel 외(1998)는 내용교수지식(PCK)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이 내용교수지식(PCK)의 본성과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과학 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사가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오개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표상과 수업 전략을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학 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 기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내용교수지식(PCK)은 교과별 교사 전문성의 요체로 간주되므로, 경쟁력 있

고 전문성을 갖춘 교과 교사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구인이다(임청환, 2003; Magnussoon, et al., 1999; Shulman, 1987). 내용교수지식(PCK)이란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내용 지식(teachers' content knowledge for teaching)으로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직의 내용 지식과 교사 지식(예: 의사와 생물교사의 지식, 물리학자와 물리 교사의 지식 등)을 차별화해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교과 내용 지식을 아는 것과 가르치기 위해 교과 내용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가르치기 위한 교과 내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for teaching)'을 지닌 교사만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Dijk & Kattmann, 2006). 따라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 목표를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 획득과 신장에 두어야 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교수지식(PCK)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에는 그에 적절한 수업 전략과 학생 오개념 교수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조희형 외, 2006; Cochran et al., 1993; De Jong et al., 2005; Magnusson et., al., 1999; Veal & Makinster, 1999).

일곱째, 내용교수지식(PCK)을 주관적인 표상으로 정의할 경우,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지식인 내용교수지식(PCK)을 포착하고 표상하여 공적인 지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Hashweh, 2005). 교사들의 교수 활동과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 교사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예: 관료, 정책 결정자 및 다른 교육 참관자)로부터 명백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내용교수지식(PCK)은 Shulman(1987)이 설명한 것처럼 교사 전문성의 핵심 요소이며,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개발되고 존중되어야 할 지식 유형이다. 교과별 및 주제별 내용교수지식(PCK)의 일부 일반화된 형태가 교사들에게 줄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관련 연구들이 성공적인 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에 대한 상세한 개관을 아직도 제공하지 못하여 어떤 포괄적이고 유의미한 종합이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Van Driel 등(1998)은 이러한 문제점을 주목하여 과학 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에 대한 연구는 유용한 일반화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 교육 과정을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과 교수법의 통합된 영역으로서의 내용교수지식(PCK)과 개별 교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용교수지식(PCK)의 표상과 변환을 구분해야 한다.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사의 수업 실천 속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교사 마음속의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내용교수지식(PCK)을 발견해 내야 한다(van Dijk & Kattmann, 2006).

이러한 내용교수지식(PCK)의 일곱 가지 의미와 특징을 고려할 때,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사의 전문 지식기반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식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컨설팅의 핵심적인 실천 영역이자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PCK라는 용어 대신에 가르치기 위한 교과내용지식(content knowledge for

teaching)이라는 표현이 선호되고 있다(곽영순, 2007). 이러한 변화는 교과내용별로 특화된 교사의 지식기반을 구체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PCK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교과내용지식의 중요성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Dewey(1897)는 이미 100여 년 전에 교수활동에 수반되는 내용지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내용지식의 특수한 성격을 지적하였다. 듀이는 특히 교사가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내용지식을 개념화하는 방식은 해당 학문영역에서 내용지식을 생산하거나 그 분야 내에서 그 내용지식을 적용하는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달리 말해서 과학이나 수학 교사들이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는 교과내용지식은 과학자나 수학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는 다르며, 또한 수학이나 과학을 활용하는 의사나 경제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지식과도 차별화된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교사나 수학교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지식의 독특한 성격은 아직도 연구나 학자들의 심각한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Shulman(1986, 1987)은 교사가 지닌 전문 지식기반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직은 집단 기억상실에 걸려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경력교사들은 교직경력을 통해 쌓아온 중요한 지혜를 기록하거나 공유하기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교사들은 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 지식 기반은 매우 복잡하지만, 교사지식에 대한 연구나 분석들에 이러한 복잡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쉽게 포착되지도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요약하면 내용교수지식(PCK)라는 용어에 내재된 의미의 애매함으로 인해 내용교수지식(PCK)이 탈맥락적인 전문용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명확한 점은 내용교수지식(PCK)라는 개념 속에 교수활동의 많은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내용교수지식(PCK)을 도구로 하여 특정 교과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동원되는 교사의 지식기반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재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내용교수지식(PCK) 측면의 수업컨설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교수지식(PCK)을 중심으로 한 교사 전문성은 현장의 수업 경험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교사 개인별로, 가르치는 주제별로 달라지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실천적이면서도 다양성을 띠는 실천 지식들은 교대 및 사대에서 이론 중심의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기 어려우며 오직 교사의 반성적 수업 실천을 통하

여 향상될 수밖에 없다. 즉,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일은 오직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교사 교육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learning to teach)이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이화진 외, 2006). 첫째는 관찰의 문제로, 교·사대 교육과정 및 현직 연수에도 불구하고 초임교사로 발령받으면 자신을 학생 때 지도했던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실행의 문제로, 교·사대에서 배운 이론 중심의 학습만으로는 현장에서의 수업 실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는 복잡성의 문제로, 수업 실행, 학생 지도, 업무 처리, 행사 준비 등 교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교사 고유의 직분인 수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은 교사의 수업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들로서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교사의 지속적인 수업능력 발달을 도모하는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수업컨설팅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게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이화진 외, 2006). 즉 자신이나 다른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관찰의 오류를 극복하며, 교실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추게 되며, 전문적인 조력가와 의견을 나누며 이론과 실천을 접목하는 공통의 교수 언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현실은 이러한 일상적인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장학 활동의 경우 장학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교사가 수긍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부재로 기존의 수업 장학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임찬빈 외, 2004). 현행 장학 활동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장학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다. 객관적 수업 장학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주관적 컨설팅이 되기 쉬운 점도 지적되었다. 수업 공개 거부 및 장학 기피 풍토도 거론되었다(이화진 외, 2006).

이러한 우리나라 현행 교사 교육과 수업 장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사가 주체가 되는 성공적인 수업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한 반성적 성찰을 촉진하는 형태로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지길 필요가 있다. 즉, 반성적 사고가 뒤따르지 않는 복잡하고 새로운 경험은 행위자의 도덕적, 개념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박은혜 외, 2004)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 현장과 교실 수업에 기초한 실천과 반성을 통해서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이루어진 교과 수업 장학이나 수업컨설팅은 우리

의 실천 경험과 유리된 외국의 수업 모형을 소개하고 적용하였으며, 반성적 사고가 결여된 채로 진행되어,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와 통과 의례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수업장학이나 컨설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을 전후로 교사 개인이나 교사 모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수업 전문성 제고 노력도 대부분 수업 자료 개발이나 공유에 집중되어 왔다(이화진 외, 2006).

수업컨설팅과 관련된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수업컨설팅 활동은 ‘동료 지원 및 평가(Peer Assistance and Review, PAR)’ 또는 ‘동료 중재 프로그램(Peer Intervention Program, PIP)’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PAR과 PIP의 차이는, PAR의 경우 교사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교사평가 활동까지 함께 수행하는 반면에, PIP의 경우 교사평가와 별도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PIP는 평가와 지원을 분리하여 중재하는 교사가 부딪힐 수 있는 딜레마와 어려움을 면해 주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PAR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컨설턴트 교사와 초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이화진 외, 2006).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교사가 동료 교사를 지원하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즉 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수업 지원과 평가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과 수업컨설팅 역시 교사가 주체가 되어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사 교육이 교사로서의 일반적인 소양이나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등 교육 현장이나 수업과 유리된 ‘탈맥락적인 전문성’을 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수업의 실제 상황 속에서 개별 주체로서의 교사가 동료 교사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주도적인 전문성 신장 과정인 ‘교과별 수업컨설팅’이 요청된다.

교과 수업컨설팅은 맥락적이고 개별화된 교과별 수업 전문성 발달의 핵심적인 과정이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 수업컨설팅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컨설팅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컨설팅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표 1-1〉 교사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의 유형

교사 컨설팅	수업컨설팅	일반 수업컨설팅
		교과 수업컨설팅: 교과별 PCK 수업컨설팅
	수업외 컨설팅	담임 및 생활지도 컨설팅
		행정 업무 컨설팅
		교직 소양 컨설팅
학교 적응 컨설팅		

※ 컨설팅은 실제적인 과정이므로 유형들 사이에 아주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교사 컨설팅’의 경우에는 교사의 전반적인 역할(수업, 담임, 생활지도, 행정 업무, 교직 소양, 학교 적응 등)과 관련된 소양과 전문성을 길러 주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사 컨설팅은 수업에 대한 컨설팅과 수업 외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수업컨설팅’은 주로 교실 수업의 장면에서 필요한 교수 내용, 방법 및 전략, 분위기 조성 등 수업에 필요한 배경 지식, 수업 설계, 수업 실행 등에 초점을 맞춘 수업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수업컨설팅은 다시 일반적인 수업컨설팅(이하 ‘일반 수업컨설팅’)과 교과별 수업컨설팅(이하 ‘교과 수업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수업컨설팅과 교과별 수업컨설팅은 모두 수업 내용과 교수 활동 전반을 관찰하여 반성하는 과정이지만, 일반 수업컨설팅의 경우에는 수업 내용 및 교수 활동과 함께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 학습 집단 조직이나 분위기, 상호 작용 등 수업 전체를 모두 초점에 둔다. 반면에 교과 수업컨설팅은 일반 수업컨설팅에 비해 수업 내용 및 교수 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교과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 교과 목표 및 내용의 선정과 조직, 효과적인 교수 활동 여부 등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내용교수지식(PCK)은 교과별 수업 전문성 기준을 구성하는 주체에 따라 명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다른 요소와 기준에 내재되기도 하지만, 내용교수지식(PCK)이 교사의 교과 수업 전문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내용교수지식(PCK)은 교사의 교과 수업 전문성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교과 수업컨설팅의 가장 주된 유형으로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에 대한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곽영순 외, 2007).

앞서 내용교수지식(PCK)의 의미와 특징에서 살펴본 것처럼, 맥락적이고 개별화된 교과별 수업 전문성의 핵심은 교사들에게 체화되어 있는 내용교수지식(PCK)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수업컨설팅의 핵심은 ‘내용교수지식(PCK)에 초점을 둔 수업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과별 수업컨설팅(안)의 초점은 일반적인 수업컨설팅 방안이 아니라,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에 초점을 둔 수업컨설팅(안)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수업컨설팅(안) 개발에 앞서, 일반 수업컨설팅과 차별화되는 ‘내용교수지식(PCK)에 초점을 둔 교과별 수업컨설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교수지식(PCK)에 초점을 둔 수업컨설팅은 수업 내용 및 교수 활동의 효과적인 연계, 즉 교과내용과 교수 활동 사이에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컨설팅을 실시한다. 둘째, 내용교수지식(PCK) 수업컨설팅은 특히 교사의 지식이 어떻게 수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연계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 내용교수지식(PCK) 수업컨설팅은 가르치는 주제별로 둘 이상의 교사들을 상호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교수지식(PCK)을 신장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곽영순 외, 2007).

최근의 교사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이론이 아니라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조덕주 외, 2007; Korthagen et al., 2001). 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 함께 반성과 탐구의 과정을 거치고 실천적 지혜를 획득하고, 나아가 관련 이론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이화진 외, 2007). 내용교수지식(PCK) 수업컨설팅 프로그램 역시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실제 수업 사례에서 출발하여, 반성과 탐구의 과정을 거쳐 내용교수지식(PCK)에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과 처방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 연구는 교과별 교사의 전문성 중에서도 교사의 수업 전문성, 그 중에서도 초임 및 경력교사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교수지식(PCK)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컨설팅 방안(초임교사 입문 프로그램으로서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다. 2007년도까지의 내용교수지식(PCK) 연구에서는 현장 교사들(주로 경력교사들)과 그들의 수업에서 어떻게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을 발굴·개발하여 일반화할 수 있을가에 초점에 두었다면 올해 연구에서는 초임교사교육에 내용교수지식(PCK)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만들어질 초임교사 수업컨설팅 프로그램은 초임교사의 학교 현장 입문(induction)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의 교생실습(internship)이나 경력교사를 위한 재교육에도 일부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내용교수지식(PCK)과 초임교사 입문 프로그램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실천지식(PCK)에 초점을 둔 수업컨설팅(안) 개발이다. 멘토링 중심의 입문 프로그램의 특징과 쟁점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초임교사 지원을 위한 입문 프로그램에서 내용교수지식(PCK)의 역할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초임교사 입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교과별 수업컨설팅 방안 개발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별로 내용교수지식(PCK)에 초점을 둔 입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적절한 교과내용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교사가 필요로 하는 교과내용에 대한 준비 수준은 그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에 따라 달라지며, 고급 과목을 가르치려면 교사는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교과내용 자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더불어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초임교사들의 경우 해당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을 탐구하는 교과교육방법론 과목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는다고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전공과목을 이수했는지 보다는, 교과와 관련된 특정 개념이나 절차를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교사가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Ingersoll & Kralik, 2004). 이렇게 교과별 교수방법, 교실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교과별 학생평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영역이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이다. 따라서 초임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 방안을 개발할 때도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과별 입문 프로그램(content-specific induction)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과별로 특화된, 교과별로 고유한 교사지식의 측면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내용교수지식(PCK)을 포함하여 교사지식의 묵시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컨설팅(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초임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 방안 개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력교사가 지닌 교사지식기반을 어떻게 초임교사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만들 것인가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초임교사들이 경력교사를 관찰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Calderhead, 1988). 매 세대를 거듭하여 초임교사들이 경력교사들이 거쳐 간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경력교사가 터득한 교사지식기반을 다른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형태

로 전환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묵시적인 교사의 지식기반을 드러낼 수 있는 절차와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절차와 기술을 통하여 교수활동의 지식기반을 탐색하고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론과 실천의 연계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상호보완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경력교사들은 이론과 연계하거나 문제해결 과제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력교사들은 교실에서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천을 활용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러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높은 전문성을 지닌 경력교사들의 의사결정은 일종의 묵시적인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그들의 개인적, 전문적 실천과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이다.

이렇게 경력교사들이 이론을 참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흔히 논의되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 문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이론과 실천의 간극으로 인해 초임교사들은 대학교육과정은 이론과,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은 실천의 영역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이러한 신념에 내재된 위험은 개별 경력교사의 경험과 실천에서 권위가 나오므로,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초임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 방안을 개발할 때는 초임교사들이 이론과 실천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즉, 초임교사가 형식적 이론과 교사의 실천적 지식 사이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컨설팅(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입문 프로그램에서는 현장 중심, 실천 중심의 멘토링을 지향해야 한다.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멘토링은 초임교사 교육 및 입문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어왔다. 이는 전문직의 실천적 전문성 개발은 실제 직업 현장에서 그 분야의 전문적 실천가, 즉 경력교사와 협력하여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앎의 핵심은 학습과제나 교과학습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는 점이다. 교사로서의 전문적 지식 구성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경험은 교사들이 실천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접근하여 해결방법을 실행하고 그들의 실천의 성과를 이해하는 과정에 동원하는 체제 자체에 영향을 준다.

초임교사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현장에 발령을 받아 교수활동의 리얼리티에 직면하면 많은 초임교사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만족스럽지 못했던 수업방식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업컨설팅(안)을 통하여 초임교사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은 앎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프랙시스이다. 즉, 앎을 실천으로 옮기고 종합하는 프랙시스 과

정을 초임교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예비교사교육은 물론 초임교사 입문 프로그램에서도 보다 체험적이고 임상적인 접근을 취해야 지향해야 한다. 가르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실제 교수활동 상황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Porter et al., 2001).

끝으로 초임교사 입문 프로그램에서도 개념변화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개념변화와 유사하게 교수학습에 대한 초임교사의 선행 관점을 바꾸어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수학습에 대해 초임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선행 지식이나 신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되고 지속적이다. 논리만으로는 초임교사들이 16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교사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무심코 학습한 초기의 수업방식을 바꾸기가 어렵다. 실제 교실에서 개혁이 구현되려면 초임교사들의 인식론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특정 교과를 가르친다는 것과 그 교과를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임교사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결국 교육에 대한 초임교사들의 사고방식에서의 개념적 변화가 요구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수학습에 대한 초임교사들의 선행 관점과 신념을 드러내어 명시적으로 다루고, 새로운 실천방식의 사례를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요약하면, 초임교사들에게 최소한의 교과별 교수법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이나 기술은 일차적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 증가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지니고 있는 교과내용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을 현장경험을 통하여 향상시키고자 한다. 즉, 현장의 초임교사 지원을 위한 교과별 수업컨설팅(안)을 통하여 초임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특징과 의미

교과별 PCK에 대한 정의는 Shulman(1986)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교과 내용의 특성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Shulman(1986)의 PCK 정의는 특정 교과에 대한 PCK 정의가 아니라 범교과적 차원의 정의였기 때문이다. 다른 내용교과와 달리 영어 교과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영어과 PCK의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범교과적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에 PCK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내용 지식 연구를 살펴보면 교과별로 차이가 있다. 영어 교육(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에서는 과학이나 사회 교과와 같은 내용 교과와 비교해 볼 때, 내용 교수 지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Tsui, 2003). 또한 모국어로써 영어(L1) 교육에서는 교사 지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Grossman, 1990; Hillocks, 1999),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써 영어 교육 분야에서 내용 교수 지식 연구가 미비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영어 교과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Tsui & Nicholson, 1999).

먼저, 영어 교육은 다른 내용 교과목과는 달리 제 2언어(second language, L2)인 영어가 교수·학습 활동의 도구이자 동시에 학습 목표이다. 영어 사용과 관련된 네 가지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과 영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음성학적, 음운론적, 통사론적, 담화론적, 어휘론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언어학적 지식을 언어 습득 과정에서 요소별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영어 교육에서 교사 지식에 교사의 영어 구사력이 교사 지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타 교과와 다른 점이다. Freeman(2002)은 내용 교수 지식은 영어 교과목에 적용하기에 정돈이 되지 않고 또한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교사의 교과지식은 언어학적인 요소인 반면,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언어에 대한 개념은 그들의 모국어에 기초하고 있어 교실에서 모국어와 외국어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Freeman(2002)은 교실에서 '교사의 언어 지식', '학습자의 모국어'와 'L1과 L2의 상호작용' 이 세 가지 표상(representation)이 상충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어교사의 내용 교수 지식은 학습자의 모국어(L1)와 외국어(L2)에 대한 이해도 포함하고 있어 단일 언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목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과 PCK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이자 영어교육에서 PCK가 잘 정립되지 않는 이유로 설명되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L1)로 삼는 원어민 영어교사(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NESTs)와 외국어(L2)로 삼는 비원어민 영어교사(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간의 구별이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그들의 모국어인 영어 사용 능숙도와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에 대한 이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 반면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영어와 문화 이해면에서 원어민과 차이를 보이지만, 학생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경석, 2006; Medgyes, 1992). 이와 같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차이는 내용 지식, 일반 교수법, 학생 지식, 상황 지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교사의 PCK가 다르게 나타난다. 영어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는 전 세계 교사의 80% 이상이 비원어민 교사인 현실(Canagarajah, 1999 참조)을 고려해 볼 때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 간의 PCK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매우 적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와 같은 영어 교과의 특징을 고려하여 영어과 내용 교수 지식의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영어과 내용 교수 지식은 교사가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 영어 학습 이론에 대한 지식 및 영어 구사력을 주어진 수업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수업 실행 지식이다.’

Andrews(2007)는 Freeman(2002)이 지적인 교실에서 ‘교사의 언어 지식’, ‘학습자의 모국어’와 ‘L1과 L2의 상호작용’ 이 세 가지 표상에서 나타나는 상충과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간의 언어적 능숙도, 맥락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오는 영어과 PCK 특징을 고려해서 ‘교사의 언어 사용 지식 또는 영어 사용 감각(teacher language awareness, TLA)’ 요소가 영어교사의 언어 구사력(teacher proficiency)과 언어학적 지식 간에 매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LA는 영어 능숙도와 언어학적 지식과는 달리 영어의 실제 사용 지식,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언어 사용 지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drews(2007)가 제안한 TLA는 원어민 영어교사라고 해서, 즉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이나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교사는 TLA가 부족한 것이며 또한 비원어민 영어교사라고 TLA가 부족한 것은 반드시 아니다(Wright & Bolitho, 1993).

앞서 제시한 영어과 내용 교수 지식에 관한 문헌을 바탕으로 영어과 PCK 구성 요소 추출과 관계 규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영어과 PCK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지식 영역(예: 학습자 이해, 교육과정 이해 등)과 상황 변인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과 PCK를 구성하는 요소 추출에 상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영어과 PCK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천지이며 PCK 요소 추출은 교사가 갖고 있는 실천 속에 내재된 암묵적인 PCK를 명시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풀어내기 위해 필요하다.
- 영어과 PCK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제고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정된 영어과 교육목표에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영어교사의 전문적인 노력이 PCK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PCK는 학습 주제, 교사, 문맥, 학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됨을 이해할 수 있다.
- 영어과 PCK의 구성요소는 교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고 다양화된다. Shulman(1987)

이 내린 범교과에 적용되는 내용 교수 지식 개념 틀을 바탕으로 영어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영어과 PCK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또한 범교과에 적용되는 내용 교수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기본 틀로 삼아 영어 교과 특성을 고려해 PCK 구성 요소를 세분화하여 하위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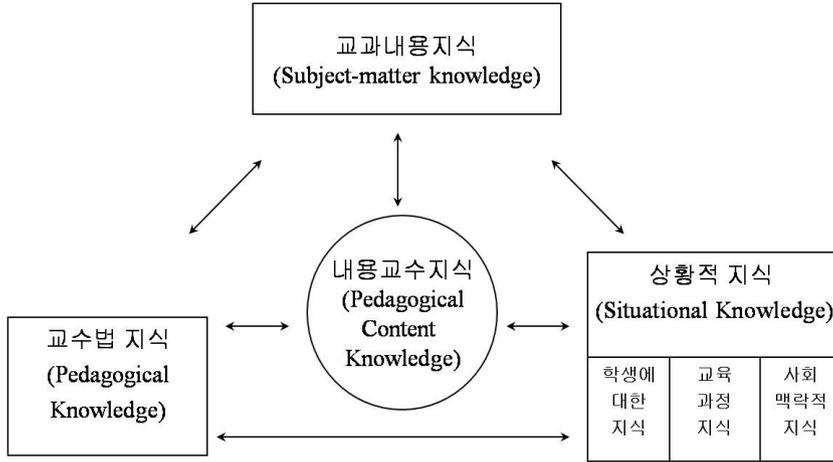
3.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컨설팅(안) 개발 틀

영어과 중등 초임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 방안 개발 과정을 개발 틀과 절차로 나누어 기술한다. 개발 틀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초임 영어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수업컨설팅 방안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영어과 중등 초임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안)의 구조는 내용교수지식(PCK)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다. 영어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내용교수지식(PCK)은 ‘영어교사가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 영어 학습 이론에 대한 지식 및 영어 구사력을 주어진 수업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수업 실행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장경숙, 2007).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은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 발달은 수업활동을 통해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그림 VII-1] 참조).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하위 지식 영역이 교사의 수업을 통해 상호 작용하여 내용교수지식(PCK)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은 특정 주제별로 또는 교수 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같은 주제라고 해도 교사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중등 초임교사 수업컨설팅 방안은 영어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개의 대범주 요소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기본 틀로 삼아 개발된다. 내용교수지식(PCK)을 구성하는 대범주별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경숙, 2007).



[그림 1-1]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구성요소

가. 교과 내용 지식 영역

영어과 PCK에서 교사가 지니고 있는 교과 내용 지식영역은 <표 1-2>에 제시한 것처럼 언어학적 지식, 언어 사용 지식, 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영어과 교과내용 지식 영역의 하위 구성요소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교과 내용 지식 (subject-matter knowledge)	언어학적 지식 (linguistic knowledge)	음운론적 지식
		어휘 지식
		문법, 통사론적 지식
		화용론적 지식
		문화 지식
	언어 사용 지식 (language awareness)	언어구사력
		정확한 언어 사용 능력
		적절한 교실영어 사용 능력
	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	듣기 학습 이론 지식
		말하기 학습 이론 지식
		읽기 학습 이론 지식
		쓰기 학습 이론 지식
		기능 통합 학습 이론 지식

영어의 언어학적 지식은 언어의 최소 단위인 음소(phoneme)에 대한 지식부터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과 그 의미를 다루는 화용론(pragmatics)에 이른다. 언어학적 지식은 영어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네 가지 기능 지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음운론적 지식은 발음지도를 비롯하여 읽기지도, 말하기 및 듣기 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언어 사용 지식 영역은 네 기능별 영어 구사력,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언어 사용 능력, 교실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실영어 사용 능력을 포함한다. 언어 사용 능력은 언어 구사력보다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원어민이 갖고 있는 구사력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 비원어민 영어교사 모두에게 요구되는 문맥, 상황에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사 언어(teacher talk)는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Lightbown & Spada, 1999). 학습자 중심 영어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의 언어를 변형함으로써 좀 더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교실영어 사용을 가리킨다.

교과 관련 내용 지식의 마지막 영역은 네 기능별 학습이론에 대한 지식이다. 이 영역에서는 연구 결과에 기초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도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이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는 네 가지 기능 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나. 교수법 지식 영역

교수법 지식 영역은 <표 I-3>과 같이 수업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영역을 분류하였다(임찬빈 외, 2004; 임찬빈 외, 2006). 먼저 수업 설계단계에서는 수업 목표를 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구안하고 사용될 학습 자료, 활동, 매체, 자원 활용과 같은 요소가 있고, 또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업 실행 단계는 계획 단계에서 선정한 수업 목표 제시, 수업 단계별 또는 활동에 따른 절차의 명료한 제시, 수업 진행에 적절한 교수 전략(명확한 설명, 적절한 예시 활용, 요점 정리 등), 자료와 매체의 효과적인 활용, (소)집단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 질문 언어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학생의 발화 유도,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피드백, 오류 수정 영역이 포함된다.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학습 분위기와 학급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심리적 차원에 속하는 영역과 물리적 차원에 속하는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Borich,

2007; Ornstein & Lasley, 2004).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존중은 좋은 분위기의 기본이다. 학습자 동기유발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는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가 무엇이며 얼마나 강한지는 학습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Arnold, 1999).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에 대한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의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일부 학생의 돌출 행동이나 수업 방해는 수업 진행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학생의 관리 및 통제, 학급의 전반적인 운영 영역이 학습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업 후 이루어지는 평가에서는 선정된 수업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평가는 학생의 성취 정도나 개선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모든 유형의 평가 활용 자체보다는 평가 결과를 후속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Borich, 2007; Hughes, 1989; Ornstein & Lasley, 2004).

〈표 1-3〉 영어과 교수법 지식 영역 하위 구성요소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교수법 지식 (pedagogical knowledge)	수업 설계	수업 목표 선정
		수업 전략 구안
		학습 활동 및 과제 부과 계획
		수업 자료와 매체, 자원 활용 계획
		학생평가 계획
	수업 실행	수업 목표 제시
		명료한 수업 절차 및 지시어 제시
		다양하고 적절한 수업 전략 적용
		학습 활동 및 과제 부여
		수업 자료와 매체, 자원 활용
		집단 활동 운영
		질문 언어 사용(questioning, eliciting 책략)
	피드백 제공(오류 수정 등)	
	학습 환경 조성 및 학급 환경	상호작용과 존중
		학습 동기유발 및 기대 수준 제시
		학생 행동 관리
		학급 운영
	평가	평가 실행
		평가 결과 활용

다. 상황 지식 영역

상황 지식 영역은 [그림 I-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에 대한 지식 영역, 교육과정 지식 영역, 및 사회 맥락적 지식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학습자에 대한 이해

영역을 보면,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이며 학습자 관련 변인에 따라 교수 활동의 효과가 달라진다(Brandes, 1986; Tudor, 1997). 학습자 중심 또는 수요자 중심 영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무리 좋은 교수 학습 자료일지라도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란 어렵다.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에서는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교수 모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생 상호 간의 협동학습이 강조되고 있다(Crandall, 1999).

학습자 이해 영역은 <표 I-4>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학습자 배경과 학습자 특징으로 나뉜다. 학습자는 백지상태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전 학습 경험을 가지고 오게 된다. 학습자 모국어의 특징, 연령과 현재 발달 단계, 요구와 관심 등에 대한 이해는 수업 준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의 수업 전략은 학습자의 특성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가 갖고 있는 학습 스타일, 학습 전략을 파악하여 교사는 이에 맞는 다양한 수업 전략 및 활동을 준비하게 된다. 학습 스타일과 전략은 학습자가 속한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Reid, 1995). 예를 들어, 아시아권의 학생이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과 유럽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에는 차이가 있다. 영어 학습 동기는 무엇이며 얼마나 강하고, 영어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

<표 I-4> 영어과 학습자에 대한 지식 영역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 배경	학습자 연령
		학습 경험
		언어 배경
		발달 단계
		요구
		관심
	학습자 특징	학습 스타일
		학습 전략
		학습 동기
		학습에 대한 태도
		자신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영역은 교사의 교육과정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발자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이다. 교사는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목표, 내용, 성취수준 등을 이해하고, 학생들과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교실에서 해석하고 조정하여 실천하는 주체이다. 영어과 교육과정은 크게,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영역으로 나뉜다(<표 I-5> 참조).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이 재구성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다. 여기서 교사의 개인차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표 I-5〉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영역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성격	일반적 성격
		학교급 별 성격
	목표	공통 목표
		학교급 별 목표
	내용	언어 기능
		의사소통활동
		언어재료(소재, 어휘, 문장 길이)
		학년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학교급 별 교수_학습 방법
	평가	학교급 별 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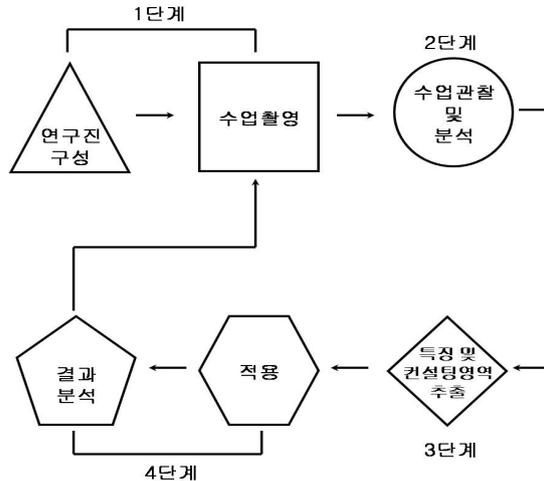
사회맥락에 대한 지식 영역은 학교 환경 영역에는 인적과 물적 자원 요소가 있는데, 인적 자원으로는 동료 교사, 학교장, 행정직원 등이 있고 물적 자원에는 기자재, 어학실 등이 포함된다(<표 I-6> 참조). 학부모의 배경, 학교에 대한 또는 자녀에 대한 요구와 기대 등도 영어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많은 학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영어를 좀 일찍 시작해서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영어 학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만큼 학교 영어교사나 교육에 거는 기대가 높다. 지역 사회의 주변 교육 환경, 시도별 교육청의 개선 의지 및 지원 등도 영어교사의 내용교수지식(PCK)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I-6〉 영어과 사회 맥락에 대한 지식 영역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사회 맥락에 대한 지식	학교 환경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학부모	배경
		요구
		기대
	지역사회	교육 환경
		지원 체제

4.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컨설팅(안) 개발 단계

영어과 중등 초임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 방안은 앞서 제시된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범주를 기본 틀로 삼아서 [그림 I-2]와 같이 네 단계 절차를 밟아서 개발되었으며 각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2]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컨설팅 절차

가. 1단계: 연구진 구성 및 수업 촬영

첫 단계에서는 먼저 초임교사 수업컨설팅을 위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초임교사, 경력교사, 국·내외 교과 전문가로 구성되었다(<표 I-7> 참조).

초임교사 A, B, C 모두 본 연구를 시작할 때 약 3개월의 교직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교직에 입문하였다. 지난 입문기간 초임교사들이 자주 경험한 것은 양성기관에서 배운 내용과 현장과의 괴리였다. 신규교사를 위한 연수에 참여하였으나 너무 짧았고, 연수에서는 수업보다는 다른 업무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초임교사 B와 C는 타 교과 초임교사가 내용교수지식(PCK) 연구를 통해 수업컨설팅을 받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교사인 A를 초대하여 교육적 성찰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 초임교사 A, B, C는 초임교사답게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연구에 임하였다.

〈표 1-7〉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컨설팅 연구진 구성

참여자	전공	교직 경력	수업 연구 및 컨설팅	
초임교사	A	영어교육	6개월	교사 D, E, G, H, 국·내외 전문가의 수업컨설팅
	B	영어교육	6개월	교사 D, E, F, 국·내외 전문가의 수업컨설팅
	C	영어교육	6개월	교사 F, G, H, 국·내외 전문가의 수업컨설팅
경력교사	D	영어교육	21년 8개월	협동학습 연구회 S부대표 수업 연구 관련 교사 연수 학업성취도평가 연구 참여 재량활동 교재 연구 참여
	E	영어교육	20년 6개월	S시 교육청 위촉 교과장학위원 S시 N부 교육청 영어 원어민 수업장학위원
	F	영어교육	19년 5개월	교과부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심사위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연구 참여 2007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연구 수업컨설팅
	G	영어교육	12년	교과부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심사위원 2007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연구 참여
	H	영어교육	13년	S시 수업장학 지원단
국·내외 교과 전문가	I	영어교육	3년 8개월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연구 수행 수업컨설팅 관련 교사 연수
	J	영어교사교육	대학	호주 NSW주 영어교사 교육 호주 NSW주 문식성 교육 연구
	K	교육과정	대학	호주 NSW주 교육과정 연구 호주 NSW주 교사 지원 연구

경력교사 D, E, F, G, H의 경우 모두 최소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갖고 있다. 비록 경력교사의 수업 관찰과 장학이 이루어진 문맥과 목적이 다소 다르지만 모두 수업 연구 경험을 갖고 있으며 활발히 활동 중이었다. 특히 교사 F와 G의 경우 2007년 연구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내용교수지식(PCK) 측면에서 촬영하고 분석한 경험이 있는 경력교사이다.

국·내외 교과 전문가 I의 경우 영어과 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임교사의 수업 촬영, 동영상 탑재, 분석 자료, 협의회 개최, 수업컨설팅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였다. 전문가 J의 경우,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교육 전문가로서 영어교사 교육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내 초임교사의 교실 언어 사용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전문가 K의 경우 특히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과 교사 지원 체제 구축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반 교수법 측면에서 국내 초임교사의 수업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영어교과에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나 과학과 같은 내용교과와는 달리 목표어가 수업을 진행하는 언어이므로 교사의 영어 구사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사의 목표어 사용에 대한 국

의 전문가의 수업컨설팅은 초임교사들에게 목표어 사용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초임교사, 경력교사, 교과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한 다음, 초임교사 A, B, C의 수업을 1차 촬영하였다. 1차 수업 촬영 시 중요한 점은 평상시 수업을 촬영하는 것이었다. 사전 연습된 시범 수업이나 모범 수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영어교육 현장을 촬영하였다. 이는 제공받게 될 수업컨설팅은 예외적인 수업이 아닌 주어진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평상시 수업을 대상으로 하기되기 때문이다. <표 I-8>은 초임교사 A, B, C의 1차 수업촬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동일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B와 C의 경우 동일한 학년을 촬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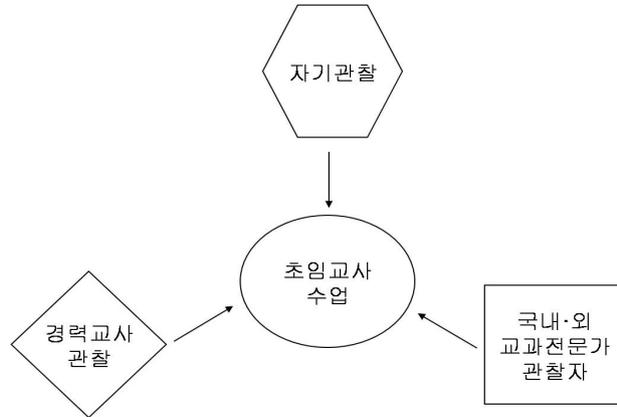
<표 I-8> 영어과 초임교사 1차 수업 분석

초임교사	지도 학년	단원	목표
A	중 1학년	Lesson 4: Mina is visiting America	방향 묻고 답하기
	중 3학년	Lesson 4: Communications across generations	이야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B	중 2학년	Lesson 5: How to cook potato salad	어휘 이해 및 활용
C	중 2학년	Lesson 5: How to cook potato salad	어휘 이해, 본문 내용 이해

나. 2단계: 수업 관찰 및 분석

초임교사의 1차 수업 촬영 후 수업 동영상을 웹에 탑재하여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직접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관찰을 할 수도 있었다. 관찰자는 자신의 여건에 맞추어 탑재된 수업을 관찰하였다. 수업 관찰은 [그림 I-3]에서 보듯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세 집단에서 참여하게 된다.

먼저, 수업을 한 초임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였다. 자기 수업 관찰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보게 되어, 특징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Richards & Lockhart, 1994). 수업컨설팅 측면에서 볼 때 외부 관찰자로부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고양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컨설팅에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Wallace, 1991).



[그림 1-3] 영어과 수업 관찰 및 분석 구조

다음은 경력교사가 초임교사의 수업을 관찰하였다. 경력교사는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 교사로서 경력을 토대로 수업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게 된다. 멘토링에 참여한 교사의 수업관찰은 초임교사의 수업 성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멘토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경숙, 한은미, 2007; Moon, 1994).

국내·외 교과 전문가의 경우 경력교사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직 경험과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 교과의 특성을 살려 국외 전문가를 수업 관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초임교사, 경력교사, 외부 교과 전문가는 탑재된 수업을 관찰할 때 본 연구에서 제공되는 관찰 도구를 사용하였다. PCK 측면에서의 수업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제시된 영어과 수업컨설팅 틀에 맞추어 개발된 수업관찰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틀에 맞추어 수업을 단계별(수업전, 수업, 수업후 단계)로 관찰하였다(<표 1-9> 참조).

〈표 1-9〉 내용교수지식(PCK) 영역에 따른 수업 관찰 도구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 단계)	교과내용 지식				
	일반교수법 지식				
	상황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사회 맥락적 지식					
수업 중 (시작-마무리)	교과내용지식				
	일반교수법 지식				
	상황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지식			
사회 맥락적 지식					
수업 후(종합)	교과내용지식				
	일반교수법 지식				
	상황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지식			
사회 맥락적 지식					

수업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내용교수지식(PCK) 측면에서의 관찰도구와 함께 일반 교수법 영역을 좀 세분화하여 <표I-10>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관찰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2007년도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연구 결과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일반 교수법 관련 영역이 자주 논의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찰 도구를 사용하였다(장경숙, 2007).

〈표 1-10〉 일반 교수법 지식 관련 관찰 도구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 참고	학습목표(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상호작용 (학생_학생 간; 학생_교사 간)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만족스런 점			
	개선 점			
	기타			

각 관찰 도구는 각각의 영역에 따라 관찰 사항을 기록하고 관찰된 사항에 대한 관찰자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해당 영역에 대한 논의나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메모하고 이를 협의회에서 논의하였다.

다. 3단계: 초임교사 수업 특징 및 컨설팅 영역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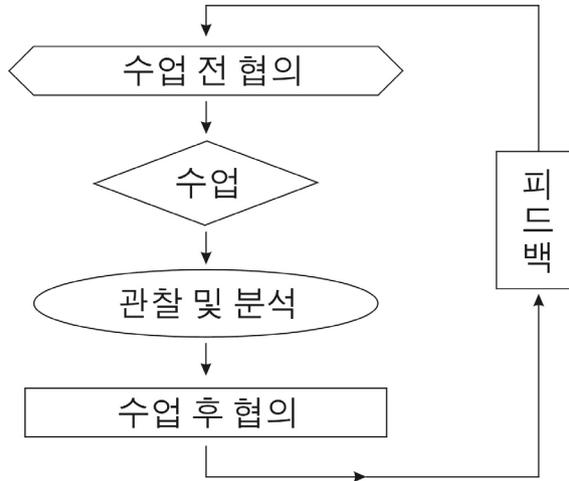
제시된 도구를 사용하여 수업 동영상을 관찰한 다음 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초임교사 A, B, C의 수업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 중 경력교사와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 이 요구되는 영역을 추출하였다. 자기 관찰, 경력교사 관찰, 외부 전문가의 관찰 내용을 분석하여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초임교사들이 수업 경험을 통해 경력교사나 교과 전문가의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여기는 영역도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초임교사 A, B, C 모두 지적한 학생 통제의 어려움과 모국어와 영어 사용, 초임교사 B의 경우, 진정성(authenticity)이 높은 자료의 난이도 조절, 초임교사 C의 경우, 효과적인 어휘 지도법, 다른 기능과 쓰기 기능의 통합 지도 등이 지적되었다. 이는 본 수업컨설팅(안)이 초임교사의 개별적 요구에 맞추고자 개발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수업 관찰 및 분석을 통한 컨설팅 영역 추출 과정에서 경력교사와 외부 교과전문가는 초임교사의 수업의 어떤 부분이 맞고 틀리다는 식의 흑백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판단적이고 발전적 접근법을 취하도록 하였다(Gebhard, 1984). 이런 접근법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어서 초임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게 된다.

라. 4단계: 컨설팅에 따른 대안 적용

이 단계에서 경력교사와 외부 전문가는 개선점으로 추출된 영역에 대하여 경험, 지식, 연구 등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주어진 문맥에서 적용 가능하고 효과적이라고 경험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된 수업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대안 제안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교실 연구와 관찰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탈맥락적 제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임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교실 상황은 주어진 맥락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직관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에 바탕을 둔 제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초임교사는 경력교사와 외부 교과 전문가로부터 제시된 전략을 자신의 교실 수업에

적용하고, 이를 다시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적용의 효과를 얻게 된다. 적용 결과가 예측한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 첫 단계의 수업 분석과 협의회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 새로운 문제점이 관찰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될 수도 있다. 연구 협의진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협의회를 가졌다. 특히 국외 협의진의 경우, 온라인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1-4] 영어과 수업컨설팅 협의회 절차

[그림 1-4]에서 보듯이, 영어과 수업컨설팅 과정은 수업 관찰 단계, 관찰, 분석, 적용의 단계를 거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 과정은 Kemmis와 McTaggart(1988)가 제안한 실행연구 모형과 유사하다. 그들의 실행연구 모형에 따르면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사이클은 문제점 진단, 대안 모색, 적용, 평가 단계로 이어지며 교사가 수업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이클은 끊임없이 반복된다(Wallace, 1998). 이점은 본 수업컨설팅을 통해 강조된 점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행연구 모형과 유사하다.



|| 영어과 중등 초임교사 수업 컨설팅 실제

1

교과내용지식 측면의 수업컨설팅

2

교수법 지식 측면의 수업컨설팅

3

상황 지식 측면에서의 수업컨설팅

II. 영어과 중등 초임교사 지원을 위한 수업컨설팅 실제

영어과 초임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 방안의 실재를 살펴본다. 제시되는 수업컨설팅 방안의 적용 결과는 수업컨설팅 방안의 단계별로 수집된 수업 자료, 온·오프라인 협의회 자료, 이메일, 면담 자료, 수업노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영어과 초임교사 수업컨설팅(안)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교수지식(PCK) 대범주와 그에 따른 중영역과 소영역 분류에 따라 이루어진 수업컨설팅 사례의 일부를 제시한다.

1. 교과내용지식 측면의 수업컨설팅

영어과 PCK의 교과내용지식 영역은 <표 I-2>에서 보듯이 교사의 언어학적 지식, 언어사용지식, 언어습득 및 학습 이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대한 초임교사 A, B, C의 수업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가. 교사의 영어와 모국어 사용

수업 중 교사가 어느 정도의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가는 초임교사 A, B, C 모두 처음 교직에 입문하면서부터 줄곧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초임교사 A의 수업 분석 노트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A: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약 80이상을 영어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잘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점점 영어 사용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어 사용 분량이 더 많아졌다. 모국어 사용이 편안하다보니 점점 목표어인 영어 사용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업 촬영 때 매우 긴장을 하고 불편했다. ... 이후 내 수업을 보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었다. 근데 어디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매우 난감하다. (자기 수업 분석 노트)

경력교사 D는 협의회에서 초임교사의 교실 영어 사용의 필요와 중요성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전달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중 가능한 많은 영어를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수업 분석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D: 한국 상황이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EFL 상황이므로 교사의 영어 입력은

아이들의 영어 학습에 매우 중요한 입력 자원이 된다. 또한 우리 교사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성인 영어 학습자이므로 우리 자신의 영어 능력을 유지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교실에서의 영어 사용은 가능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나도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였고 우리말이 편안하기도 하였지만 그때가 고비였던 것 같다. 그 고비만 넘기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 (수업 분석 협의회 자료)

한국 초임 영어교사의 언어 사용에 대하여 국외 교과 전문가 J는 초임교사 A, B, C의 수업을 관찰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초임교사로 하여금 교실에서 교사가 하고 있는 언어 선택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도왔다.

J: Choices of language in instruction for how to do an activity, and for teaching and for checking learning:

-using English alone

-switching between languages- e.g. an English expression that seemed to be glossed or translated in Korean, an explanation in Korean summarized by an English expression

-Using Korean only

Here are some questions in relation to instruction for how to do an activity:

-Are there particular moments in the class that you would choose one of these decisions?

-Are there particular reasons why you would choose one of these decisions?

Here are some questions in relation to teaching and checking learning:

-Are there particular areas of language teaching where you would choose one of these more than the others? -e.g. when teaching a new word, checking that an already-introduced word is 'known', or explaining an expression that a child seems to have forgotten? (수업 분석 자료)

국외 전문가 K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초임 교사에게 던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초임교사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K: What did the students gain from the use of Korean when initially speaking about the visit?

A: It's easy to control the class.

K: You have lots of clues such as pictures. Why don't you try something cognitively challenging for them?

초임교사의 언어 사용에 대한 J의 분석과 질문은 교사들이 막연히 영어 시간이므로 교사가 영어를 전부 또는 가능한 한 사용해야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어떤 교수·학습 목적을 가지고 영어, 영어와 모국어 혼용, 모국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의 전문가 K도 특정 언어의 선택에 대한 교사의 목적의식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신중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J와 K의 지적은 Kang(2008:224)이 한국 교사의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유사하다.

" ... considering the prevalence of large size, mixed ability classes which constitute the perceived constraints in EFL settings across Asia..., [teachers] would do the students much good by judiciously using L1 and TL for the purposes of maintaining classroom discipline and enhancing student comprehension, both of which could contribute to continued student interest."

특히 최근 한국 상황에서 영어교사에게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또는 TETE(Teaching English through English)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교직 경력을 떠나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답을 구해야 할 문제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내용교수지식(PCK) 영역 중 교사의 언어 사용 지식은 바로 이런 영역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모두 좋은 영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상황과 문맥에 맞게 어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영어교사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과 전문가 I의 경우 교사의 영어 사용을 다소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I의 조언은 영어교사의 경우는 다른 내용교과와 달라 목표어를 가르치는 교사이자 동시에 성인 학습자로서 끊임없이 목표어를 사용해야 교수 활동에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영어가 외국어, 즉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인 상황이라서 영어교사도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다. J가 I와의 개인대화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가능한 교수 활동을 영어로 함으로서 영어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목표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 교사의 언어 사용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얼마만큼의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느냐’이다. 초임교사 B도 이점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J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관찰자 J는 교사 B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J: You ask about using English. I am going to suggest that you try to use 'English only' for some small part of each lesson, and that this will have to be very carefully prepared so

that you can ask questions in English that seem very natural. You might start by having English only greetings, 'please and thank you' each time you speak and they speak, instruction such as 'please watch the board', 'please take out your books', etc. These are incidental, but I did not hear any of this in the lesson I saw, and you are obviously very capable of doing this. Perhaps just start by repeating the introductory greetings in English, to see how you feel, or do a bit more if you have already done this. I would also suggest that you ask the students to read the English text in every lesson silently to themselves (first) and then aloud to a partner (half of the text each, so that it does not waste time or get boring). The more you can use and have students use English for routines in the classroom, the easier it will be for them to speak in other learning situations. (피드백 자료)

선배교사 관찰자인 D, E, F도 초임교사 A, B, C에게 공통적으로 개선하도록 제언을 한 점이 바로 일정 부분 영어 사용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언어 학습이니 만큼 교사의 영어 사용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간단한 진행, 설명, 질문 등을 영어로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어휘 학습 이론에 대한 이해

경력교사와 외부 전문가들은 초임교사 C의 비효율적인 어휘 제시 방법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초임교사 C는 어휘 학습 이론에 대하여 양성기관에서 배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G: 어휘를 한꺼번에 20여개를 사전에 죽 제시하고 난 다음 본문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아마 정작 중요한 본문 이해에 가서는 20개중 몇 개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갑니다.
- B: 대학에서 의사소통중심 교수법 이론에 대하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배울 내용에 나오는 어휘를 사전 연습하게 되면 학생들의 스키마를 활성화하게 되어 이해를 돕게 되고 학습자의 어휘 활용을 도울 수 있다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 G: 그런데 수업을 보면 막상 어휘가 필요할 때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여요.
- B: 저도 그래서 고민이에요. 뭐가 문제인지. 문맥을 통해 제시하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매번 먹히질 않아요. (협의회 자료)

이와 같은 초임교사의 어휘 제시 방법에 대하여 국외 교과 전문가 K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K: You're right. There are some schools that strongly believe the importance of presenting vocabulary before introducing the task. Well... it's partly true as long as it works in your context. Sometimes it works well if you present the vocabulary when your students actually need to complete the given task. Try and see how it works in your situation. There are some research done to support the alternative. (협의 자료)

K가 제시한 대안은 초임교사뿐만 아니라 경력교사에게도 중요한 점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각종 이론에 대한 무조건적 예찬보다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적용하여 이론을 검증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강조되고 있다(Richards & Lockhart, 1994). 이러한 대안 모색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은 경력교사의 향후 교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전문성 발달의 토대가 될 것이다.

초임교사 C는 학생의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다.

C: 어휘 학습에서 문맥에서 어휘를 지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란 말은 많이 들었고 시험에서도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추기는 했지만 막상 지도를 하려고 하니 감이 오질 않아요. 본문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시를 많이 들어주어야 하는지...

I: 다음은 Nunan(2000)에서 발췌한 교실 수업을 전사한 것의 일부입니다. 문맥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도록 지도하는데 초점을 둔 수업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의회 자료)

이와 같이 초임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은 수업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초임교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초임교사들에게 경력교사와 전문가가 실제적인 예시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교실 수업에 사용 가능한 자료도 제공해주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T: This exercise is basically looking at how you can use context to find the meaning of a word. And what I want you to do is discuss among yourselves and decide-if you look down at the first exercise. I want you to decide which of these might be a definition for this- whether it's improbable, possible, probable. Okay?

S: Oh, we have to put here, after the a,b,c... [yeah] which one is improbable, which one is possible or is probable?

T: Yeah. What you've got here is a nonsense word-a nonsense word. Imagine it's a word you don't know in English. You just discuss among yourselves.

S: Okay, we had a -what is this... a tropical fish ... an egg beater... a leather suitcase.

S: Okay, I'm sure the c., a leather suitcase, is improbable.

T: Why?

S: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at name.

T: If you had a sentence 'We had a leather suitcase'. Is that possible?

S: What? We had a ...?

T: We had a leather suitcase. Is that, is that good English? Does that make sense?

S: Yes. Yes.

S: [We have... *whoosis*] that means... is improbable [but if] is improbable and impossible is more or less the same?

T: Improbable...

S: and impossible

T: Improbable and probable...

S: No...

T: ... but possible...

S: And impossible. Means improbable is more or less like impossible?

T: [Pause] Yes... unlikely, unlikely, unlikely.

S: For me... for me... I don't know for you ... leather suitcase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is word.

[The students begin working by themselves. There is considerable negotiation as they attempt simultaneously to work out what they are supposed to be doing, and at the same time actually doing the task.]

(출처: Nunan, D. 2000.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London: Longman. p. 125)

다.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의 습득과 활성화

언어 학습에서 배경지식의 활성화 및 적절한 활용은 언어 학습의 효과를 증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ok(1989:69)에 의하면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 또는 schema)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mental representations of typical situations... used in discourse processing to predict the contents of the particular situation which the discourse describes.”

언어 학습자의 배경 지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되고 있지만 교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은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외부 전문가인 J는 초임교사 B가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어휘 설명을 함으로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J: It was clear from my observation that you were able to bring a considerable amount of **background cultural knowledge** to the materials you selected for the students, and that this greatly enriched their interaction with the pictures, words and text you had on the Powerpoint presentation. I feel this was a great strength, and it made you look confident, sound confident, and manage the lesson very well, and I am sure the students appreciated the efforts you had made to provide them with a good lesson. I thought it was a very good lesson. You talking about your time in America would have caught their attention too, and I liked the way you used that as a means of expl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pounds and kilos during the lesson!

문화에 대한 이해 요소가 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교사의 배경 지식은 관찰자 J가 지적하였듯이 매우 유용한 교수 도구가 될 수 있다. 외국어 교사의 목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대한 배경지식은 초임교사 B의 경우처럼 어휘 설명 외 읽기 등 다른 활동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 학생의 목표어 사용 기회

경력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초임교사의 특징 중 하나는 초임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목표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임교사 A의 경우 방향을 묻고 답하기에서 일정한 언어 형식만을 반복하는 활동보다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상대방과 자유롭게 대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력교사들의 대안은 Harmer(1991)가 제안한 학습활동의 자신에게 맞게 개별화(personalization 또는 localization)와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최근에 배운 언어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 생활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통제된 활동에서부터 매우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형태의 활동이든 학습하고자 한 언어 또는 학습한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이 학습자에게 현실적이고 가깝게 느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be going to' 구문을 사용하여 미래 계획을 말하는 경우, 학생의 주말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다.

T: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Gunter?
 S: I'm visiting Scotland.
 T: Oh really... When are you leaving?
 S: Early on Saturday morning.

(출처: Harmer, J. 199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gman. pp.102-104)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계획을 묻자 학생은 자신의 주말 계획을 말함으로써 교사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력교사 D는 초임교사 A에게 주어진 지도를 보고 주어진 곳의 방향을 묻고 답하는 것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또는 익숙한 곳의 지도를 그려서 상대방에게 방향을 설명하거나 묻고 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강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용이 학습자 개인에게 유의미하거나 흥미로운 자료나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진정성(authenticity)이 높은 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2. 교수법 지식 측면의 수업컨설팅

가. 학습목표 제시

초임교사 A, B, C 모두 학습목표의 내용과 제시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 A의 경우 매우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목표를 제시하였고, 교사 B의 경우 학습목표 제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교사 C의 경우 학습목표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지도안에만 제시하였다. 경력교사와의 협의회에서 학습목표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입장이 드러났다.

- A: 대학에서 수업 시연 시간에 배운대로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일종의 양식이 있어 대부분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목표 제시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본시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교사에게는 수업 진행 방향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칠판에 쓰고 학생들에게 읽어주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 그런데 쓰기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쓰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협의회 자료)
- B: 전 쓰지 않아요. 그냥 바로 수업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학습목표란 말이 낯설어요. (협의회 자료)

C: 전 수업 관찰자를 위해 지도안에 썼어요. 지도안에만 포함시키고 수업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막상 수업 시간이 되면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특별한 관찰자나 장학사를 받을 때만 형식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학습목표를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협의회 자료)

교과 전문가 I는 초임교사의 학습목표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양성 기관에서부터 학습목표의 기능을 외우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I는 학습목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I: 교실 수업 수준의 학습목표는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성취수준 제시하는 것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aims)와 구별되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학습목표를 잘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를 잘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들이 수업 종료 후에 알아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줌
-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도와줌
- 교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게 도와줌
- 교사와 학생에게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함

(출처: Omstein & Lasley II, 2000, p. 98)

I: 이와 같은 이유로 학습목표는 성취해야 할 내용을 가능한 관찰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진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학습목표 진술에 대한 내용은 대개 무엇을 어떤 형태로 진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 교육학 자료에서 학습목표 기술에 대한 팁을 볼 수 있습니다.

- Omstein, A. C., & Lasley, T. J. II. (2004). *Strategies for effective teaching*(4th ed.). McGraw Hill: New York.
- Lang, H. R., & Evans, D. N. (2006). *Models strategies, and methods for effective teaching*. Pearson: Boston.
- Coyne, M. D., Kame'enui, E., & Carnine, D. W. (2007).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that accommodate diverse learners*. Pearson: New Jersey. (협의회 자료)

협의회에 참석한 모든 경력교사들은 학습목표 진술에 대한 I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경력교사 G는 학습목표를 진술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경험하였으며, 교사 F도 G와 같이 학습목표 진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G: 제 경험에 의하면 학습목표를 진술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학습목표를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한번 읽어 주거나 따라 읽도록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것 같아요. 교사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F: 이게 교직 경력이 20년이 되다보니 초임 때처럼 지도안을 매년 작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학습 목표만은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되어 있고, 교실에서는 학습목표를 진술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비록 제 머릿속에는 있지만, 학생을 위해 칠판에 진술하여 줍니다. (협의회 자료)

초임교사들은 학습목표에 대한 경력교사의 경험에 바탕을 둔 조언에 따라 수업시작과 함께 목표를 의식적으로 진술하려고 하였으며,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좀 더 효과적인 학습목표 진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국외 전문가 J는 Harmer(1994)가 제안하는 지도안에 담길 내용을 제시하였다.

- A: Description of the class: level, age, duration of class etc.
 - B: Recent work: what the students have done recently.
 - C: Objectives: Refer to activities, skills, language type or combination of all of these.
 - D: Contents: Each objective has individual content which consists of context, activity/class organization, aids, language, possible problems.
 - E: Additional possibilities: Spare activities
- (출처: Harmer, J. 199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gman: Essex. pp. 270-273)

나. 학급 운영 및 통제

초임교사 A, B, C는 근무하는 학교 환경이 열악하여 전반적으로 학생 통제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게다가 자신들이 초임 여교사란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업 중 학생의 불성실한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학생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영어 교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였다.

- A: 저는 발령 받자마자 깨달았어요. 이렇게 상냥하게 아이들을 다루면 피곤해서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보아도 제가 변해가는 것을 느껴요... 몇 년을 아이들과 씨름하고 난후 제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같은 학교 선배 교사들도 다 같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 B: 초임교사로서 의욕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도저히 통제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평상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제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요. 수업 외 시간에 저와 가까운 것과 수업 중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난감한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 전 이상하게 난감해지면 화가 나고 그렇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시간이 종료되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 C: 제가 들어가는 반이 시끄럽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날이면 기분이 우울해지죠. 그래서 전 요즘 통제하기 쉬운 활동을 주로 하고 제가 주로 말을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협의회 자료)

이에 대하여 중학교 교직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I는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초임교사들과 공유하였다.

I: 제가 발령난 지 1년이 채 못 되어 중학교에 의사소통영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 교육청 연수를 통해 다양한 교수기법을 배워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룹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이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자 그룹 사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내 순시를 하던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반에서 나는 소음을 따라 교실로 오셨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 탓이 아이들에게 묻혀 있는 질 보지 못했나 봅니다. ‘야, 너희 선생님 어디계시냐? 수업은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간 거야?’ 그래서 전 개미 목소리로 ‘저 여기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그룹 활동을 기피하게 되더군요.

(협의회 자료)

초임교사 B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신만의 갈등과 고민을 표현하였다.

B: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지만 저 같은 경우 학습자 위주의 수업을 하다보면 수업 진행에 흐름을 상실할 만큼 통제 불가 상태가 되기 일쑤입니다. 학습자 중심이나 통제냐가 문제가 됩니다. (협의회 자료)

관찰자 J는 초임교사 B의 갈등과 고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J: You ask which is most important, control or student-centred activity. I think they are both important, but what you need is control over the structure of the lesson, like you had in this case, so that you confident that YOU know what you want them to do, and they will pick that up from you. Setting a clear(short) time limit for them to speak with a partner, or to hear a partner read something aloud, or repeat what you just said, or repeat phrases from a video or audio recording- and then turn back to you for the next step in the lesson- will give you increasing confidence to be able to do both!

(이메일 논의 자료)

통제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자 I는 학생 통제가 어려운 원인을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Harmer(1991)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전달해 주었다. 특히 Harmer의 제언은 영어교사를 위하여 정리된 것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Harmer에 의하면 학생 통제가 어려운 세 가지 원인은 교사, 학생, 학교이다. 문제의 원인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The teacher
- Don't go to class unprepared.
- Don't be inconsistent.
- Don't issue threats.
- Don't raise your voice.
- Don't give boring classes.
- Don't be unfair.
- Don't have a negative attitude to learning.
- Don't break the code.

B: The students

- Time of day
- The students' attitude
- A desire to be noticed.
- Two's company

C: The institution

- Have a recognised policy.
- Let the school authority handle students who cause problems.
- Let teachers work with the administration to have the decision changed.

(출처: Harmer, J. 199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gman: Essex. pp. 249-252)

I의 여러 가지 대안 제시에 대해 초임교사들은 동의를 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실에 부딪치면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체계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먼저 긴장부터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초임교사 B의 경우 너무 화가 나면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소리부터 지르게 된다고 한다. 경력교사들은 학급 통제 방법은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력교사 H는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한다.

H: 고등학생만 보다가 중학생을 보니 너무 아기 같았다. 고등학생들에게 하였듯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내 오산이었다. 아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았다. 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나만의 방법을 터득해 사용하고 있다. 아이들의 나이와 특징에 따라 다루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협의회 자료)

초임교사 A, B, C는 H가 말한 것처럼, 학생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루는 방법도 달라져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교직 경력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초임들이 경력교사의 수업을 보면 초임처럼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도 아이들을 잘 통제하므로 자신들도 경력교사만큼 연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학생 통제 방법을 터득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 본시 학습을 위한 준비 활동: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략

경력교사 G는 초임교사가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는 수업에 대한 대안으로써 학습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즉, 본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일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과 몇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영어 사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이렇게 편안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한다.

국외 전문가 K는 이때 어려운 어휘와 복잡한 구문을 사용하기보다는 단순한 표현과 쉬운 어휘를 사용할 것을 권하였다. K는 이를 사교 언어(social language)라고 지칭하면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 Example 1:

T: Did you all enjoy the holiday?

Ss: Yes.

T: Did you? Yes, I enjoyed it, too. I went on a picnic with my family. Did you go on a picnic? Anyone?

S: Yes.

T: Who did you go with?

(이 기법은 다인수 학습의 경우 효과적임)

· Example 2:

T: What did you do? Did you go out?

S: Yes, I went to a party.

T: A party? That's nice. A birthday party?

S: Yes, my friend's birthday?

T: OK, tell me... what happened? What did you do at the party?

(개별 학생들이 한 일을 물어보도록 한다.)

· Example 3: 학생들끼리 물어보도록 하여 가능한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함

T: Right. A went to a party. Ask her some questions about it. What do you want to know?
Yes?

S1: What did you eat?

S2: Was a good party?

S3: Were there many people there?

(출처: Doff, A. 1988. *Teach English: A training course for teachers.* pp. 223-224)

이때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임교사들은 이와 같은 사고 언어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시도하고자 하였다.

라. 오류 수정

경력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영어교사의 고민 중 하나는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처리에 대한 것이다. ‘학생이 오류를 범할 때마다 매번 수정할 것인가?’, ‘어떤 오류를 고치고 어떤 오류는 고치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것인가?’, ‘너무 잦은 오류 수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등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초임교사 A, B, C는 오류 수정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주었다. 먼저 A교사는 모든 오류를 다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B교사는 학생의 오류에 매우 관대하다고 했다.

C교사는 오류의 종류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간단히 수정될 수 있는 오류는 수정하고 나서 수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였다.

영어 교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오류 수정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Doff, 1988).

<교사의 직접적 수정>

T: Y, -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S: I... am... get up... at half past six.

T: Hmm, that's not right, is it? I get up - not, I am get up'. I get up. Z, - what about you?

<교사의 직접적 수정 후 학생 반복>

T: Well, all right, but - I get up. Again.

S: I get up at half past six.

T: Good.

<학생의 자가 수정>

T: Yes, OK, nearly. What should it be? I g...

S: I get up at half past six.

T: That's right- good.

<다른 학생의 도움을 받아 수정>

T: Well, nearly. Anyone else? What do you do in the morning? Yes-M?

S2: I get up at seven o'clock.

T: Yes, that's it. I get up. Now, Y- again.

S1: I get up at half pas six.

T: Yes. Well done.

오류 수정에서 강조할 점은 긍정적인 자세로 학생이 범한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수정은 시간은 절약되지만 효과 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교사의 직접 수정을 받은 학생은 반복해서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한 학생에서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 오류를 범한 학생이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짝 활동/소집단 활동

초임교사 A의 수업에 대하여 관찰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점은 바로 소집단 활동에서 일부 학생만의 참여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임교사 B는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다양한 수준으로 간혹 진도에 대한 걱정으로 잘하는 학생만을 선호하게 되고

우수한 학생에게 주로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신경이 많이 쓰였으나 점차 잘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편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업을 관찰한 국외 전문가 J는 짝활동을 활용해 대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J: ... This might also start to solve your concern about only asking the good students to speak, and not knowing how long to wait for them to respond to a question. They will all be more likely to speak if they are only speaking to a partner, not the whole class. You can then give them a GENERAL praise for trying, so that they feel they are pleasing you! (피드백 자료)

관찰자 J가 지적하였듯이 짝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특정 학생만 답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좀더 많은 학생들이 언어 사용을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짝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이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없이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장점보다 문제점이 드러났다. 초임교사 A의 조활동에 대하여 경력교사는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였다.

H: 조활동 시작 전에 조별 활동 내용을 전체가 한번 연습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수업의 경우 조편성을 즉시 무작위로 하여 다소 혼란이 었보였습니다. 조편성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역할을 분배하여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교사의 제언에 덧붙여 연구자 I는 다인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짝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의 장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장점>

- More Language Practice
 - Groupwork gives students far more chance to speak English. If an exercise were done 'round the class', students would only say one sentence each, and in a large class many students would say nothing at all.
- Students are more involved
 - Working in groups encourages students to be more involved and to concentrate on the task.
- Student feel secure
 - Students feel less anxiety when they are working 'privately' than when they are 'on show' in front of the whole class. Groupwork can help shy students who would never say anything in a whole-class activity.
- Students help each other
 - Groupwork encourages students to share ideas and knowledge. In a reading activity students can help each other to explore the meaning of a text; in a discussion activity students can give each other new ideas.

<문제점과 대책>

- Noise
 - Obviously, groupwork in a large class will be noisy, and this cannot be helped.
 - But usually the students themselves are not disturbed by the noise; it is more noticeable to the teacher standing at the side or to someone in the next room; the noise created by groupwork is usually 'good' noise, students using English, or engaged in a learning task.
- Students make mistakes
 - During a group activity, the teacher cannot control all the language used, and should not try to do so. When doing controlled language practice in groups, the number of mistakes can be reduced.
 - By giving enough preparation. The activity can be done with the whole class first, and groupwork used for the final stage.
 - By checking afterwards. The teacher can ask some groups what they said, and then correct mistakes if necessary.
- Difficult to control class
 - The teacher has less control over what students are doing in groupwork than in a normal class.
 - Give clear instruction about when to start, what to do, and when to stop.
 - Give clearly defined tasks which do not continue for too long;
 - Set up a routine, so that students accept the idea of working in groups, and know exactly what to do.

(출처: Nolasco, R., & Arthur, L. 1988. *Large classes*. London: Macmillan.)

작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을 하는 경우 학습자의 이해력 평가에서 학급 전체로 묻거나 개별적으로 질문하기 보다는 동료 평가나 조별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주로 이루어지는 교사 평가와 함께 학생들이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좀 더 자신의 학습에 책임감을 갖고 학습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외부 전문가 L은 영어 수업 관찰 자료를 공유하였다.

L: ... I feel a greater variety of ways of checking children's understanding needs to be used. Teacher H had a tendency to ask "Do you understand?" when she wanted to check if children knew what to do with an activity but the general response to this type of question will always be "yes"(even if children don't know what to do, as they don't usually want to be shown up in front of their peers). With the group activity, for example, perhaps one of the students could have been asked to tell the others what they had to do in the activity. This could even have been done in Korean, thus ensuring that all children know what they activity required and allowing them to spend more time on the language practice, rather than spending part of the time being uncertain about what they had to do. (피드백 자료)

L의 피드백에서 볼 수 있듯이 조별 활동에서 집단내 모든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습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별 활동을 제안하고 있으며 한 학급 전체가 답을 하는 것과 함께 조별 활동의 장점을 좀 효과적으로 절충하여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서 제안하고 있다.

L: The group activity had a number of elements and was clearly structured. But the actual language use was generally limited to responding to the teacher. I would have liked to have seen a group activity which involved the children in making much greater use of language for their own purposes. There could, for example, have been an activity in which children did a survey of the actual times children did the things given in the lesson input(get up, wash my face, have breakfast, etc.). These could have been put on a worksheet (or just picture prompts for them) and children asked to move round the class asking each other questions-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and so on - and they would then put the name and time on the worksheet. Back at their desks children could have been asked to write a number of sentences to practice the pattern: "Chin-Hwa gets up at six thirty in the morning" and so on. This way they would have had more opportunity to ask and answer questions individually, rather than just in chorus. The choral language work is necessary but I feel it needs to be complemented by more individual work, monitored by the teacher so that she can check individual students' levels of understanding. (피드백 자료)

작활동과 소집단 활동에 대한 위와 같은 제언은 초임교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교사의 사전 준비 없이는 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초임교사 A는 소집단 활동을 위해 조편성을 할 때 학생들의 수준이 골고루 분배되게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이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 I는 다음과 같이 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주었다.

- giving each student a number, 1,2,3,4,5,1,2,3,4,5 etc and then asking all the number 1's to sit together.
- dividing the class on the basis of horoscope groupings, likes/dislikes, color of eyes, clothes etc.
- giving out to each student at random a card with a word on. The students then have to go round and find word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e.g. traffic light, road, car would sit together.

조편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과목, 스포츠, 국가명, 날씨에 따라 조편성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physics	chemistry	biology	economics	philosophy
baseball	golf	swimming	basketball	tennis
England	Kenya	Mexico	Italy	Netherlands
sunny	windy	cloudy	foggy	rainy
drum	trumpet	piano	cello	violin

바. 교구 사용: 칠판

정보통신기술 세대의 초임교사의 특징 중 하나는 각종 전자 교구의 능숙한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초임교사 A, B, C 모두 수업에 Powerpoint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증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임교사 C는 짧은 교직 경력에 비해 칠판을 Powerpoint와 함께 능숙하게 사용하여 수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다. 관찰자 J는 초임교사 B의 수업에서 초임교사가 칠판을 사용하여 수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J: This is connected to the next point I'll make to compliment you on the strengths of your teaching in this less: you used the blackboard extremely well. Often I see teachers using the board as a note book only, but you used it to teach with, and this was very impressive. At one point, while the students were watching the screen and listening to the text, you cleaned the blackboard, indicating to the students that there was more to come, and allowing you to be ready for the next part of the lesson. Welldone! I could see that you were having trouble moving the board to get a fresh piece of clean board to write on, but I think you turned what could have been a difficulty into an asset, because it demonstrated clearly to the students' (and to me) that you were very much in control of the lesson, and that you knew what was coming next!

교구를 교수활동에 적절하고 능숙하게 사용한 것이 초임교사 B 수업의 몇 가지 강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관찰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하여 초임교사 B는 멀티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공간 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B: 문법을 배우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멀티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화면이 크고 정면에 있어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기에는 좋으나, 칠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칠판이 매우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나의 문제는 '멀티미디어 사용 시 칠판의 공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다.

이에 대하여 경력교사 D는 초임교사 B의 칠판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D: 다양한 동사의 사용을 알리기 위해 ppt와 판서를 이용한 점은 좋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칠판이 스크린에 가려서 판서 공간이 적었으므로 판서할 내용과 ppt에 작성할 내용을 미리 구별하여 판서 시 질서있게 써 내려가면 좋을 듯하다...

이에 대하여 I는 칠판 사용의 기본이나 그러나 쉽게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준비하여 보여 주었다.

I: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일상 수업에서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칠판 사용의 기본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칠판 사용의 목적에 따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Underwood(1987)이 제안한 몇 가지 기본 사항입니다.

- Write clearly and in large enough letters for everything to be legible from all parts of the class.
- Don't jot words and phrases down at random all over the board.
- Generally avoid speaking at length while you are writing on the board with your back to the class.
- If you ask the students to copy something you have written, stand or sit well away from the board and wait quietly for them to do so.
- Don't use colors which don't show up well on the board(white is best on a blackboard, red is very difficult to see; yellow is hard to see on a white board).

(출처: Underwood, M. 1987. *Effective class management*. Longman. p. 81)

3. 상황 지식 측면에서의 수업컨설팅

가. 학습자 이해: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따른 동기 부여

초임교사 A, B, C가 모두 고민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한 반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나 너무 다양하여 어떻게 이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초임교사들이 자주 듣는 답변 중 하나는 중간 수준에 맞추어서 지도해야 편하다는 것이다. 연구자 I는 ‘중간 수준’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

I: 지금도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수준이란 단지 평균점수를 받는 학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학습자의 다양성을 단지 점수 특히 특정 학교의 시험 성적만으로 분류한다는 것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협의회 자료)

연구자 I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 Nunan(2000)에 따라 학생의 인지 스타일(cognitive styles)에 따라 4가지 유형의 학습자로 구분하였다.

- 구체적 학습자: 게임, 그림, 영화, 비디오, 짝-활동, 교실 외 수업
- 분석적 학습자: 문법 공부 선호, 혼자 독서하기 선호, 오류 자가 진단
- 의사소통적 학습자: 원어민과의 대화 속에서 영어 학습을 원함, 실생활에서 영어 사용 원함
- 권위-지향적 학습자: 교사의 설명 선호, 자신만의 교재 선호, 노트 필기 선호, 문법 학습 선호, 혼자 독서하기 선호, 어휘를 사용하기 보다는 보아서 익히기 선호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C교사는 중간 수준에 맞추는 것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C: 이런 분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양한 학습 스타일이 한 교실에 존재하는데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양한 스타일에 맞추어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시간 수업 동안 사용될 활동을 다양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 자료)

C교사의 지적에 대하여 경력교사들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였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 한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력 차이와 학습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A교사는 좀 더 진정성(authenticity)이 높은 자료를 찾아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동일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았더라도 학생들 언어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워서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재 재구성은 교사의 전문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지만,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력교사 D는 자료 재구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방법을 공유하였다.

D: 난 초임 때부터 교과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학교를 이동하여 다른 교과서로 지도를 해야 되더라도 학습해야 할 내용에 따라 나만의 자료집으로 가서 필요한 자료를 꺼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 주로 내가 한 일은 어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었어요.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재편성하였어요.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자주 활용되는 어휘 중심으로... (협의회 자료)

경력교사 F도 실제 사용하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싶지만, 학생의 언어 수준과 격차가 많아 항상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 F교사는 초임교사가 직접 자료를 재구성하기보다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력교사나 시도별 수업 지원단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재

구성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시도별 수업 지원단의 경우 특별히 자료 재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조속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의 전문가 J는 효과적인 어휘 지도 방식에 대하여 유사한 영역에 속하는 어휘(예, cut, slice)를 설명하는데 초임교사 B의 시각적인 설명 방법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J: ... I also think that your attention to vocabulary was very impressive and that you used a range of good techniques to explain the meaning of words. Showing students the difference between similar words such as 'cut' and 'slice' was excellent - because you showed them by drawing on the board rather than just telling them. Using the visual, aural and kinesthetic drawing of cutting and slicing would have made this very clear, I think, and would have helped the students remember the words easily. (피드백 자료)

초임교사 B가 사용한 어휘의 시각적 제시 방법과 이에 대한 관찰자 J의 피드백은 언어 학습에서 다양한 학습 스타일(learning style)과 어휘의 장기 기억에 대한 교수법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Reid(1995)에 의하면 효과적인 언어 학습 측면에서 학습자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가 제시하는 개별 학습자의 다양한 유형 중 시각적 학습 스타일은 학습자의 감각과 연관된다. 감각적 학습 스타일(sensory learning style)에 따르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uditory Learner: learners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ear(hearing)
- Visual Learner: learns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eyes(seeing)
- Tactile Learner: learns more effectively through touch(hands-on)
- Kinesthetic Learner: learns more effectively through concrete complete body experience(whole-body movement)
- Haptic Learner: Some researchers combine the tactile and kinesthetic modalities and call them haptic; the haptic learners more effectively through touch and whole-body involvement.

(출처: Reid, J. 1995. *Learning styles in the ESL/EFL classroom*. New York: Heinle & Heinle Publishers. p. x)

Reid(1995)는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제안에 따르면 초임교사 B가 사용한 어휘 제시 방법은 한 학급 내 다양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양식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한 노력으로 여겨진다. 또한 관찰자 J의 지적대로 교사의 몸짓을 활용한 어휘 설명 방식은 학생들이 어휘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좀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어휘 학습은 Asher의 Total Physical Response(TPR)로서 뒷받침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언어가 제시될 때 학습자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 Nattinger(1988)가 제시한 학생이 어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에도 TPR을 이용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 contextual clues: Techniques for guessing vocabulary from context include activating background knowledge from the topic of a text.
- word morphology: Learners can be taught to extend their vocabulary by mixing and matching word stems, suffixes and affixes.
- mnemonic devices: These are tricks for committing words to memory.
- loci: These are a form of mnemonic in which a list of words to be learned are associated with a familiar visual image such as a room or a well known tourist spot.
- paired associates: In this technique, which is similar to the use of loci, words in the first and second language which have some similarity of sound and meaning are associated.
- key words: The target vocabulary item is paired with its native language equivalent in an idiosyncratic way.
- total physical response**: The target vocabulary items are paired with relevant physical actions.
- cognitive depth: Students are asked one of the following questions in relation to each word. Is there a word present? Is the word printed in capitals or in lower case letters? Does it rhyme with...? Is it a member of ... category? Does it fit into the following sentence?
- formal groupings: Certain vocabulary items can be memorized by teaching students to recognize basic forms of words and how they combine with certain affixes.
- word families: This is an extension of the formal grouping technique. Exercised can be developed to show how word families are developed from a single root.
- historical, orthographical similarities: This involves the development of associates based on historical, orthographical, similarities between cognate language.
- collocation: Collocations are words which are commonly associated.

(출처: Nattinger, 1988, 재인용, Nunan, D. 2000.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pp. 134-136)

Nattinger(1988)가 제시한 학생이 어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에도 TPR을 이용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초임교사 A, B, C 모두 학습자 수준에 맞고 학생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의 어려움을 협의회에서 토로하였다.

- A: 영어에 흥미를 잃고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또한 평균적 수준에 비해 크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B: ...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전에 읽기 활동으로 jigsaw 활동을 한 적이 있으나, 호응도 높지 않고 노는 시간으로 여겨서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다. 적절한 상벌이나, 교사의 통제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좋은 의도의 활동이어도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전체식 수업으로 읽기 활동을 이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역시나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
- C: 수동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수업에 관심이 없거나 숙제를 해 오지 않는 등, 수업에 참여할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체벌과 과도한 분량의 감지숙제 등)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이와 같은 고민에 대하여 관찰자 J는 초임교사 B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 J: ... Then you moved very effectively from the You Tube video to the slide in the Powerpoint that gave the title of the lesson; "How to cook purple potato salad". This is good authentic language text, but as you say, it might be hard for students at this level to understand, although the visuals would give some clues! You could have asked them to think about the video clip and talk about what they saw happening in it. That would help them understand. Then, after only about 30 seconds of this, if you are not confident of control, ask them to think of any words or phrases that they had heard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is might help with your comment that you thought this material was a bit hard for the students. In this lesson, I think I would have done this once they were focussed on the Powerpoint slide about what sort of text the passage they were reading was (story/recipe), and you started to move into some of the vocabulary they needed, This could well be a paired activity, as they could help each other, and as the focus is on listening, rather than speaking, the students might not be shy about saying something wrongly. If you do this every now and then, keep the time for them to talk together very short (only about 1 minute) and tell them that you will only take 'the first two or three with hands up' to discuss for the whole class, so that you do not waste too much time, if you are worried about managing to get

them back on task. They will talk in Korean, of course, with only one or two bits of English, but that is OK.’ (피드백 자료)

경력교사 D는 초임교사의 이와 같은 문제는 학생이 학습에 주인이 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교사가 학습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오류 수정과 칭찬을 통해 소극적인 수업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실례를 많이 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력교사 D와 F는 교사가 질문하고 바로 교사가 정답을 말하고 설명하는 수업을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생각과 대답할 시간을 어느 정도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력교사 H는 초임교사 C가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해 한 학생이 읽기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에 발표하도록 한 것은 동기 유발보다는 학습자로서 자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을 우려하고 조별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초임교사 A, B, C 모두 겪고 있는 갈등 중 하나는 학생 중심의 수업과 통제 간의 균형이었다. 관찰자 J는 ‘그룹활동과 학생들의 통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초임교사 B에게 먼저 통제란 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수업의 흐름, 진행, 시간 안배 등 교사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신감이’ 통제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J: ... You ask which is most important, control or student-centred activity. I think they are both important, but what you need is control over the structure of the lesson, like you had in this case, so that you are confident that YOU know what you want them to do, and they will pick that up from you. Setting a clear (short) time limit for them to speak with a partner, or to hear a partner read something aloud, or repeat what you just said, or repeat phrases from a video or audio recording - and then turn back to you for the next step in the lesson - will give you increasing confidence to be able to do both!

관찰자 K의 지적은 초임교사들이 생각하듯이 학생 중심의 수업이 결코 교사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통제를 택하겠다는 태도는 극단적인 태도이다.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통제력은 교사가 무엇이든지 다 하고 학생은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의 요구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유의미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동기가 낮고 참여도가 낮다고 하여 자신이 통제를 잃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수업의 주

인이 되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관찰자 K는 언어 학습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목표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란 것을 지적하고 있다.

K: You say in your discussion questions that you usually have a problem with controlling the students - I did not see that in this lesson - I think you structured the lesson so that they were 'ready' for what was to come, and if you are able to do this in other lessons, you should not be frightened to test how they work if you put them in pairs or small groups now and then, as that would give them the chance to practice English with each other. For instance, I wrote on your lesson notes that I liked the formal greeting at the start of the lesson - this appeared to have a good long-term meaning for the students, as their behaviour changed quite obviously once you called them together and began the lesson in a formal way. There was a very clear sense of purpose in your movements at the front of the room.

이와 같이 교사가 주인이 되는 수업의 특징을 연구자 I는 자신의 초임교사 시절 경험을 통해 전하였다.

I: ... 지금 생각하면 생쇼를 한 기분이에요. 소리를 고래 고래지르다가 안되면 체벌로 으박지르고... 저는 저대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40대 교직 경력이 약 15년이 넘는 교사들은 소리하나 지르지 않고도 편안하게 수업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I의 경험에 대하여 경력교사들도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며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게 된 것인지, 경력과 나이의 도움인지, 변화의 시점과 변화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경력교사 E는 초임교사 A, B, C의 수업 공개 및 컨설팅 참여에 대하여 '대단한 용기'라고 말하면서 조언을 제공하는 입장이 더 어렵다고 말하였다.

경력교사 모두가 초임교사의 지속적인 경어 사용을 권하였다. 학생과 친한 것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간의 다른점을 강조하면서 경어의 사용은 결국 학생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자신감과 연결될 수 있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교육과정 이해: 언어 기능의 통합, 문화, 진정성이 높은 자료에 대한 이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의 통합적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네 가지 기능의 통합적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학습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바탕으로 통합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A교사는 듣기 활동을 다른 활동과 통합하여 지도하려고 하지만, 매번 한 가지 기능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의도했던 통합적 접근법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기능의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A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A: 교과서에서 기능별로 분리된 활동을 넘어서서 기능간의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늘 수업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해 다음, 다음 또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
- I: 통합을 왜 강조하시나요?
- A: 언어란 것이 기능별로 분리되어 지도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기능간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면담자료)

교과 전문가 I는 A교사의 언어의 기능 통합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였다.

- I: 수업을 관찰해보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기능을 통합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아이러니군요. 두 가지 이유에서 기능이 각각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언어의 각 기능들은 독립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한 가지 일을 수행하는데 두 개 이상의 기능을 활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작성을 할 수도 있죠. 영어과 교육과정도 이점을 고려하여 기능간의 분리보다는 통합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죠. (면담자료)

경력교사 E는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프로젝트, 리포트 작성하기 등 다양한 활동이 고안될 수 있으며 학생의 네 가지 기능이 상호 강화되어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중심의 교수법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자의 유의미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진정성(authenticity)이 높은 교재나 자료를 선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진정성이 높은 자료 사용을 시도한 초임교사 B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 B: ... 동영상 수업을 가지고 왔는데, 수준이 약간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잠시의 흥미라도 끝기 위해 수업 도입 부분에 틀어 주었다. 수업과 관련성을 조금 더 높이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업을 주어야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들었다.

초임교사 B의 해결과제는 ‘진정성이 높은 자료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할 때 어떤 과업을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었다. 관찰자 K는 초임교사 B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바로 자료를 그냥 보여주기만 하였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특히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교사가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연구자 I는 진정성이 높은 교재나 학습 자료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다음 문헌자료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The key to approaching a text successfully lie in the relevance of the text to the learners, its interests, the experience they can bring to making sense of it, and the appropriacy of the task required. Quite difficult texts can be made accessible through simple but appropriate tasks. For example, a weather forecast from a national newspaper might be used as part of a project with lower-intermediate students visiting the UK. They could be asked to check the forecast for the area in which they are staying and use the information to plan some weekend activities. This would approximate to the authentic purpose of reading a weather report. To give the same students a traditional set of comprehension questions about the weather forecast in order to practice weather vocabulary or structured patterns would be both inauthentic and probably above their language level.

(출처: Hedge, T. 2000.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language classroom*. London: Oxford. p.69)

또한 Hedge(2000)는 특히 진정성이 높은 자료 선정에 있어 향후 또는 교실외 영어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며 선정과 사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재 선정, 재구성 능력과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Larsen-Freeman(1986)은 의사소통중심 영어 교수·학습에서 진정성이 높은 교재를 구사력이 낮은 학생이나 학급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For students with lower proficiency in the target language, it may not be possible to use authentic language materials... Simpler authentic materials... or at least ones that are realistic, are most desirable. It is not so important that the materials be genuine as it is that they be used authentically.

Another possibility for the use of authentic materials with a lower level class is to use realia that do not contain a lot of language, but about which a lot of discussion could be generated. Menus in the target language are an example; timetables are another.

(출처: Larsen-Freeman, D. 1986.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135-136.)

이와 같은 제언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정성이 높은 교재를 사용할 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 사회 맥락적 지식: 학교 분위기와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초임교사 B와 C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이며, 초임교사 A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교사 A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 분위기는 자신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그다지 지원적이거나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학교 일을 우선으로 하고 남는 시간에 활동을 할 것을 강조하여, A교사는 처음에 연구 참여를 상당히 망설였다고 한다. 학교장의 태도는 '미래 교육보다 현재 교육에 충실하세요.'란 문구로 나타난다. 경력교사 G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G: 몇 년 전에 영어과 교사를 위한 장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으나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허락을 하지 않아 난감했어요. 결국 서로 불편한 사이로 끝이 나게 되었고 난 연수를 갈 수 있었지만... 참 쓸쓸했어요. (협의회 자료)

초임교사 B와 C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반면에 영어교과에 대한 학교나 지역 사회의 관심이 낮았다. 영어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기회가 없다보니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낮아진다고 한다. 경력교사 F에 따르면 영어 교과에 대한 태도는 학교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체육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과목의 위상은 일반 인문계 고등에서의 영어에 대한 인식과 상당히 다를 것이다.

초임과 경력교사들 모두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지역 사회의 비전이 연계될 때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학교 중심 교사 계

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 학교장의 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M: 비결은 단순합니다. 교실에서는 아이가 행복해야 교사가 행복하고, 교무실에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학교장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면담 자료)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하여 초임교사들은 몇 가지 도움이 된 점을 지적하였다. 외부 강사의 내용 전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일반 연수와 달리 수업 동영상을 통한 관찰 및 분석은 내 수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드백이 유의미하였고, 문체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분석 과정에서 이루어진 녹취과정을 통해 초임교사들은 자신의 영어와 모국어 사용의 비율, 교사 언어의 비중, 잘못된 언어 사용 등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현행 영어교사 양성 및 선발 방식에 따라 교직에 입문한 중등 초임교사가 입문기에 경험하는 것은 양성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배운 교과 관련 지식과 현장 간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초임교사의 경우 교과 관련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직성은 극단적인 교수관련 의사결정을 가져오게 된다. 즉 초임교사가 알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그 방법을 쉽게 포기하고 자신이 영어 학습자로서 경험한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임용고시 체제를 통해 교직에 입문한 신세대 영어교사는 경력교사보다 더 보수적인 점이 자주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관찰은 초임교사들에게 입문기간에 자신의 수업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경력교사의 수업 컨설팅으로 초임교사의 수업이 하루 아침에 전면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문 기간에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임교사가 갖고 있는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Richards와 Lockhart(1994)가 지적하듯이 태도와 인식의 변화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열쇠이다.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고 이론적 근거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고 적용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비판적 성찰력을 기르게 되며, 변화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초임교사에게 달려있다. 어떤 자세로 교직에 입문하느냐에 따라 변화보다는 안주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초임교사는 이와 같은 변화하려고 하는 자세를 '마음의 메기'에 비유하였다. 즉, 눈에 미꾸라지를 키울 때, 한쪽 눈에는 미꾸라지만 넣고, 다른 쪽엔 미꾸라지와 메기를 함께 넣어 키우면 메기를 넣어 키운 눈의 미꾸라지들이 훨씬 활발하고

건강하다고 한다. 그 미꾸라지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야했고 더욱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초임교사의 교과 내용교수 지식 발달이 자신에게 달려 있으나 교직 사회 구성원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초임교사, 동료 경력교사와 학교 관리자 간 협조와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임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내 초임교사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학교장의 역할과 태도는 중요하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초임교사와 경력교사는 함께 배워가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업무처리와 가르치는 일에 그저 떠밀려가듯이 경력을 쌓을 수도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로 초임교사 입문 프로그램이 원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자료 1: 초임교사 A

1
수업 1

2
수업 2

3
수업 3

Ⅲ. 자료 1: 초임교사 A

1. 수업 1

가. 지도안

Lesson Plan

1. **Title:** Lesson 4 Mina Is Visiting America
2. **Date:** Friday, May 16, 2008(3rd Period)
3. **Student Level:** Mixed Level (7th graders)
4. **Aims:** Students will be able to
 - ask directions.
 - give directions using 'go straight,' 'turn left,' 'turn right,' etc.
 - find places according to the directions.
5. **Teaching Aids:** PPT, Video clip, Textbook, Worksheet, Black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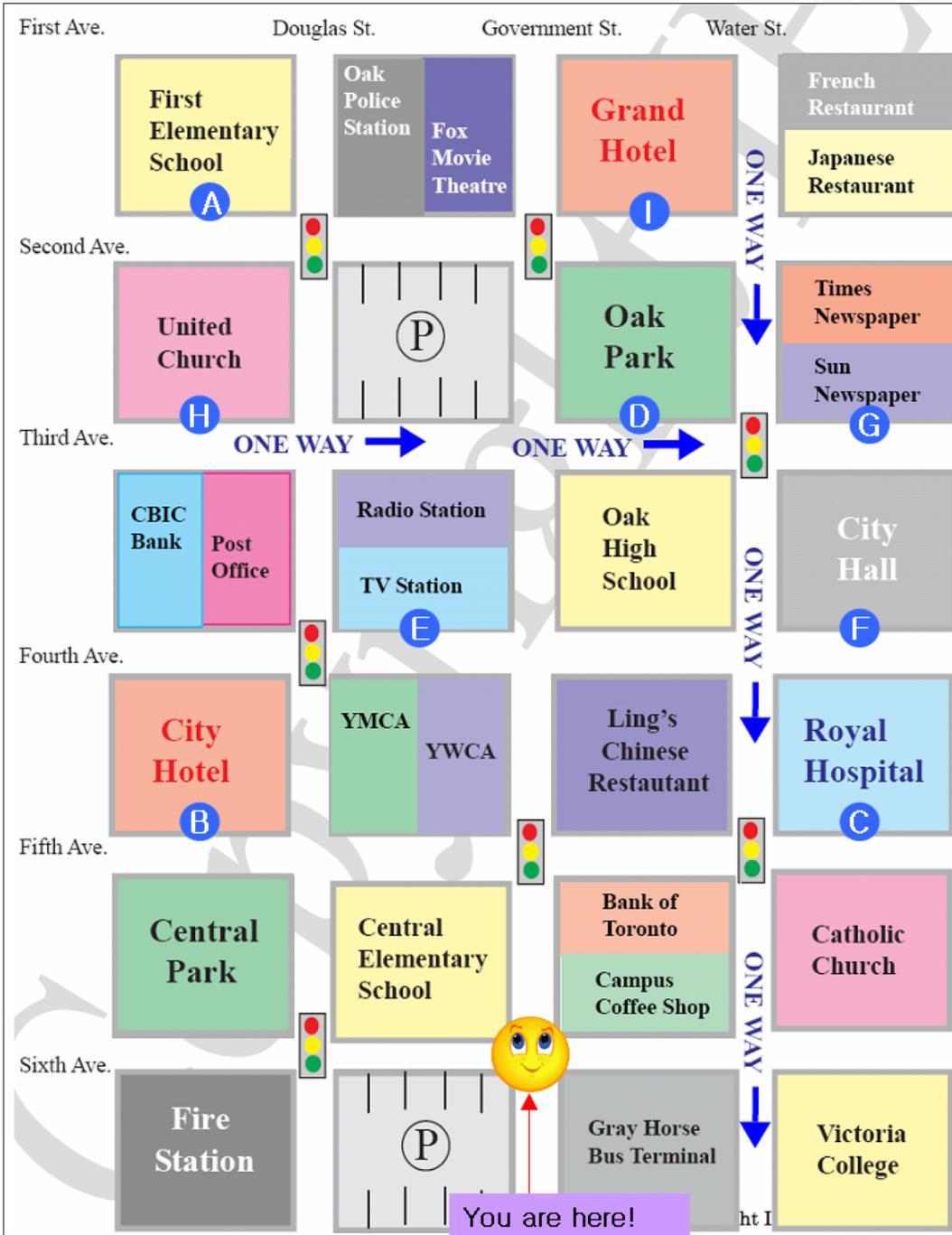
6. Procedures

Procedures	Activities (* Ss: Students)		Aids	Time	
	Teacher	Students			
Introduction	War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exchange greetings. · To check the attendance. · To review the previous lesson. · To introduce today's lesson objec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greet with the teacher. · To review. 	Blackboard	3'
	Objective				
Development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have Ss listen to the dialogue about 'asking and giving directions' without the script. · To have Ss listen to the dialogue again with the script. · To Ss' understa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listen to the dialogue. · To listen to the dialogue again with the script. · To answer the questions. 	Video clip (dialbu 12)	5'
Development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present the dialogue script. · To explain the expressions asking directions. (How can I get to ~? Where can I find ~? Where 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read the script. · To understand the key expressions. 	Video clip (dialog 12), PPT (Directions Dialogue), Blackboard, Textbook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explain the expressions giving directions. (Turn left at the corner. / You can't miss it.) · To remind Ss of the other expressions to give directions. (Go straight (for one block / two blocks). / Turn right. / Turn left. / Turn around. / Stop. / It's on your right / left.) 			
Development	P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present a 'City Map' to the Ss. <p><Group Wor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divide the Ss into groups of 4 members. · To distribute the worksheet to the Ss. · To have Ss make dialogues about giving and asking directions according to their worksheet. · To have Ss present their dialog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get into groups of 4 members. · To make dialogues in groups. · To present the dialogues. 	Worksheet (A~I)	20'
Consolidation	Wrap-up 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review the lesson. <p><Formative Te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have Ss find places listening to the dir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review the lesson. · To find places listening to the directions. 	Video clip (Finding Places)	7'

나. 자료

<교사 A - 수업자료 1>



A: Excuse me.

B: Yes, can I help you?

A: Where can I find 목적지 around here?

B: **Go straight (for one block / two blocks).
Turn right. / Turn left. / Turn around.**

A: **Stop.**

B: **It's on your right /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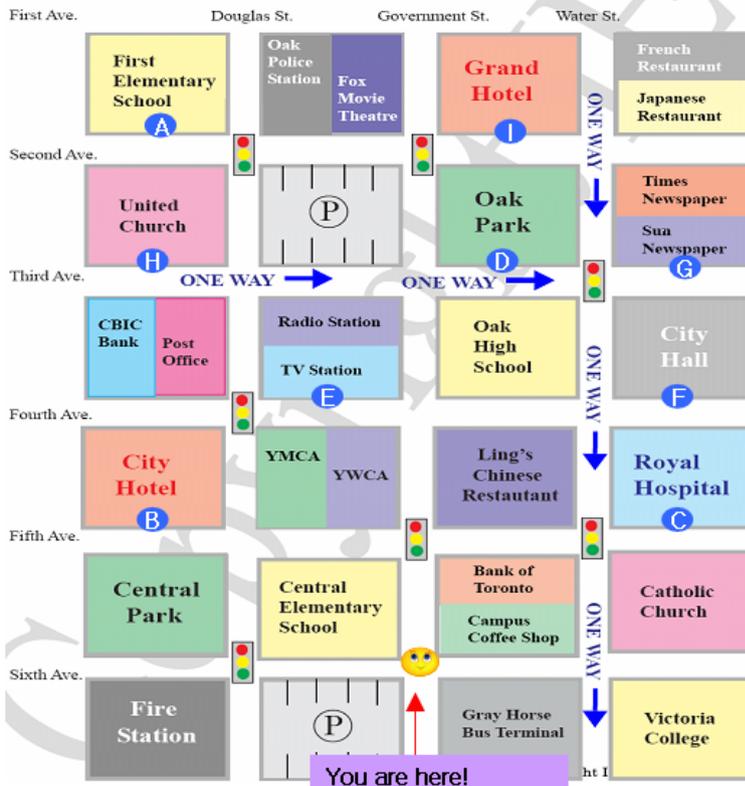
You can't miss it.

A: Thanks very much.

WORKSHEET D

1학년 ___ 반

이름: _____



Dialogue(between I & Foreigner)

다. 수업 녹취

Teacher: 지현아, 자리에 앉자. 완주도 빨리 앉고. 자 지금부터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은 일체 사양. 나중에 질문해.

Teacher: 자 얼른 자리에 앉고 책 펴. 자 오늘 4과 이어서 할 차례지? 몇 페이지냐면... 교과서 60페이지. 60페이지. 아 우리 단어시험하고 숙제 검사는 자동적으로 다른 시간에 할 거야. 알겠니? 오늘은 딴 거 할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할 거고 일단 교과서 다 펴봐. 빨리 앉아 자리에.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뭐야? 헤미야. 짝꿍 누구지?

Student: 박준호요.

Teacher: 준호, 양호실 갔고. 고 옆에는 누구지?

Student: 임호진.

Teacher: 어. 양호실 간 사람들 빼고는 다 있는 거지? 음. 자 애들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과를 하는 거야. 4과 Mina Is Visiting America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앤드류 시간이랑 지난 선생님 시간에 주로 했던 게 어떤 거였어?

Student: 길 찾기.

Teacher: 길 찾기였지. 그지. 자 길 찾기 우리 방향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지? 한 단어로 방향?

Student: Direction.

Teacher: Directions. Directions라고 했었지?

Teacher: 자 그래서 방향을 묻는다. Asking directions 그리고 방향을 알려준다, giving directions 이거를 이어서 오늘 마저 할 거야. 자 오늘은 교과서 내용 말고 이거와 관련된 다른 걸 할 거거든?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음. 우리가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길을 물어보고 알려주는 거와 관련된 짧은 비디오 클립을 볼 거거든. 자 여기 화면보고 한 번 봐봐.

(비디오 클립 시청)

Teacher: 자, 뒤에도 대화가 좀 이어지는데 우리가 볼 거는 딱 Thanks very much 딱 거까지만 볼 거야. 자 이번에 다시 한 번 들어보는데 요번에 들을 때에는... 여기 봐. 여기 봐. 자 이번에 들을 때에는 여기 밑에 이 사람들의 대화가 그대로 나올 거거든? 그니까 대화를 한 번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눈여겨 봐봐.

(비디오 클립 시청)

Teacher: 자 Thanks very much 여까지 딱 보는데, 자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Students: 네.

Teacher: 다 알겠어? 정말? 어? 중간 중간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이 대화를 전부 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자 대화를 적어 놓은 일단은 이걸 같이 한 번 보자.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대화 내용 우리가 아까 본 그 부분까지 대화 내용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여기서 너희가 눈여겨 볼 부분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눈 여겨서 보는 거야. 자 처음에 먼저 길을 물어볼 때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 가서 자 “뭐가 어디에 있어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례하겠어, 공손하겠어?

Students: 무례해요.

Teacher: 무례하지?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말이 자 실례합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니?

Students: (대답을 하는데 잘 들리지 않음)

Teacher: Excuse me라고 했지?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Yes, can I help you?”라고 하는 거야. 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길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책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가요?”라고 할 때 무슨 표현 배웠었어? 어? 어디로 어떻게 가요 할 때. 우리 책 60페이지에 나온 표현 뭐였었지?

Students: How can I... How can I find...

Teacher: 자 그렇지. 우리 책에서는 자 How can I get to 어디어디어디 이런 표현 배웠었지? 그지? 자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here can I find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는 어떻게든 말할 수 있냐면 Where is 어디어디어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그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거야.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그래서 "Where can I find a drugstore around here?"라고 물어봤어. Drugstore가 뭐지? Drugstore. 약국. 어~ 그렇지. 자 이 근처에서 어디에서 제가 약국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Turn left at the corner”라고 말했어. 우리 이 표현 배웠었지?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

Students: 반드시..

Teacher: 반드시.. 찾을 거예요. 굉장히 찾기 쉬워요. 이런 말이야. You can이라고 하면 안 돼. You can하면은 You can miss it. 하면은 절대 못 찾을 거예요 이런 말이야. You can't라고 해야 돼. You can't miss it이라고 해야 반드시 찾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지? 자 그랬더니 “Thanks very much”라고 했어. “아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긴 없지만 상대방이 또 어떻게든 말할 수 있을까? 고맙다고 했을 때?

Students: (대답을 하는데 잘 들리지 않음)

Teacher: 응 크게?

Student: You're welcome.

Teacher: 어 You're welcome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It's my pleasure하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 파란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활동

을 할거야. 자 일단은 보면은 아까 전에 어디어디를 찾을 때 어딜 어떻게 갈까요라고 물어볼 때 Where can I find 목적지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Around here 이렇게 말하고 또는 여기 있는 다른 표현들로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요 표현 잘 보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거는 일단 너희가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표현들 있지? 자 Go straight 하면은 쭉 가세요란 얘기잖아. For one block, two blocks, three blocks라고 하면은 한 블록 가세요, 두 블록 가세요, 세 블록 가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고 또 요 표현도 우리 다 배웠었지? Turn right 어떻게 하란 얘기야?

Students: (대답을 하는데 잘 들리지 않음)

Teacher: 오른쪽으로 도세요. Turn left 하면은?

Students: 왼쪽으로...

Teacher: 왼쪽으로 도세요. Turn around 하면은?

Students: 뒤로 돌....

Teacher: 뒤로 돌으란 얘기야. 한 바퀴 다 돌으란 게 얘기 아니고 이렇게 반 바퀴만. 그지? 뒤로 돌으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stop하면 거기서 멈추세요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이 당신이 찾은 곳은 당신이 서 있는 곳의 왼쪽에 있어요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Students: It's on your right.

Teacher: It's on your... left. 오른쪽에 있어요라고 할 때는?

Student: It's on your right.

Teacher: 응 It's on your right. 자 우리 이 표현들 다 배운 거잖아.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활동을 할 건데, 자 뭘 할 거냐면 자 여길 보면 city map이 있어. 그지? 이게 지도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그룹을 네 명으로 지어가지고 worksheet을 다 나누어 줄거야. Worksheet을 이렇게 나누어 줄 건데 이 worksheet을 보면 알파벳이 다 달라. ABCDEFGHI까지 있어. 자기가 받은 worksheet의 이 알파벳 번호를 보면서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여기 장소에 다 알파벳이 붙어있지? H 모 AID이렇게 있잖아. 그지? 자 내가 만약에 D라는 worksheet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도착지는 여기야 Oak Park가 되는 거야. Oak Park. 알겠어? 자 그리고 G다 그러면 Sun Newspaper가 목적지가 되는 거야. 음? 출발지는 다 똑같이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거야. 자 I와 foreigner의 대화를 만들어 보는데 외국인이 나한테 길을 물었다고 생각을 하고 I와 foreigner의 대화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봤던 거 생각해보면 일단 외국인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겠지? 뭐라고? 뭐라고 말을 걸겠어?

Students: Excuse...

Teacher: Excuse me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고 내가 길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우리 배웠던 아까 표현들 중점적으로 해서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니? 뭐하는 건지 알겠어? 이렇게 두 사람의 dialogue를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는 그 그룹에서 두 명씩이 나와서 실제 앞에서 보고서 대화를 해보는 걸 할거거든. 알겠지? 뭘 하는

건지?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홀수 줄 있지?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 뒤로 돌아. 그럼 저절로 네 명씩 그룹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자 일단 빨리 만들어보자. 네 명씩 그룹을 만들어 봐. 그대로 돌면 돼. 의자만 돌려. 의자만.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자 다 만들어졌어? 자 여기 이름에는 네 명의 이름을 다 쓰면 돼. Worksheet에 여기 이름 쓰는 란 있지? 여기에는 네 명의 이름을 다 쓰는 거야. 자 뒤로 돌아야지. 뒤로 돌아. 돌아서 같이~

Student: (질문을 하는데 들리지 않음)

Teacher: 어 그럼 세 명이서 그냥 하면 돼. 붙어야지 더 가까이. 의자를 아예 가져가서 돌려버려. 뒤로 확실하게 돌아야 편하지 않겠어?

Teacher: 어 여기는 세 명이서 같이. 어?

Student: 애네 둘이 나가야 되는데..

Teacher: 자..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봐. 잠깐만 있어보자. 자 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이름 쓰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자 잠깐만 기다려봐. 보자보자. 자 이렇게 됐고 됐고, 자... 기빈아. 기빈이랑 혜현이랑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는데?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자리를 옮겨보자.

Student 1: 저랑 송혜현이랑 옮길게요.

Student 2: 저도 옮겨주세요. 아..나.. 진짜..

Student 3: 저 옮겨주세요!

Teacher: 자 앉아 빨리. 나머지는 기다려. 선생님이 옮기라고 한 사람만 옮겨. 철우랑 세훈이가 옮길래? 아니면 기빈이랑 혜현이가 옮길래?

Student 1: 저랑 송혜현이랑.

Teacher: 그렇게는...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조용히 해. 기빈이가 절로 가. 기빈이가. 자 기빈이랑 혜현이랑 옮겨. 빨리 옮겨 시간 없어.

Student 1: 아 그냥 내가 간다니까요. 기껏 일어났는데.. 아..

Teacher: 자 빨리. 자 이렇게 넷이 하고 넷 됐고.. 넷.. 나머지는 그대로..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어... 이제부터 해보는 거야. 이제부터 15분 줄게.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아 애들아. 여기 잠깐만. 자 출발지가 똑같았잖아 그지? 거기서 출발을 해서.. 야. 5반. 5반. 야 이렇게 할 거야? 자 여기 봐봐. ...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자 여기 파란 글씨 위 주로 우리 봤었잖아. 그지? ... 여기가 목적지가 다를 거야. 그지? 알겠지? 해봐.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도와줄게.

Teacher: 자 여기 길을 물어보는 거야. I, F로 해. 저기 칠판에 있는 대로. Foreigner가 먼저 길을 묻고..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시작지가 너희는 F잖아. 그니까 여기로 가야지. F 어디 있어? 여기잖아. City Hall. 자 one way니까 근데 이렇게만 가야 돼. 이렇게만.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꺾거나.....(잘 안 들림)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같이 만드는 거잖아. 넷이 같이.. 아예 나와서...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자 너희는 I잖아. Grand Hotel. 목적지 여기...I야 I. 나와 외국인의 대화.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윤찬아. 똑바로 앉아.. 자 여기 보면은 worksheet이 C잖아. 너희는. 그럼 목적지가 C야 C 여기. Royal Hospital.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거잖아. 잠깐 기다려. 근데 여기 one way니까 이렇게는 못 가겠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신호등은 그냥 무시해... 애들아 그냥 one way만 잘 봐 one way만.

Student: 선생님, 여기요..

Teacher: 목적지 A잖아. A잖아. Worksheet이 다르잖아. 그치 How can I find First Elementary School이라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중요한 거는 근데 one way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켜....

Teacher: 자 여기는...

Student: 이렇게 하면 세 블록.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자 애들아. 야 이렇게.. 상관없고... ABCDE.. 있지? 그게 목적지야.. 그거 하나만 알려주는 거야. 어? 알겠어?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자 절대. You can't miss it, thanks 이런 거 있지. 일로 가도 돼.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어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Students: (웅성웅성)

(빨리 돌아가서 안 들림)

Student: 재네 왜 자리 바꾼 거예요?

Teacher: 좀 힘들 거 같아서.

Students: (웅성웅성)

Student: 마무리 어떻게 해요?

Teacher: 자 길을 알려줬잖아. 넌 꼭 길을 찾을 거야라고 You can't miss it이나 뭐 천만에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잘 하고 있어? 애들아. 딴 짓하지 말고. 왜 돌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미없어. 수행
마이너스 시켜. 열심히 참여해. 다 했어? 지금 만드는.. 다 했어? 그럼 연습해. 나와서 시켜. 다
했어? 자 다했으면 연습해. 여기 앞에서 나와서 시킬 거지.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했어?

Student: 리허설하고 있어요.

Teacher: 리허설하고 있어?

Teacher: 야 똑바로 앉아. 다리 내리고. 장난치지 말고.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야 애들아. 다 했어? 다 했어? 다 못한 조 손들어봐. 다 못했어? 많이 남았니? 고치고..
조금만 시간 더 줄게.

Student: 2분.

Students: (웅성웅성)

Student: 이거요. 봐주시면 안 돼요?

Teacher: City Hotel? 잘했네.

Teacher: 주목! 다 했지? 자 그럼 앞에 보고 앉아서 각 그룹에서 두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해볼
거야. 너희가 한 거를. 듣고 자 이 지도 같이 보면서 잘 찾아봐. 선생님이랑. 알겠지? 그럼 여기
부터 시작해볼까? 누가 나올래? 자 나오면 분명히 수행에 뭔가 플러스해 줄 거야. 조용! 자 하
는 거 다 잘 들어봐. 잠깐 잠깐 기다려. 야. 누구지? 기빈아. 다 끝났지? 이제 그만 쓰고서 잘
봐봐. 듣고서 어디를 찾는지 정확히 같이 한 번 보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마이크 대줄게.
팬잡아? 그럼 목소리 크게 다 잘 들리게 시작~

Student 1: Excuse me.

Student 2: Can I help you?

Student 1: Can I... Can I...(빨리 돌아가서 안 들림) around here?

Student 2: Go to 3 and turn right. It's on the left.

Student 1: Thank you very much.

Teacher: 음 잘했어.

Student 1: 이거 안 했어요.

Student 2: You're welcome.

Teacher: 자 잘했지? 박수! 자 잘했지? 목적지가 어디였어? 다 찾았니? 목적지가 어디였어?

Students: 안 들렸는데요..

Teacher: 크게 말했는데. (빨리 돌아가서 안 들림) Go straight three blocks라고 한다. 야. 다른
사람이 할 때 들어주는 것도 매너지. 자기만 잘 한다고 그게 다야? 아니야. 잘 들어주는 거야.
누구지? 소영이 앞에? 돌아 봐. 다 했잖아. 끝났잖아. 자 Oak Park갈 때 어떻게 갔어? Go

straight three blocks, turn right 했지? 자 It's on the left. 응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해 보자. 마이크 대줄까 말까. 크게 해야 돼. 그러면.

Student 1: 니가 해.

Teacher: 다 잘 들어.

Student 2: Excuse me.

Student 3: 안 들려요.

Teacher: 좀 더 크게.

Student 2: Excuse me.

Student 1: Yes, can I help you?

Student 2: Where is ..Elementary School?

Student 1: Go 2 blocks, turn left. Go .. (잘 안 들림)

Student 2: Thank you very much.

Student 1: You're welcome.

Teacher: 음, 다 잘 들었니? 어? 박수! 잘했지? 자 근데 이거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알겠지? 같이 눈으로 찾아봐야 하니까. 애네 목적지 어디였어? 어?

Student: A요 A.

Teacher: 여기였지. A였지. First Elementary School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너희도 눈으로 같이 따라가 보는 거야. 잘 가고 있는지. 어? 잘했지? 자 이번에 여기도 두 명 나와 보자. 빨리. 자 얼른 나와 보자.

Student 1: 그냥 해요?

Teacher: 다 잘 들어.

Student 2: Excuse me.

Student 1: Yes, can I help you?

Student 2: Where can I find First Elementary School around here?

Student 1: Go straight for one block, turn left. Go straight two block, turn right. Go straight three blocks, turn right. Stop. It's on your left your can't miss.. 아니..can't.. Your can't miss it.

Teacher: 음.

Student 2: Thanks very much.

Student 1: You're welcome.

Teacher: 어 잘했지? 박수. 자 왜 선생님 혼자만 박수 쳐? 박수 안 칠거야. 이렇게? 어? 박수! 이거 매너들 보라. 자 이번에도 목적지 똑같았지? 전이랑? 이번에도 First Elementary School 찾아갔는데 어떻게 갔니? 어떻게 갔어? 눈으로 다 찾아봤어? 어? 자 요렇게 가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왔지. 맞지? 어 눈으로 같이 다 확인해봐. 자 그 다음에 요기. 요기 두 명. 누가 할래? 여긴 아직 합의.. 이따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 사이에 합의 봐. 얘기했지? 앞에 나와서 하면 보너스. 자 그럼 여기 먼저 나오자. 이쪽. 음 기다려.

음. 누가 먼저 시작해? 보면서 해.

Student 1: Excuse me.

Student 2: Can I help you?

Student 1: How can I find....Church?

Student 2: Go 3 blocks, turn left. Go straight for... It's on your left. You can't miss it.

Student 1: Thank you very much.

Student 1: You're welcome.

Teacher: 음 잘했지? 박수! 목적지 어디였어? 못 들었어? United Church였잖아. 음 잘했어. 여기 누구? 아직 못 정했어? 자 그럼 빨리 정해.

Student 1: Can I help you?

Student 2: How can I get to Grand Hotel?

Student 1: Go straight .. blocks, turn right. It's on your right.

Student 2: Thank,. thank you very much.

Student 1: You're welcome.

Teacher: 음 잘했어. 잘했는데 작은 mistake 발견했어. 지금. 자 재네 목적지가 어디였니? Grand Hotel이었지? 자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갔어. go straight 잘했고 turn right 맞아 그치? 그랬을 때? 왼쪽이지. It's on your right라고 했지? It's on your left가 맞지. 자 이 방향을 잘 봐야 돼. 자 이렇게 가다가 진행방향이 이쪽이지? 왼쪽에 있는거야. 그지? 자 고쳐 빼고 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두 명. 자 누가 먼저?

Student 1: Excuse me.

Student 2: Can I help you?

Student 1: Where can I find City Hall?

Student 2: ...straight three blocks. Turn ... It's on your.. side. You can't miss it.

Student 1: Thanks.

Teacher: 자 박수. 야 애네 목적지 어디였어? 어? 애네 목적지는 City Hall이었는데 자 이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어떻게 갔냐면.. 자 여기 봐. 이렇게 가서 꺾고 또 가다가 또 꺾어. 이렇게 꺾게 가는 거지. 잘했네. 그 다음에 여기. 어 거기 팀에서 두 명 나와. 자 누가 먼저?

Student 1: (발표하는데 들리지 않음)

Student 2: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at corner.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at corner. You can't miss it.

Student 1: Thank you.

Teacher: 음. 잘했네. 자 자 이번에는 목적지 보면 Royal Hospital이었어. 그런데 너희들 다 주의해야 될 게 one way야. 자 one way 일방통행이지? 자 one way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되지? 자 그래서 돌아오는 거야. 목적지가 Royal Hospital이라고 했었지? 자 그럼 우리 생각에는 자 요렇게 가면 될 거 같잖아. 웬지 기분이. 그런데 딱 보니까 one way야 그치? 자 그니

까 이렇게 가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했지? 길을 볼 때 잘 보고 알려줘야 돼. 그럼 우리 두 조 남았는데 결정했어? 자 나와서 해봐. 도와줄게 선생님. 도와줄게. 그래.

Student 1: Excuse me.

Student 2: Can I help you?

Student 1: How can I find 뭐예요? ... around here?

Student 2: Go straight ... block, turn right at the corner. Go straight one block. It's on your left.

Teacher: 음.

Student 1: Thank you very much.

Teacher: 음. 잘했지? 박수! 자 다들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자 이번에도...(빨리 돌아가서 안 들림) 요렇게 와 가지고 요렇게. 그치? It's on your left지? 자 이제 마지막 조. 자 도와줄게. 걱정 마. 자 이제 한 조만. 마지막 조. 끝까지 잘 들어. 응? 시작.

Student 1: 저 마이크 안 대고 할게요.

Teacher: 크게 크게.

Student 1: How can I..

Teacher: Excuse me부터.

Student 1: How can I get...

Teacher: 자 조용히 하면 들릴 거야. 그치? 쥐 죽은 듯이 한 번 있어봐.

Student 1: Ex..Excuse..

Teacher: 자신 있게 해. 괜찮아.

Student 1: Excuse me.

Teacher: 혜현이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나 봐. 자 다시 한 번. Excuse me.

Student 1: (발표하는데 들리지 않음)

Student 2: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left. On.... You can't miss it.

Teacher: 자 그럼?

Student 1: Thank you.

Student 2: You're welcome.

Teacher: 잘했어. 자 이번엔 목적지 어디였어? 마지막? City Hall이었지? City Hall? 요렇게 요렇게 응 잘했고자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게임 비스무리한 걸 할거야. 자 여기 다 봐봐.

Student : 선생님, 애요 혜현이한테 자꾸 뭐라고 해요.

Teacher: 덕일아. 덕일이는 안 했으면서 남이 한 걸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와서 하지 응? 자 마무리할 거야. 이걸로. 여기 한 번 같이 봐.

(비디오 클립 시청)

Teacher: 자 나와 버렸네. 이거는 뭐냐면 자 선생님이 이거 클릭할 때마다 지시를 해. 어디를 가라고. 그럼 이걸 따라가. (빨리 돌아가서 안 들림) 시작해서부터 지시를 잘 듣고 도착지가 어딘지 눈으로 한 번 찾아봐. 자 두 번째 거 볼게. 어 잠깐.. 뭐가 떠나지고... 또 볼게.

(비디오 클립 시청)

Teacher: 자 다시 시작할게. 기니까. 다시.

(비디오 클립 시청)

Teacher: 말해주 버렸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 거였어? 다시 한 번 들어 볼 거야. 자 이 길을 따라서 River Street을 가다가 turn left하라 그랬지. 그리고 재가 make a right turn이라 그랬어 그치? At the corner에서 그러면 이거 찾게 되는 거지. 자 다시 봐봐.

(비디오 클립 시청)

Teacher: 자 뭐하는 건지 알겠어? 어? 알겠니? 자 다시 한 번 세 번째 거 들어볼 테니까 이번에도 눈으로 잘 따라와 봐.

(비디오 클립 시청)

Teacher: 자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자 Walk up River Street이야. Walk up River Street. 자 이 River Street을 따라서 위로 쪽 걸으세요. 그 다음에 turn left on the corner of second avenue. 자 second avenue corner에서 turn left하라 그랬지? 어? Turn left하고 자 walk along second avenue until the middle of the block. 자 블록의 가운데까지 여기 따라서 쪽 올라가래. 어?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자 You will see this building next to Cinema Ten. 자 Cinema Ten이 여기 있어. Cinema Ten 옆에서 볼 수 있어요. 자on second avenue. Second avenue 위.. 어 second avenue 가에서 자 요기 Cinema Ten 옆에 있는 거 뭐겠니? 요거잖아. Beauty Parlor. 미용실. 그지? 어. 다시 한 번 들어봐.

Teacher: 음. 잠깐만.

(비디오 클립 시청)

Teacher: 자 어때 알겠니? 어. 자 나머지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할 거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Teacher: 재미없었어? 어?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라. 자기 관찰

단계	영역	관찰	이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 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길 묻고 답하기'라는 구체적인 수업 목표를 세움. ● 심화학습으로 '지시문을 듣고 장소 찾기'라는 학습목표를 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수업 목표인 '지시문을 듣고 장소 찾기는 wrap-up 단계의 형성평가로 짧게 다루었는데, 본 학습목표는 생략하고 기타 두 가지의 학습목표에 더 집중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분의 수업에서 실제로 수업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 수업 목표를 정립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에 맞는 비디오 클립을 찾아 활용하고 설명 자료와 Worksheet은 PPT를 활용하여 수업교사가 직접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ntation 단계에서 보여준 비디오 클립 내용 중 교과와 관련 없는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수업에서 제외하긴 하였으나 보다 적합한 비디오 클립이 있으면 이상적이었음) ● Worksheet이 다소 복잡하게 만들어져 학생들이 활동 중 혼란스러워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직접 비디오 클립을 제작할 수 있는 비교적 조차이 단순한 활용도구가 있는가?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 질 환경: 학생, 교실, 기 재 등)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전개 시 Presentation과 Practice 단계에서 whole-class로, Production 단계에서 Group work로 구성함. ● 전체적으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네 기능이 고루 들어갔도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활동 발표를 그룹 당 두 명에게만 시켜 모두가 말하기 활동을 하지 못함. (주요 표현들을 연습할 수 있는 Pair Work를 연계했다면 더욱 이상적이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 위치한 동네가 경제적, 가정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이 서울 시 평균보다 다소 떨어짐. ● 반을 선택할 때 비교적 통제가 쉽고, 수업 분위기가 좋은 Homeroom class를 선택함. ● 학생들이 Mixed Level로 수준 차가 다소 많이 남. ● 프로젝트 TV가 왼쪽에 위치해 있어 교실의 학생 전체가 보기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활동 시 최대한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차시, 특히 원어민 시간 수업내용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 새로운 시청각 자료(비디오클립)를 보여주어 흥미를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아쉬웠음. 비디오클립이 흥미유발과 그룹 활동을 위한 예시자료로는 좋으나,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다소 어려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 시작 시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가?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 활동이 주된 활동이므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함. 교사가 그룹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는 있으나, 몇몇 학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 그룹 활동의 장점을 살려 교사가 학생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함.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을 제시할 때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여 답할 기회를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이 다소 길게 지속되고, 빠른 느낌이 있음. 말을 할 때 '자~'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그룹의 발표 후 교사가 칭찬을 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확인음 함.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 교사가 오류 수정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u can't miss it."을 "Your can't miss it."으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구체적인 오류가 판단하고 수정을 안 하였으나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류 수정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까?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sentation 단계에서 제시한 비디오 클립과 연계되게 과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시킴. 과업 자체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평균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과제는 아니었으나, 학생들의 수준 차가 많이 나는 관계로 읽는 것조차 불가능한 학생들도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적 수준에 비해 크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ouping 시 학생들의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분량이 다소 있음. 학생들의 과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다소 혼란스러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ouping 시 학생들의 수준이 클고 투분베되게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이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시를 듣고 건물 찾기 게임으로 학습 점검을 하였으나, 교사의 조작 미숙으로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게임을 제시하기보다 차라리 Presentation 단계에 보았던 비디오클립을 활용, '민 간 채우기' 등의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점검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p>학습 목표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그룹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보임. ● 세 번째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단계에서 새로운 학습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것 자체가 다소 무리였던 것으로 보임. (형성평가는 그 자체의 의미대로 이미 학습한 것을 평가하는 데 그쳐야 함.) 	
수업 후 (self-appraisal)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그룹 활동에 참여하여 수업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수업과 관련된 보다 authentic한 자료(비디오 클립)를 찾을 수 있어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었음.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수준(mixed level)이나 수업 분위기 통제를 위해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관찰을 하고 싶음. (현재는 학생들이 상/하 두 수준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고 있고 본인은 '상'만을 받고 있음.)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수업 전 Lesson Plan을 짜고 수업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학교 실정 상 때 수업을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함. 본 수업도 Lesson Plan을 실제 짜지 않고 구성만 하고 수업을 준비했고, 수업 이후 Lesson Plan을 썼는데, 이로 인해 형성평가 단계에서 새로운 학습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음.	앞으로는 되도록 Lesson Plan을 짜고, 그렇지 못한 경우 보다 면밀하게 구상 후 수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교사 A - 관찰자료 1>

단계	영역	의견
	<p>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과 연계된 적절한 학습 목표 선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수업 목표나 절차를 칠판 한쪽에 기재하거나 ppt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음. ● 수업 목표를 제시함에 있어 단순히 '오늘은 ~을 배울 것이다.'라는 정보 보다는 관련된 단어나, 그림, 영상 등의 que를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습할 내용을 유추해보게 한다던 더욱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p>학습 내용(기능, 지식) 및 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 및 말하기 기능에 중점을 두었으며, worksheet을 이용한 Dialogue 만들기에서는 작문 능력도 요구됨.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길안내' 주제와 관련하여 언어의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함. ● ppt, video clip, worksheet과 같은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함. ●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와 문장 표현을 사용하여 Dialogue를 구성함.
<p>수업 전 (계획단계)</p>	<p>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 video clip을 이용하여 주제에 접근해 보고, 길안내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함(진체학습) -video clip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끈 면에서는 바람직한 시도이나, 학생들의 수준에 다소 어려운 어휘나 표현은 처음부터 단순화시켜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전개 : worksheet에 제시된 city map을 보고 지정된 장소를 안내하는 dialogue를 만들어 본 후 발표함. (그룹활동) -학생들이 길안내에 필요한 대화를 직접 만들어 보고 발표해 봄으로써 작문 능력과 실생활에서의 말하기 표현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 그룹 구성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이 낮은 학생들만 모여 있지 않도록 미리 배려해야겠음. ● 마무리 : ppt를 이용한 듣기 활동(진체학습). -학습한 내용에 대한 형성평가라기 보다는 또 하나의 관련 활동인 것 같음. 마무리 단계에서는 새로운 활동을 첨가하기 보다는 수업 중 활동에 대한 이해도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음.
	<p>수업 맥락 (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학급 내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섞여 있음. ● 그룹활동시 홀수출의 학생들이 뒤로 돌아 4명씩 한 그룹을 만듦. ● Homeroom class로 교사가 학생들의 이름이나 수준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학습 내용 중 많은 부분이 TV 화면으로 제시되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잘 보이고 잘 들리는지 위치 및 크기의 조절이 고려되어야 함.

단계	영역	의견
	학생 관련 (동기, 참여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deo clip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 점이 바람직함. -내용 중 다소 어려운 단어나 표현들을 '이 부분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제외시키는데, 처음부터 좀 더 쉬운 자료를 제시하거나, 학생들 수준에 어려울 것 같은 단어나 표현을 정리해 별도의 학습지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듯함. ● 학생들이 비교적 바른 태도로 교사의 말을 잘 경청함. ● 그룹활동시 다소 산만한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발표시 다소 수줍어 하면서도 모든 모습이 잘 참여함.
수업 중 (시작 -마무리)	상호작용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활동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함. -한 그룹 내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해 준다면 모든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 의한 peer correction도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듯함. ● 교사가 활동 중간 중간에 질문을 던져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함. ● 그룹활동시 교사가 교실을 돌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작문을 돕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함.
	교사 언어 (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설명이 한국말로만 이루어지는데, 반복적인 지시어나 간단한 설명은 되도록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듯함. 특히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 수업이므로 교사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된 영어 표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role play를 할 때 어색함을 줄여줄 수 있음. ● 학생들에게 다소 명령적인 반말보다는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함. ● 목소리 크기가 적절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함.
	피드백 (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발표가 끝나면 박수를 쳐주며 칭찬과 격려를 해 줌. ● 조별 발표나 교사가 교실을 돌며 파악한 내용 중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잘 하는 발음 및 표현상의 실수에 대해 한번정도 종합적인 오류수정을 해주면 좋을듯함.
	학습 활동(과업) -적절성, 수준,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 및 활동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고 실생활과의 연계가 가능한 흥미있는 내용이었음. ● 도입 단계의 video clip이나 마무리 단계의 길찾기 대회에서는 다소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나왔음. ●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섞여 있는 교실 상황이므로, 자료 제작시 같은 활동에 대해 수준별 학습 활동지를 만들어 사용해보거나, 단어나 표현 등의 심화학습 자료를 제작해 상위권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단계	영역	의견
수업 중 (시작 -마무리)	수업 진행 (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은 잘 이루어졌고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에 대해 교사가 때때로 지적을 해주며 수업에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보임. ● 수업을 시작할 때나 다른 활동으로 넘어갈 때 학생들이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서둘러 수업을 진행시키는 면이 있음. 좀 더 여유있게 학생들의 준비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그룹 활동시 미리 계획된 그룹 구성으로 활동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빠르고 분명하게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듯 함.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수업 중간 중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와 같이 이해도를 묻는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데, 개별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방법임. 여러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게 하거나, 그림이나 동작으로 방향 표현을 해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임. ● 그룹 활동시 직접 만든 대화문으로 role play를 해보게 하는 것은 다양한 언어 기능을 직접 활용해보게 하는 좋은 방법임. 그림 발표시 칠판에 지도를 크게 그려놓고, 교사나 지적 받은 다른 학생이 대화의 내용을 들으며 노선을 직접 그려가는 활동도 나머지 학생들의 주의 집중에 좋을듯 함. ● 형성평가의 내용이 좀 더 단순하고 수업 중 활동 내용과 연관된 것이었으면 좋겠음.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중심으로 '길찾기 표현을 익히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비교적 잘 달성되었음. ● 학생들 개개인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형성평가지나 과제를 제시하였으면 더 좋았을 듯 함.
	민주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활동을 통해 학생 활동이 중심이 된 수업을 이끌어 가려 노력함. ● 듣기, 말하기, 쓰기 등 다양한 언어 기능을 고루 발전시키도록 계획된 수업이었음. ● 교사의 목소리가 힘이 있고 분명하게 잘 전달되었으며 개별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음. ● video clip, ppt, worksheet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준비함.
수업 후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classroom English의 사용이 필요함. ● 좀 더 authentic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음. (예를 들어 city map 대신 학교 주변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활용한다거나, 학생들이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직접 찍은 동영상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 ● 학생 개개인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개별 질문이나 개별 평가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길찾기 문제는 노선을 따라가며 표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칠판에 색분필, 색깔 있는 자석, 그림 카드 등을 이용하여 아날로그식으로 학생들이 길찾기를 해보는 것도 효과적일 듯함.

<교사 A - 관찰자료 2>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 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학습목표: '길을 묻고 답하기 1) 쉬운 내용의 사실적 정보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듣기) 2) 간단한 일의 절차나 방법을 묻고 답한다. (말하기)	학생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몇몇 소극적이거나 산만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습목표를 판서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함	1) 학습목표를 칠판에 꼭 적어 야만 하나? 2) 설정된 학습목표가 학습자 들에게 적절한가?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학습내용: 1)방향 묻기 2)방향을 묻는 표현 익히기 3)지시문을 듣고 장소 찾기 -교재: PPT, video clip, worksheet	수업에서 도입하는 비디오 클립과 학습 내용이 적절히 연관된 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니 학생들을 활용하여 dialogue를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지?	효과적인 시청각 기자재 사용 법으로 무엇이 효과적일까?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도입: presentation과 practice-전체 학습 형태 -전개: 모둠학습 형태 -연어 4기능을 고루 연습할 수 있도록 계획	전체학습에서 모둠학습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영어시간 만이라도 상·중·하 학생들이 적절히 배분된 자리 배치도를 만들어 전체와 모둠 학습의 효과를 도모해 봄이 어떨까?	1) 영어시간 만의 자리배치를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떠한 가? 2)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가능 하게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까?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 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 재 등)	-교육여건이 서울 평균보다 어려움 -학생의 수준이 상중하 모두 모여 있음 -학생들의 이름을 교사가 다 알고 있어 학급 통제가 비교적 수월해 보임 -전면에 프로젝션 TV 있으나 뒤쪽에서 화면을 알아보기 어려움.	학생들의 자리배치를 고려해야겠음. 모둠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자주 호명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만으로 구성된 조는 간단한 모둠활동도 어려울 수도 있음	대부분 모둠활동에 비교적 잘 참여하고 있으나 흥미를 잃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 들을 참여시킬 방법은 없는 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 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원어민 수업과 연계된 수업 -dialogue를 PPT 로 소개	PPT 자료로는 동기유발과 참여도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음, UCC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하여금 자료를 제작하게 하는 게 어떨지...	동기 유발이란 어떤 의미인가? 학생들이 자신이 ucc를 이용해 자료를 제작할 때 장단점은 어떤 점이 있나?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모둠학습위주의 진행으로 학생활동이 원 활함. -교사가 순회하며 모둠활동 도움	모뎀학습 시 학생 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함.	수업에 관심없는 학생들을 모뎀학습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은?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 진행이 대부분 국 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라” 체의 어 법이 두드러짐 -“알겠어?”라는 말로 ‘yes’ 대답 유도	-간단한 진행어나 설명, 질문은 영 어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수업 시 경어 사용이 어떨까? -yes의 대답 유도는 적절치 않아보 임.	수업 시 간단한 지시어 정도는 영어로 하는 것이 어떨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조별 발표 후,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 기 위해 박수를 유도하고 오류 발견 시 수 정함	소극적인 수업분위기를 전환시키려 는 교사의 노력이 돋보임.	발표에 소극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발표 시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의 지도 방안은?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본시는 전시학습한 것을 심화하는 수업으로 학습 내용이 적절하고, 수준 또한 적당 해 보임.	활동적인 학생들을 강화하고 소극적인 학생들을 학습활동 속에 참여 시킬 방안 연구 필요함.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모뎀학습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됨. 학생들에게 활동 설명에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됨.	수업의 흐름이나 진행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위해 적절한 통제 필요해 보임	자유로운 모뎀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학습 점검(평가 요소)	모뎀활동 뒤, 각 조별로 대표가 교단 앞에 나와 길을 묻고 답하는 짧은 대화를 재연함	재연되는 대화를 듣고 자리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장소를 찾아가는 활동이 좋았음.	소극적인 학습자에 대한 방안은 어떤 점이 있나?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목표한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교과의 수준을 어떻게 잡고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학습목표를 제시할 필요를 느낌.	
	만족스런 점	-전체학습과 모둠학습이 적절히 혼합된 수업이었음. -비록 수업에 무관심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학생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있었음.		
	개선 점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전반이 국어로 이루어졌는데, 간단한 교실영어와 지시어를 적절히 혼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각 시도 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플래시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데 ppt 자료보다 그런 자료를 사용한다면 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됨.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현재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수업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업이었음. -전시학습과 연결된 심화학습이어서 이겠지만 학습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고 모둠학습을 불편해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모둠학습 시의 자리 배치 및 안내를 사전에 완료해 실행한다면 모둠학습을 위한 시간 낭비가 덜 할 것임. -도입부에서 대화 내용을 한번만 들려주고 교사가 해석을 해 주는 것 보다 학생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알겠어, 알겠니?’ 등의 말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암시적으로 yes의 대답을 요구하는 느낌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대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함.		

<교사 A - 관찰자료 3>

		의견
단계	영역	
수업 전 (계획단계)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목표를 핵심단어 (direction) 으로만 제시하여 아쉬움. 교사가 수업목표를 ‘giving directions’ 라고 말로 제시하긴 했지만, 칠판에 써어있지 않았음. 하지만 구체적인 수업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본 수업에서 어떤 기능을 연습하게 될 지에 대한 안내가 수반되었음.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ntation 단계에서 보여준 비디오 클립의 수준이 다소 높아서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했으나 그들이 비디오 클립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Worksheet이 시각적으로 다양화되어 있던 하지만 구성이 다소 복잡하고 사용된 어휘가 어려워 학생들에게 인지적 부담을 줄 수도 있음. ● 수업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 “ Where can I find~?” 라는 표현을 교사가 반복적으로 말함.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듣기 수업인 만큼 말하기와 듣기 기능에 중점을 둬. ● Dialogue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writing이 있음. ● pair work를 통해서 두 사람이 대화문을 실질적으로 연습해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TV가 왼쪽에 위치해 있어 교실의 학생 전체가 보기에 어려움. ● 그룹 활동 시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함.

단계	영역	의견
수업 중 (시작-마무 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클럽이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다소 어려울 수 있음. ● 학생들의 발표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음 ● 말하기. 듣기 수업인 만큼 말하기와 듣기 기능에 중점을 둬. Dialogue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writing이 있지만 조별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4명의 학생 중에서 1명의 학생이 주도적으로 dialogue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dialogue를 작성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답답을 하거나 장난을 치기도 함. worksheet 하단에 작성해야하는 dialogue가 I 와 foreigner 두 사람 간의 대화이므로 4명으로 이루어진 group work 보다는 pair work를 통해서 두 사람이 대화문을 실질적으로 연습해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활동 중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임. 몇몇 학생들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학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 ● 교사가 그룹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줌.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답할 기회를 줌으로써 집중력을 끌어냄. ●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부분이 다소 길고, 말의 속도가 빠르다. ● 핵심이 되는 표현부분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강조해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발표 후 교사가 칭찬을 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확인을 함. ●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 교사가 오류 수정을 함.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ntation 단계에서 제시한 비디오클럽과 연계되게 과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시킴. ● 과업 자체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학생들의 평균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과제는 아니었으나, 학생들의 수준 차가 많이 나는 관계로 읽는 것조차 불가능한 학생들도 있었음.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만하고 수업에 집중 하지 않는 학생들을 매 순간 통제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감. ● 학생들의 과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음.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에 목표를 둔 수업인 만큼 평가 또한 말하기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단 계		의 견	
단 계	영역	의 견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단계에서 새로운 학습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것이 아쉬움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적절히 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냄 ● 초반부에 교사중심의 수업에서 증반부이후부터는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초점이 옮겨감 ● 학습목표와 관련된 내용이나 학습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 줌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하고 간략한 구성의 worksheet가 필요함 ● 학습목표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형성평가가 필요함 	

<교사 A - 관찰자료 4>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작 참고하여 작 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 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학습목표: '길을 묻고 답하기' 1) 쉬운 내용의 사실적 정보와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듣기) 2) 간단한 일의 절차나 방법을 묻고 답한다. (말하기)	-이전 수업과 연계된 학습 목표를 제시한 것을 잘한 일이지 만 칠판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듯함.	-이전 수업과의 연계를 통 해 학생들 스스로 그날의 활동과 목표를 일기기도 록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요?
	학습 내용 (기능, 지 식) 및 교재	-학습내용: 1)방향 묻기 2)방향을 묻는 표현 익히기 3)지시문을 듣고 장소 찾기 -교재: PPT, video clip, worksheet , blackboard	-길 찾기 표현이나 방향 묻는 표현은 이미 복습하는 것임 로 비디오 내용을 교사가 하나하나 다 읽고 해석하지 말고 중요표현을 함께 읽거나 질문에 답하게 해서 간단히 복습 하면 좋을듯함. -주요 표현들은 칠판에 적거나 유인물에 적어줘서 새로운 대화를 만들때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좋을듯함. -칠판은 교재로 사용한 것이 거의 없음.	-시청각 기자재 사용의 효 율적인 시간과 내면화시 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 가? -멀티 시설이 낮아서 교사 가 계속 허리를 굽히고 수업하므로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적어짐. 개선책은?
	실행 계획 (수업 실 행 계획)	-도입: 전체 학습으로 복습하고 새로운 대화를 제시하며 연습함.(18) -전개: 모둠학습 형태로 새로운 대화 만 들어 프레젠테이션 (20+7)하도록 하여 학습 목표를 이루려고 함. -종 ~차시 수업 중 ~번째 수업이라는 것 이 없어서 실제 수업 중 어떤 부분에 도 입되었는지 알 수 없음. -숙제나 다음 차시 수업 예고가 없음.	-교사중심수업이 18분 동안 진행되고 학생중심 모둠학습이 20분 진행되어 계획상으로는 도입이 너무 길지만 실제 수 업에서는 도입이 8분정도 되었고 모둠 활동 시간이 25분, 발표기8분 정도 됨. 따라서 시간 배분이 실제수업과 맞지 않았음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보지 않은 계획이므로 수업 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준비로 좀 더 신중히 계획할 것. -4과 전체 간략 수업 지도안이 있고 sub plan을 보면 더 좋 을듯 함.	-총 45분 수업 중 교사 중 심 수업과 모둠 수업의 적절한 시간 배분은? -모둠 수업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 생, 교실, 기자재 등)	-학생의 수준이 섞여있는 일반 교실. -창문쪽에 프로젝션 TV 시설과 전면예 컴퓨터가 있음. -학생들이 일제식 수업 모형으로 없었다 가 의사가 돌려 았도록 함.	-동영상, ppt,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모니터가 작아 뒤의 학생이 보이지 않기도 하며 햇빛이 강한 경우 비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 -대상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모둠 구성이나 모둠 역할, 활동부여 등, 모둠 수업에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 필요함.	-반마다 수업 환경이 다를 때(멀티 시설이나 대상학 생들의 상황) 계획도 반 에 따라 수업이 다소 달 라질텐데 다른 반에서의 수업은 어땠었나요?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원어민 수업과 연계된 수업이며 긴 찾기를 공부할 것이라함. -dialogue를 PPT로 소개	-동영상이나 PPT 자료로는 동기유발을 하긴 하였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았음. -교사의 동기 유발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발문이 필요할 듯함. (실제 탁수궁에서 원어민을 만났거나 외국에서의 예를 들음.)	-동기유발의 방법은? -모둠활동의 활성화나 학생간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협동학습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듯함. (통제방법, 동기유도, 사회적 기술향상 등)
	상호작용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	-모둠활동을 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하는 모둠과 그렇지 않은 모둠의 차이가 많음. -교사가 적극적으로 돌아가며 활동을 돕음. -교사가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유대 관계가 좋아 보임. -역할극 기록지가 한 장이었음	-모둠활동시 모둠원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서 하는 학생만 열심히 하는 것 처럼 보이고 역할극을 한 후 학생들의 반응이 없음(예; leader, writer, foreigner, 1로 나누어 활동하며 대화를 위해서 발표하고 다른 모둠에서는 찾는 장소를 찾는 퀴즈를 통해 모둠 내, 모둠 간 활동을 좀 더 구조화 하면 좋을 듯함)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은 돌보임. -모둠활동 운영이 운영기술이 필요한 듯 보임. -지도한 장, 모둠 역할극 기록지에 유용한 표현이 적힌 종이 한 장도 도움이 될듯함.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의 모든 설명이나 진행이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제 식으로 '~해라, 옮겨라 등의 교사 중심의 지시어가 많이 사용됨. -동기부여를 위한 일제식 설명을 함.	-수업 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듯함. -모든 수업을 한국어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이해 가능한 교실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함. -학생들이 반응이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이끌어 내는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음. -동기 부여를 위한 실제 예를 들어주면 좋을듯함.	-왜 모든 수업을 한국어로 했나요?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조별 발표 후,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박수를 유도하고 오류 발견 시 수정함	-스쿠적인 수업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교사의 노력이 돋보이지만 힘이 없어 보임. -학생 간 피드백이나 칭찬이 적음. -타 모둠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이 찾아가는 장소를 brbr~로 넓고 다른 모둠이 찾아내면 맞추는 팀도 칭찬 받고 수업에 집중도 더 잘할듯함.	-발표에 소극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발표 시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 의 지도 방안은?
	학습 활동(과업)적질성, 수준, 흥미도	-전시 학습한 것을 심화하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직접 세로운 대화를 만들어 보는 창의적인 수업이었음. -교사일제식 수업을 통한 복습 후 모둠 수업으로 진행됨. -적절한 통제가 어려워 수업 중 지루함을 요구하는 말을 하게됨.	-의도는 좋았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열정만큼 흥미를 보이지 않은 것 같음. -모둠활동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학생들의 진짜 반응은 어땠나요? 즐거워하지 않았나요?
학습 점검(평가요소)	-모둠활동 뒤, 각 조별로 대표가 교단 앞에 나와 길을 묻고 답하는 짧은 대화를 재연함	-교사의 열정이 보이는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거나 모둠 수업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임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이 시작됨.	-평소 동기유발 방법이 나 통제 방법은 어떤 것이었나요?	
				-형성 평가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학습 목표 달성	무표한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잘 읽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차시 수업 제시시 개인 평가를 하면 더 좋았을듯함.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중심의 전체학습과 학생 중심의 모둠학습,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함.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한국어로 친절히 설명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수업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한 점. -수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함.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관계가 좋고 동영상, ppt 등수업 준비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수업에 이끌고 자하는 교사의 열정이 느껴지는 수업임. 		
수업 후 (self-appraisal)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모둠 수업의 단점(모둠 구성방법-교사의 일방적인 자리아동, 일별레, 무임승차자, 통제수단, 동기 부여, 동료평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교실영어사용하기 -활동과 교사 지시의 경계가 분명하길. 즉 동영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의 지시가 진행되기도 함. -컴퓨터가 너무 낮아서 교사가 구부리고 계속 이야기해야함. 멀티 시설을 높였으면... -질판에 목표, 주요활동순서를 적어주면 학생들이 오늘 수업에서 무엇을 할것인지 더 잘알듯함.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에서 4년 말하고 듣기를 배운 후 원어인 수업이 있었다면 길찾기를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가능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교실영어가 좀 더 사용되면 좋을듯 함. -교사는 열정이 있고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잘 되어있지 않은 교실현장을 보는듯했음. -교사의 칭찬이 자주 눈에 띄지만 각 모둠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하고 동료평가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면 좋을듯함. -교사의 사용되는 언어가 경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으면 좋을듯함. -복습하거나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 점검을 위해서 학생과 서로 질문과 대답하며 수업을 이끄는 것이 더 좋을듯함. 		

<교사 A - 관찰자료 5>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 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 질 환경: 학생, 교실, 기 재 등)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 리)	학생 관련(동기, 참 여도 등)	-도입단계-관련된 동영상 시청	-적절한 동기 유발 매체임	
	상호작용(학생_학 생간, 학생_교사간)	-대체적으로 모둠활동에 참여하 고있는 것으로 보임 -모둠활동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 는지 궁금	-모듬원의 역할을 부여하여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일기거나 무임승차 매제 가능해짐)	
	교사 언어(설명, 질 문, 예시, 요약 등)	-주로 교사가 묻고 답하는 일반적 인 진행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지시적인 용어사용이 많음	-전체대상으로 할 때는 경어사용 권장 -쉬운 교실 영어 사용 권장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개인적인 질문을 통해서 수업내용을 확인해 가는 방법도 시도해 볼만함.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적극적인 칭찬이 부족함 -모듬활동 도우미로서 교사가 열 심히 활동을 돕고 있음	-적극적인 칭찬을 권장함 -모듬활동에 교사가 적극 도움으로서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해 보임	
	학습 활동(과업)_적 질성, 수준, 흥미도	-조금은 부담한 지도를 가지고 활 동함.	-간단명료한 자료제시로 목표한 표현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 으면 함 -교실 벽면에 적절한 장소 그림을 붙이고 직접 지시하고 움직일 수 있는 활동 권장(학생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음)	
	수업 진행(흐름, 지 도력, 적절한 통제 등)	-차분한 수업태도이나 학생들이 소극적 참여도를 보임 -모듬 조정시 약간의 혼란이 생김	-사전에 모듬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됨	
	학습 점검(평가 요 소)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학습목표 내용이 주로 쓰기 위주로 모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학습 목표의 특성상 말하기 기회를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임	
	민주스런 점	-모둠활동에 교사가 적극 참여하여 도움으로서 전체학습 시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 점	-간단한 교실영어 사용 -구조적인 모둠 만들기 권장 -모둠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구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함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길문기 수업의 경우 실제로 교실을 꾸며 놓이 형식으로 해보는 것도 재미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업 2

가. 지도안

1. **Title:** Lesson 4 Communication Across Generations
2. **Date:** Friday, May 16, 2008(5th Period)
3. **Student Level:** Mixed Level (9th graders)
4. **Aims:** Students will be able to
 -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 find out specific details of the text.
 - find out the writers' attitude towards the teens.
5. **Teaching Aids:** PPT, Textbook, Worksheet, Black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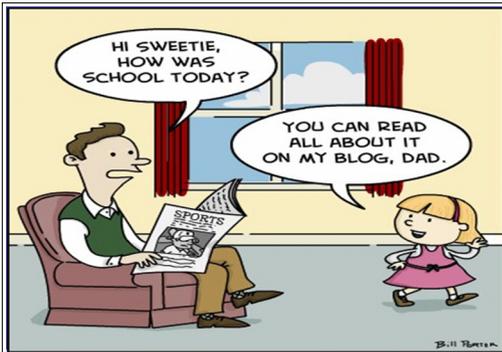
6. Procedures

Procedures	Activities (* Ss: Students)		Aids	Time	
	Teacher	Students			
Introduction	War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exchange greetings. · To check the attendance. · To review the previous lesson. 	Blackboard	3'	
	Obj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introduce today's lesson objectives. 			
Development	Pre-reading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motivate Ss by presenting a cartoon about generation gap. · To explain the introduction part of the text. · To have Ss skim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 To ask question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read the introduction part of the text. · To skim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 To answer the questions. 	PPT (4과 본문), Textbook, Blackboard	10'

Development	While-reading Activities	<p><Group Wor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divide the Ss into groups of 4 members · To distribute the worksheet to the Ss. · To have Ss assign the roles in their groups. · To have Ss complete the worksheet answering the qu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get into groups of 4 members. · To assign the roles in their groups. · To complete the worksheet answering the questions. 	Textbook, Worksheet (1~4)	17'
Development	Post-reading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have Ss present their answers. · To relate the attitude of the writers to their 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present the answers. ·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the writers' IDs and their attitude. 	Textbook, Worksheet (1~4)	10'
Consolidation	Wrap-up Review Assig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review the lesson. <p>< Assignment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have Ss read the whole text and check the other groups' answ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review the lesson. · To read the whole text and check the other groups' answers. 		5'

나. 자료

<교사 A - 수업자료 4~5>



Communication Across Generations

Do you think your parents and you understand **each other** well?

서로 서로 (두 명)
Cf: one another (셋 이상)

Have you ever felt that your parents and other adults do not understand you?

현재완료: 경험

Communication Across Generations

Well, **here are** a short report in a recent newspaper and some of the readers' opinions **about** it.

-와 같은

What do you think of a report **like** this? Whose opinion do you **agree with** most?

-(의 의견에) 동의하다.

Here is (are)...

Here is (are) ~ : 여기에 ~이 있다.
• 뒤에 나오는 주어의 수에 따라 be 동사가 결정된다.

Here is a sample.

Here are some thoughts on sport.

Six Girls Taken to the Hospital at Pop Star HOD's Concert

Be planned to : ~하기로 되어 있다.

~로 데려가시다.

Yesterday, six girls **were taken to** the hospital from pop star HOD's concert. The concert **was planned to** begin at 3 o'clock p.m., but some fans began to show up **as early as** 6 o'clock a.m. By 9 o'clock, nearly two thousand fans gathered and waited under the hot summer sun.

As-as... :
... 만큼~만큼

a.m. / p.m.

- **a.m. (ante meridiem)**: 오전 (= before noon)
- **p.m. (post meridiem)**: 오후 (= after midday)

at 8 **a.m.** 오전 8시에

at 7 **p.m.** 오후 7시에

Six Girls Taken to the Hospital at Pop Star HOD's Concert

~때까지

줄서서 기다리다.

By the time the concert began, many of the girls **had been standing in line** for about nine hours.

Had been -ing (과거완료진행형)~하던 중이었음.

So, **it** is not surprising **that** several girls fell down from heatstroke. The girls **were taken to** a nearby hospital and had to stay there until their parents came to **pick them up**.

2이 동사 -> pick up them (X)

구동사(Phrasal Verb) (=이동사)

- 동사와 전치사적 부사가 합쳐져 일반 타동사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 목적어가 명사(구)일 때:
They **turned on** the light. (O)
They **turned the light on**. (O)
-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They **turned on** it. (X)
They **turned it on**. (O)

구동사(Phrasal Verb) (=이어동사)

- 같은 형태일지라도 **전치사 수반동사와 타동사적 구동사**는 의미가 다르고 쓰임도 다르다.

turn on the light → **turn the light on**
(타동사적 구동사): (불을) 켜다.

The dog **turned on** the woman and bit her.
→ The dog **turned the woman on** and bit her. (X)
(전치사 수반동사): 덤벼들다.

Six Girls Taken to the Hospital at Pop Star HOD's Concert

When a reporter asked one mother about this, **she said**, "I always **do my best** to understand my daughter, but sometimes it's very hard."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직접회법 → (간접회법) She said (that) she always did her best to understand her daughter, but sometimes it was very hard.

1. Tooconserv@teen.net

Although I am a teenager, sometimes even I cannot understand some of my friends. They **skip classes** to go see their favorite stars, and they **spend** so much of their **time** following their every little move.

비록~일지라도 (= though, even though, even if)
수업줄 빼먹다 (= play hookey)
Spend+시간+ing: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1. Tooconserv@teen.net

Besides, there are so many teenagers **who** want to become stars **themselves**. Some of them are really serious, but often they just don't want to study and want to have an easy life. I think young students need to study ha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게다가 (= In addition)
강조적 용법
~를 준비하다

재귀대명사의 용법

- 재귀적 용법:** 동사의 목적어 (생략하면 비문이 됨)
She killed **herself**.
He studied very hard for **himself**.
- 강조적 용법:** 명사나 대명사를 강조하여 강조하는 말 뒤나 문장의 맨 끝에 음. (생략 가능)
I **myself** did it!
She is the winner **herself**.
- 관용적 표현**
By oneself: 홀로 (=alone) I went there **by myself**.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I cooked it **for myself**.
Of itself: 저절로 The door opened **of itself**.

2. Worried@adult.net

While I was reading the article, I **could not help** being worried about the young people in this country. Something is really wrong with them. There are so many **important things** young people can do, for example, reading books, learning new things, **and so on**.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could not but V)
강조적 용법
Cf. There is something important.
~등등 (= etc.)

2. Worried@adult.net

These days, however, **it seems that** all they are interested in is something **unimportant** such as hair color, clothes, stars, etc. I'm really worried, and I think young people should **come to their senses**.

요즘 (= nowadays)
~인 것 같다.
that
Come to one's senses: 정신을 차리다.

3. Needabreak@young.com

I fully understand **why an article like this worries our parents**. **At the same time**, however, I want our parents to be more **understanding of** us and our situation. It seems that all they want from us is to study and go to a good college.

걱정시키다.
간접의문문: 의문사+주어+동사
동시에
to
~에 대해 이해심이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3. Needabreak@young.com</p> <p style="text-align: center;">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p> <p>I know that studying hard and going to a good college can be important for us to succeed in life, but we are not machines. We cannot study 24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Sometimes we need to have fun. We want to watch TV, play computer games, and do some silly things.</p> <p style="text-align: right;">~이다, ~당(=per)</p>	<p style="text-align: center;">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 부정사의 행위자가 문장의 주어와 다른 경우 <p>1. for + 목적격: 일반적인 경우 또는 difficult, hard, easy, impossible 등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뒤</p> <p>There is no money for him to spend. It's difficult for me to study English.</p>
<p style="text-align: center;">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 부정사의 행위자가 문장의 주어와 다른 경우 <p>2. of + 목적격: kind, nice, foolish, polite, rude, clever, wise 등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p> <p>It's kind of you to do so.</p>	<p style="text-align: center;">4. Stillhopeful@parents.com</p> <p>I have two teenage girls who are not very different from the girls in the report. They are crazy about pop star Jo Junmo. They collect every picture of him and Every article about him. They also go to every concert of his. Unlike other parents, however, I am not that worried about them.</p> <p style="text-align: right;">주격 관계대명사, ~와 다르다, ~에 열광하다. ~를 매우 좋아하다, 소유대명사, ~와 달리</p>
<p style="text-align: center;">4. Stillhopeful@parents.com</p> <p>I myself had a similar experience as a young girl. I used to be crazy about American pop singers. I also worried my parents by wearing miniskirts and hot pants. My parents were really upset and worried about me, but as it turned out, those things didn't do me any harm.</p> <p style="text-align: right;">재귀대명사-강조적 용법, ~로서, ~하곤 했다. (과거의 지속적 상태나 습관), ~함으로써, (주후에) 반영되었듯이, Do someone harm: ~에게 해를 입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4. Stillhopeful@parents.com</p> <p>I think that we parents need to look back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and understand our children more. They might simply be passing through a stage of life, just as we did before.</p> <p style="text-align: right;">~할 필요가 있다, ~를 되돌아 보다, 관계부사 (=on which), ~일지 모른다, ~를 통과하다, ~듯이, ~처럼</p>

Headline

Six Girls Taken to the Hospital at Pop Star HOD's Concert



3학년 ___ 반

Reader:

Writer:

Spelling Checker:

Presenter:

- *When?*
- *Where?*
- *Who?*
- *What happened to them?*

- *Why did it happen?*

1. Tooconserv@teen.net

1. Is he(she) understanding of the teenagers or not?
2. Find 3 specific things that the writer find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eens.
3. What the writer thinks the teens should do?

Headline



3학년 ___ 반

Reader:

Writer:

Spelling Checker:

Presenter:

- When?
- Where?
- Who?
- What happened to them?

- Why did it happen?

2. Worried@adults.com

1. Is he(she) understanding of the teenagers or not?
2. Find 2 specific things that the writer thinks are important to the teens.
3. Find 3 specific things that the writer thinks are unimportant to the teens.

Headline



3학년 ___ 반

Reader:

Writer:

Spelling Checker:

Presenter:

- *When?*
- *Where?*
- *Who?*
- *What happened to them?*

- *Why did it happen?*

3. Needabreak@young.com

1. Is he(she) understanding of the teenagers or not?
2. According to the writer, what our parents want from us?
3. Find 3 specific things that the writer thinks we want to do.

Headline



3학년 ___ 반

Reader:

Writer:

Spelling Checker:

Presenter:

- *When?*
- *Where?*
- *Who?*
- *What happened to them?*

- *Why did it happen?*

4. Stillhopeful@parents.com

- 1, Is she understanding of the teenagers or not?
- 2, Find 2 specific things that the daughters of the writer do because of their enthusiasm for Jo Junmo,
- 3, Find 2 specific ways that the writer worried her parents as a young girl,
- 4, What the writer thinks about the teens?

다.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교사 A - 관찰자료 6>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 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 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학습목표 : '기사문을 읽고 글의 요지 파악하기'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찾아낸다.(읽기)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한다.(읽기)	-학습 목표는 읽기의 목표학습 목표를 판서하고 그 시간의 내 로 잘 설정되었으나 시간 안에 다 이루지는 못했고 몇 퍼센트 의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의 점검도 없었음.(시도는 좋았으나 성취가 부족함) -활동들이 이름을 칠판에 순서대로 적어놓으면 학생들이 무엇 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임.	설정된 학습목표가 학습의 양 이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이 적 절했는가? 너무 많은 양이 아닐까?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학습내용: 1)기사의 성격 파악하기 2)본문의 구체적 내용 알아보기 3)10대들에 대한 작가의 의도 파악 -교재: PPT, textbook, worksheet	-수업의 도입부분에서 ppt는 동기 유발을 위해 좋은 예지만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면 다른 쉬운 예를 하나 정도 더 들면 좋았을 것 같음. -모둠 활동의 worksheet 내용은 목표에 적합하게 적절해 보임.	본문의 reading을 잘 읽고 내 용을 이해하기 위한 동기유발 이나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업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도입: ppt를 통한 presentation으로 본시 학습 내용 및 중요 어구 소개. 전체학습 형 태 -전개: 모둠학습 형태로 유인물의 담 찾아 쓴 후 발표하기 -마무리: 담을 알려주고 저자의 태도와 내 용과의 관계 알아보기 -속제: 다른 모둠의 정답확인을 위해 책 읽 어오기	-독해를 위한 읽고 내용을 파악하려는 학습 활동은 시도는 좋 았으나 실제 수업에서의 대상 학생 상태, 학습 내용의 양 등을 고려한 활동이어야 할 것임. -교사의 활동설명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학생들이 모둠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아서 자리 만들기에만 3분이 상의 시간이 걸리고 모둠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데 교사의 수고가 컸음. -수업 중에 또 지시대로 활동하지 않는 학생들이 속제를 해울 가능성도 적어서 실효성 있는 숙제제시가 필요함	-교사가 수업 실행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 을까요?
	수업 매력(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 재 등)	-기자재, 컴퓨터가 준비됨.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있음. -오후 시간으로 졸거나 짜증나는 학생도 있음 -교사가 학생들이 이름을 대부분 알고 있음.	-기자재가 창가에 있어 햇빛에 노출되어 잘 보이지 않음.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면 성격 이질감으로 모 둠을 구성하고 영어시간에 그 모둠대로 앉아 수업을 하면 모 둠 활동시 자신들의 모둠원에 대한 모둠의식도 생기고 역할 도 할 것으로 여겨짐. -학생 개인의 의견에 답하는 교사의 태도는 성의있고 긍정 적이거나 언제나 있는 그런 태도와 오후 졸거나 지겨워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법 모색 필요.	-모둠 활동 자체에 짜증을 내기 나 모둠 구성원이 싫거나 모둠 역할에 대한 공정한 부여 방법 은? -즉 모둠활동을 긍정적으로 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 (동기, 참여 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위해 신문의 특성과 작가들의 태도에 대한 학습을 동기부여ppt-전체 수업(본문-전체설명/기사/의견 수업)에 대한 개별>모둠활동-정답 점검의 방법으로 진행됨. -본문의 내용을 worksheet로 만들어 모둠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도록 활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기부여 ppt 좋음. 동기부여를 위한 쉬운 예를 하나정도 더하면 학생들이 반응이 더 좋을것 같음. -본문내용에 대한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 후 worksheet를 통한 모둠 활동이 이루어짐-첫번째 기사를 학생들과 함께 읽거나 들은 후 본문내용을 결의 응답으로 점검해 가면 더 학생 참여가 많을것임. -모둠 활동시 모둠원의 역할을 부여하고 실시했지만 일부 모둠만 잘되었고 그렇지 않은 모둠도 있었으므로 몇퍼센트가 모둠이 잘 활동했으며 몇퍼센트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일부 학생들에 의해 정답이 기록되어지고 일부학생들은 무임승차할 때, 각 모둠원의 역할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모둠원의 역할 배분에 적절한 방법과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것인가? -읽기 영역에 대한 모둠 활동을 시도한 이유는? 모둠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방법은?
	상호 작용 (학생, 학생, 교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순회하며 수업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칭찬하며 이끌어냄. -모둠활동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기위해 학생들이 모둠활동이 전적으로 이루어짐.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며 답을 찾아갔지만 마무리 선생님의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답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순회하며 개개의 학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지도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둠활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위해 노력한 것을 칭찬 일지지만 의도만큼 학습자들의 참여가 높고루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모둠원들의 역할을 서로 협의의 하에 부여하지 않아 자신이 presenter인 것도 모르거나 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 writer의 자리 위치가 모두 같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모둠원 역할을 정했는지 알 수 없음. -after reading시 정답을 맞추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본문 전체적으로 한번도 읽은 적이 없어서 다른 모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학습의 효과를 내기위해 본문전체를 읽거나 학습 내용의 양을 줄여서 학생들이 모둠활동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모둠원들의 개인적인 책임과 협동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피드백 (수정, 칭찬 등)	언어 (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수업언어가 헤라, 이해했어? 등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었음. -교사의 영어발음이 너무 한국적인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수업 언어가 친숙하긴 하지만 경어가 더 좋을듯하며 교실 영어를 이 더 필요할 것 같음. -영어를 한국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headline도 학생들처럼 헤드라인이라 발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음. -수업의 시도는 좋았으나 학생들에게 내용이 과도하고 활동을 정확히 이해하고있지 못해 질문이 많았지만 친절이 대답해주고 있음. 칭찬도 자주함. 하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될 정도로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있다면 집중시킨 후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좀 더 많은 영어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경어 사용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순회하며 개별활동을 돕고 worksheet의 내용을 묻고 확인하였으며 칭찬하고 틀린것을 가르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모둠활동 참여 등 학생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모둠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교사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모둠활동 참여 등 학생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모둠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교사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수업 진행 (흐름, 지도 통제 등)	수업 진행 (흐름, 지도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수업-모듬구성-모듬활동-마무리로 준비되고 활동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된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계획했던 대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음. -모듬구성을 위해 3분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모듬역할배분, 학생의 모듬참여 방법 등이 모색될 필요있음 -성실한 답변만으로 모듬활동을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있는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활동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교사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단계	영역	관찰	이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점검 (평가 요소)	-모둠활동 뒤, 각 조의 presenter가 정답을 발표함. -교사 주도로 모둠별 활동의 정답을 유도하고 모둠의 정답여부를 확인함.	각 모둠의 활동 후 활동이 끝났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므로 각 모둠의 활동이 끝난 후 그 모둠에서 활동이 끝난 여부를 알려주면 좋을듯함. -수업의 목표대로 학생들이 자기들이 쓴 글을 읽고 왜 아이디어를 그렇게 정했는지를 돌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답을 찾거나 발표하는 태도로 보아 50%정도는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학생 활동을 4개의 본문이 아니라 2개정도로 줄이고 같은 내용으로 답을 찾아본 모둠끼리 유인물의 서로 바꾸어 정답을 점검했다면 동료평가가 이루어져서 학습 내용을 더욱 잘 알아갈듯함. -학생 내용에 대해 개인별평가, 모둠별 평가로 나누어하면 좋을듯함.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받고 묻고 그래서 해야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면 평가에 대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교사도 대충 평가라는 이름을 학생들의 학습동기부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듯함.	-수업활동을 개인별, 모둠별, 학습 전체가 하는 활동으로 나눈다면 그에 따른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행평가가 아닌 수업 중 형성평가의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학습 활동(과업) - 적절한 수준, 흥미도	-본문을 읽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위해 4p에 해당하는 양을 모두 학습 과업으로 설정함. -읽기 영역에 대한 활동으로 skimming을 선택함.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ppt 동기부여, 모둠활동을 시킴.	-읽기영역에 대한 skimming 기법은 적절히 사용되었음. -흥미를 이끌기 위한 ppt 사용이 좋음. -학습 내용이 과다하여 시간 내에 소화하기 힘들었음.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주도적 활동을 이끈 것은 바람직하였지만 실제 학생들 자체가 책상을 옮겨서 모둠구성하기, 모둠활동하기, 자신의 역할,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여 활동자체보다 활동을 하기위한 지도를 위한 시간이 많이 들어감.	-1시간(45) 교실 수업을 위한 적절한 본문 분량은 어느정도인가? -혹시 본문을 배우기 전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휘를 미리 공부하였는가?
	학습 목표 달성	본문을 훑어보고 세세한 부분을 이해하며 작가들의 찬반을 찾아가는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었지만 100%는 아님.	-학습 내용 확인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모두 확인되지 못함. -학생의 수준에 따른 수업의 수준과 양이 정해져야겠음.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학습목표를 제시할 필요를 느낌.	-현실적으로 성취가능한 이 과제서의 독해부분의 학습목표 설정은 어떤것이든 그 양은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는가?
	만족스런 점	교사의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진행하였음. -교사주도 수업과 본문에 대한 skimming 기법을 통한 자기주도적 수업을 시도하였음. -교사의 즉각적인 문제해결과 칭찬이 이루어짐.		
개선 점		-학생 수준에 맞는 교실영어 사용이 좀더 이루어지고 발음에 주의해야할 것임. -모둠원의 역할을 교사 주도로 스스로 정하게 유도하고 그 책임을 강조할것. -모둠활동시 개인별, 모둠별 형성평가를 도입하고 모둠의 역동성을 좀더 활용하면 좋을듯함. -기본적인 수업의 구성을 좋지만 학습의 양을 줄여서 그 효과를 늘이면 좋을듯함.		

		<p>(예 1; 첫 번째 본문만 학습하는 것으로 한후 동기부여 ppt-모둠 역할정하기모듬으로 책상까지 붙여서 읽기-본문 듣기-모듬내에서 두 번 돌아가며읽기-모듬 worksheet 부여하여 첫째이지 내용파악하기-worksheet를 4명모두 풀수 있도록 문제에 푸는 사람을 정해주기-문제를 다 풀은 후 교사가 정답확인하고 다 맞은 팀 보상-그 기사에 대한 모듬원들의 의견 돌아가며 이야기하기(동의여부)-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의 아이디어와 이유를 2문장으로 만들기-칠판을 모듬 숫자만큼 나누어서 각 팀의 모든 writer가 칠판에 나와 찬반과 그 이유를 적어보기/또는 모듬 칠판에 찬반에 대한 의견 적기-모듬원들 중 두명이 나와 한명은 듣고 presenter가 발표하기-시간이 있다면 모듬 내용을 파악한 후 가장 잘한 팀에게 각 모듬원들 중 checker에게 스티커를 하나씩 준 후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듬 중 잘한 모듬에게 붙여주기(동료 평가)-다음 예제 차시 예고; 숙제로 오늘 배운 기사에 대한 4명의 작가들의 의견을 공부할 것임. 모듬학습으로 답을 찾아갈 예정이니 읽어오기 숙제를 낸.</p> <p>예2; 현재 교안처럼 활동하되 모듬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모듬활동의 worksheet를 두종류로 만들어 각 모듬원들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문제를 풀게하되 문제의 수를 4배수로 만들어 학 모듬원들 모두가 풀고 writer이 답을 적게 유도함. 그후 같은 문제 유형끼리 모듬끼리 문제 풀은 worksheet를 바꾸어 체계하게 하고 모두 맞춘 팀에게 보상한후 교사가 정답을 맞춰감.</p>	
<p>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p>	<p>-교사의 수업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므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임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법들이 모든 수업 내용과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학생들과 상황에 맞는 기법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듯함.</p>		

<교사 A - 관찰자료 7>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작 참고하여 작 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관련된 목 표와 세부적 목표)	-학습목표 : '기시문을 읽고 글의 요지 파악하기'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찾아낸다.(읽기) 2)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한다.(읽기)	학생들을 잘 장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소극적이거나 신만한 아이들을 위해서 라도 학습목표를 판서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함	1) 학습목표를 칠판에 꼭 적어야 만 하나? 2) 설정된 학습목표가 학습자들 에게 적절한가?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학습내용: 1) 기사의 성격 파악하기 2) 본문의 구체적 내용 알아보기 3) 10대들에 대한 작가의 의도 파악 -교재: PPT, textbook, worksheet	-학생들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수업 의 도입부분에서 ppt의 사용이 적절하였음. (ppt 시청 후, brainstorming을 통한 동기유 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음) -worksheet 분량 또한 적절해 보임.	효과적인 시청각 기자재 사용법 으로 무엇이 효과적일까?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도입: ppt를 통한 presentation으로 본시 학 습 내용 및 중요 어구 소개. 전체학습 형태 -전개: 모둠학습 형태 -임교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계획	전체학습에서 모둠학습으로 옮겨가는 과정 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영어시간만이 라도 상충하 학생들을 적절히 배분된 자리 배치도를 만들어 전체와 모둠 학습의 효과를 도모해 봄이 어떨까?	1) 영어시간 만의 자리배치를 고 려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2)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가능하 게 하는 자리 배치는 어떤 것 이 좋을까?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 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교육여건이 서을 평균보다 어려움 -학생의 수준이 상충하 모두 모여 있음 -학생들의 이름을 교사가 다 알고 있어 학습 통체가 비교적 수월해 보임 -전면에 프로젝션 TV 있으나 뒤쪽에서 화면 을 알아보기 어려움. -오후 시간 인 듯 학생들 중엔 조는 아이도 있는 것 같음.	-학생들의 자리배치를 고려해야겠음. 전체학 습과 모둠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 가 학생들을 자주 호명하며 주의를 환기시 켰는데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음.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만으로 구성된 조는 간단한 모둠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음	-모둠활동에 비교적 잘 참여하는 것 같으나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필요 없는 말을 하거나 흥 미를 잃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 하는 아이들을 참여시킬 방법은 없나? -본시 내용이 모둠학습에 적절한 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 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 단계의 수업 -본문의 내용을 worksheet로 만들어 학생들이 다음 차시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제공함.	worksheet의 사용에 대해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음. 1학년이나 3학년 모두 worksheet를 배부했을 때, 활용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worksheet가 몇몇 학생들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경향이 있음.	모둠학습으로 과연 학생들에게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각각의 모둠 구성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부여할까?(대부분의 모둠활동은 몇몇 책임감 있는 아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음)
	상호 작용(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모둠학습위주의 진행으로 학생활동이 원활함. -교사가 순회하며 모둠활동 도움	-모둠학습 시 학생 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함. -교사가 순회하며 개개의 학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지도함.	수업에 관심없는 방관자들에게 모둠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게 할까?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 진행이 대부분 국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라” 체의 어법이 두드러짐 -학생들의 모르겠다는 말에 “이해하는 것 같아. 이해해”라는 말로 “이해해”라는 말로 학생의 참여 유도	-간단한 진행어나 설명, 질문은 영어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수업 시 영어 사용이 어떨까? -“이해하는 것 같아. 이해해”라는 말로 참여 유도하는 것보다 교사가 힘들더라도 정말 모르거나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개별적 설명을 해 주는 것은 어떨지..	본문 내용에 대해 요약이나 설명을 할 때 국어로만 하는 것 보다 영어를 혼용하면 어떨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교사가 순회하며 개별 worksheet의 내용을 묻고 확인함.	-교사가 worksheet의 내용을 확인해 주기보다 모둠 구성원들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소극적인 수업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교사의 노력이 돋보임.	발표에 소극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발표 시 관심을 갖지 않는 학생의 지도 방안은?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모둠학습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수업의 흐름에는 무리가 없음.	수업의 흐름이나 진행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학생들의 수업집중을 위해 적절한 통제 필요해 보임.	자유로운 모둠활동의 한계는 어디이고 통제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점검(평가 요소)	모둠활동 뒤, 각 조별로 대표가 worksheet를 발표하게 하였으나 소극적인 태도로 교사가 대부분의 답을 확인함.	교사에 의한 단순한 답 확인이 아니라 그에 따른 설명이 수반되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으나, 연계까지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지속해야 할지 의문임 .	침체한 학습 분위기를 일으킬 방안은 어떤 점이 있나?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본시는 차시에 학습할 본문 내용을 미리 훑어보고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고양시키는 단원이기에 내용에 따른 학습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내용에 따른 학습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학생들이 활동적인 학습참여는 찾기 어려웠음.소극적인 학생들을 학습활동 속에 참여시킬 방안 연구 필요함.		
	학습 목표 달성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보임.	-확인해야 할 worksheet의 분량과 제한된 시간으로 수업 후반에 쫓기듯 마무리가 되었음. 학생의 수준에 따른 수업의 수준과 방향이 정해져야겠음.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학습목표를 제시할 필요를 느낌.		
	민족스런 점	-수업 진행이 불 흐르듯 무리가 없었음. -비록 수업에 무관심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학생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으로 전체학습과 모둠학습이 적절히 혼합된 수업이었음.			
	개선 점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전반이 국어로 이루어졌는데, 간단한 교실영어와 지시어를 적절히 혼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수업 시작단계에서 cartoon으로 본시 학습의 내용을 소개한 후, brain storming 과정을 거쳤으면 수업에 학생 참여가 늘지 않았을까 생각됨. -3학년이라고 하지만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임. 그런 학생들을 위해 단어나 숙어 등을 미리 숙제로 부과하거나 교사가 별도의 학습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학생들이 수업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교사 A - 관찰자료 8>

단계	영역	의견
수업 전 (계획단계)	<p>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unication Across Generations’에 관한 기사문과 독자들의 의견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 및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수업 목표와 절차를 좀 더 구체화 하여 칠판에 적어주거나 ppt로 제시해주면, 학생들이 오늘 진행될 수업 활동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얻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을 듯함.
	<p>학습 내용(기능, 지식) 및 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차이에 관한 기사 내용을 소재로 Reading & Comprehension에 중점을 두었으며, worksheet를 이용한 조별학습으로 학생 스스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도록 유도함. ● ppt, textbook, worksheet과 같은 학습 자료들을 활용함. ● 기사 작성의 육하원칙에 맞게 교사가 제구성한 본문 자료를 사용함.
	<p>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 세대 차이에 관한 만화를 ppt로 보여줌. -수업 주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만화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낸 점이 바람직함. ● 전개 : 1. 신문기사의 전반적인 흐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하원칙 설명, 본문의 도입 부분을 교사가 함께 해석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움. 2.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가지 중, 조별로 한 가지 의견을 선택해 해석해보고 해당 질문에 관한 답을 찾아 적어보기. -4명이 한조가 되며, 각자 reader, writer, spelling checker, presenter로 역할을 분담함. ● 마무리 : 조별로 완성한 worksheet의 내용을 종합해 봄으로써 4명의 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음. -본문 내용을 조별로 나누어 해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서로 다른 정보를 교환하여 완벽한 내용을 파악하는 협동학습이 이루어지게 함.
	<p>수업 맥락 (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합반으로 한 학급 내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의 섞여 있으며 영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이 낮은 편임. ●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그룹 활동시 앉은 자리에서 한줄씩 뒤로 돌아 4명씩 한 그룹을 만들. ● 교사가 학생들의 이름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습 자료 대부분이 ppt로 제작되어 TV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TV screen의 크기 및 위치상 뒷자리나 구석자리의 학생들에게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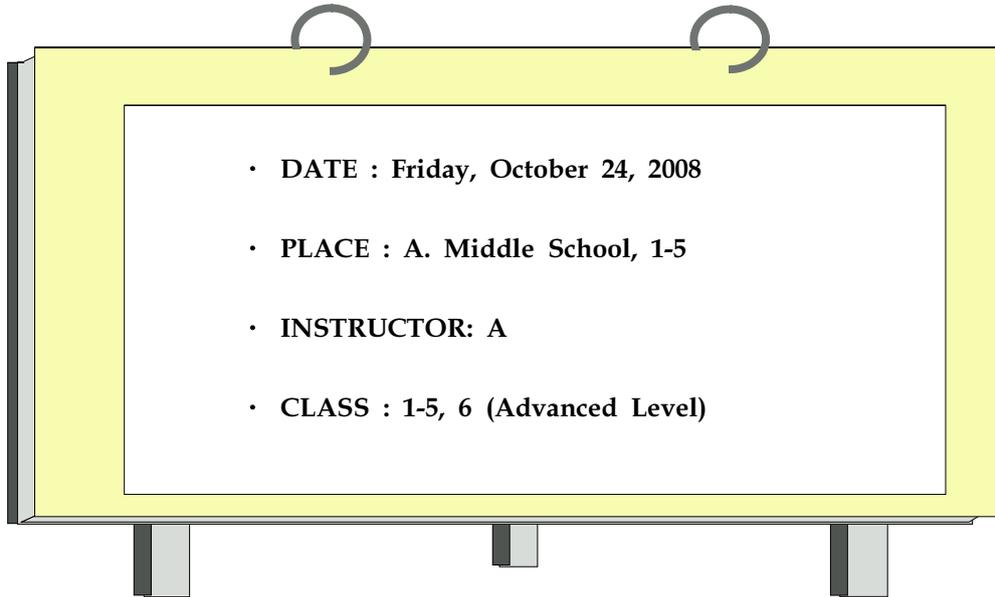
단계	영역	의견
수업 중 (시작 -마무리)	학생 관련 (동기 참여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화를 이용하여 수업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함. ● 주제 제시 후, '어떤 상황에서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는지?'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세대차이에 관해 미리 설문조사한 내용을 활용하는 등 좀 더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활동을 잠깐 첨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조별 학습시 4명의 조원 각각에게 reader, writer, spelling checker, presenter의 역할을 부여하여 모두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계획한 점이 좋았으나,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거나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루 섞어 그룹을 정해놓고 활동을 도와줄 group leader들을 정해놓는 것이 수업 진행을 원활하게 해줄 듯함. ● 수업 전반에 걸쳐 여러 학생들이 다소 산만하고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쉽게 포기하는 모습도 보임. 활동을 되도록 구체화, 단순화 시키고 서로 칭찬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 듯함.
	상호작용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학습시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편임. -한 그룹 내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배치하고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group leader로 선정해 조원들의 학습을 도와주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peer correction과 체계적인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해도를 확인하며, 조별 학습시 교실을 돌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작문을 돕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함. ●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수업에 방해를 주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사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참여를 독려함.
	교사 언어 (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설명이 한구말로만 이루어지는데, 반복적인 지시어나 간단한 질문은 되도록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함. ● 반말보다는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사의 지시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좀 더 진지한 활동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듯함. ●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해 교사가 시종일관 친절함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대답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피드백 (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아.', '잘했어.', '정확히 잘 찾아 썼네.' 등 칭찬을 자주 해주는 모습이 바람직함. ● 조별 학습 결과를 발표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일반적으로 답을 읽어주기 보다는 다른 조원들에게 발표해 볼 기회를 주고 함께 오류를 수정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단계	영역	의견
	<p>학습 활동(과업) -적절성 수준, 흥미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내용이었으며 worksheet를 활용한 조별 활동도 주제와 잘 어울리는 활동이었음. ● 본문의 내용을 담은 ppt 자료에 너무 많은 문법 설명이 언급되어 있음.(현재완료, 구동사, 간접화법, to 부정사, 관계대명사 등) 본시 학습 목표가 글의 의도 및 내용 파악이라면, 문장 단위로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내용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듯함. ●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 시간 내에 이해해야 할 분량이 다소 많은 듯함. -다른 조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용을 읽어볼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으므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학생에 따라서는 문장 독해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으므로 조별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나오는 중요 어휘들을 미리 익혀보는 것도 독해에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p>수업 중 (시작 -마무리)</p>	<p>수업 진행 (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도나 말투가 수업에 방해를 줄만한 학생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인내심 있게 학생들을 독려하여 수업을 무리 없이 진행함. ● 학생들이 조별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듯 처음 자리배치를 하고 역할을 분담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지체됨. 사전에 조원들의 자리 배치를 해놓는 것이 좋겠음. ● 교사 주도형의 전체 학습과 학생 중심의 조별 학습이 모두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마지막에 정리 활동과 형성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 ● 수업 중에 너무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태만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통제 방법이 없었는지 고민이 필요함.
	<p>학습 점검(평가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학습시 충분한 역할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모든 조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두명의 조원들에 의해 정답이 체크되고 있는지 교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조별로 서로 다른 본문 내용에 대해 똑같은 질문 형식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한 점이 좋았음. -기사의 육하원칙을 이해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독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 쉽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음. ● 조별 발표시 presenter들이 좀 더 명확하게 다른 조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key words를 칠판에 적어보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함. ● 다른 조가 발표할 때 나머지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교사가 때때로 확인 질문을 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임. ●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개별 평가지를 만들어 활용했다면 더욱 좋을 듯함.

단계	영역	의견
	<p>학습 목표 달성</p> <p>만족스런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 마무리 되었으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면에서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으므로 학습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교사가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안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답해 줌. ● 교사의 목소리가 크고 내용이 분명하게 잘 전달됨. ● 조별 활동시 각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본문 내용을 4등분 하여 조마다 배분해 줌으로써 학습할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조별 발표 내용에 다양성을 포함.
수업 후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조별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계획된 학습을 마무리할 수 없었음. ● 가능한 한 교사가 classroom English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TV의 크기와 위치상 screen에 제시된 내용이 일부 학생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음. ● 조별 학습시 앉은 자리에 따라 임의적으로 그룹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 ● 수업 시간에 하위권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과제를 제시할 때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순히 어휘나 내용을 요약하는 것부터 자신의 의견을 직접 글로 표현해 보는 것까지 다양한 활동 중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여 해오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3. 수업 3

가. 지도안



1. TARGET LEARNER : 7th Graders

2. UNIT: Lesson 9 A Trip to Mt. Geungang

(Doosan Dong-A Publishing Co. -Kim-)

3. GENERAL OBJECTIVES OF THE LESSON:

- ① To help the students talk about weather
- ② To enable the students to talk about their future plans.

4. LESSON PLANS OF THE UNIT

Period	Activities
1st Period	Warm Up!, Let's Go, Listen and Talk
2nd Period	Look and Say I, II
3rd Period	Read and Think
4th Period	Read and Think. Study Points
5th Period	Project Work, Let's Write
6th Period	On Your Own, Unit 3 Review/Check-up

Sub plan

Text	Middle School English I (Doosan Dong-A)-Kim	Date	October 24th, 2008	Period	5/6
Unit	Lesson 9 A Trip to Mt. Geumgang - Project Work -				
Class	1 - 5, 6 (Advanced Level)	Teacher	Kim, Ji-Yeong		
Teaching Aids	Computer, Projection TV, Blackboard, Worksheet				
Specific Aims	* Students will be able to: 1. Pretend to be Mina and write back to Alex. 2. Write expressions of weather in their letters. 3. Talk about what they did and what they will do in their letters.				

TEACHING PROCEDURE

STEP 1 : WARM-UP (approx. 5 minutes)

1) Greetings

2) Review

- Teacher shows each page of 'Read and Think' that students have learned, and asks concept questions to verify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assage.

3) Presentation of the aims of today's lesson

- To to be Mina and write back to Alex
- To write expressions of weather in their letters
- To talk about what they did and what they will do in their letters

Teacher tells the students that they are going to write letters to Alex as Mina, responding to the letter on page 95. In their letters, they are going to use the expressions of weather and talk about what they did and what they will do.

STEP 2 : DEVELOPMENT

1) Whole-class Work (approx. 10 minutes)

● Reviewing the Format of An English Letter

- Ask students about the format of an English letter, which they have already learned, drawing it on the blackboard.

Return Address
Date (Month Day, Year)
Dear <u>Name of Recipient</u> ,
Body Paragraph 1
Body Paragraph 2
Body Paragraph 3
Closing (Sincerely...),
Signature
P.S.

● **Brainstorming**

- Encourage students to think of what can be included in their imaginary letters.
- Provide them with three key words and let them elaborate on them.

2) Group Work (approx. 18 minutes)

● **Writing Letters**

- Divide the class into groups of 4-5 students and distribute the worksheet to each group.
- Let the students assign the roles within their groups.
 - * *Writer (2) : write the content produced by his/her group.*
 - * *Dictionary user (1) : look up the words in the dictionary.*
 - * *Presenter (1-2) : present the letter to the class.*
- Let the students do the group work (for 10-12 min.)

● **Presentation** (for 7-8 min.)

- Let the presenter(s) of the groups come up to the front and present their groups' letters.
- Let the rest of the class listen carefully to the presentation.

<past>
Trip
(Mt. Geumgang)

<present>
Grandfather
School life
Friends...

<future>
plans of
winter vacation

3) Language Focus (approx. 5 minutes)

- Explain some major grammatical errors to the whole class.

STEP 3. CONSOLIDATION (approx. 7 minutes)

- 1) Summarize today's lesson and answer students' questions.
- 2) Formative Test
 - Distribute teacher-made postcard with blanks in it.
 - Let the students fill in the blanks individually.
- 3) Assign homework - Complete the exercise on page 152 (Let's write).
- 4) Wrap up the class.

- 'Read and Think' (Lesson 9) -

A Trip To Mt. Geumgang

(p. 94)

October 21, 2001

Dear Alex,

Hi! We arrived in North Korea yesterday. It rained last night. It is sunny now. How's the weather in New York? We are going to see Mt. Geumgang this afternoon. I m so excited.

My grandfather looks very sad. His hometown is not far from here. We can even see his hometown from Mt. Geumgang, but we cannot go there. I feel sorry for him. Write back soon.

With love,

Mina

(p. 95)

November 5, 2001

Dear Mina,

Thanks for your pretty postcard. Mt. Geumgang looked very beautiful. All my family saw the picture. They liked it very much. Someday my family will visit Mt. Geumgang, too.

How was your trip? Did you enjoy it? I hope so. By the way, how is your grandfather now? Is he OK?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become one nation again soon. Then your grandfather can visit his hometown again.

Please say hello to your family.
I'll write to you again. I miss you.

Your friend,

Alex

Kim Mina
123-4 Sinsa-dong, Gangnam-gu
Seoul, 135-120
Korea

◎ READ AND THINK ◎

A Postcard from Mt. Geumgang



October 21,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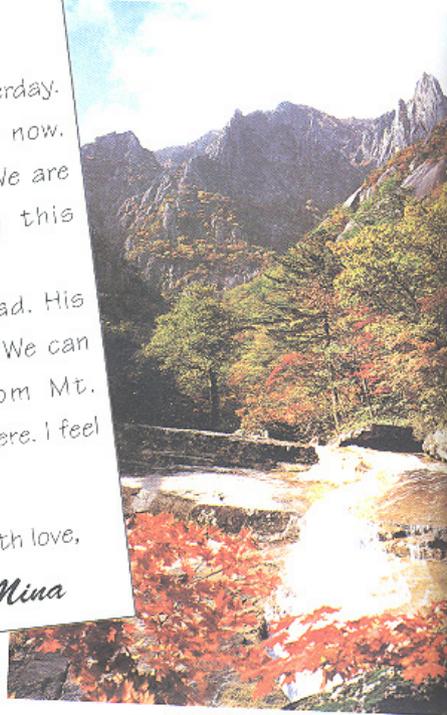
Dear Alex,

Hi! We arrived in North Korea yesterday. It rained last night. It is sunny now. How's the weather in New York? We are going to see Mt. Geumgang this afternoon. I'm so excited.

My grandfather looks very sad. His hometown is not far from here. We can even see his hometown from Mt. Geumgang, but we cannot go there. I feel sorry for him. Write back soon.

With love,

Mina



Mini-Dictionary

- dear
- in: ~에 <장소>
in + 도시, 나라
on + 섬, 산
- far from: ~에서 먼
- éven
- feel sorry for ~: ~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다
- write back: 답장하다
- soon

① 미나의 편지에 나타난 금강산의 날씨는?

① 흐린 뒤 맑음

② 비 온 뒤 맑음

③ 맑은 뒤 흐림

④ 흐린 뒤 눈이 올

November 5, 2001

Dear Mina,

Thanks for your pretty postcard. Mt. Geumgang looked very beautiful. All my family saw the picture. They liked it very much. Someday my family will visit Mt. Geumgang, too.

How was your trip? Did you enjoy it? I hope so. By the way, how is your grandfather now? Is he OK?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become one nation again soon. Then your grandfather can visit his hometown again.

Please say hello to your family. I'll write to you again. I miss you.

Your friend,

Alex

Kim Mina

123-4 Sinsa-dong, Gangnam-gu
Seoul, 135-120
Korea



Mini-Dictionary

- How was your trip?: 여행은 어땠나?
- I hope so.: 나는 그랬길 바래.
- by the way.: 그전 그학교(학생을 바꿀 때 쓰는 말)
- one nation: 단일 국가, 한 민족
- say hello to: ~에게 인사를 전하다
- miss

2 다음 중 Alex의 편지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Alex는 금강산에 가고 싶어한다.
- ② Alex의 가족은 미나의 엽서를 보았다.
- ③ Alex는 미나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한다.
- ④ Alex는 남·북한 통일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149 one hundred and forty-nine

- Flow Chart of the Class -

그룹 1	1	2
	3	4

그룹 4	1	2
	3	4

그룹 7	1	2
	3	4

그룹 2	1	2
	2	4

그룹 5	1	2
	3	4

그룹 8	1	2
	3	4

그룹 3	1	2
	3	4

그룹 6	1	2	3
	4	5	

5

나. 자료

<교사 A - 수업자료 11>

A Trip to Mt. Geumgang



Aims 

Objectives

We are going to.....

- 1. be Mina and write back to Alex.**
- 2. write expressions of weather in our letter.**
- 3. talk about what we did and what we will do in our letter.**

English Letter Format

Return Address
Date (Month Day, Year)

Dear Name of Recipient,

Body Paragraphs

Closing (Sincerely...),
Signature

P.S.

Sample English Letter

506 Country Lane
North Baysville, CA 53286
July 16, 2007

Dear Susan,

It feels like such a long time since the last time I saw you. I know it's only been several weeks since I saw you. So far my summer has been great!

I spend my all my weekends at the beach. I am getting a nice tan and you can no longer say I am paler than you. I have been playing lots of volleyball, surfing and building a nice collection of sea shells. Just this past weekend I took second place in a sandcastle building contest!

On the weekdays I work. I drive an ice cream truck around and sell ice cream to the kids. It is so cool. It is a combination of the two things I love most, ice cream and kids. The pay isn't too great but I love the job so much.

I hope the summer's been going well for you too. There's only a month and a half left in summer vacation and after that it's back to school. Would you like to meet up some time to before school starts?

Your friend,
Signature

P.S. John Austin says hi.

Brainstorming

Development

What can we write about in Mina's letter?

Past

Trip (Mt. Geumgang)

Present

Grandfather
School life
Friends...

Future

Plans of
winter vacation,
Christmas...

Group Work

Activity

그룹 1	이지훈	이호진		그룹 4	이승기	전선영		그룹 7	박준호	안동예민
	정재훈	이세희			김만경	김정현			임상현	김호영
그룹 2	배연희	임호진		그룹 5	안영민	배희경		그룹 8	민지혜	방세민
	임소영	성유현			최혜영	백철우			배용욱	이지민
그룹 3	홍은호	곽은주		그룹 6	곽요섭	강은지	이승미			방준희
	한혜미	전서우			이준희	최국주				

Group Work

Let's Write Letters!

- **Main Writer (2)** : write the content produced by his/her group.
- ☆ **Note that main writer are just writing what you said.**
Every group member should produce at least one sentence.
- **Dictionary user (1)** : look up the words in the dictionary.
- **Presenter (1-2)** : present the letter to the class.
<http://www.online-stopwatch.com/online-stopwatch.swf>

<교사 A - 수업자료 12>



November 20, 2001

Dear Alex,

Hi! Thanks ____ your beautiful postcard. New York ____ (~해 보인다) so nice. I especially like the ____ of ____ (자유의 여신상). ____ (언젠가)

I want to visit your ____ (고향), New York, too.

Mt. Geumgang was really wonderful. ____ was ____ (화창한) and ____ (선선한).

Trees were ____ and yellow(단풍이 든) and waterfalls were ____ (거대한).

My ____ (할아버지) is OK now. He was so pleased when I told him that ____ (북한) and ____ (남한) would ____ (되다) one ____ (나라) again ____ (곧).

My school days are ____ (바쁜) with ____ (숙제) and ____ (시험), but I still have fun ____ my friends. ____ (요즘) I often play ____ (스포츠) with them. Tomorrow, I ____ (~할 예정이다) play tennis.

____ (그건 그렇고), ____ (겨울방학) is just around the corner. I'm so ____ (흥분된). This winter, I ____ (~할 것이다) ____ (방문하다) my uncle in the U.S. He ____ (산다) in Los Angeles, but I can go to New York to ____ (만나다) you if you like it. Please tell me if it's ____ (좋은) with you in your next ____ (엽서). I am looking forward to ____ (보다) you.

Please ____ (안부를 전하다) your ____ (가족). Write ____ (답장하다) soon. I ____ (그리워하다) you.

P.S. Please let me know your phone number.

Sincerely yours,

I want to talk with you on the phone, too.

Mina



To. Alex Jones
213 East 82nd
Street
New York, NY
10028
U.S.A.

다. 수업 녹취

Teacher: How is the weather today?

Student 1: It's rainy.

Student 2: It's sunny.

Teacher: Rainy? Are you crazy? How is the weather? Uh? It's sunny, and it is....is.. is it hot? Is it hot today? Uh? No, it's cool. It's a little cold. Right?

Student : OK.

(학생들 잡담)

Teacher: 자, Last week, it was sunny, but after the rain, it became a little bit cold. So, today it's cold. Right? Right?

Student : Yes, mother.

Teacher: Haha.. Do you remember what we learned last time? Do you remember? Last time, we finished the main text of lesson 9 and we learned study point. Do you remember? 자, let's look at the page 148, 148. Page 148.

Uh.. if you look at the text, there are two postcards. Right? Who is writing the first postcard? Who is writing?

Students: Mina.

Teacher: Mina. Mina is writing to whom? To?

Student : Alex.

Teacher: Alex, right! And look at the second postcard. Who is writing the postcard?

Students: Alex.

Student: 알렉스가 미나한테.

Teacher: Right. Alex. From Alex to Mina. So as I told you last time, today we will be Mina. We will be Mina and write to Alex. OK? So let's look at the aims first.

Student: (잡담)

Teacher: 자, let's read it together. Let's read it together. 자, Start!

We will be.. Read it together. 같이 읽자고, 어? 자, 시작!

Teacher & Students: We will be able to be Mina and write back to Alex. Write expressions of weather in our letters. And talk about what we did and what we will do in our letters. Do you understand the sentences? These are today's lesson aims, lesson objectives.

(학생 잡담)

Teacher: (잡담한 학생에게) 승기! Can you tell it in Korean? 어떻게? 우리 할게 뭐야, 오늘?

Student: 오늘이요? 그거

Teacher: 1번!

Student: 어, 미나가 알렉스에게 편지 보냈어요.

Teacher: (다른 학생들에게) 맞아? Is it right? 응? 우리가 바로 미나가 될 거란 얘기지. We will be Mina.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Student: 알렉스한테

Teacher: 그래, 알렉스한테 편지를 쓰겠다. 두 번째, 채훈아! 두 번째 무슨 얘기야?

Student(다른 학생): 그거, 계절을 표현하기.

Teacher: 너 채훈이야? 욕심내지마. 어? 욕심내지 말고 시킬 때만 대답하자, 승기야~!

자. 어떻게 한다, 채훈아?

Student 편지에..

Student(다른 학생): 잡담.

Teacher: 편지에?

Student: Expression이 뭐예요?

Teacher: Expression. 표현.

Student: 편지에.. 날..

Teacher: 날씨 표현을 쓴다. 자, 우리 과에서 주요하게 배운 게 날씨도 포함이 됐었지? 배운 걸 좀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We will write the weather expressions in our weather. 아, in our letters.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 세 번째? 연화야, 세 번째 무슨 얘긴지 알겠어?

Student: 안 보여요.

Teacher: 안 보여? 세 번째는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Student: 잡담.

Teacher: 선영아, 맨 앞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하지 않겠지. 세 번째 무슨 얘기야? 음? 자 세 번째는.. 이거 무슨 얘기야? 우리 이 과에서 주로 배운 게 날씨 말고도 future plans 표현하는 거 배웠었지~ Will 이랑 be able to 표현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배웠던 과거와 이번 과에서 배운 미래를 둘 다 한 번 써 볼 거야. 물론 현재도 써보고. 어? 그래서 우리 편지 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한 일들과 앞으로 할 일들을 같이 표현해보자는 거야. 애들아, 우리가 오늘 뭘 할지를 알아야 수업을 너희가 잘 할 수 있겠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학습목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자. Last time we learned about English letter format. Do you remember? 어? And I told you that today we are going to write English letters ourselves. So we have to remember the format. English letter format. Let's review it together. 자, English letter format을 같이 한 번 review를 해 볼거야. 자, 이거를 알아야 너희가 영어 편지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요게 편지지라고 하면.. 떠들지 말자, 승기야. 오늘까지 이렇게 까불면 선생님 좀 화나거든? 응? 자, 제일 먼저 편지를 쓸 때 뭘 써야 된다 그랬지?

Students: 날짜.

Teacher: 날짜. Date! 자, 날짜 쓰는 순서는 어떻게 됐었어? 뭐부터... 뭘 먼저 써야 돼?

Students: 월이요.

Teacher: 뭘부터... 뭘 먼저 써야돼? 어, First we have to write month. And next...

Students: 일.

Teacher: 일. Date. And 자, 콤마를 찍고 마지막으로 We have to put

Students: Year.

Teacher: Year. And next. 자, 그 다음에는 뭘 써야돼? 음?

Students: dear...

Teacher: Dear. 자 dear 누구누구누구.. Dear하고 the name of the recipient. 자,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써야 돼. 자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쓴다 그랬지? We are writing to Alex. So you have to put Alex here. 자 너희 모두가 Alex를 써야 돼 여기다. 자 그리고 날짜는 우리 책에 있는 지금 날짜랑 비슷하게 가야 되겠지. 자 보면은 알렉스가 미나에게 마지막으로 쓴 날짜가 언제야? 11월 5일이야.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이.

자 이렇게 가정을 하자. 오늘이 11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2001년 11월 30일이다. 자 이렇게 날 짜는 다 통일을 하도록 하자고. 자, 이렇게 dear 누구누구누구 다음에는 뭘 써야 돼?

Student: 인사.

Teacher: 응, 인사. 그치, we have to write greeting. 자 인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가 얘기를 쓰면 되겠지? Body, body paragraphs 써주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뭘 써야돼? 내용을 다 쓴 다음에는? We have to close, close the letter. 그러니까 여기다가 클로징을 해야 되겠지? 자 What was closing? Closing 이 뭐였어? 어? 자, tell me one example. 어?

Student: 마무리요.

Teacher: One example of closing.

Student: With love.

Teacher: With love. That's in the textbook.

자 With love 또는 what else? Your?

Students: Friend.

Teacher: Your friend. 어, your friend.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서명, signature. 자. You have to write Mina's signature. 멋진데? Hahaha. 자 그 다음에. 자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한 거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PS가 있어. PS. Who knows what PS is? Who knows?

Students: 추신.

Teacher: 추신 in Korean. Right? So if you have something to write in the letter after closing the letter, you can put PS here. 자, 편지를 다 썼어. 근데 갑자기 할 말이 또 생각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다 막 이렇게 화살표 넣어서 쓸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추신이야, 추신. 자, P dot S dot이란 얘기는, 이거 점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줄인 말이란 얘기지? 자 이거는 postscript라 그래. Postscript. 자 이게 바로 추신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요거는 optional이야. 굳이 안 써도 돼. 뭐가 쓸 게 있을 때만 쓰는 거야.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letter format을 보고.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영어 편지 한번 봐봐 이거. 진짜 실제 영어 편지거든? 자 이거 예를 하나 그냥 들어주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이거 뭐라 그랬어? 켈 위에 이 주소는? 어? 켈 위에 여기 있는 자 잘 안 보이지? 햇빛때때. 켈 위에 있는 주소는 뭐라고 했었니? Return Address라고 했었지? 반송주소.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원래 진짜 형식적인 편지를 쓸 때는 보낸 사람의 주소도 편지지에다 쓴다고 했잖아. 날짜 위에다가. 그지? 근데 우리는 오늘 엽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return address를 쓸 필요는 없어. Date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 자 그리고 짹 봐봐. Date 써 있고 Dear Susan 하고서 쪽쪽쪽쪽 얘기 나와 있고 마지막에 your friend하고서 signature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응. 이렇게 쓰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보고서 자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쓰기로 했지. 자. date 썼고 dear 누구누구누구 썼고 인사, 인사 어떻게 해? 그냥. 인사 어떤 식으로? Hi. Hello 그지?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body에 뭐가 들어갈 지 한 번 생각을 해봐. 어떤 얘기를 쓸 수 있을지. 본문에 너희.. 미나가 돼서 알렉스에게 뭘 써야 될까? 응? 자, 답장을 하는거야. 그러면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한 번 봐야 되겠지. 알렉스가 궁금해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 어? 뭘 말할 수 있을 거 같애? 자 책을 봐봐. 어?

Student: (대답을 제대로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음)

Teacher: 미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일단 써 줘야돼. 그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잖아? 자 그럼 grandfather에 대한 얘기를 해줘. 또? 또 뭐 있을까? 자 알렉스의 질문을 눈 여겨서 봐봐. 알렉스가 뭘 물어봤었어?

Student: (대답을 제대로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음)

Teacher: 어, 여행이 어떠냐고 물어봤지? How was your trip? Did you have fun? Did you enjoy it?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 trip에 대해서도 써 줘야돼. Trip, 어디로의 trip이었어?

Students: 금강

Teacher: Mount. Geumgang으로의 trip이었지?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금강산 여행이 어땠는지 말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자 애들이 우리가 미나가 제일 처음에 알렉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미 금강산 갔다 온 상태였어?

Students: 아니요.

Teacher: 아니야. 어? We are going to see Mt. Geumgang this afternoon 그랬지. 갈 계획이야라고 말하고 그냥 끝났었잖아. 그러니까 여행을 실제로 가서 어땠는지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

응? 자 그래서 금강산의 여행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How is your grandfather now?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말을 해 줘야돼.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날씨도 한번 얘기해보고 우리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도 얘기해보자라고 그랬지? 자 그럼 요것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날씨는 금강산에 갔더니 날씨가 어떻더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여기다 써줘도 돼. 자 그리고 지금 오늘 편지 쓰는 날 지금 날씨가 언제 이렇게 써줘도 돼. 그니까 여기 써줘도 되고. 그건 너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써. 어떤 곳에선 간에.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스크린을 봐봐. Look at the screen. 자 보면은. 자 Past, present, future라고 일단 나와 있지? 이거 뭐야? 뭘 얘기하는거 같애?

Student: (대답을 제대로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음)

Teacher: 어? 과거, 현재, 미래. 우리 편지에다 이거 세 개를 다 써보자는 뜻에서 선생님이 이거 다 나누어 봤어. 자 그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금강산 여행갔던 거 얘기할 수 있겠지? 아까 얘기한 거 저거. 금강산을 갔다 온 거는 지금 우리가 편지를 쓰는 시점인 11월 30일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지. 그니까 요거는 우리 과거로 쓸 수 있겠다. 과거로. 어? 누가 떠들어? 어? 준희야, 용욱아. 너희가 수업할래? 어? 자 이거는 과거로 써주고. 지 우리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봐.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어떠셔. 이제 지금 어떠셔. Now. 라고 해야되니까 현재로 쓸 수 있겠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Plus 현재에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 애들이, what's Mina's job? What does Mina do? student지. She is a student like you guys. She goes to middle school and she is the first grader. 너희처럼 중학교 1학년이야 미나는.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지금 학교 다니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할아버지 얘기뿐만 아니라 뭘 얘기할 수 있겠어? 개의, 그녀의 학교생활 school life를 얘기할 수 있어. 자 School life하면 당연히 뭐도 얘기할 수 있어? Her friends, 친구들도 얘기할 수 있지. 어? 또 뭐 시험이 어떻다 숙제가 어떻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 Teacher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줌 맘에 안 들어, 우리 영어 선생님은 좀 예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Students: 아~~~~

Teacher: 선생님은 Mina 영어선생님 아니야. 그냥 미나 영어선생님 예를 든 거잖아. 왜 이렇게 흥분들을 해, 우리 학교 아니야 그래. 자 아무튼 이렇게 현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자 애들이 지금 11월 말이야. 11월 30일. 그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봐. 한 달 뒤에 뭐가 있어 너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와 겨울방학이 있잖아.

Student: 성탄절.

Teacher: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랑 똑같은 거잖아? 하하하.. 자 크리스마스 계획 Christmas plan이라던가 또는 Winter vacation 계획을 얘기할 수 있는거야. 겨울방학 winter vacation이잖아. 자 요런 것들을 한 번

미래에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애들아 우리 English letter format도 알고 자 어떤 얘기들을 편지에 쓸 지도 다 알았잖아. 그지? 이거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문장으로만. 문장으로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자 예를 들어서 한 개만 해보자. 자 금강산에 갔더니 금강산 정말 좋았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Student: Geumgang is good.

Teacher: Geumgang

Student: is good.

Teacher: is good은 현재잖아. Geumgang

Student: was good.

Teacher: 어 was good. Mt. Geumgang was good.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I로 시작한다면? I? 어? I?

Student: had fun.

Teacher: had fun. 그지? 과거, 과거잖아. I had fun. 또는 I enjoyed the trip to Mt. Geumgang.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야. 같은.. 같은 얘기지만 문장은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어? 너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얼마든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그룹을 나누는데 어.. 너희가 요대로 다 왔으면 돼 일단은. 이렇게 네 명씩 짝을 짓는데, 얘기했지? 책상까지 같이 옮기는 거야. 어? 다 네 명씩 일단 짝을 지어봐. 자 그리고 저 쪽에 승미랑 준희는 지금 남잖아. 그지? 그러니까 승미는 오른쪽으로 붙고 준희는?

Student: 환잔데요.

Teacher: 넌 안 움직여도 돼 많이. 울로 붙어. 그 앞으로. 알겠지? 자 지금 빨리 나누어 봐봐. 빨리 움직여. 시간 별로 없어.

Students: (응성응성)

Teacher: 자 책상을 아예 뒤로 돌려서 빨리 움직여봐.

Teacher: 네 명씩.

Students: (응성응성)

Teacher: 빨리 움직여.

Students: (응성응성)

Teacher: 자. 조용히. 애들아 잠깐만. 자 이제 나누었지? 빨리 움직여봐. 자 너희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 잠깐. 선생님 얘기하잖아. 선생님 얘기할거거든? 조용히 좀 하자. 자 너희가 쓰기 전에 일단 역할 분담을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지금 worksheet을 하나씩 나누어 줄 거야. 잘 들어. 잘 들어야 할 수 있어. 여기 다 봐. 윤지도 돌려서 선생님 봐. 자 여기에 왕따시만한 big postcard를 그룹당 하나씩 줄거야. 어? 그럼 너희는. 여기다가 선생님이 친절하게 주소도 써줬어. 알렉스의 주소도 써줬어. 자 여기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역할 분담을 해서 뒤에다가 너희 이름을 적어. 여기 스크린 봐봐. 자 역할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 야 누가 떠들어 지금? 너희 이거 안 듣고도 설명 안 듣고도 할 수 있어? 어? 쓸 자리가 없어서 그냥 저기 저거 보면서 설명할게. 자 main writer는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야. 두 명을 정해. 두 명이 본격적으로 쓰는데 주의할 건 애들아. 이거를 시키면은 꼭 쓰는 사람만 쓰고 나머지는 놀아. 그거 아니거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쓰기만 하는 거지 손으로 쓰기만 하는거지 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 그룹의 구성원이 적어도 한 명이 한 문장씩은 생각을 해내야돼. 그럼 그걸 writer들이 쓰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사람들만 시키지마 절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얘기야. 지금 Note that main writers are just writing what you said. 이 사람들은 그냥 쓰기만 하는거다

이 얘기가 지금. 너희 다 참여해야돼. 자 그 다음에 dictionary user라고 하나 있어. 자 이거는 이 사람들만 휴대폰을 만지막거리는 걸 용납을 해줄게. 어? 없으면 할 수 없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어? 자 없으면 다른 그룹, 두 개 있는 그룹한테 빌려. 그래서 사전을 찾아. 휴대폰에 있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아직 안 끝났거든? 아직 안 끝났거든? 저 마지막 presenter는 자 여기 보면은 어 한 명에서 두 명이라고 써있지? 저기 다섯 명인 그룹 있지? 두 조? 개네들은 발표자가 두 명이야. 두 명이 나와서 같이 발표해. 분담해서. 어?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발표를 하는 사람이야. 자 역할 분담하는데는 1분만 써. 분담 쓰고 이거 쓰는데 딱 10분 줄거야. 자 시작해.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야 빨리 역할 분담하고 써야 돼.

Students: (웅성웅성)

Student: (들리지는 않지만) 선생님 문자해도 되요?

Teacher: 안돼. 당연한 걸 물어봐. 어? 당연한 걸 물어봐 왜?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해봐 얼른!

Student: 날짜는 적어진 거대로 해요?

Teacher: 어. 야 날짜는 저대로 쓰면 돼. 칠판 봐. 칠판에 있는 날짜. 왜 뒤를 돌리고 있어? 응?

Student: 뒤에 단어 사전 있어요.

Teacher: 어 좋아.

Student1: 어디?

Student2: 226.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역할 정했어?

Student: 예. 애네들이 발표구요. 저는요. 우린 쓰는거예요.

Teacher: 뒤에다가 적어 여기.

Student: 우리 둘이 쓰는건데.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다 뒤에다가 역할부터 적고 시작해.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역할 분담한 거 뒤에다가 적고 시작해.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할 분담한 거 뒤에다가 적고 시작해.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야 너는 니네 그룹을 신경써야지. 왜 딴 데 쳐다보고 있어. 해 빨리. 여기도 역할분담했지? 뒤에다가 적고 시작하는거야 응? 역할 분담한 거. 니네 역할 분담한 거 뒤에다가 적고 빨리 시작해. 자 역할 분담한 거 뒤에다가 적고 시작해.

Student: 역할 분담이요?

Teacher: 응.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역할 분담한 거 뒤에다가 적고 시작해.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역할 분담한 거 뒤에다 적어. 일단. 뒷면에.
Student: 선생님~!
Teacher: 어 날짜 써야지~
Student: 발표자가 여기서 뭐예요?
Teacher: Presenter, presenter.
(학생들 잡담)
Teacher: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Student: 선생님, 스펠링 좀 적어주세요.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애들아 역할 분담하는 데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 실질적으로 쓸 시간이 부족해. 그지?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야 역할 분담만 하루 종일 할거야? 빨리 해 빨리.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애들아 시간봐. 6분. 6분 남았어. 6분. 어?
(학생들 잡담)
Students: (웅성웅성)
Student: 선생님, 여행은 가잖아요. 여행은 재밌었어라는 말은 뭐예요?
Teacher: 응 아까 배웠잖아. I enjoyed the trip. I enjoyed the trip. 아까 물어볼 때 Did you enjoy it? 이라고 물어봤잖아. I enjoyed the trip 하면 되잖아.
Student: 이거 알렉스가 미나한테 쓰는거죠?
Teacher: 미나가 알렉스에게 쓰는거지. dear 알렉스잖아. 어머어머어머.
Student: 아 맞다.
Teacher: 애네 이거 진짜 정신 줄 놔네. 어?
Student: (주소에 관해 질문을 하는데 들리지 않음)
Teacher: 야 이거는 신경 쓰지마. 이거 안 읽어도 돼. 이거는.
(학생들 잡담)
Student: 선생님 어떻게 시작할 지 모르겠네요?
Teacher: Hi!
Student: 그리고는요?
Teacher: 어 네 엽서 고마워. 이거처럼 이거처럼 쓰면 되잖아.
Student: 그 다음요?
Teacher: 저기 있는 거 써. 저기 있는 거.
Students: (웅성웅성)
Student: 선생님 이거 맞아요?
Teacher: 응 맞아. 애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완벽한 문장을 기대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완벽한 엽서를 써. 그럼 여기 학교에 안 있지. 그지? 일단은 시도라도 해봐. 너희가 틀린 게 있으면 선생님이 고쳐주면 되잖아. 그지? 시간이 많지 않아. 이거 완성 못하는 조는 발표할 기회를 줄 수가 없어.
Student: 이거 수행이에요?
Teacher: 그럼. 이거 수행평가에 반영한다고 이미 지난 시간이 얘기했지? 어 수행평가 반영하는거야. 발표

안 하면 너희 좋을 거 없어.

Student: weather 어떻게 써요?

Teacher: weather?

Student: weather에 대해서 써요?

Teacher: weather에 대해서 써야지. Mt. Geumgang was.. it was 어땠다. on Mt. Geumgang

Student: Mt. Geumgang 썼어요.

Teacher: 그럼 날씨가 어땠다. it was 어찌고 저찌고 쓰면 되잖아.

Student: it was.

Teacher: 날씨 쓰는 표현. 저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써봐. 내용 포함되게. 날씨가 어땠더라.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야 애들아 막막하면 책을 좀 참고해서 비슷하게 쓰면 되잖아. 그지?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야 너희는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찍어?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Student: 네 안 그럴게요.

Students: (웅성웅성)

Student: 선생님, 이상한 소리해요.

Teacher: 승기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하고 얘기할거야.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기여를 해줘 애들한테. 기여를 해주라고 애들한테.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자 “금강산은 어땠어?”라고 애길 해줘야지. 저기 써있는 대로. 금강산은 아름다웠고 날씨는 좋았
다 이런 식으로 쓰던가. 애가 금강산에 대해서 애길 해줘야지 지금 미난데.

Student: How was...

Teacher: 그건 알렉스가 물어본 거였고. 이제 대답을 해줘야지. 이거에 대해서. The trip was..?

Student: 써요?

Teacher: 응?

Student: 써요?

Teacher: 응 그런 식으로 쓰면 돼. 너희가 써야지 선생님한테 뭘 써요 하면 뭐라 그래. 이미 저렇게 다 애
길 해줬는데. 응?

Student: 선생님. (질문을 하는데 들리지 않음)

Teacher: 어 그냥 I have fun with my friends하면 되지. 아니면 It's very interesting to play with my
friends.

Student: 다시요.

Teacher: It's very interesting to play with my friends.

Student: 선생님, 여전히가 뭐예요?

Teacher: 응? Still. Still.

Student: (질문을 하는데 들리지 않음)

Teacher: 그 때 배웠잖아. I feel sorry for him. 그렇게 배웠잖아. 그 표현 배웠잖아.

Student: 5분만 더 주세요.

Teacher: 자 애들아. 너희 이렇게 우리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 35분에 끝나는 수업인데 너희 발표도

해야 되고 선생님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거든. 자 지금 다 끝난 조 손 들어봐. 어느 정도 다 썼다.

Student: 한 줄밖에 안 썼어요.

Teacher: 아무도 없어? 자 애들아 다 발표를 못해도 세 조 정도는 발표를 해야 돼. 딱 1분 줄게. 얘기했지? 이거 수행평가에 반영되는 거야. 너희 이렇게 냅 놓고 있을 수가 없어. 어?

Student: 몇 점, 몇 점?

Teacher: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1분 줄 테니까 어? 마무리해. 마무리. 1분.

Students: (웅성웅성)

Student 1: 괜찮다가 영어로 뭐예요?

Teacher: OK. OK. fine. 다돼.

Student 2: O-k-a-y.

Students: (웅성웅성)

Student : 선생님, "학교 생활은 어떠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Teacher: 뭐 what's your...How's your school life?

Student : 아~~

Teacher: How is your school life?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자 너희는 마무리하고 발표해. 마무리하고 발표해. 너희도 마찬가지로. 마무리하고 발표해.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자 애들아. 지금 대충 보니까 한 세 조 정도는 발표할 수 있을거 같애. 자 이제 그만해. 그만. 마무리. 다 손 놔. 그만해. 자 이제는 너희가 발표를 들을 시간이야. 어? 지금 쓰고 있으면 안 돼. 어> 연화 네 조 먼저 나오자. 연화야. 배연화. 아아. 미안해 미안해. 희경아 잠깐. 희경이네 조 먼저 나와서 발표. 다 됐지?

Student: 안됐어요.

Teacher: 다 안됐어 아직? 지금 어디까지 됐는데?

Student: 이거 school

Teacher: 어 한 데까지만 나와 그러면 지금 돼있는데 까지만. 한 문장이야? 어 클로징만.. 클로징은 그냥 말할 수 있잖아. 자 저기 저 조였나?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아까 발표하라고 한 조가? 어느 조였어?

Student: 저희 조요.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어 너희. 너희 다됐다. 너희 먼저 나와 그럼. 발표자 두 명 나와.

Student: 한 명인데.

Teacher: 한 명. 어. 자 빨리 서둘러.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Students: (웅성웅성)

Teacher: 어 그래 나와 얼른. 애들아 조용히 해. 지금 쓰거나 말하면은.. 야~ 이호진. 너희 지금 쓰거나 말하면 감점이야 다. 어? 조용히 해. 여기 봐. 이거 시킬거야. 물어볼거야 이거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

Student: 해요?

Teacher: 어. 쉬 조용히 잘들어. 물어본다고 했어. 질문. 할거야. 자 시작.

Students: Dear Alex, Hi! Thanks for your great postcard.

Teacher: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 여기까진 한 명이 읽고 이 다음 한 명이 읽는걸로 하자. 자

일단 서우가 먼저 읽어.

Student 1: Hi! Thanks for your great postcard.

Student 2: 안들려요.

Teacher: 들어. 조용히.

Student 1: Mt. Geumgang was beautiful.

Teacher: 잠깐. 니네, 애들아. 안 들리지? 이렇게 떠들면. 어? 너희 이렇게 자꾸 실망시킬거야? 지금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나머지 조들은. 발표 듣자고 응? 잘 들어주는 게 예의지. 지금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딴 짓해? 다 잘 들어.

Student 1: Maple was so pretty. It was sunny and cool. My grandfather is fine now. Don't worry.

Teacher: 음.

Student 3: My school life is very fun. Because play with my friends and test finish...

Teacher: finished.

Student 3: Finished. It will be...

Teacher: Christmas.

Student 3: Christmas. I will hope get...

Teacher: present.

Student 3: present.

Teacher: I will, I will write you again.

Student 3: write you again. I miss you. Good bye. Your friend, Mina.

Teacher: 음. 박수! 잘 했지? 자 애들아 봐봐. 이 짧은 시간에 같은 시간을 쫓는데 어떤 조는 지금 딱 한 줄 썼고 어떤 조는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간에 다 썼어 이렇게. 잘 썼어. 굉장하 어? 예리도 별로 없어. 자 한 개만 물어보자. 용옥아. How is Mina's grandfather now, according to the letter? How is Mina's grandfather now?

Student: Fine.

Teacher: Fine. 그건 잘 들었네 또? 어? He is okay now라 그랬지? 그지? 자 그 다음에 future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디? 뭘 얘기했어? vacation이었어?

Student: Christmas.

Teacher: Christmas 얘기했지? 어. 자 그 다음엔.. 어. 다 됐지? 희경이네 조? 희경이네 조 나와서 발표해 보자.

Teacher: 어. 잘 들어.

Student: 읽어요?

Teacher: 어. 날짜는 안 읽어도 돼. 다 똑같으니까.

Student: Dear Alex, Hi! Alex. Thanks for your postcard.

Teacher: 좀 크게 하자.

Student: I enjoyed my trip. Mt. Geumgang was very beautiful. My grandfather was looks well. I am so sorry for him. But he looks happy. How is your school life?

Teacher: 음. 잘 했지? 잠깐 잠깐 박수 받고 들어가야지. 박수!

(짹짹)

Teacher: 응 잘했어. 자 들어가고 음... 자 그래 지훈아.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뒤에 대해서 물어봤어 알렉스한테?

Student: 친구 잘 사귀었냐고..

Teacher: 친구 잘 사귀었냐고? 음. 비슷하긴 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갔어. 그냥 How is your school life? 이렇게 물어봤지? 네 학교생활은 어떠니? 자, 당연히 친구도 포함이 된 거긴 하지만.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썼지? 봐봐, 이 쓴 거 좀 봐봐. 응? 자 내용이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어. 이 짧은 시간에.. 응? 너희가 잘.. 놀면서 한 문장 쓸 동안 애네는 이렇게 썼단 말이야.

Student: (들리지 않음)

Teacher: 내용이 중요하잖아. 내용이. 자 마지막으로 한 조만 더 해보자. 자 다 봐봐. 어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조.

Student 1: 네 여기요.

Student 2: 어 여기 안 되는데.

Teacher: 어 여기 됐네. 이 정도면 충분히 발표할 수 있어. 자 발표자 나와서 해보자. 누구야 발표자? 윤지 어

Student 3: 애네 들.

Teacher: 어 둘이 나와서 요셉이랑. 자 괜찮아.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우리 바빠 지금 5분 남았어.

Teacher: 자. 자 여기까지만, 여까지만 요셉이가 읽고 나머지는 윤지가 읽으면 되겠다.

Student 1: Dear Alex, Hi! Alex. Thanks your pretty postcard. Mt. Geumgang is very beautiful.

Teacher: 음. 지현아. 너희조. 지금 할 필요없다고 얘기했지?

Student 2: I'm so excited. I will fo to Mt. 어 모르겠어요!

Teacher: 응. Mt. Geumgang. 긴장했구나.

Student 2: Mt. Geumgang, too.

Teacher: 응.

Student 2: My grandfather looks sad, too. I was very sad. Write back soon.

Teacher: 응.

Student 2: With love, Mina.

Teacher: 어, 자 잘했지? 박수!

(짹짹)

Teacher: 어, 자 잘했어. 들어가고. 자 애들아. 잘 했는데 저 공통적으로 너네 아직까지도 헛갈려하는 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나중에 얘기해줘서 헛갈렸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 원래 마운틴을 줄인 말이잖아. 그지? 하지만 뒤에 산 이름이 올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Students: 마운트.

Teacher: 마운트라고만 하면 돼. 마운틴 금강하지 않고 마운트 금강이 더 정확한 표현이야. 그지?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너희가 이 현재와 과거를 많이 왔다갔다해. 어? 자 아까 어떤 조였는지..자. My grandfather was looks well. 이거 말이 돼? was looks? 동사가 두 개 나왔어. 그지? 그냥 My grandfather looks well. 이렇게 쓰면 되지. 좋아 보이서. looks good, looks well 둘 다 괜찮아. 자.. 자 그 다음에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안타까워라고 할 때 어 이거 잘했네. I feel sorry for him.이라고 배웠잖아. 우리는. 근데 I am sorry for him해도 괜찮아. feel 대신에 그냥 am을 써 줘도 괜찮아. 어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음.....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첫 번째 그룹에서 자 My school life is very fun, because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 play with friends and test finished. 자 play with friends에 주어가 없어. 그지? 자, My school life is very fun, because.. I가 들어가야지. I play with my friends and the test finishe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 자 아무튼 다 잘했네. 자 너희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 쓴 편지를 한

번 보여 줄거야. 이거 선생님이 직접 쓴 거거든. 자 근데 보면은 여기에 빈 칸이 많이 좀 뚫려있어. 보면은 거의 다 어떤 의미를 써야 하는지 옆에 다 한글해석도 붙여놨거든? 그니까 이거 지금 한 번 해보고 이거를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할거야. 자 이거를 보면서 너희가 단어를 빈 칸에 채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너희가 막막하게 생각했잖아. 편지 쓰는 거를 어? 어떻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한 예를 보여 주는거야. 그러니까는 한 번 보고서 문장을 어떻게 쓰면 되는건지 한 번 각자 생각해보도록 하자고.

(유인물 배부)

Teacher: 남니? 남는 거는 그냥 뒤. 자.. 빨리 채워보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Student: 선생님, someday가..

Teacher: 미래의 언젠가. 응.

Student: 선생님, 이게 특히예요? 특히?

Teacher: 응. 특히.

Student: 자유의 여신상 어떻게 써요?

Teacher: 자 자유의 여신상 우리 앤드류 시간에 배운거지? 기억하는 사람? The..

Student: Statue of..

Teacher: Statue of... Liberty.. Statue of Liberty. 자 우리 책에도 보면 알렉스가 보낸 엽서에 자유의 여신상 그림 있지? The Statue of Liberty. 자 이거 대문자로 다 써줘야돼 이렇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자 애들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 맞춰볼까?

Students: 예.

Teacher: 자 선생님이 한 번 쪽 읽어 볼 테니까 같이 따라와 봐.

Teacher: 자 잘 들어봐. Dear Alex, Hi! Thanks for your beautiful postcard. thanks for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New York looks라고 해야 돼. looks so nice. I especially like the Statue of Liberty. Someday I want to..

Student: (알아들을 수 없음)

Teacher: Someday

Student: Statue를 어떻게 써요?

Teacher: 저 칠판 봐. 칠판. Someday I want to visit your hometown, New York, too. 자 그 다음 이제 paragraph 바뀌었어. 자 Mt. Geumgang was really wonderful. It was sunny and cool. 자 Trees were red and yellow. 이거 단풍이 들었던 뜻이야. red and yellow. And waterfalls were huge. waterfalls 하면은 폭포. Huge 거대하단 뜻이지. 자 여기 봐봐. 여기 적어줄게. were huge라고 쓰면 돼.

(끝나는 중 울림)

Student: 끝났어요.

Teacher: 기다려. 앉아있어. 우리 수업은 아직 안 끝났어. 자 My grandfather is OK now. He was so pleased when I told him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uld become one nation again soon. 자 My school days are busy with homework and exams, but I still have fun with my friends. 자 There days I often play sports with them. 자 다음 시간에 다 적어 줄 테니까 일단 써보자. Tomorrow I am going to play tennis. By the way, winter vacation is just around the corner. 자 just around the corner

는 멀지 않았단 얘이야. 가깝다. 자 I'm so excited. 조용히 해. 아직 안 끝났어. 자 This winter, I will visit my uncle in the U.S. He lives in Los Angeles, but I can go to New York to meet you if you like it. 자 Please tell me if it's good with you in your next postcard.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야 자 see에다가 ing 붙여서 seeing you. 자 Please say hello to your family. 자 Write back soon. I 그리워하다.

Students: miss you.

Teacher: miss you. 자 P.S. 써있는 거 보이지? postscript하고서는 Please let me know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 알려 달래. I want to talk with you on the phone, too 전화상으로도 얘기하고 싶어. 자 Sincerely yours, Mina 이렇게 돼있지? 자 애들아 너희 한 거 worksheet은 다 앞으로 내고 가는 거야. 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대로 들고 와. 알겠지?

라. 자기 관찰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각 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목표와 세부적 목표)	-받은 염서에 답장 쓰기 -편지 내용 중에 날씨표현하기 과거표현하기. 미래 표현 쓰기	-배운 내용을 염서쓰기를 통하여 내면화 시키고자 함 -본문의 학습내용을 다시 한 번 학 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마련함	-염서쓰기와 과거 미래시제 표현하기 중 더 중점을 두고있는 목표를 선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염서쓰기를 통 하여 얻고자하는 것이 좀 과다한 것 은 아닐까요?- 편지 형식,본문 내용 재확인 및 과거, 미래표현하기 등등)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중1 영어교과서 (두산동아) 9과중 project work -기능: writing a letter - 받은 염서에 답장 쓰기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review를 통하여 본 시 학습제시 -활동 내용 설명 -학습자 활동(그룹별) -발표	-학습활동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음 -GROUP WORK 를 구조적으로 계획하여 각각의 학습자에게 역 할을 분담.	
	수업 맥락(수업이 이 루어질 환경: 학생, 교 실, 기자재 등)	-대상학생: 중1 학생 상위 수준 -교실 : 일반교실 -기자재 : 컴퓨터, TV SCREEN, HANDOUTS FOR GROUPS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영어 사용에 대하여 어색함을 느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함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교사가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활동을 한 번에 설명하고 있음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GROUP 대표가 발표함. -한 학생의 언어가 돌발적이고 거칠어 교사가 통제하는데 어려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학습 활동을 한꺼번에 제시함으로 써 학습자가 부담을 가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기 활동을 단계별로 하여 학습자 부담을 줄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예) 날씨-과거표현-미래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영어 사용에 대하여 어색함을 느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함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교사가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활동을 한 번에 설명하고 있음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GROUP 대표가 발표함. -한 학생의 언어가 돌발적이고 거칠어 교사가 통제하는데 어려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간 역할 분담을 하여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필요 -그룹 활동 시 산만한 학습 분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를 사용하였으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영어 사용은 처음은 어색하지만 좋은 시도 임 -교사의 지도와 학습자의 활동이 교차로 이루어졌으면 함 -꼭 필요한 학습 내용만 설명하면 좋겠음 (편지보다 간단한 엽서를 쓰는데 편지쓰기 형식을 꼭꼭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짐) -사전 설명이 길어서 학습자가 꼭 수행해야 할 활동을 한번 더 요약해 줄 필요가 있음 -경어사용 권장
수업 중 (시작-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 단계에서 영어로 시작 -학습 활동을 지해하는 학습자에 대한 지적이 잦음 -설명이 너무 길어서 학습자가 한 번에 이해하고 활동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주어진 학습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영어 사용은 처음은 어색하지만 좋은 시도 임 -교사의 지도와 학습자의 활동이 교차로 이루어졌으면 함 -꼭 필요한 학습 내용만 설명하면 좋겠음 (편지보다 간단한 엽서를 쓰는데 편지쓰기 형식을 꼭꼭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짐) -사전 설명이 길어서 학습자가 꼭 수행해야 할 활동을 한번 더 요약해 줄 필요가 있음 -경어사용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영어 사용은 학습자에게 학습활동 시 긴장감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여겨짐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발표를 잘 수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칭찬을 하고 있음 -그룹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룹별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상대적 비교는 삼가는 것이 좋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시 적절한 칭찬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칭찬을 유도하고 있음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에 나온 염서에 대한 답장쓰기로 학생 흥미를 유발함 -발표시 학습자의 전달상태가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쉽게 쓸 수 있도록 복잡한 설명을 줄였으면 함 -쓰기활동은 한 명만 쓰지 않고 GROUP 별로 의논하여 각자 같은 내용을 쓰도록 하여 발표하면 좋겠음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전 단계는 REVIEW를 통하여 잘 이루어짐(5분) -수업목표 제시 (5분) -수업 활동 설명 (8분) -학생활동 (12분) -활동발표 (10분) -마무리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GROUP 배치도를 준비하여 수업 중 혼란을 예방함 -어수선한 수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이 엿보임 -필요한 한영사전을 준비하여 학생들에서 수월성 제공 -한 번에 한 단계씩 쓰도록 설명과 활동이 번갈아 이루어 진다면 전체적 학습이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 여겨 짐 -마무리에 모델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습자 활동 전에 제시하여 학습자의 활동을 도와 주면 학습 완성도가 증가될 것임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활동을 통하여 학습내용을 평가함 -활동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 비교는 학습자들에게 패배감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짐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개별 보다는 group 학습 활동을 선택하여 학습목표 달성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룹활동은 진행하되 개별쓰기를 권장하며 학습자 각각이 옆서쓰기에 대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면 좋겠음	
	민족스런 점	-교실영어 사용 시도 -일차시 수업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전에 좌석 배치를 준비하여 수업 중 혼란을 예방함 -전 단계 수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함		
	개선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본 시 수업활동을 계획 함에 있어 그룹활동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학습자 각각의 수업이 효율성이 있을 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수업 진행시 태만한 학습자나 산만한 학습자를 지도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수업 방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사전 약속을 통하여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으면 함. :나머지 학습, 과제부과, 수업 후 상담 등등) -동일 학년을 동일 교과서로 지도하고 있어서 수업 관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다.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교사 A - 관찰자료 9>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답장 엮서 쓰기(전시 학습 내용과 연계) -날씨 표현 활용하기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이용하여 엮서 내용 구성하기	-쓰기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전시 학습 내용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단계 높은 수준 의 표현력이 요구됨. -학습 목표 제시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답장의 내용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법들도 반드시 포함 되도록 초점을 맞추는 일이 학생들에게 다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학습 내용 (기능, 지 식) 및 교재	-교재 : 중1 영어교과서 (두산동아) -기능 : Improving Writing Ability -학습 내용 : 받은 엮서에 답장 쓰기 -Grammar Point : Tenses (Past / Present / Future)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쓰기 학습에 적합한 주제 및 내용 선정임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학습목표제시 -전시 학습내용 review -편지 및 엮서 쓰기의 기본 format 설명 -Group Activity (조별 답장 엮서 쓰기) *각 조원들에게 main writer, dictionary user, presenter 등의 개별 역할 부여 -조별 발표 후 Cloze Test 형식의 형성 평가 실시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이 짜임새 있게 잘 구 성되어 있음 (전시학습내용→관련예시→심화된 본시) -전체학습과 조별학습이 수업 진행에 걸쳐 적 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음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역할 분담 계획이 잘 되어있음. -조별 발표 및 형성평가 시간이 배정이 충분 치 못함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p>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성함</p>	<p>수업 맥락 (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제 등)</p>	<p>-대상 학생 : 중학교 1학년 남녀 합반 (두 학급 2 수준으로 운영되는 수준별 수업에 서 "상반") -교실 환경 : 일반교실, 전채수업→조별수업 (45명이 한 조) -기자제 및 수업 자료 : PPT 자료, TV screen, worksheet</p>	<p>-학생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에 익숙 하지 않고, 수업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소 어색해하고 들떠 보임. -PPT와 칠판 활용이 효율적임. -수업 시간에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사용하거 나 방해를 주는 학생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 인 통제가 필요함.</p>	
	<p>학생 관련 (동기, 참여도 등)</p>	<p>-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주제(엽서 쓰기) 선택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이 용이함. -잘 계획된 조별 활동으로 모든 학생들의 참여 를 유발하고자 노력함.</p>	<p>-학생들에게 익숙한 수업 주제이고 전시 학습 내용과 연계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 리 없이 학습에 임함. -수업의 초반부에 교사나 학생이 실제로 주고 받은 엽서를 보여주는 등 시각 자료를 활 용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 지 않을까?</p>	
<p>수업 중 (시작-마무 리)</p>	<p>상호작용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p>	<p>-학생-학생간: 조별 활동시 같은 조원들간에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짐. -학생-교사간: 전채 학습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 조별 활동시 교사가 교실을 순 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거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움.</p>	<p>-조별 활동시 특히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짐.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좀 더 레포 형성이 잘 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졌으 면 좋겠음</p>	<p>-조별 발표시 학생들의 목소 리가 잘 들리고 발표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할 수 있 는 방법은?</p>
	<p>교사 언어 (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p>	<p>-전반적인 수업은 한구어료, 목표제시 및 간단 한 활동 설명은 영어로 진행함.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라” 체를 사용함. -교사의 목소리가 크고 선명하며 학생들에게 자주 질문을 던짐.</p>	<p>-영어 사용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 관찰하며 쉬운 표현으로 좀 더 천천히 설 명해주는 것이 좋겠음. -말의 속도가 다소 빠르게 느껴지며 수업진행 을 재촉하는 듯한 표현을 너무 자주 하는 것 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음. -발표한 조의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 집중을 유도한 점이 좋았음.</p>	<p>-가능하면 수업 중 영어로 진 행하는 부분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p>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피드백 (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별 발표 후 조마다 발표지에서 보인 grammatical mistake를 단계로 수정해서 feedback을 줌. - 조별 발표 후 학생들에게 박수를 쳐주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때 그때 개별적으로 오류를 수정 해주 는 것보다 활동이 모두 끝난 후 전체적 으로 오류를 수정해 준 점은 학생들이 실수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반적 인 오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좋 은 방식이라 생각됨. -학생들의 작은 시도나 디소 불안정한 대 답에도 교사가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해 줄 필요가 있음. -과제를 완수한 조와 완수하지 못한 조를 자주 비교하는 것은 지양할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시간에 feedback 해준 내용을 다음 차시 수업 도입 부분에 문제를 거 기 등으로 다시 한 번 확인 단계를 거 치면 좋지 않을까? -학생들을 칭찬할 때 "Good job!" "Excellent!" "Well done!" "Super!" 등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중 영어 사용에 조금씩 익숙해 지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활동(과업) -적절성, 수준,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시 학습과 연계된 적절한 주제 및 활동이 있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가 미리 준비한 format에 맞춰 조별로 글을 쓰도록 유도함. -자신의 생각을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보이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히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주제가 나 일부 학생들은 영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격적인 글 쓰기 이전에 key sentence를 3~4개 정도 미리 제시해주고 학생들이 필요한 단어 만 비워 substitution drill을 몇 번 해보 게 하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길듯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작은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특히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학생 개인의 수준에 따라 다른 영작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low level에게는 주어진 예문에서 몇가지 표현만 비워 써보 게 하고 high level에게는 독창적으로 내용을 비워 써보게 하는 등)
	수업 진행 (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학습에서 조별 활동으로 무리 없이 수행이 진행됨.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학생이 간혹 있음. -시간이 디소 부족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준비를 많이 한 수업임이 보이고 전체 학습과 조별 활동의 조화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짐. -화면에 Timer를 크게 띄워 학생들의 활동 시간을 조절해 준 것이 인상적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의 사전기능을 이용하게할 경우 다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학생들과 교시간에 미리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가시 별점 적용 등)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 리)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별 발표내용 평가 (일부 조만 발표함.) -교사가 직접 쓴 엽서를 읽어주며 cloze test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조의 학생들이 과제를 완수하고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음. -cloze test에서 밑줄의 양을 좀 줄여서 학생들이 정답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평가시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끼리 서로 상호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장 엽서 쓰기(날씨 표현, 시제 표현)라는 학습목표가 비교적 잘 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내에 글을 완성하지 못한 조 들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다음 수업 활동시 보완해 보는 것이 좋겠음.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준비된 수업임. -주제 선정이 학생 수준에 적합하며 수업의 목표 제시가 명확함. -전체 학습과 조별 학습, 개별 활동이 적절하게 잘 조화된 수업이었음. -1차시에 비해 그룹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는데 학생들이 좀 더 익숙해져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모습이 보이며, 교사가 수업 중 영어를 좀 더 사용하려는 노력이 보임. -교사가 worksheet와 model writing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영작하는데 막연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 -질판 글씨가 단정하고 판서를 효과적으로 잘함. (현재-과거-미래 시제로 나누어 써야할 내용의 tip을 주는 것이 좋았음.) -교사의 목소리가 낭랑하게 잘 들림. -조별로 열심히 글을 써보려는 아이들이 보여 조금만 더 기다림으면 peer correction의 가능성이 보임. -수업시간에 예의 없는 말투나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사가 인내심 있게 대처하며 수업을 이끌어감.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시간내에 학습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고려하여 되도록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수업 시간 내내 다소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음. -시간이 부족하여 계획한 수업 내용이 완료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 차시에 수업한 내용에 대한 교사의 comment를 주고 정확히 수업 종료는 표시하며 과제 제시나 차시 예고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음. -자카 자료나 색분필을 좀 더 활용하고 학생들이게 경어를 사용하면 좋겠음.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 한 성찰 노트)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이 끝난 후, 또는 가능하다면 수업 중에 모든 학생들이 실제 엽서를 써보도록 하고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서로의 글을 공유해보도록 한다(좀 더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음.)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좌절하거나 미리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긍정적인 칭찬을 되도록 많이 해주고, 수업 시 간 내에 활동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분량 조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말의 속도를 조금 여유있게 하고 학생들을 통제할 때 차분하고 짧고 엄격하게 행동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감정적인 언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1차시에 비해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더 좋아지고 있는듯 함.)

-너무 경직되지 않고 기쁨은 유머감각을 활용하여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면 좀 더 부드러운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될 듯 함.

<교사 A - 관찰자료 10>

단계	영역	관찰(개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 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 세 관련 목표와 부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에 '엽서'라는 글 형식이 소개된 만큼 '영어로 엽서(편지)쓰기'를 수업목표의 하나로 잡음. ● 해당과의 주요의사소통 기능인 '미래의 계획'에 대해 말하기와 '날씨표현하기'를 각각 수업목표로 잡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엽서를 쓰면서 내용으로 미래의 계획과 날씨를 표현하여 세 가지 수업목표를 모두 충족시켰다고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지쓰기를 가르칠 때 사용할 만한 실제적인 자료(영어권 아이들의 실제 편지)가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차시의 수업 중 5번째 수업으로 'Project Work'로 진행됨. ● 수업전개에서 쓰기와 말하기, 마무리 단계에서 읽기 기능을 학습하도록 구성함. ● 수업전개에서 학생들이 영어엽서를 쓰는데 사용한 worksheet와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한 formative test-worksheet를 교사가 직접 개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차시에서 본문 학습을 통해 읽기와 듣기의 receptive skills에 집중했다면, 본 차시에서는 직접 영어엽서를 쓰고 발표함으로써 productive skills에 집중하도록 구성하였음. ● 읽기 기능은 형성평가를 통해 포함시켰으나, 듣기 기능은 전혀 포함시키지 못하여 아쉬움. (수업 도입 단계에서 포함시켰다면 좋았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지쓰기를 가르칠 때 듣기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본 CD-ROM으로 들어 보는 것 이외의 방법)
수업 중 (실행 단계)	실행 계획 (수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인 시간 배분은 지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추어 진행됨. ● 수업 전개 시 Whole-class work에서 Group work로, 마무리 단계에서 Individual work로 구성함. ● 전체적으로 쓰기, 말하기, 읽기의 세 기능이 들어가도록 구성. ● 그룹 활동 시 writer/dictionary user/presenter 세 가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먼저 있었던 다른, 학습 수업에서 한 멘토 분이 조언해주신 대로 illustrator 역할을 두었으나 모든 아이들이 내용보다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본 수업에서는 그 역할을 뺐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활동 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였으나, 여전히 몇몇의 학생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음. ● 제한된 시간동안 모든 그룹이 활동을 끝내지 못한 관계로 모든 그룹이 발표를 하지 못하여 아쉬움. ● 78분으로 할당된 발표 시간이 8개 그룹이 다 발표하기에는 적었음. 다음부터는 발표 시간을 좀 더 길게 할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 시간을 조금 줄이고라도 모든 그룹이 다 발표하도록 해야 하는가? 잘 된 몇몇 그룹만 발표시키고 나머지는 교사가 따로 검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지?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 위치한 동네가 경제적, 가정 환경적으로 좋은 곳인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이 서울시 평균보다 다소 떨어짐. ● 두 학급 2수준으로 운영되는 1학년 반에서 상반을 선택함. ● 프로젝트 TV가 왼쪽에 위치해 있어 교실의 학생 전체가 보기에 어려움. ● 영어시간의 자리표를 기존에 만든 상태에서 그룹 구성이 되게 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비교적 고른 수준의 학생들이 끼리 그룹을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준이 높지 못한 관계로 쓰기와 말하기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음. ● 주요활동이 '편지쓰기'인지라 학생들의 어려움을 예상.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쓸 내용들을 미리 살펴보았으나 키워드만 제시하여 여전히 학생들이 문장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 프로젝트 TV가 교실 왼쪽에 있는 점을 감안 수업목표/브레인스토밍 등을 칠판에 판서하여 제시함.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 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상호작용 (학생- 학생간, 학생-교 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차시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교과서 속의 인물이 되어 교과서 속 다른 인물에게 답장을 쓰는 활동을 하게 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 실제와 같은 엽서 worksheet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 ● 수업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시킨. ● 그룹 활동이 주된 활동이므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함. ● writer/dictionary user/presenter 세 가지 역할을 분담하여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함. ● 교사가 그룹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줌. ● 발표한 조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물어 다른 그룹의 발표를 경청하도록 유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음. ● 특히 Dictionary user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휴대폰 사전을 찾도록 하였는데, 없는 학생들이 있었고, 휴대폰으로 만 짓을 한 경우도 있었음. ● 모둠 간 활동 구조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그룹을 위한 영어사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매 영어 시간 각자가 사전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사전이 오히려 주의를 분산시킬 우려는 없는지?) ● Jigsaw Activity가 아닌 활동의 경우 모둠 간 활동을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였음(처음에 영어로 하다가 진행이 어려워지자 한국어로 전환하고 중간 중간 영어를 사용함.) ●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많은 반복적 표현을 썼음. ● 내용을 바로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먼저 생각할 기회를 주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수업을 한국어로 진행하다보니 영어 사용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어색한감이 있었음. ● 경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교사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말의 속도가 여전히 빨랐음. ● 필요 이상으로 교사가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인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피드백(오류 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발표 후에는 칭찬을 해주었으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에는 칭찬을 별로 하지 않았음. ●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 교사가 오류 수정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조의 발표를 다 들은 후 global error 중 해당과의 중점 문법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을 해주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찬 이외에 학생들의 참여를 더 부돋을 수 있는 피드백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p>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이 키워드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니 여전히 학생들이 영어로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꼈음. ● 협동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룹 활동으로 진행하여 과업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차시와 연계하여 쓰기와 말하기의 productive skills 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글쓰기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글에 들어갈 내용을 함께 학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이 시작하였으며, 각 단계로 넘어갈 때 교사가 통제력을 발휘하여 무리 없이 진행하였음. ● 까부는 한 학생에 의해 수업에 약간의 방해가 되었음. ● 여전히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 부분이 다소 많았음.
<p>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에서 각 단계의 전환과 학생들의 주의력을 요하는 부분에서 강압적이지 않게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 체벌 이외에 수업에 방해를 주는 학생을 통제할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통제력으로 각 단계의 진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나, 다소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음. ● 평소에도 까부던 학생이 이날 더욱 흥분하여 수업에 다소 지장이 되었음. 	
<p>학습 점검(평가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ative test 내용 자체는 좋았다고 판단되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지 못해 평가 보다는 교사의 설명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한 활동을 교사가 직접 수행한 worksheet를 formative test로 준비하여 중요 표현들을 점검하고, 실제 적 편지쓰기의 한 예를 제시함. ●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 학생들에게 formative test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숙제를 부여하지 못함.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로 편지쓰기'라는 학습목표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달성됨. ● '미래의 계획에 대해 말하기'와 '날씨표현하기'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학습목표는 부분적으로 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그룹의 편지 내용에 따라 두 번째와 세 번째 학습목표는 부분적으로 달성되었으나, 형성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였음. 	
수업 후 (self-appraisal)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단순한 과업을 제시하고 구조화된 worksheet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음. ● 시간을 엄두하고 각 단계를 진행하여 조금 무리하게나마 그룹별 활동과 발표, 형성평가까지 모든 단계를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음. ● 교사가 직접 작성한 엽서를 형성평가로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영어 편지의 예를 제시할 수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sson plan 작성 시 전 차시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였음. ● 학생들이 수업목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질관 한 쪽에 기재하고, 함께 읽어보았음. ● 최대한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였음. ● 영어시간의 자리배치도를 만들어 그룹 구성 시 시간절약이 되고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구성되도록 하였음. ● 과업을 단순화하고 비교적 구조화된 worksheet를 제시하였음. ● 그룹 활동 시 역할을 분담하여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시간 분배에 신경을 쓰고 수업 중 시간에 신경을 써서 가급적 모든 활동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형성평가를 보다 단순화하고 수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형성평가가 되도록 구성하였음.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p>1차 수업에서 논의된 바대로 2차 수업에서는 미리 Lesson plan을 철저히 계획하여 최대한 바대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다. 상반(Advanced level)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만큼 최대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평소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교사와 학생 모두 어색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번 수업 역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나의 수업을 실제 들어보고 느낀점을 작성해보니 영어를 쓰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학기 초부터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를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교사 중심의 설명이 길고 말의 속도가 다소 빨랐다. 또한 느낀점을 작성해보니 필요 이상으로 나 자신이 반복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룹 활동에서는 역할 분담을 하였으나 여전히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시간 부족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모든 그룹이 활동을 완료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쉬웠다. 다른 그룹의 발표 시에 경청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들을 몇몇 학생들에게 던졌으나 모둠 간 활동을 구조화할 수는 없었다. 1차와 2차 수업 때는 그룹 활동 위주로 수업을 구성하여 보았으나, 3차 수업 시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구성하여 수업 분위기나 참여도 등을 비교해보도록 할 계획이다.</p>		

<교사 A - 관찰자료 11>

단계	영역	관찰(개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로 명시(인지)쓰기 형식 익히기 ● '과거', '미래의 계획에 대해 말하기와 '날씨표현하기'를 각각 수업목표로 잡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차시 중 5차시 'Project Work'로 진행됨. ● 부속일기 쓰기-말하기-읽기 기능으로 구성함. ● 수업전개에서 필요한 영서를 만들고 마무리용 교사 영서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로 본문 내용 이후의 글을 본문의 주요 학습 목표를 첨가하여 미니의 입장에서 글을 써보도록 한 것은 교과서를 실제 삶과 연관시키는 창의적인 활동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지쓰기를 가르칠 때 자신들의 편지를 써 오고 음악을 틀고 읽어보고 들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수업 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전개: Whole-class work- Group work-Individual work로 구성함. ● 전체적으로 쓰기, 말하기, 읽기의 세 기능이 들어가도록 구성. ● 그룹 활동 시 writer/dictionaryuser/presenter 세 가지 역할을 분담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차시에 이미 풍부한 기능들을 복습함. ● 편지쓰기를 모둠으로 답장을 써보게 함. ● 모둠용 영서를 제공하고 마무리용 교사 영서도 제공함.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 시설이 되어있음. ● 수준별 학습으로 상반임. ● 프로젝터 TV가 왼쪽에 위치해 있어 교실의 학생 전체가 보기에 어려움. ● 모둠으로 자리를 배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학습의 일제식수업, 모둠수업, 개별수업 등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적용시킴. ● 프로젝트를 통해 쓰고 말하기 기능만으로도 계획상으로도 시간이 부족할듯하였다. ● 보통 모둠의 writer, presenter는 각 1명인것이 좋는데 2명인 모둠이 있어서 서로 일을 미룰것 같고 영어문장을 몇 개씩 말하러던가, 과거/현재/미래로 나눠준것도 아니라서 쓰기를 하는동안에도 무임승차자나 일벌레가 나올가능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과일을 준비하여 복습에 사용할 예정으로 시각적인 효과로 빠르게 복습할 수 있을 것임. ● 역시 형식의 유인물을 준비하여 모둠으로 직접 써게함. 하지만 수행평가의 일환이라는 것은 계획서에서 알수 없음. ● 모둠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역할을 줄 예정으로 모둠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 ● 상반 학생이라 할지라도 수준차이가 날텐데...모둠 구성의 특별한 계획 없이 모둠을 구성할 예정을 갖고 있음. ● 실물화상기가 있었다면 학생들의 작품을 더 잘 보여주며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임.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 마무리)	<p>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p> <p>상호작용 (학생_학생, 학생_교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영어 사용이 어색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ppt 유인물, 모둠활동을 진행하였다. -모둠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생 중심 수업이 진행되긴 했으나 발표에도 확실히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소 어수선하고 시간 내에 활동이 끝나지 못하기도 함. -교사도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말함. 	<p>의견(관찰자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습 목표, 편지 형식도 ppt로 제작했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고 또 칠판에 쓰는 것은 의도는 좋았으나 시간상으로나 힘낭비로나 이같다. 즉 ppt의 글씨를 키우고 용어를 더 쉬운 것으로 사용하면 ppt 본래의 용도를 잘 활용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 동기부여와 균등한 학습 참여를 위해 역할을 배분해 주었으나 여전히 일별레와 무임승차자가 많고 교사 자신도 더 좋으니까 먼저 모든 모둠원들이 각자 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장 2개씩 내게 한 다음, writer, presenter1, dictionary user1, illustrator/painter1, time keeper/cheerer1로 삼아서 활동하게 하면 좀 더 시간 내에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습을 위한 설명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본 수업 목적을 성취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음. 이미 편지 형식이나 본문은 배운 것이므로 편지속에 날씨, 금강산 내용, 미래 일을 꼭 넣어야한다고 생각되면 본문을 파일로 보여주고 본문 안에 있는 부분만 질의, 응답을 통해 점검하고 넘어가서 모둠별로 쓰고 발표하는 시간을 넉넉히 갖으면 좋을것임. -모둠 책상까지 옮긴 것은 잘한 것이며 통일되게 홀수 줄만 돌아앉으라고 해도 될 것 같음. -모둠 활동을 위해 큰 종이의 엽서를 제공한 것은 잘한 일임. -학생 간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여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더 효과가 클 것임. -중은 아직도 사회적 기술이 덜 발달되어 수업에 거칠거나 집중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기친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필요 -교사가 계속해서 모둠을 돌면서 모니터링한 것은 잘한점이며 시간을 띄워서 시간 조절도 잘함. -모둠 내용을 발표시킨것도 쓰기를 말하기로 연결한 훌륭한 활동이지만 학습을 반으로 나누고 한모둠의 프리젠테이션 모듬으로 가서 발표하는 시간을 2분씩 주었다면 4모듬을 10분 안에 서로 발표하고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그후에 동료평가(스티커)를 통해 서로 평가해서 수행평가의 한 항목으로 넣어도 학생들 스스로 평가까지 해볼 수 있었을 것임. -마지막 선생님 편지는 의도는 좋으나 너무 활동이 많아서 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임. 	<p>질문/논의사항</p> <p>중1처럼 학습에 대한 태도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예의없는 학생을 계속 진도나가기 위해 묵인해야하는가?</p>

<p>수업 중 (시작 마무리)</p>	<p>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p>	<p>-영어로 시작해서 본문 내용인 날씨 나 안부를 물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뜻한 이후엔 한국어로 진행함. -복습을 위한 설명이 너무 길고 ppt 가 있었는데 친절하긴 하지만 또 한 번 적어서 설명한 것이 중복된 느낌 이 듬.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학습자에 대한 지적이 있음. -본문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보다는 설명이 많은 편임. -동기유발을 위해 수행평가임을 강조 함.</p>	<p>-교사나 학생들이 교실영어 사용이 어색하였으므로 평소에 생활영어라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을듯함(중1 상반정도로라면 초등 4년 동안 말하고 듣기에 익숙 하여 실생활영어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음.) -ppt내용을 질문하였지만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좀더 이해했다면 이미 만든 ppt사용만으로도 복습 시간이 짧아졌을 것임.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때 친절히 여러번 설명하고 모둠 사이로 모니터링했으며 지도함. -경어 사용과 생활영어가 어색하지 않도록 자주 사용하였으면 좋을듯함. -교사가 가르친 내용이 복습인지, 새로운 내용인지 한 시간 학습에 대한 수업디 자인이 명확하면 시간이나 에너지가 좀 더 잘 배분할 수 있음.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적을 이후 수업을 위해서도 바른 자세 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함(인성지도도 필요함). -수행평가의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어떻게 채점할지도 모름. (즉 학생들도 구체적인 수행평가 항목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했을 것임)</p>	
	<p>피드백 (오류수 정, 칭찬 등)</p>	<p>-학생들이 이해 정도에 따라 교사이 지시어도 비꾸고 친절히 설명하기도 하며 예의가 없는 학생에 대한 제재 도 함. -모둠 활동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사전과 같이 없는 팀 을 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었음. -학생들의 발표를 잘 유도하고 칭찬 했음. -모둠 발표 후 잘못된 문장을 수정함.</p>	<p>-발표 시 적절한 칭찬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집중과 칭찬을 유도하고 있음. -모둠 발표 후 잘못된 문장을 바로 수정해주어도 그만큼 효과가 있지만 모든 모 둠이 발표한 후 작품을 모아 다음시간에 ppt로 공통적으로 틀린 문장을 보여주 며 수정한다면 그 문장을 쓴 학생이 덜 무안하고 틀린 문장에 대한 수정도 효과 가 더 있을 것 같음.</p>	

<p>수업 중 (시작 마무리)</p>	<p>학습 활동(과 업)_적절성, 수 준, 흥미도</p>	<p>-교과서 본문을 학습한 후 그 다음 이야기를 써보는 활동은 task-based activity의 한 방법으로 잘 계획됨. -모둠으로 쓰기를 준비하고 발표도 준비하게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유도하고 있음. -언어의 4개 영역을 모두 적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시도함. -계획은 좋았지만 학생들이 모둠 활동시에도 산만하고 집중되면 발표시에도 집중이 되지 않아 애쓰는 모습이 역력함. -학생들이 쓴 편지의 내용이 상반 수준이라서인지잘됨.</p>	<p>-project work를 통한 수행평가를 쓰기 -말하기 수업으로 연계한 수업은 좋은 영어수업의 모형이 될수 있음. -쓰기 말하기에 집중할 시간이 다소 부족이나 설명 시간으로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말하기 활동을 다하지 못함. -교사의 편지를 제시한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 다소 욕심을 부린듯함. 차라리 발표를 다 시키고 그 다음시간에 하거나 압해도 될듯함. (차라리 편지 쓰기를 숙제로 내었어도 좋을듯함) -모둠 역할을 나누어 과업을 적절히 나누려했으나 단점들도 드러나니까 그 보완점이 필요함:(일의 집중, 동등한 참여나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 부족함) 또 상반 수업이라할지라도 어떤팀은 잘하는 학생들이 몰릴수도 있어서 성적이 높고루 들어가도록 모둠을 짜주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역할을 준 후 그 역할을 했을때 수행평가 점수를 주는 것도 한 방법임. (어찌피 언어의 4개 영역이 활동이므로 누구든 4개 영역을 해야함)</p>	
	<p>수업 진행(호 름, 지도력, 적 절한 통제 등)</p>	<p>-REVIEW, 수업 목표제시, 수업 활동이 16분,학생활동 (12분),활동발표 (10분),마무리 (5분)함 -전체 계획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적절한 통제를 위해 교사가 모둠 사이로 모니터링하고 예의 없는 학생의 경우 통제하.</p>	<p>-본 수업보다 복습과 본 차시 제시 시간이 너무 길고 수행평가로 진행된 발표를 다 못해서 평가의 형평에 문제가 제시될 수있음.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은 있으나 요즈음 예의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경우 사회적 기술을 가르침으로서 본 수업에 좀 더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음.</p>	
	<p>학습 점검(평가 요소)</p>	<p>-수행평가를 밝히고 있음. -쓰기 말하기가 모두 평가요소인지 무엇이 평가 요소인지 명확하지 않음. -활동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음 -활동 중 지속적인 피드백은 주어지고 있음.</p>	<p>-활동 중 지속적인 피드백은 수업에대한 흥미나 집중도를 위해 잘함. -수행평가지만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듯하여 미리 평가항목을 말해주고 그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듯함.</p>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지 쓰는 형식, 날짜 쓰기, 미래형 써보기, 본문에 이은 편지 내용 적어보기 등 본 차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함. -모든 모둠의 말하기를 다 포함으로써 말하기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또 task-based activity를 위한 좋은 활동이었음. -중1 상반 학생들의 수준(듣고 말하기가 의사소통기능 중심으로 잘됨, 학원 다니는 학생 많아서 선행학습이 다소 되어있음, 이미 본문을 배움)을 생각해서 부담 시간을 줄였으면 95%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즐거운 학생 중심의 수업이었음. (^^) 선생님은 힘들었지만....)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영어 사용을 시도함. -일 차시 수업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는 다양한 활동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전에 학생 좌석 배치를 생각해둠 -진 단계 수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쓰기-말하기의 지식, 이해 적용 중 적용의 수준 높은 수업을 계획함 -모둠 용 엽서를 만들어 흥미를 유도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함. -사전 찾기를 위해 핸드폰 사용을 허락하여 멀티세대를 이해하는 활동을 함. -교사 자신의 엽서를 제공하여 마무리 하는 활동까지 유도함. -모둠으로 학생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역할을 부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함. -교사의 노력과 준비가 많았던 수업이었음. 		
	개선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활동만이 좋은것은 아니므로 총 6시간 마스터 플랜 중 이번 시간의 포인트가 어디 있으며 그 목표를 위해 어떤 수업을 디자인할지 조금만 더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음.(지나친 욕심은 학생도, 교사도 버겁습니다) 	
	기타 (수업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하기 수업의 경우 다음의 방법(Gallery Tour)도 좋아요.^^ 1. 모둠별로 작품 만들기 2. 각 모둠의 작품을 교실 여기 저기에 붙이기 3. 각 모둠의 프리젠테이션 그 모둠에 남고 나머지는 정해진 시간동안 다른 모둠의 작품을 감상하기 4. 프리젠테이션 자신들의 작품을 영어로 설명하기 5. 3번쯤 설명한 후 프리젠테이션 비꾸기 이런 식으로 학생이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듣고 감상한 후 각 작품에 모둠으로 토의한 후 1-5점 중 평가하기 (동료평가) 교사는 학생들이 성실히 들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작품의 내용 중 질문을 5개 정도 만들어 모든 활동이 끝난 후 퀴즈로 풀어서 질한 팀을 보상하면 학생들이 건성으로 작품을 듣고 감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교사 A - 관찰자료 12>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학습목표 : '편지글을 읽고 답글 쓰기 일상생활에 관해 짧고 쉬운 글을 쓸 수 있다.(쓰기)	-본시는 7학년 '쓰기' 단원으로 '일상생활에 관 해 짧고 쉬운 글을 쓸 수 있다.' 라는 학습목표 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되었음. -영어로 학습목표 안내 후, 학생들이 하여금 본 시목표를 다시 국어로 확인 한 점이 좋았음.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학습내용: 1)편지글에 대해 담장을 할 수 있다. 2)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있다. 3)과거의 일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교재: 두산동아-김	-전시에 학습한 내용을 종합한 후, project 학습 으로 모둠활동을 통해 직접 편지글을 쓸 기회 를 계획한 시도가 좋았고 상위그룹학생들에 게 적절한 활동으로 생각됨. -worksheet의 내용이 본시와 관련되었고 적절 해 보임.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도입: ppt를 통해 학습목표 확인 후, 전시학습내용 복습(편지 형식-전체학습) -전개: 모둠학습 형태(조별 편지쓰기) 모듬원 각자 일정 역할을 수행 -결말: 조별 발표 후, 형성평가 실시	본시 학습내용이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학생활동에 따른 단계별 시간이 배분이 적절해 보이며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시간을 효과적으 로 활용함.	

단계	영역	관찰(개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p>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그룹 남녀학생들로 구성된 일반 -학생들의 이름을 교사가 다 알고 있어 -비교적 수월해 보이거나 교사의 지도를 방해하는 몇몇 학생들이 눈에 띈. -진면에 프로젝트선 TV 화면을 보는데 별 다른 어려움 없어 보임.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학습활동을 규모 있게 운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는 편이었으나 교사 사가 학생들을 자주 호명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었음.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수업 시작을 영어로 할 때, 낯선 수업에 대한 어색함을 학생이나 교사에게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수업진행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처음의 낯설음에 서로 익숙해질 것임. 	<p>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지도할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p>
	<p>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 활동 전 책상배치 안료 및 모둠활동에서 학생 각자의 역할을 부과하여 참여하게 함. -학생활동안내로 학생활동에 어려움이 없어 보임. 	<p>활동에 대한 충분한 안내로 동기유발과 학생참여를 유도함.</p>	
<p>수업 중 (시작-마무리)</p>	<p>상호작용 (학생_학생 간, 학생_교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학습위주의 진행으로 학생활동이 원활함. -휴대폰 내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교사가 순회하며 모둠활동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학습 시 학생 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함. -교사가 순회하며 개개의 학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지도함. 	
	<p>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초기의 인사말과 학습 진행에 필요한 간단한 지시어는 영어로 설명은 구어로 진행되었음. -진시학습 설명과 모둠학습을 위한 자리 배치시 “~해라” 체의 지시어가 자주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의 시종을 영어로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됨. -갑자기 영어로 수업을 이끄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학생과 1:1로 이야기할 때는 반말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말할 때는 경어를 쓰는 것이 좋을 듯 함). 	<p>바람직한 teacher talk 는?</p>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교사가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모둠활동 후, 조별 발표 때, 자발적 발표를 권유하고 발표자를 칭찬함. -조별 발표 worksheet의 내용을 보고 오류를 수정함.	-모둠 활동 시 학생들과 교사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있었음. -모둠별로 발표 시 발표자의 목소리나 작거나 불명확함에도 칭찬을 꼭 해줌. -발표 후, 조별로 제출된 worksheet에서 발견된 문법오류를 일일이 수정해 줌.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교사와 학생 사이, 모둠 내 학생 간 상호작용이 원활해 보이며 과업을 완수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과제라 생각됨.	본시는 총6차시 수업 중 5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전시에 학습한 내용을 프로젝트학습을 통하여 정리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영어편지 쓰기를 시도함으로써 영어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고양시키는 단원이기에 학생들에게 부과된 과업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모둠학습 진 진시학습 확인과정에서 지루한감이 들었으나 대체적으로 수업의 흐름에는 무리가 없음. -교사의 지도나 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제제를 함.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단계별 시간 인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음. -교사의 지도를 방해하는 몇몇 학생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며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갔음.	효율적인 학생 장학이란 무엇인가?
	학습 점검(평가 요소)	본시 학습 단원과 유사한 내용의 편지글을 교사가 써서 cloze test 형식의 formative test로 제시함.	본시 학습단원을 학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cloze test 형식으로 제시하였는데, 보통 학생이 어려운 것이 없었음.	형성평가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배분하였으면...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모둠학습 후, 발표에서 시소한 점이 눈에 띄었지만 각 모둠별로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생각됨.	본시 시작에서 강조한 내용을 모둠학습을 통하여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됨.	
	만족스런 점	-수업 시작 전반부에서 학습목표 소개 -영어로 인사말이나 간단한 지시어 사용 -수업 방해자들에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응	-1차에서 제안된 학습목표 소개와 교실 영어 사용을 실천하려는 교사의 노력을 볼 수 있음. -교사의 학습 진행을 방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학생들이 있었지만, 교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감.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경어 사용 -수업 후반부의 유의미한 마무리	-교사의 바른 언어 사용 노력이 있었지만 경어 사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으면 좋겠음. -모둠학습 발표 후, 바로 형성평기로 들어갔는데 평가 전에 학습목표로 제시한 항목에 대한 간단한 요점 정리가 있으면 좋겠음. -수업 후반부에 다음 차시 안내와 끝날 때, 인사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형성평가 전에 학습목표에 대한 항목별 확인이 꼭 필요할까?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초입교사이지만 시춘기 학생들을 비교적 잘 장황하고 있었음. -진체학습에서 모둠학습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시간 소모가 그전보다 짧고 효과적이었음. -형성평가지 배부 후, 시간이 없어서 교사가 바로 읽어주었는데, 차라리 형성평가지를 숙제로 내 주고 평가지에 있는 몇 개의 숙어나 문장을 구두형성평가지 자료로 사용했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지 않을까... -학생 장학이 무난하였으나 여교사라고 알보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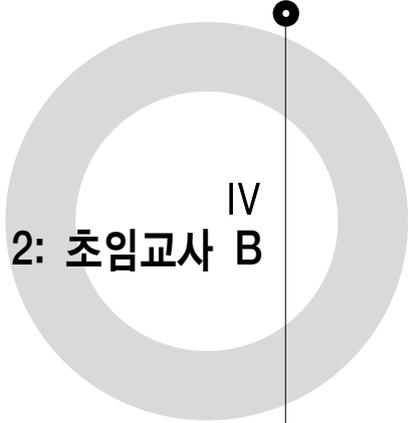
<교사 A - 관찰자료 13>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 표와 세부적 목표)	-받은 염서에 답장 쓰기 -편지 내용 중에 날씨표현하기 과거표현하기. 미래표현 쓰기	-학습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 술되었어 학생들의 학습이해력에 많 은 도움을 준 점이 좋았음.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중1 영어교과서 (두산동아) 9과중 project work -기능: writing a letter - 받은 염서에 답장 쓰기	도입부분에서 전시학습을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현재 학습할 내용 안 내하는 점이 훌륭함.	
	수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review를 통하여 본 시 학습제시 -활동 내용 설명 -학습자 활동(그룹별) -발표	학생들에게 제공된 학습활동지 및 조 별 학습활동으로 학생중심의 활동으로 쓰기활동에 적절한 모델인듯함.	학생들 모두가 직접 Writing을 해 볼 수 있 는 수업방안은 없을까 요?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 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대상학생: 중1 학생 상위 수준 -교실: 일반교실 -기자재: 컴퓨터, TV SCREEN, HANDOUTS FOR GROUPS	수업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진 모 습을 엿볼수 있었으며 사전에 많이 준 비한 수업임을 알수 있었음.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 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 여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영어 사용에 대하여 어색함을 느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함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교사가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p>지치하면 학생들의 동기 및 참여도가 떨어지기 쉬운 쓰기수업에서 학생중심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동기 및 참여도가 높아, 무난히 학습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짐.</p>	
	상호작용 (학생_학 생간_학생_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활동을 한 번에 설명하고 있음 -그룹활동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GROUP 대표가 발표함. -한 학생의 언어가 돌발적이고 거칠어 교사가 통제하는데 어려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간 역할 분담을 하여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일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너무 잦은 지적 및 경고가 오히려 전체 학생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가져다줌. 	수업 중 잦은 학생지적으로 전체 흐름에 많이 방해가 되는듯 보이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안을 생각해 봅어 어떠실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단계에서 영어로 시작 - 학습활동을 저해하는 학습자에 대한 지적이 잦음 - 설명이 너무 길어서 학습자가 한 번에 이해하고 활동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주어진 학습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p>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따르지만, 도입부분 설명 및 중간 중간 교실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은 전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수업보다 훨씬 영어수업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는듯 하였으며 훌륭한 시도였음, 차음의 어색함 지속적인 사용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p>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 마무리)	피드백 (오류수정, 칭찬 등)	-학생들의 발표를 잘 수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칭찬을 하고 있음 -그룹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룹별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상대적 비교는 삼가는 것이 좋겠	전체 발표 후 학생들의 발표한 오류를 수정해주어 학생들이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점은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학생개개인에게 쓰기 및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교과서에 나온 염서에 대한 답장쓰기로 학생흥미를 유발함 -발표시 학습자의 전달상태가 부족함	수업목표가 과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학생중심의 활동수업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려 마무리를 급하게 하여, 전체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음.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 전 단계는 REVIEW를 통하여 잘 이루어짐(5분) -수업목표 제시 (5분) -수업 활동 설명 (8분) -학생활동 (12분) -활동발표 (10분) -마무리 (5분)	* 수업지도안 작성 및 학생중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많이 하여 수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됨. * 학생중심의 활동수업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조별진행으로 전체 학생들의 수업성취는 비교적 이루어진 듯 하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쉬웠음.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보다는 group 학습 활동을 선택하여 학습목표 달성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활동은 진행되며 개별쓰기를 권장하며 학습자 각자 이 옆서쓰기에 대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면 좋겠음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쓰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의 방법은?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수업의 미비점을 많이 보완하려고 시도한 점(수업목표 진술, 영어사용 등) * 수업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학습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된 점. * 쓰기 수업을 조별로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쓰기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 점. 		
	개선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사용이 여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개별적 학생들이 수업성취도 확인결과가 없는점이 아쉬움.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지속적인 지적으로 오히려 전체 수업에 대한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흥미도 및 집중도에도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IV
자료 2: 초임교사 B

1
수업 1

2
수업 2

IV. 자료 2: 초임교사 B

1. 수업 1

가. 지도안

1. Objectives

- Students are able to understand and use the verbs for cooking.
- Students are able to read a recipe and follow the procedure.

2. Material

- ppt
- handout

3. Questions to be discussed

- What is the good reading activity for increasing students' participation?
- As a novice teacher, I usually have a problem with controlling my students, so I don't like students' group activities. Which one is more important, control or student-centered activity?
- I guess students' level is low, so they won't understand the class if I speak only English in the class. What's more, they will be out of control again. Do you think it is obligatory to use English in the English class?
- How long should I wait after I ask students? And what should I do if the students cannot answer my question? I don't usually consider the students who cannot answer the questions. Sometimes, I can't spend time waiting for their-too-long-response, so I call only students who are good at English or I don't call students and just ask all the students. Another problem I have is I don't praise students a lot.
- When I use the ppt, I don't have much space on the blackboard. I wonder if there is a good way to use both of the teaching material.
- I use the authentic material, but it was a little bit hard for my students. When we use the authentic material, how can we make good use considering students' level?

나. 자료

<교사 B - 수업자료 1>

<p> <input type="checkbox"/> English <input type="checkbox"/> Middle School 2 <input type="checkbox"/> Lesson 5. How to Cook Purple Potato Salad </p> <h1 style="text-align: center;">Reading</h1>	<h2 style="text-align: center;">Contents</h2> <table border="1"> <tr> <td><input type="checkbox"/> Warm up</td> <td>1. Let's guess "Housework Best 5!!!".</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Aims</td> <td>2. Let's read today's aims together.</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Activity 1</td> <td>3. Let's make a story using three pictures.</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Activity 2</td> <td>4. Let's listen and guess the main idea.</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Activity 3</td> <td>5. Let's read it thoroughly.</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Activity 4</td> <td>6. Let's check the comprehension.</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Activity 5</td> <td>7. Let's discuss sharing the housework.</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Closing</td> <td>8. Let's play a game.</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Warm up	1. Let's guess "Housework Best 5!!!".	<input type="checkbox"/> Aims	2. Let's read today's aims together.	<input type="checkbox"/> Activity 1	3. Let's make a story using three pictures.	<input type="checkbox"/> Activity 2	4. Let's listen and guess the main idea.	<input type="checkbox"/> Activity 3	5. Let's read it thoroughly.	<input type="checkbox"/> Activity 4	6. Let's check the comprehension.	<input type="checkbox"/> Activity 5	7. Let's discuss sharing the housework.	<input type="checkbox"/> Closing	8. Let's play a game.
<input type="checkbox"/> Warm up	1. Let's guess "Housework Best 5!!!".																
<input type="checkbox"/> Aims	2. Let's read today's aims together.																
<input type="checkbox"/> Activity 1	3. Let's make a story using three pictures.																
<input type="checkbox"/> Activity 2	4. Let's listen and guess the main idea.																
<input type="checkbox"/> Activity 3	5. Let's read it thoroughly.																
<input type="checkbox"/> Activity 4	6. Let's check the comprehension.																
<input type="checkbox"/> Activity 5	7. Let's discuss sharing the housework.																
<input type="checkbox"/> Closing	8. Let's play a game.																
<p>1. Guess !!!</p> <p style="text-align: right;">Warm up</p> <p style="text-align: center;">동영상</p> 	<p>1. Guess !!!</p> <p style="text-align: right;">Warm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to Cook Purple Potato Salad • 제목을 보고 다음 글의 종류를 추측해 보세요. a story? A recipe? 																

<교사 B - 수업자료 2>

<p>1. Guess !!! Warm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만들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F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ir- fry 	<p>1. Guess !!! Warm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만들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boil  <p>-Hot water</p>
<p>1. Guess !!! Warm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만들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dr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Drain in a colander and dry 	<p>1. Guess !!! Warm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만들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ri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nse with cold water
<p>1. Guess !!! Warm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만들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C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ut with a knife 	<p>1. Guess !!! Warm 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만들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M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x in a bowl
<p>2. Let's read today's aims. Aim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We are able to understand and use the verbs for cooking. We are able to read a recipe and follow the procedure. 	<p>3. Let's learn. Activity1</p> <p>Greg Martinez is a farmer and great cook. He make delicious dishes with the vegetables he grows. Here is one of his recipes. It uses the purple potatoes from his farm.</p>

<p>3. Let's learn. Activity1</p> <p>What You Have.</p> <p>1 pound small purple potatoes (about 10)</p>  	<p>3. Let's learn. Activity1</p> <p>What You Have.</p> <p>1 1/2 quarts cold water</p>  
<p>3. Let's learn. Activity1</p> <p>What You Have.</p> <p>3/4 cup peas 4 tablespoons Italian salad dressing 2 tablespoons parsley</p>  	<p>3. Let's learn. Activity1</p> <p>First, in a saucepan, _____ the potatoes _____ the cold water. And _____ the salt. Next, _____ the potatoes for about 15minutes or until they are soft. And then, with a wooden spoon, _____ the potatoes to a colander. After that, _____ and _____ for 10 minutes.</p> 
<p>3. Let's learn. Activity1</p> <p>Next, _____ the water again. _____ the peas for 1 minutes. And _____ the peas in a colander. _____ with cold water. Drain again and dry. Then, _____ the potatoes into quarters. In a bowl, lightly _____ the potatoes, peas salad dressing, and parsley. Finally, _____ salt and pepper to taste.</p> 	 <p>That's it today !!!</p> <p>Thank you!!!</p> <p>-Lee Ju Youn</p> 
<p>Next time!</p> <p>We're going to learn</p> <p>'language focus.'</p> <p>Before you come to the class,</p> <p>Please, READ IT !!!!!</p> 	

다. 수업녹취

** (학생들 전체 대답)

교사: 야. 영어책 다 끝내놓구. 반장, 인자부터 하자.

반장: 차려, 선생님께 경례.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교사: 어, 애들아. 오늘 수업촬영하니깐 잘 듣고, 조용히 잘 듣고. 다음에 저번시간에 우리 모했지?

학생들: 시험.

교사: 시험봤지. 관계대명사 잘 봤어? 관계대명사 시험본거는 선생님이 요번주중으로 아마 점수해서 나갈 거니깐 그때 확인해보고. 선생님한테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오늘은 5과에서 본문을 들어갈텐데. 잠깐 모즘 보여줄게.

(U-tube동영상 본다)

자. 이거는...알아들은 거 있지? (아뇨.) 알아들은 단어 하나는 있을 거 같은데?(potato salad) 선생님이 이 거 화면은 어디서 찾았니? (구글에서) 구글에서 몰 쳤어, 위에도가? potato salad 쳐가지고.지금 potato salad 만드는 영상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 그리고 구글에 선생님이 보면..또 모가 나올까. potato salad를 만드는 방법들이 꼭 나오거든.

오늘은 몰 배우는 것 같아? potato salad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거야. 자. 요리 좋아하는 사람? (... 요.) 어. 요리좋아해? 야. 집에서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선생님한테 갖고 와봐. (...) 맛없으면? 선생님이 맛없어도 먹어줄게. 자. 뒤로 돌리시고요. 오늘 본문 내용인 potato salad에 관한거야.

자. 다 프린트 보세요. 본문 내용을 우선 한번 들어볼까.

자 봅시다. how to cook purple potato salad

자 제목을 보시면서 이 제목을 갖고 이것이 오늘. 다음 글의 종류를 한번 추측해보세요.

how to cook 이거 뜻이모예요?(.....) 우리 단어에서 배웠었지. 모니?자 요리하는 방법이죠. 모를 요리하는 방법? (...) purple potato salad를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글의 종류는 뭔가요? (recipe) 네 recipe예요. recipe라는 단어뜻이모죠? (...)요리법이에요. 요리법. 자 오늘은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거야.

자 그러면 음식만들기와 관련된 단어들을 몇 개 먼저 배우고 가자.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너희들이 알고 있던 단어들도 있고, 요번에 처음 단어배울때 소개되었던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 하나씩 읽어볼까?

(함께) fry, boil, drain, rinse, cut, mix, bowl, hot water, knife, cold water, colander, dry..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책이 96쪽이구나. 96쪽에 책을 피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번 의미가 연결된 것들을 한번 연결해볼래? 하나가 잇는 것도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연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96쪽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단어들 한번 연결해보세요.

모르는 것 있으면 짝이랑 상의하면서 해도 돼.

애들아, 당황하지 말고. 하던 데로 하시면 되요. 한번 연결해보세요. 모르는 것 있으면 짝이랑 상의하면서 해봐. 단어 뜻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연결해봤어?

자 그러면 요리에 관련된 단어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지금 이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나온 단어는요 모나면요. 처음나온 단어는 fry예요. 너희 fry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 (튀기다) 튀기다 예요. 너희가 대게 좋아하는 음식 모있어? fried chicken. 할때 그 fried가 지금 여기 fry에서 나온 단어예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그림을 그려놨니? 무슨 그림이야? 이거 fry fan에서 지금 문가를 붙고 있는 그림이야. 튀기고 볶는거야. 선생님이 여기 참고자료로 단어를 하나 써놨는데. stir and fry라는 단어가 있어. 아까전에 그 동영상 볼때도 들린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stir and mix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stir라는 단어는 이렇게 휘젓는 거거든요. 볶음밥에 밑에 눌러붙지 않게. 이렇게 저으면서 튀기고. 볶음밥도 fried rice라고 하자나. fry 는 볶다.야. 여기 오른 쪽에 아까전에 연결된 단어가 있니?

딱히 별로 안 보여. fry에 연결할만한 단어는 안보여. 그 다음단어는 모니?boil 이에요. boil은 무슨 단어지? (...)끓이다랑 삶다예요. 지금은 아직 요리 재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있는데. 이그림에서 모가 나왔어? 물을 뜨거운 물을 냄비에다 넣고 끓이는게 나왔어요. 팔팔팔팔 끓이는거. 이안에 계란이 들어가 있으면, 한국말로는 계란을 삶다라고 할 것이고. 옆에 어떤 단어를 연결될까요? (hot water) hot water..자 물을 팔팔팔팔 boil을 하게 되면. hot water가 되는 거지? 그 다음그림. 자 이단어는 문가요?drain. 자. 저번에 단어를 볼때. 나왔던 단언데. 단어뜻 기억하는 사람? (.....) 물기를 빼내다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서 추측하실 수 있는데, 요 동그런 모양의 고리가 달린 도구 이름이 문가요? (체) 체. 자 영어로는? (colander) colander 예요.그래서 drain in a colander. colander에다가 받치고서 물기를 쭉 빼내는 거예요. 물기를 쭉 빼내고, 그다음에 단어가 하나 더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물까요? dry 예요. 그리고 점점 더 건조를 시킬 때에도 물기를 빼내고 건조시킬 때에도 colander에다 세워놓고. dry를 한다고 생각하심 되요. 그다음 그림보자. 이건 무슨 그림?rinse예요. 우리 머리 행구는 그림 생각하심 안 돼! 샴푸, 린스 할 때 그 린스가 아니고요. 아직도 colander에다가 받치고 있네. 물에다가 행구고 있는거예요. 우리 비빔면 끓여먹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끓이고 나서 물 쪽 따라버리고 찬물에 어떻게 해? 찬물에 행구는 거야.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연결된 단어에는 모가 나왔나요? cold water. rinse with cold water. 찬물로 행군다. 그래서 연결을 했어요? cold water. 그 다음 그림 봅시다. cut 이에요. cut이라는 단어는 니네가 잘 알 수 있을 거야. 칼로 자르다. 그래서 연결된 그림은..단어는 knife예요. cut with a knife 요. 그림을 보시면요. 물 썰고 있니? (.감자) 감자를 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cut은 어떤 모양으로 자를 때 cut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이만한 감자가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크게크게 자르고 있지. 이때 cut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너네 먹는 이만한 감자가 있을 때, 감자 말고 오이로 해볼까? 오이? 이렇게 길다란 오이가 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늘게 썰때는 저번에 모라고 했었니? 기억나는 사람 있니? 얇게 채로 썰다 할 때에는 slice라는 단어를 또 쓸 수 있는거야. 그다음에 고기나 마늘이나 등등에서 ...((칠판 빼려고 하는데,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하

고기가 이런거에서. 고기를 막 이렇게 자르고자르고자르고 가늘게 자르다라는 걸 아는사람. 잘게, 아주 얇게 썬, 저민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chop이라는 단어예요. chopchopchopchopchop...되게 빠르게. 고기같은 걸 엄마가 저민다고 할때. 얇고 가늘고 쪼그맣게 계속 확확확확 썬 것을 chop이라고 해요. 똑같이 칼

로 자른다고 해도. 찌르는 모양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는거야. 어쨌든 cut은 찌르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말을 하지만, 좀더 큰 모양일때, 큰 썰기 일때에는 cut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이렇게 가느다랗고 길다랗게 썰 때에는 slice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채썰다 할때, 그리고 얇게 저미다라고 할 때는 chop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자. 그다음에 나온거 보자. 아. mix 나왔네. 아까 선생님이 그 동영상 볼때. potato salad하면서 그 아줌마가 만드는 준비과정은 별로 없는데, 계속 stir and mix, stir and mix 휘젓고요, 믹스하세요, 휘젓고요, 믹스하세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어. 자 여기서는 mix예요. mix를 할 때에는 우리도 야채샐러드를 만들거나 할때 가장 필요한 게 몰까? 너네 비빔밥 만들때 가장 필요한게 몰까? (밥!) 어. 고추장, 밥도 물론 필수지만, 그 용기는 어때야돼? 이 널따란 사발같은 큰 그릇이어야 해. 자 그런거를 영어로 모라고 할까요? (bowl) bowl이예요. 자 mix in a bowl.

자 단어다 연결했니? (네)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 자료를 들어갈 텐데.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자. 다같이 number one.

(같이) we are able to understand and use the verbs for cooking. 이구요.

number two.

(같이) we are able to read a recipe and follow the procedure.

자 무슨 뜻이냐면...우리가 요리에 관한 verb. 동사들을 제대로 이용하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 조리과정을 보고서 따라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걸 가사실에 가서 실습할 건 아니지만, 제대로 배워봐서 집에가서 엄마한번 만들어드려봐.

자. 다 프린트 받았죠?자. 본문 한번 들어보고 하자.

((본문을 듣는다- CD ROM))

다음 본문도 한번 들어봐.

((다음 페이지도 듣는다))

본문 전체 다 들었는데요. 우리 전에 리딩하던 식대로는 오늘은 하지 않을 건데, 그대신 짝이랑만 할거예요.

자 보시면서 프리트 펴시고, 맨앞에 세줄 부터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맨앞에 세줄부터만 짝이랑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있거나 하면 선생님한테 손들고 질문하세요. 해석시켜.

시간 짧게 줄거야. 모르는 단어 있거나 하면 손들어, 선생님이 가서 알려줄게. 손들어. 해석 안 되면.

(학생 질문)

맨앞에 나온 Greg Martini는 사람 이름이예요.

((학생개인이 물어봐서 가르쳐줌))

애들아, 한 1분 정도만 더 줄게. 어서 해봐.

어. purple은 보라색이예요.

애들아, 다 못해도 대충 해봤니? 대충 읽어봤니?

(네) 그럼 선생님이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한 두세사람 시켜볼까?

(한줄 들려주고) 자, 칠판 보시고요, 정훈아, 한번 해석해볼래?

(학생 해석) 그렉 마티니즈는 농부이고,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 그다음, ((들려주고)) 음,,,예은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학생 해석)자 예은이가 해석 잘했는데, 우리 저번시간까지 관계대명사 배우고 시험 봤자나. 자, 요거 보시면요, 여기 너무 높아가지고 모 할 수 없네...

자 He makes delicious dished with vegetable,이 나왔거든. 자 야채들로 요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뒤에 he grows. 가 나왔거든요. 애는 몰까? 해석 어떻게 해줘요? (학생들 대답) 애는 괄호치세요. he grows 괄호. 선생님이 언제 괄호를 쳤었지? 우리 관계대명사 배울 때?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것부터 괄호를 쳤는데, 앞에 관계대명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지? 관계대명사가 안 보일 때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어떤 게 생략된거니? (대답) 목적격만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어.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생략된 관계대명사는 몰까요? 목적격이고요, 사물인 which나 that이 생략되어 있었을 거야. 그가 키운을 괄호치시고요, vegetable로 화살표를 쳐줘서 ...그가 키운 야채들을 가지고. 자. with에 동그라미 치시면요. 요리에서는 with가 많이 나와. 재료, ~를 가지고...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 ((한줄 듣고)) here is ~여기 있습니다. one of his recipes 그의 조리법 중에 한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줄 듣고)) 그는 uses 사용합니다. purple potatoes.. purple 무슨색? (대답) 보라색, 자주색이에요. 썬이파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줄게. 보라색 감자가 어떻게 생긴건지.. 자, from his farm은 여기있는 potato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의 농장에서 온 보라색 감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한줄 듣고)) what you have. 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서는 재료를 소개하는 거예요. 재료를. 자 봅시다. 재료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줄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인데요. one found small purple potatoes. 자 이게 감자래. 우리는 감자 무슨 색 밖에 몰랐어? (갈색) 어. 그냥 갈색. 안에 누리끼끼 하고. 그지? 그게 그냥 평범한 brown색의 potato인데, 미국에는 땅도 넓고, 나는 건 종류도 참 많아. 감자도 red potato, blue potato, purple potato 이런식으로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거야. 개량 품종을 약간씩 다르게 한거죠. 그래서 purple potato가 있는 데, 정말 안애가 purple색이죠. 감자를 잘라놓은 거야. 이런 감자 대략 about 몇 개? 열 개가 필요하대요.

선생님이 1pound에 대해서 설명해줄게요. 자 프린트 보시면 ,참고해서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지? 근데 1 lb라고 적혀 있지? 이거는 소문자로 L하고, B예요. 읽을 때는 pound로 읽는데. 쓸때는 lb라는 단위를 써요. 하지만, 이거를 읽을 때는 그대로 one pound로 읽으심 되요.

우리나라는....

애는 무게를 재는 단위일까? 부피를 재는 단위일까? 모.길이를 재는 단위일까? 아는 바가 잇니? 추측해봐. 몰까요? (무게!)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kg이나 g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애네는 pound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 애를 kg으로 바꾸게 되면, 0.454kg정도가 되요.

자, 그럼 pound를 쓰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학생들 대답..) 너네 지금 막 찍고 있지? 유럽, 프랑스,,,막 나오는데, 사실 대부분의 유럽도 kg,과 g을 쓰고요. 사실 국제적인 표준은...표준...말이 생각이 안나니. 표준단위로 쓰고 있는것은 kg과 g인데, pound를 쓰는 나라는 미국이랑, 영국 그런 나라들밖에 없어요. 미국이 pound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국에 간적이 있었자나.

when I was in the United States, I were...weighted ove 120 pound. Can you cound it? 선생님이 지금 몸무게를 고백을 했어. Can you cound it? 선생님이 모라고 했는데? 몇 파운드였다고?(대답) 모라고?선생님이 몇파운드라고 했는지 들었니? 1 2 0 파운드라고 했어요. 몇파운드인지 알아도 선생님한테 밝히지마. 알았어? (학생들 응성) 120kg이 아니고...응?

(학생 답) 계산을 잘못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보자. 파운드스 그런 단위예요. 1kg보다는 작죠. 거의 반 kg정도 되죠.

그다음에 재료는 선생님이 우유 그림을 올려놨는데, 사실 우유 그림은 필요가 없어요.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자 모라고 들었니? (학생들) one 그 다음 and예요. 한번 더. 모라고 들었니? one and a half quart예요. 자 우리 quart라는 단어는 단어 프린트 할 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애는 어떤 용량을 재는 단위고요. one and a half가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1과 1/2이예요. 1 one 그리고 1/2은 half 자나요. 그래서 one and a half quarts라고 해요.

quart라는 단어의 용량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이거는 우리가 먹는 우유로 치면 몇 ml짜리 우유죠? 1000ml우유네, 사실 이 quart랑 완전히 동일한 거는 아니예요. 칠판이 안 올라가서. 1 quart는 대략 0.95L정도 되요. 1L는 1000ml지?이걸 정확히 외울 필요까진 없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모냐면.

미국에서는 우유를 먹어도, 종류가..이렇게 다른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우유들도 먹어. 이렇게 큰 우유는 아까 우리 1000ml짜리 우유의 4배정도 되는 거거든요. 애는 모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gallon이라고 해. 1gallon짜리 우유는 이만한 똥똥이 우유야.

다음거는. 애는 모냐면. 아까거의 반정도 싸이즈가 되거든요. 애는 half gallon이예요. half gallon이 이만한 우유예요. 우리도 half gallon 정도는 우유나 주스 지금 파는 거 있거든요.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만한 것도 팔긴하죠.

그다음 그림은 선생님이 아까전에 여기에 넣던. 보통 이만한 거지. 이걸 half가 아니고. 1/4이야. 1/4gallon이 quart예요. gallon이란 단위도 어떤 물이나 액체의 부피를 재는 건데. quart라는 건 1/4 gallon이예요. 수학기간같애. 어떡해. 거기까지만 적어두시고요.

그다음거 보시면요. 나머지 재료들은 한꺼번에 쪽 볼게요. 4분의 3 cup peas 거든요. 계량컵에 있는 그 cup 인데요. 4분의 3이라는 거 어떻게 읽는지 아는 사람?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한번 들려주고)) 우리 4분의 1이라는 거 배웠었잖아. 그지? 그게 몇 개야? 세개~자. 따라읽어봐. three quarters cup peas라고 하죠. ((듣고)) four table spoons italian salad dressing. 자. table spoon이라는 거랑 teaspoon이라는 게 나오는데, 테이블스푼은 대문자로 Ts로 쓰고. 한국말로 하면, 요리책보는 사람? 요리 좋아해서? 선생님은 이제 봐야되는데, 시집가야되서. 자. 보자. 큰술이라고 해요. 이게 테이블 스푼의 약자예요. 그다음에 소문자로 ts라고 쓰는게 있어. 이거는 티스푼이예요. 소문자로 쓰게되고, 한국말의 요리책에 보면 작은 술이라고 쓰게 되요. 큰술, 작은 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재료들에서 보면, 네 개의 테이블 스푼, 두 개의 테이블스푼의 파슬리라고 되어있네. 파슬리라는 것도 이렇게 생긴 야채예요. 이제까지 재료들 다 이해했니? 프린트의 그림들을 한번 봅시다. 프린트의 그림은 책에있는 그림들이랑 똑같고요. 편하신거 보시면 되요. 그림의 순서들을 한번 예측해볼까. 1번 그림 모하는그림이니? 동사를 한번 떠올려보실래요? (대답) cut이예요. cut~순서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2번그림은 모니?(boil) boil이예요. boil 3번은? (...)애는 수저로 모하는거야? 국자같은 거로 건지는 거야. 뜨는 거야. 건진다가 몰까? 본문에는 이따가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그냥 옮기는 거야. 옮긴다 몰까? (...)move예요 move. 이따 move로 나올거야. 4번째 그림은 몰까요? 애는 냄비에다 넣고. 감자갓고 모 하고 있네. 소금 치는 건가? 이따 다시보자. 5번 그림은 몰까요? 이제 콩이 나왔어. 애는 colander 위에다 콩을 물기를 빼는. drain 하는 그림이네. 6번은? (.....)찬물로 rinse하는 그림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몰까요? (...)mix이예요. 자 그러면 한번 순서를 한번 예측해보자. 지금 한번 얘기해볼래? 모가 젤 먼저 나올까요? (...)저기? 끓이는거? 그다음엔? 4번? 소금치는거? 어느게 먼저 나올까? 4번, 2번? 아무튼 그림, 그다음엔 모가 나올까요? 3번? 건져? 건진다음에? 1번? 썰어? 그다음에? 콩나와? 콩나오면, 콩을 끓이고 나서 물기를 뺀 다음에, 린스, 찬물로 헹구고, 믹스하고, 이런식으로 추측이 되니? 한번 맞는지 한

번 해봅시다.

프린트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 프린트 뒷장을 넘기셔서 들이시면서 프린트 빈칸을 채우시는데, 우리가 말했던 동사들이 대부분 나와요. 동사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들으면서 한번 챙겨보세요.

((듣는다, 학생들은 듣고 적는다))

자, 다 채웠어? 귀가 안 들려? 아침부터? 귀가 먹었어? 하하. 애들아, 한번 더 들려줄까? (네)_ 한번만 더 들려줄게, 채워봐. 선생님이 동사만 밑줄로 비워둔 거야.

((다시 듣는다))

자, 이제 다 채웠니? 책이 98p니까. 그림의 빈칸에다가, 그림의 순서를 다시 맞춰보자. 그림에서보니깐, 너희가 틀린 부분이 딱 한 개 있다. 찾았니? 다시한번 해보자. 첫 번째 그림은 모가 나와야 하니? 4번. 요 그림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는 모가 나와야되니? 2번. 자 동사는 모였지?boil하는거. 그다음은? 옮기는 거. 3번이 나왔어요. move하는거. 그다음에?1번 cut나왔나? 아냐. cut은 이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콩에대해서 나왔어. 콩은 몇 번이 먼저?5번. 5번의 동사는 몬데? drain이에요. drain and dry., 자 6번은? rinse하는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cut을 하고, mix하는거. 맞니? (네) 그럼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보자.

(한줄 듣고) 자, 처음에. 이거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보면 맨 왼쪽 라인에 붙어있는 것들을 선생님이랑 쪽 한번 읽어보자. 자 first, 명사들만 하나씩읽어보면 되요.

(함께) first, 그밑에는 and, next, and then, after that, next, and, 그다음에 건너뛰고, then, 마지막에? finally,

자 여기에 나온것들은 언제 필요한 것들일까? 너희한테 어떤 순서를 알려줄때 첫 번째로 물 해야하고, 그 다음에 and then, 다음번에는 next, 그리고 마지막에는 finally,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순서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한번 듣고)

sauce pan이라는 거는 이런 둥근 냄비에요. 냄비에, 감자들을 put 집어넣으세요. 감자들을 어따 집어넣어? in the cold water. 찬물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다음에는 또 동사가 모였죠? 선생님이 아까 안 가르쳐줬던 동사사 이거네. add the salt 소금을 쳐라. 쳐라. 쳐라. 단어가 add. 더 넣어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듣고)

그다음번에는 이거 2번그림 에 대한 건데,. 무슨 단어? 무슨 동사 썼어? boil이에요. boil the potatoes. 하 고요. for about 15minutes . for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동안이에요. ~동안. 자 ,그래서 15분 동안. 감자 를 얼마나 끓이래요?15분 동안 끓이래요. 시간을 재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언제까 지 끓이래?until they are soft. 이건 모야. 집에서 엄마들이 많이 하는건데, 젓가락을 가지고 쭈셔넣어보자 나. 그럼 딱딱해서 안 들어갈 때가 있고, 부드러워져서 쭈 들어갈 때가 있지?until 에 동그라미 쳐넣고요. 아까 for 에도 동그라미 쳐봐. 여기서는 이런 전치사가 중요할 것 같아. 자 15분 동안 할때 for라는 게 필 요하고, 그것들이 부드러워질때까지 할 땐 until이 필요하죠.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엔 어떤거 아냐? (듣고) 자 그리고 나서는 요.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with wooden spoon 나무주걱으로 나

무스폰으로 move 옮기세요. 감자를 to ~방향이야. colander로 옮기세요. (듣고) 그다음에는 drain 하시고요. 아까 우리그림이 맞네. drain 하시고요. cool ~ 여기서 cool은 무슨 뜻일까요? 멋지다. 이거니? 차갑게 식히세요. for ten minutes 10분동안 식히세요. 라는거예요. 그다음에. (듣고) 물을 다시 끓이래요. 그다음 모하나 보자. (듣고) 그다음에 감자조리가 대부분 끝났고, 콩으로 넘어갔어. pea. 콩으로 넘어갔는데? 몇분 동안? for 1minute . 콩은 쪄그마니깐. 1분만 끓여도 되나보다. (듣고) 자 그 다음 콩을 어떻게 하래요? 우리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drain in a colander 콜랜더 위에다 올려놓고 물기를 빼래요. 그다음? (듣고) rinse with cold water 찬물로 행구세요. (듣고) 다시 물기빼고 다시 dry 하세요. (듣고) 자 그다음 우리가 마지막 그림에 있던 감자를 썰기를 하는데, 감자가 다 식었으면 감자를 썰는데, 어떤 모양으로 썰다는 걸까? quarter. quarter라고 나왔죠? 너희 quarter 모라고 알고 있어? 4분의 1. 감자를 4분의 1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into quarters 로 나온거죠. 조각들 네 개가 나오게 cut 하세요. 라는거죠? (듣고) 아까 mix라는 거 동영상 봤던거에서 mix하고 또다른 거 모라고 쓰인다고 했죠? stir and mix라고 많이 쓰이거든. 근데 너무 강하게 하면 안돼. 그래서 무슨 단어 썼어? lightly. 가볍게. 이렇게 저으세요. mix 하세요. 감자랑 모모 넣고? 읊어봐. 감자. 그다음. 콩, 그다음? 샐러드 드레싱. 그다음? 파슬리. 야채까지 다 넣고. mix하래요. 그다음 마지막. (듣고) 마지막으로 물 하나면. 소금간이나 후추를 넣으시는데, to taste 밑줄. to taste. 자 이거는 어떠한 요리책에도 맨 아랫줄에 나오는 건데. 입맛에 맞게. 소금이나 후추를 치세요 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법을 다 배웠는데. 집에가서 요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지?

자 한번 99쪽 펴보자. 한번 복습차원에서 99쪽에 있는 이 동사들을 순서에 맞게. 자 이제 본문 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물했고, 물했고, 물했는지. 자 동사만 한번 써보세요. 동사. 이것들 복습으로 써오죠. 알겠니? 네.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거 복습. 동사 기억하시면서. 다음시간에 이거 순서를 동사를 비워서 시험을 칠거예요. 그러니깐 본문 공부를 하고 오세요. 알겠니? 이상.

(감사합니다)

라. 자기 관찰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 표와 세부적 목표)	1. 요리와 관련된 동사들의 의미를 알고 바 르게 사용할 수 있다. 2. 요리법을 읽고 그 절차를 읽고 따라할 수 있다.	과업전활동으로 단어들을 모두 학습한 후에 읽기 본수업전에 학습목표를 보여주었는데, 다시 관찰해보니, 학습목표는 동영상 동기부 여와 단어학습 이전에 들어기도 좋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	질문/논의사항 수업목표를 언제 제시하는 것 이 효과적인가.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대체로 어휘와 읽기에 초점 -동사를 듣고 읽기 지문속에 받아쓰기를 읽 기 전활동으로 포함시킴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도량형 그림으로 설명 -교재:video clip, ppt, worksheet	어휘, 듣기, 읽기 등이 적절히 섞이고, 적절하 어 관련된것같다.	본문 읽기 전 듣기를 해주는 데, 아이들이 많이 집중하지 않는다면 또는 책을 보고 듣 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 과적일까.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도입:동영상으로 동기부여, 주제 소개 -전개:어휘 학습-듣기활동-읽기활동 (전체학습, 짝활동(검토수준))	조별활동이 없어서 아쉬웠다. 짜끼리 답을 맞춰보는 수동적인 활동 말고, 능동적으로 pair 또는 group work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리딩 활동에서 group 활동의 범위? 어떤 활동들이 좋은지..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 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학생:남녀합반,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반 중에 조용한 반을 고름. -ppt, 동영상상 위해, 스크린과 칠판판서 도 두 사용.	-너무조용한 느낌?심지어 촬영임을 의식 -칠판이 올라가지 않아 맨위, 맨아래에 쓰기 가 어려웠고, 스크린을 제외한 좁은 공간에 쓰느라고 몇 번 지워야했음		스크린으로 인해 칠판이 너무 좁아진 경우, ppt에서 가능하 면 모든걸 해결하는 것이 좋 은가, 그럼에도 집중력을 요 하는 것 등은 판서가 좋은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YouTube를 통해 동영상 보여줌 -단어들도 그림을 보여줌	-오늘의 주제가 요리라는 것을 교사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높였다고 봄. -gallon 등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단위들도 그림을 통해 더 확실하게 이해했을 것 같다.	
	상호작용 (학생_학생 간_학생_교사간)	-대체로 전체학습이 많았음 -적절동시, 다만 겨우 맞춰보는 수준 -교사주도의 수업	-교사-학생간 상호작용이 많이 어색한 것 같진 않지만, 활발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음 -학생-학생간도 마찬가지로. 짜귀리 답을 맞춰보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 하는 학생들도 많았던 것 같음.	리딩 수업에서 학생-학생간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좋은 수업방법들이 있는지.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대부분 국어였음. 그리고 대체로 해라체. -그림을 통한 단어 설명이 좋음. -질문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안하던 존대말을 하거나, 영어 사용하면 당장 학생들이 어색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점차 노력해봐야겠다.	-존대말 사용 꼭 필요한가 -영어로 진행하면 적응기간이 얼마나 길릴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 -개별로 질문하고는 칭찬부족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 모르는 학생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느낌. 고쳐보아겠다. -3줄이긴 해도 해석쓰기는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기도 했다. -듣고, 동사 받아쓰기는 앞에 스크린이나 책을 보면 바로 답이 있어서 순수하게 듣고 받아쓰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요리에 나오는 동사들에 집중해보는 효과가 있었다.	모든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기엔 ... 비율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3줄 해석쓰기 -그림보고 동사 예측하기 -듣고, 동사 받아쓰기 -순서 짜맞추기 등..	다만 학생들의 참여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대체로 교사주도의 수업이라...통제는 잘되었다고 봄.			리딩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학습 점검(평가 요소)	앞서 요리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그림으로 복습하고, 요리법 그림보면 동사 거꾸로 예측해보고,,,,나중에 듣고 빈칸 넣기까지 연결된점이 좋았다.		-다만, 반복되는 감이 있었다. -시간이 모자라 평가까지 같이 할 수 없었다.	리딩 수업에 대한 평가는? (주제 찾기 정보찾기...등의 skill 중 심이어야 하는지, 이미 학습한 지문에 대한 이해점검이어야하는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학습 목표 달성	요리에 사용되는 동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학습된 것 같음.	절차를 읽고 따라할 수 있는지는 평가가 미흡했던 것 같다. 다르게 표현된 새로운 절차를 주어 평가를 해봤어도 좋았을걸...해본다.	
	만족스런 점	그림을 많이 사용한 것...동영상도 그렇지만, 단어설명에도 적절한 그림을 보여준 것이 학생들이 그냥 문자로만 인식한 것보다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gallon, quart 와같은 단어들도 우리나라에선 사용하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 영어로 된 조리법을 볼때 필요한 단어들로 적절한 문화교육까지 곁혀진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수업 후 (self-appraisal)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런 절차를 배웠으면 순서 다시 짜뭏추기같은 활동도 좋았을 것 같다. 앞에서 단어 등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한 것 같다. -그리고 영어사용을 안 한 것...3월 약식강학?(교장선생님께서 보신 것)에서도 영어로 수업을 하긴 했는데, 학생들의 집중도가 너무 낮고, 동기부여가 안 되어 ... 영어로 수업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레도 중간중간에 쉬운 발문 같은 것은 영어로 하는 게 나왔을 것 같다. -발문을 전체 대상으로 많이 한 것. 누군가 뚜렷한 학생이 답을 먼저 말해버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직 모르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문하면서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그런 발문의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p>평상시 수업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고 해서 많이 준비하지 않고 수업하였는데, 너무 전형적이고 뻔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 조금 부끄럽다. 평상시 늘 수업 장황처럼 할 수는 없어도, 늘 학생들이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교사의 주도권을 나눠주도록 하는 방안들은 항상 고민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 같다. 특히 거의 100%한구말을 쓴것도 내가 조금만 더 준비를 하면, 영어로 된 발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p>

다.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교사 B - 관찰자료 1>

단계	영역	의견
	<p>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ipe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익히고, purple potato salad를 만드는 recipe의 내용을 이해한다. -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실생활에서의 활용이 많은 주제이며, 어휘 학습과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 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도입 부분에서 google에서 찾은 요리 관련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흥미를 유발시킨 점이 좋았음.
	<p>학습 내용(기능, 지식) 및 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및 읽기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문 내용을 들려주고 cloze test를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듣기 능력 향상을 계획하였음. ● ppt, video clip, worksheet과 같은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함. ● 교과서의 본문 내용과 인터넷 상의 동영상 자료, 요리법 관련 그림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조화롭게 수업 자료로 활용함.
<p>수업 전 (계획단계)</p>	<p>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 인터넷 상의 요리 관련 video clip을 이용하여 학습 주제에 대한 흥미 부여. (진체학습) ● 전개 : 1. recipe 관련 어휘 학습 (진체학습 → pair work) 2. 학습 목표 제시 (수업이 시작되고 16분 정도 지난 후에야 학습 목표를 제시했는데, 도입 부분의 video clip을 시청한 직후 분시 수업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함. 학습목표에 '요 리에 필요한 동사들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어휘 학습을 끝낸 상태에서 그것을 목 표로 제시하는 것은 순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함.) 3. 본문 내용 듣기 (중심이 되는 동사들에 대해 cloze test → 개별학습) 4. 본문 내용 읽고 해석하기 (진체학습) ● 마무리 : 학습한 recipe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중심이 되는 동사들만 써보기.
	<p>수업 맥락 (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2학년, 남녀합반으로 수준별 구성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예의바르게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적극적인 발표나 활기가 다소 부족한 편임. ● 컴퓨터와 연결된 Screen이 정면에 넓게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교실 한쪽에 위치해 있는 TV screen 보다 학생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선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칠판에 판서할 때 공간 적인 제약이 생기는 단점도 있음.

단계	영역	의견
	학생 관련 (동기, 참여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생한 video dip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자 한 점이 바람직함.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내용의 길이나 말의 속도, 단어 등이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 한번만 보여주고 'potato salad' 같은 중심 단어 하나만을 알아내게 하고 넘어가버리기 보다는, 학생들이 틀은 단어들을 물어보고 교사가 칠판에 판서를 해주거나, script를 만들어 나눠주며 주요 단어들에 밑줄을 쳐주는 등 video dip의 내용을 좀 더 활용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듯함. 또한 동영상의 화면 안에서는 계속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 웃지 않고 있으므로, 교사가 내용이나 단어의 힌트를 주어서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며 수업에 집중을 잘 함. ● 그림이나 동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한 것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함.
수업 중 (시작 -마무리)	상호작용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소극적임. 조별활동이 없고 거의 전체학습으로 이루어진 수업이므로 학생들이 리의 의견 교환이나 협동 학습의 기회가 거의 없음. ● 학생-교사간의 상호작용은 진지하고 차분하지만, 교사가 질문하고 지시하면 학생들이 따라하는 다소 일방적인 형태가 주를 이룸.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스스로 의견을 표현할 만한 활동들을 계획해 보는 것이 필요함.
	교사 언어 (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설명이 한국말로만 이루어지는데, 반복적인 지시어나 간단한 설명은 되도록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교사의 목소리 크기가 적절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함. ● 학생들에게 반말보다는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함. ● 그림을 통한 단어 설명은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 좋은 방법임. 단, 그림 하나 하나에 대해 교사가 길게 설명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고 동사를 말해보게 하는 식이나 동작을 통해 빠르게 이해 시키고 넘어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이해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피드백 (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의 대답에 좀 더 진지하게 feedback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오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물은 후 그냥 '오늘 수업할 간자샐러드를 집에가서 만들어보라는 반응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주 재료는 뭐가 필요한지?'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등 질문의 폭을 넓히며 수업 주제 및 학생들 서로서로에 대한 흥미를 높여가는 것이 좀 더 수업을 활기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 또한 발표를 한 학생에게 '그래, 이 문장은 어렵지 않았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Good job.' 'Excellent.' 같은 간단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격려가 될 듯함.

단계	영역	의견
수업 중 (시작 -마무리)	학습 활동(과업) -적절성, 수준,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 및 활동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고 실생활과의 연계가 가능한 흥미있는 내용이었음. ● 그림을 통한 어휘 학습, cloze test, 문장 해석 등 중학생 수준에 무난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는 어휘 학습시 단순히 의미와 단어를 연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fry', 'boil' 등의 동사와 어울릴 수 있는 요리 재료들을 여러 가지 말해보게 함으로써 어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듯함. ● 교사가 자신의 몸무게와 관련하여 kg과 pound의 차이를 계산해보게 한 점도 흥미로웠음. ● 어휘 학습과 계량 단위 설명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로 본문 내용을 학습할 때는 내용의 분량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였음. 계량 단위에 대한 긴 설명보다는 본문 내용과 관련해 학생들의 활동을 늘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수업 진행 (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은 차분하게 잘 이루어졌고 교사가 학생들을 잘 통제하고 있음. ● 수업 중 많은 부분이 교사가 설명이나 해석을 하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더 수업에 참가되었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recipe의 내용과 그림을 match시킬 때, 미리 복사하여 여러 조각으로 나눈 그림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본문의 내용을 들으며 순서대로 조각을 맞춰가는 등의 활동을 group work로 활용할 수도 있음. 완성된 그림을 말하기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시간이 부족하여 마지막에 정리 활동과 형성평가가 다소 부족하였음.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는 반복적인 읽기와 시각 자료 제시로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본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평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함. ● 학생 개개인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문 내용과 관련해 질문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음. ● 본문을 듣고 cloze test 를 하는 부분에서 스크린을 끄고 교과서를 덮은 후 blank가 있는 worksheet 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답이 보이는 상태에서의 test는 긴장감이 떨어짐. 또한 본문 전체의 내용을 한꺼번에 듣고 받아적게 하는 것 보다는 한문장씩 들려주고 답을 채워넣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후 답을 체크해보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듯함. ●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학습한 recipe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중심이 되는 동사들만 써보기'라는 과제를 제시했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요리의 recipe를 직접 적어오게 하는 것은 어떨까?

단계	영역	의견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ipe'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익히고, purple potato salad를 만드는 recipe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음. ● 목표 달성 여부를 가시화 할 수 있는 평가지가 있었다면 더 효율적일 듯함.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다양한 시각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힘씀. (단어 그림 자료, video clip, cloze test용 worksheet) ● 칠판에 판서시 글씨가 크고 교사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잘 전달됨. ● 학생들의 수업 자세가 예의바르고 진지하며 교사의 지시를 잘 따름. ● 중요 어휘들을 계속 반복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충분히 어휘를 익힐 수 있게 함.
수업 후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간을 좀 더 효과적일 배분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이 되어야 할 recipe의 내용 및 활용에 비해 어휘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형성평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음. ● 학생 중심의 조별 활동이나 발표 활동을 좀 더 수업 계획에 첨가할 필요가 있음. ● 가능한 한 교사가 classroom English의 많이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 대화에 노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 간,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 중 활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본문 해석 도중 갑자기 관계대명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세한 문법 설명은 자제하거나 읽기 활동이 모두 끝난 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음. ● recipe는 읽기 활동 뿐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 활동에도 알맞은 주제이므로, 학생들 각자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요리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해볼 수 있도록 활동의 범위를 넓혀보는 것도 좋을듯함.

<교사 B - 관찰자료 2>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학습 내용(기능, 지식) 및 교재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수업 맥락(수업이 이 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동영상을 도입단계에 적용	-수업목표와 관련된 동영상 보여줌으로써 수업동기를 부여함 -수업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고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면 학습효과가 있었으리라 여겨짐 -학생들이 좀 더 능동적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계기 마련	수업관련 내용이 많아 학생들이 좀더 깊이 시청할 수 있었으면 함
	상호작용 (학생_학생 간 학생_교사간)	-전체 학습으로 이루어짐	-동영상 시청 후 일어들은 단어를 묻기만 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음-학습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고 다시 한 번 시청했더라면 동영상 학습효과가 증폭되었으리라 여겨짐	-수업 중 학생-학생간 상호작용에 대한 전략 수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경어과 반말이 섞여있음 -학습 진행 및 설명이 국어로 진행되고 있음	-발문의 통일성이 필요함. --전체에게 말할 때는 경어를 사용 -목표어인 영어를 가능한 사용하였으면 함.	-간단한 수업 진행용 영어사용은 어떨까요?
수업 중 (시각-미주리)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교사가 일방적으로 묻고 답하고 있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는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묻고 그 대답에 대하여 전체에게 확인하게하고 최종으로 교사가 피드백을 준다면 학습의 긴장이 높아지리라 생각됨. -발문은 학생과 주고 받는 대화 형식이지만 대부분 교사가 일방적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임-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였으면 함. -학생 발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음. (적극적인 칭찬표현 필요)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수업과 관련된 적절한 동영상 제시 -요리와 관련된 활동 및 요리도구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제시	-동영상과 ppp를 좀 더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 여겨짐.--동영상은 좀 더 자세히 시청하고, ppp의 경우 그림 제시후 단어 제시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도입-학습지-단어학습-학습목표제시-본문듣기-해석쓰기-본문설명-차시에 고 본문을 듣자고 하고 단어학습이 길게 이어짐	-도입단계의 흐름이 좋았음 -학습지를 배부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 사용---배부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학습 점검(평가 요소)	-전체 학습 마무리는 없었음	-마무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분배 필요함	
	학습 목표 달성	-학습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임	-본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수업 후 (self-appraisal)	만족스런 점	-관련 동영상 인터넷 탐색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여겨짐 -학습관련 단어를 ppp를 사용하여 그림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어휘 학습에 효과를 높임		
	개선 점	-교실 영어 사용 권장 -수업 흐름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학생활동 개발 -수업 전개도 개발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수업활동의 적극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사전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엿보임. (이만큼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사 B - 관찰자료 3>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2) 지시문을 읽고, 절차, 방법, 요지 등을 이해한다.	*수업지도안이 없어 수업전 계획 단계에 대한 내용을 알수 없지만 수업 동영상을 기준으로 미루어 짐작함. -학습 목표를 알리기 위해 미리 ppt를 이용하여 준비되었고 함께 읽고 해석해 줌으로써 좀 더 분명히 알려줌.	
	학습 내용 (기능, 지 식) 및 교재	-학습내용: 1)감자샐러드 만드는 과정 이해 하기 2)절차를 나타내는 동사를 이해 하고 적용하기 -교재: video clip, worksheet	-동기부여를 위해 동영상을 이용함. -다양한 동사의 사용을 알리기 위해 ppt와 판서를 이용함. -학습 목표와 본문 내용을 천천히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알려줌.	
	실행 계획 (수업 실 행 계획)	-도입: 동영상-ppt 동사 풀어보기-동 사에 대해 설명-학습목표제시 -전개: 본문 듣기-꺾과 유인물에 해석하기-교사 중심의 해석과 어휘 설명-빈칸 채우기(동사 중심)-오리순서 맞추기 -마무리:동사 관련 문제 풀기/ 차시 동서관련 시험 예시	'읽고 이해하기에 목표가 맞춰진 수업으로 본문 내용에 관한 교사주도 의 설명이 20분도 넘게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주도의 수업 이 이루어짐. -학습 목표에 맞춰 요리에 관한 동사를 반복 설명하였지만 교사 중심의 설명이었고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음. -학습 내용이 읽기 부분으로 이미 어휘를 공부했는데 line by line의 설 명이 필요했나요? 혹 모두 수업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본 학습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꾼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수업 맥락(수업이 이 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제 등)	-중 2학년 남녀 혼합반으로 일 제식으로 앉아 있었으며 차분 한 분위기임. -스크린이 중앙에 있고 커서 보 기 좋았음. -유인물을 제공함.	-중 2학년 남녀 혼합반으로 동성이 짝을 이루지면 줄마다 성이 달라서 모둠활동시 이질감만 구성이 가능하다. -거의 일제식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수업 호응이 좋음. -스크린에 제공된 내용이 잘 보이고 소리로 잘 나와서 수업에 크게 도움 이 됨. -칠판이 스크린에 가려서 판서 공간이 적었으므로 판서할 내용과 ppt에 작성할 내용을 미리 구별하여 판서시 질서있게 써 내려가면 좋을듯함.	-평소에 이와 같은 일제식 수업시 줄거나 지루해 하 는 학생이 없나요? 그들을 위한 처방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실생활과 친숙한 주제이며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동기를 부여함. -교사 중심 수업으로 학생 참여는 해석하거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주로 다임.	-동기부여를 위해 동영상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이끌어 냄. -학습내용과 관련 있는 시청각자료로서 학생의 집중도가 높아 보임. -요리를 하는 활동인데 일제식으로 수업하니 다소 지루해보임. -이 활동 후 학생들은 집에 가서 요리를 해 보는것을 너머 감사 슬라이드를 하는법을 영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어하는 것이 목적임.	본 수업에 교사가 의도한 학생 참여도는 몇 %인가? 교사 중심의 일제식 수업시 몇%를 학생들이 학습한다고 생각하나요?
	상호작용 (학생-학생, 학생-교사간)	-전체학습 후, Pair work(동사 맞추기, 본문 해석)가 있었지만 개별학습위주로 수업이 진행됨. -학생활동이 수동적으로 보였으며 자기주도적인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음.	-교사 중심의 일제식 수업이 거의 진행되어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 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학생과 학생사이의 상호 작용도 거의 없어서 교사가 준비한 ppt가 아니었다면 지루한 수업이 될 것 같음.	-거의 모든 시간동안 멀티를 사용하였는데 적절한 멀티 사용시간 과 효과적인 사용용도는 무엇일까요?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 진행이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었음. -본문 내용을 줄줄이 설명하였음. -그림을 통한 단어 설명이 있었음cut, slice, chop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꾸준히 질문하여 학습에 끌어들이었음.	-수업시 극존칭과 반말이 섞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다소 혼돈스러우며 경어를 꾸준히 사용하여 교실영어를 사용하면 좋을듯함.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꾸준히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열정적으로 수업함. -본문 내용이므로 영어로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면서 하면 더 좋을듯함.	-학생들의 상태가 교실영어사용이 얼마나 가능한가요?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 학생들을 지명해 발표를 시킬 때, 생각해보고 대답할 시간이 필요함. - 학생들의 개별 발표 후, 오류수정과 칭찬이 부족해 보임.	좀더 칭찬과 학생들이 학습에 주인이 되도록 유도하여 소극적인 수업분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학습 활동(과업) 적질성, 수준, 흥미도	-본수업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음식만들기 단원으로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와 부합하고, 수준이 적절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그 흥미도는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학습 활동은 학생들 수준에 적합하고 흥미를 끌 수 있었으나 교사의 일제식 수업으로 수동적으로 수업함으로써 다소 지루한 수업이 된듯함. -어휘를 공부하면 학생들 스스로 모둠활동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보고 (sequencing) 순서를 맞추는 것도 좋을듯함.	-왜 모든 수업을 도입하지 않았나요?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 전반에 걸쳐 진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거나 개별이나 모둠학습보다도 전체학습에 다소 많은 시간이 배정된 것 같음.	학생들을 잘 장황하고 있다고 생각됨. 수업의 흐름이나 진행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수동적인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효과적인 수업형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수업을 활기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적당한가?
	학습 점검(평가 요소)	수업 초반에 나누어준 인쇄물로 개별, 전체 활동과 학습점检까지 함께 진행함.	수업시작과 더불어 나누어준 학습지가 평가지 역할까지 하였는데, 이미 학습지로 다루었던 내용을 평가요소로 다시 다룬다면 학습자의 흥미가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개별 학생들이 이해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알수 없음(평가 없음)-차시 시험보겠다고 예시함.	일제식 수업의 평가가 꼭 시험을 보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목표한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교과의 수준을 어떻게 잡고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수동적인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학습목표를 제시할 필요를 느낌.	
	만족스런 점	-동영상을 통한 동기유발과 다양한 그림을 통한 요리에 관련된 동사를 설명한 것은 효과적이었음. -수업생을 위한 단어설명과 문법 설명, 본문 내용 설명이러면 학생들에게 적절하였다고 생각됨. -교사중심의 일제식 수업이 대부분이었지만 교사의 준비와 또박또박한 말씨가 돋보인 수업이었음.		
	개선 점	-간단한 영어로 교실영어와 지시어를 적절히 혼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recipe의 순서는 수업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순서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수 있을 듯...) -교사 언어가 즉흥적이고 반말이 섞여서 혼돈스러우니 경어를 꾸준히 사용하면 좋을듯함.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주문해 놓고 바로 교사가 정답을 말하고 설명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생각과 대답할 시간을 어느 정도 주었으면 좋겠음. -발표한 학생들의 오류수정 및 칭찬이 필요함.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오류수정이 따라야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음. -멀티시설을 45분 동안 내내 사용하였는데 멀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다른 활동과 배분할 필요가 있음.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현재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교사중심의 일제식 수업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업이었음. -수업 시작 시 교사와 학생간 인사에서 학생들이 인사하는 동안 교사는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어”라는 말로 대응하였는데 함께 인사를 주고 받는 것이 좋을듯함. 영어로... -도입부에서 대화 내용을 한번만 들려주고 교사가 해석을 해 주는 것 보다 학생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수업 시작 6분경에 배부한 유인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음. -교사가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쉬 없이 수업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학습내용의 반복으로 마지막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어야만 되었었는데, 학습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반복의 기준이 세워진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적절한 수업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봄. -읽기 수업이지만 말하기 수업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4개 영역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면 더 좋을듯함.		

<교사 B - 관찰자료 4>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에 사용되는 동사를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다. ● 요리법을 읽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수업 내용을 볼 때 학습목표를 잘 설정했는지 의문이 들. (요리에 사용되는 동사에 대한 설명보다 도 량형에 대한 설명의 비중이 더 컸으며, 요리 절차에 대한 언급은 handout을 통해 간단 히 언급됨) ● 제목에 대한 설명이 초반에 없었음. (수업 진행 중 학생들이 purple의 의미를 몰 아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과 기타 부수적인 수업내 용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 할 수 있을 것인가? ● 지도안이 누락되어 관찰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단어 review - 동사와 감자 샐러드 만드는 절차 위 주로 본문 파악하기 ● 교재: Video clip, 교과서, PPT, Worksh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기능 중 듣기와 읽기의 수동적인 기능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말하기와 쓰기의 능동적 기능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단순한 동사 채우기는 쓰기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하기”와 같이 의사소 통과 다소 거리가 먼 기능 혹은 주체에 초점을 둔 과에서 말하 기/쓰기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고안해야 할까?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영상을 통한 동기부여, - 음식 만들기와 관련된 단어 review 및 관련 있는 단어 연결하기 -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부분에서 단어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됨. (본 차시의 학습목 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어 review는 가볍게 넘어가고 “요리하기와 관련 된 동사” 설명은 “진개 부분”에서 교과서와 관련하여 설명했으면 더욱 좋았 을 것 같음) ● 단어 설명 시 그림을 동반한 것이 좋았음. 더 많은 그림 동반하면 좋을 것 같음. ● 학습목표 제시는 단어 review 이전 에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과 기타 부수적인 수업내 용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 할 수 있을 것인가? ● 지도안이 누락되어 관찰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내용 듣기 - Pair-work로 본문 해석 - 본문 설명 - 오리 절차와 관련된 그림 보고 순서 맞추기 - 본문 듣고 누락된 동사 채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reading으로 듣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activity 또는 단순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 ● 짝과의 수동적인 해석활동 보다는 전체적인 본문이해와 관련된 Group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 ● 교사가 본문 설명 시 내용파악보다는 문법이나 도량형 설명에 치우쳐 아쉬움. ● First/then/finally 등 연결어를 간단히 언급만 했는데, 오리 절차 맞추기의 활동과 연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의 동사들만 숙제로 써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2학년 남녀 절반 (학생 수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학생들이 조용히 수업에 잘 참여하는 듯 보임. ●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 PPT 사용은 용이하나, 칠판 판서에 공간적인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전개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마무리 활동이 거의 없었고, 숙제만 부여함. ● 교사의 성찰일지에도 마무리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음.
<p>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빔프로젝터 사용 시 판서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단일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 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과 관련 있는 코믹한 동영상을 보여주어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동영상을 통해 동기유발을 시킨 것이 좋았으나, 일회적으로 보고 넘어간 것이 아쉬움. 본문에 나오는 동사나 표현을 학생들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설명한 후 한 번 더 보여주었다면 더 유기적인 결합이 되었을 것 같음. 여러 활동을 고안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uthentic한 자료 사용은 동등 기유발에 매우 효과적이거나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울 수 있다. 어떻게 이러한 authentic material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상호작용 (학생_학생 간 학생_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은 거의 없음 (Pair-work의 본문해석에서도 주로 혼자 활동) 교사-학생간 의사소통은 교사의 발문을 통해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해석이 아니라 보다 상호작용을 요하는 활동을 고안했으면 좋았을 것 같음. 교사가 발문을 하고 학생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의 즉각적으로 자답하여 아쉬움.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한국어말로 진행되었음. 명령어와 경어가 혼용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느낌이 됨. 전반적으로 교사의 설명 속도가 빠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한 지시만이라도 영어로 하면 좋을 것 같음(파운드 설명 시, 한 두 문장만 영어를 사용하였는데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 됨) 명령어면 명령어, 경어면 경어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교사의 설명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경어를 사용해야 하나? (교실에서 instruction 뿐만 아니라 Discipline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할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아 오류 수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교사의 칭찬이 다소 인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주고 오류수정을 이끌어낸다면 훨씬 역동적인 수업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활동의 수준은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주로 수동적인 빈칸 채우기나 연결하기 등의 활동이므로 흥미 유발은 다소의 문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Group/Pair Activity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적절히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조용히 수업에 참여하는 듯 보이니, 실제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내용 파악에 대한 평가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내용과 관련된 True/False 질문지 등을 통해 내용파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읽기 활동이 아닌 말하기 활동과 연계했어도 좋았을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점검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업 후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달성은 했으나, 그 비중이 다소 적은 듯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감자 샐러드 만드는 절차 파악이 다소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음. 단순히 그림 순서 맞추기에서 벗어나 연결어와 관련한 문장 순서 맞추기 활동 등을 고안했다면 좋았을 것 같음.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의 시작과 끝에 반장이 인사를 함으로써 수업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는 느낌이 들. ● 교사가 비디오 클립, PPT 등 여러 자료를 준비함. ● 교사의 목소리가 크고 분명하여 내용 전달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이 인사를 할 때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한다면 수업에서 영어 사용을 하는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전체적으로 수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이 들어 아쉬웠음. ● 100%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지시어나 질문 정도는 영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교사가 발문 시 학생들에게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사 주도의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보다 역동적인 수업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교사 B - 관찰자료 5>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 표)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2) 지시문을 읽고, 절차, 방법, 요지 등을 이해한다.	-분명한 학습목표 제시로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성취하여야 할 내용을 전달하여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시 "이해할수 있다" 또는 "읽을수 있다" 라는 명세적동사보다는 구 체적인동사사용이 확실하 게 전달될듯.
	학습 내용 (기능, 지 식) 및 교재	-학습내용: 1)감자샐러드 만드는 과정 이해하기 2)절차를 나타내는 동사를 이 해 하고 적용하기 -교재: video clip, worksheet	- 본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호기심 과 동기유발을 시킨점은 우수함. -그림을 활용한 동사사용방법은 학생들에게 이해력을 높임	매 수업에 이러한 동기유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요
실행 계획 (수업 실 행 계획)	-도입: 동영상-p96 동사 풀어보기-동 사에 대해 설명-학습목표제시 -전개: 본문 듣기-작과 유인물 에 해석하기-교사 중심의 해석 과 어휘 설명-빈칸 채우기(동사 중심)-오리순서 맞추기 -마무리:동사 관련 문제 풀기/ 차시 동서관련 시험 예시	-수업내용의 topic이 활동을 유도하거나, 그룹별 수업을 유도하 기 좋은 주제인데, 수업이 교사 위주의 설명으로 흘러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보임 -중요한 내용의 반복보다는 단어에 대한 너무 자세한 설명에 치우쳐수업목표와 수업진행 내용이 조금 불일치 하는 모습을 발 견할수 있었음. -학생들이 교사의 강의를 듣고 참여를 진혀 하지 않아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듯함.	학생중심수업방식이나 활 동중심 수업방법으로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지?	

단계	영역	관찰	이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 등)	-실생활과 친숙한 주제이며 동영상을 이용하여 동기를 부여함. -교사 중심 수업으로 학생 참여는 해석하거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주로 다임.	-학습내용과 관련된 동영상 마련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 동기를 부여함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 수업내용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음.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수 있는 수업방법 고안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수업진행
	상호작용(학생_학생 간, 학생_교사 간)	-전체학습 후, Pair work(동사 맞추기, 본문 해석)가 있었지만 개별학습위주로 수업이 진행됨. -학생활동이 수동적으로 보였으며 자기주도적인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음.	-교사중심 강의식 수업으로 1시간 내내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는 수업으로 진행됨	학생활동중심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여 학생들의 수업이해력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지?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 진행이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었음. 본문 내용을 줄줄이 설명하였음. -그림을 통한 단어 설명이 있었음:cut, slice, chop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꾸준히 질문하여 학습에 끌어들이었음.	-일관성 있는 언어사용이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꾸준히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열정적으로 수업함. 쉬운 표현 및 교실영어 사용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노출의 기회를 확대시켜 줄수 있는 영어수업을 위한 자세 필요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는 영어사용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될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
	피드백(오류 수정, 칭찬 등)	-학생들을 지명해 발표를 시킬 때, 생각해보고 대답할 시간이 필요함. -학생들의 개별 발표 후, 오류수정과 칭찬이 부족해 보임.	일제식 수업진행으로 학생들의 이해력을 확인하거나, 수업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 지지 않아 학생들이 수업목표를 달성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없음.	수업 진행시 학생들의 이해력을 점검하면서 수업하는 방법구안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본수업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음식만들기 단원으로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와 부합하고, 수준이 적절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그 흥미도는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학습 활동은 학생들 수준에 적합하고 흥미를 끌 수 있었으나 교사의 일제식 수업으로 수동적으로 수업함으로써 다소 지루한 수업이 된듯함. -어휘를 공부하면 학생들 스스로 모둠활동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보고(sequencing) 순서를 맞추는 것도 좋을듯함.	-왜 모둠 수업을 도입하지 않았나요?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 전반에 걸쳐 진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나 개별이나 모둠학습보다도 전체학습에 다소 많은 시간이 배정된 것 같음.	학생들을 잘 장화하고 있다고 생각됨. 수업의 흐름이나 진행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수동적인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효과적인 수업형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수업을 할기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적당한가?
	학습 점검(평가요소)	수업 초반에 나누어준 인쇄물로 개별, 전체 활동과 학습점검까지 함께 진행함.	수업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력을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 교사들은 수업진행시, 학생들의 행동이나 표정으로 학생들이 이해력을 비교적 확인가능하므로, 그때그때 학습점검이 필요한듯함.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목표한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학습목표 제시부분과 실제 이루어진 수업내용이 조금 동떨어진 느낌.	
	만족스런 점	-동영상을 통한 동기유발과 다양한 그림을 통한 요리에 관련된 동사를 설명한 것은 효과적이었음. -수험생을 위한 단어설명과 문법 설명, 본문 내용 설명이러면 학생들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됨. -교사중심의 일제식 수업이 대부분이었지만 교사의 준비와 또박또박한 말씨가 돋보인 수업이었음.		
	개선 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영어사용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노출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부여하는 수업진행이 될수 있었으면. -일관성있는 언어사용과 경어사용으로 학생들에게 존중감을 느낄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적절한 점검 및 피드백으로 학생들이 수업목표 도달여부 확인과정 필요. -적절한 보상 및 칭찬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및 수업참여를 유도. -학생중심을 활동으로 학생들의 언어 사용이 많은 교실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유도.		
	기타 (수업 교사의 정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현재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교사중심의 일제식 수업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업이었음. 수업 시작 시 교사와 학생간 인사에서 학생들이 인사하는 동안 교사는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어”라는 말로 대응하였는데함께 인사를 주고 받는것이 좋을듯함. 영어로... -도입부에서 대화 내용을 한번만 들려주고 교사가 해석을 해 주는 것 보다 학생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수업 시작 6분경에 배부한 유인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음. -교사가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쉬 없이 수업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학습내용의 반복으로 마지막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어야만 되었는데, 학습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반복의 기준이 세워진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적절한 수업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봄. -읽기 수업이지만 말하기 수업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4개 영역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면 더 좋을듯함.		

<교사 B - 관찰자료 6>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2) 지시문을 읽고, 질차, 방법, 요지 등을 이해한다.	학생들을 잘 강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 지만, 본시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학습목표를 판서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함.	1) 학습목표를 꼭 판서를 해야 만 하나? 2) 설정된 학습목표가 학습자 들에게 적절한가?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학습내용: 1)감자샐러드 만드는 과정 이해하기 2)절차를 나타내는 말 이해 하고 적용하기 -교재: video clip, worksheet	수업에서 도입하는 비디오 클립과 학습 내 용이 적절히 연관된 것 같음.	제시되는 시청각 자료를 학습 내용과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무엇이 효과적일까?
	실행 계획(수업 실행 계획)	-도입: presentation과 practice-전체 학습 형태 -전개: 전체학습 후, 개별학습 형태로 진행 -언어 4기능을 연습할 수 있도록 계획	'읽고 이해하기에' 목표가 맞춰진 수업으 로 전체학습과 개별학습을 배분하여 수업 을 계획한 것 같으나 모둠학습 형태의 수 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함.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가능하 게 하는 자리 배치는?
수업 매력(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중 2학년 남녀 혼합반(대부분 동성끼리 짜을 이루고 있음) -학생들의 이름을 교사가 다 알고 있어 수업 장학이 비교적 수월해 보임 -교실 칠판 옆에 LCD 밑이 설치되어 있어 판서하는 데 공간적 한계가 있음.	학생들의 수업 호응과 집중력에 별 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고 수업에 잘 참여하 고 있음.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각-미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실생활과 친숙한 주제임. -감자샐러드를 만드는 비디오를 "Youtube"에서 찾아 활용함	수업 시작 후, 비디오를 보면서 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이끌어 냄 학습내용과 관련 있는 시청각자료 라서 학생의 집중도가 높아 보임.	동기 유발이란 어떤 의미인가?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전체학습 후, 개별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됨. 학생활동이 원활해 보이지 않음. -교사가 순회하며 개별활동 도움	개별학습 시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함.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 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 진행이 대부분 구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라” 체 의 어법이 두드러짐 -“들으면서 하시면 돼요” 류의 극존 칭과 “ ...해라” 체의 말이 혼용되어 사용됨. -그림을 통한 단어 설명이 적절해 보 임. cut, slice, chop	-간단한 진행어나 설명, 질문은 영 어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수업 시 경어 사용이 어떨까?	TEE의 범위는?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학생들을 지명해 발표를 시킬 때, 생 각해보고 대답할 시간이 필요함. -학생들의 개별 발표 후, 오류수정과 칭찬이 부족해 보임.	소극적인 수업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하기 전 학 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대해 생각하 고 대답을 위해 볼 시간이 필요하 고 생각됨.	교사가 목표한 분시 진도와 발표에 소 극적인 학생들을 고려한 적절한 시간 배분은?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본시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음식만들기 단원으로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와 부합하고, 수준 또한 적절해 보임.	소그룹 학생활동을 통해 활동적인 학생들을 강화하고 소극적인 학생 들을 학습활동에 참여시킬 구체적 인 방안 연구 필요함.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 전반에 걸쳐 진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나 개별이나 모둠학습보다도 전체학습에 다소 많은 시간이 배정된 것 같음.	학생들을 잘 장황하고 있다고 생각됨. 수업의 흐름이나 진행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수동적인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효과적인 수업형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수업을 활기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적당한가?
	학습 점검(평가 요소)	수업 초반에 나누어준 인쇄물로 개별, 전체 활동과 학습점검까지 함께 진행함.	수업시작과 더불어 나누어준 학습지가 평가지 역할까지 하였는데, 이미 학습지로 다루었던 내용을 평가요소로 다시 다룬다면 학습자의 흥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수업은 교과서로하고 마무리부분에서 학습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학생들이 학습지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음.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목표한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교과의 수준을 어떻게 잡고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수동적인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학습목표를 제시할 필요를 느낌.	
	만족스런 점	-그림을 동반한 단어설명과 문법 설명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였다고 생각됨. -비록 수업에 수동적인 학생들이 있었지만 학생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있었음.		
	개선 점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진반이 국어로 이루어졌는데, 간단한 영어로 교실영어와 지시어를 적절히 혼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recipe의 순서는 수업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순서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수 있을 듯...)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주문해 놓고 바로 교사가 정답을 말하고 설명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생각과 대답할 시간을 어느 정도 주었으면 좋겠음. (교사가 질문하는 순간 학생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정답을 추측해 나가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정답을 말하고 나서 script를 듣고 답을 확인하였는데, 차라리 학생들이 하여금 대답하도록 한 후, script를 확인하며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발표한 학생들의 오류수정 및 칭찬이 필요함.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오류수정이 따라야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음.		

		<p>-현재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수업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업이었음.</p> <p>-수업 시작 시 교사와 학생간 인사에서 학생들이 인사는 인사하는 동안 교사는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어”라는 말로 대응하였는데, 고루한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수업의 시종에서 인사는 서로에 대한 예의므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음.(수업 시작 시 인사할 때, 인사 받는 교사가 어색해보임.)</p> <p>-도입부에서 대화 내용을 한번만 들려주고 교사가 해석을 해 주는 것 보다 학생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p> <p>-수업 시작 6분경에 배부한 유인물의 용도가 궁금함. (유인물의 배부하고 2분 지나서 p96의 내용 check 후, 5과 본문을 모니터를 통해 보고, 그 다음 본문을 다시 유인물로 학습했는데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 학습하면 될 내용을 굳이 유인물로 다시 학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궁금함.(수업에서 보면 교과서 본문 내용과 유인물의 내용이 동일한데 왜 그런 handout이 수업에 필요하지...) 적절한 학습효과를 기대하고 유인물의 용도와 사용시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음.</p> <p>-교사가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쉬 없이 수업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학습내용의 반복으로 마지막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어야만 되었는데, 학습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반복의 기준이 세워진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적절한 수업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봄.</p>
<p>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관찰 노트)</p>		

<교사 B - 관찰자료 7>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observe your lesson from so far away. The technology was most effective, and it really felt like I was in the classroom, sitting at the back, as I have done so many times when I have been supervising student teachers or collecting research data on students in the classrooms of experienced teachers. I am very surprised how similar your classroom is to many I have observed in Australia. These similarities have made this exercise very interesting for me, and raise several possibilities for ongoing intercultural exchange of this nature, even beyond the next set of lessons you are going to record and send. I was very pleased to see these similarities, and I thought that your students seemed to be very much like students I have taught myself, and I found much pleasure in watching them interact and learn with you.

Even though I do not speak Korean, I think I was able to follow the development of the lesson from the lesson plan you have kindly provided. However I am sure I will have missed much because of my unfamiliarity with the language, and so please forgive any misunderstandings or mistakes I have made as I watched and reflected on your lesson.

I will begin my report with some questions for clarification, so that I can understand your situation better. Then I will note the strengths I observed in your lesson, and I will use your lesson plan as a framework, to make some other comments at points in the lesson that I believe could be helpful for you to consider and reflect on, as you plan your next lesson for filming. Finally, I will answer the specific questions you asked about the lesson.

Questions:

First of all, the timing and structure of your lesson, at 45 minutes, seems very familiar. I am used to a system of 6 lessons of this length each week at the lower secondary level, and I wonder if that is the same for you? It makes a difference if you are going to be seeing the students again tomorrow, and following up with the teaching points you have covered, or if you will not see them for several days. How much time do you have with the class each week? Is this regularly spaced out, so that the students get to hear, speak and study the Foreign Language each day?

Secondly, I am aware that I was not always able to see what the students were doing while they were looking at the screen - did you ask them to take notes, or were they just watching? They seemed very well behaved and attentive, I couldn't hear them talking at all - but is that because the microphone was with you? Were you as happy as I am with the way the way they behaved during these parts of the lesson?

Lastly, I did not notice you setting the students any specific homework. Did I just miss this because I could not understand? Or do the students have homework set for the whole week, or do you not give home study activities?

Strengths Observed

First of all, I strongly commend you on the amount of **preparation** you have obviously done for this lesson. I hope that you found the lesson enjoyable because it seemed that you had thought it through very carefully, and this meant that you were really able to focus on the actual process of cooking the purple potato salad. What this meant was that the content of the lesson was 'real', it was not just 'language', it was about something real and this meant the students seemed to be really attentive and engaged in the lesson.

It was clear from my observation that you were able to bring a considerable amount of **background cultural knowledge** to the materials you selected for the students, and that this greatly enriched their interaction with the pictures, words and text you had on the Powerpoint presentation. I feel this was a great strength, and it made you look confident,

sound confident, and manage the lesson very well, and I am sure the students appreciated the efforts you had made to provide them with a good lesson. I thought it was a very good lesson. You talking about your time in America would have caught their attention too, and I liked the way you used that as a means of expl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pounds and kilos during the lesson!

I think the **materials** you selected were most **appropriate** to the age of the students, and I think the You Tube video at the beginning would have 'got them in' because it was fast moving, provided a native (American) English speaking introduction that seemed very much part of popular culture. How do you think the students responded to this? I could not hear any comments from them, and I am interested to know whether they could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In any case,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tent of this clip and the ideational content of the lesson (potato salad) was very clear, and it would have provided the students with a very strong form of 'advance organiser' to get them ready for the lesson that followed. Later in the lesson, too, I noted that when you came to the text "Greg Martinez is a farmer..." you had prepared this well to have the voice and the text together.

I also think that your **attention to vocabulary** was very impressive and that you used a range of good techniques to **explain the meaning of words**. Showing students the difference between similar words such as 'cut' and 'slice' was excellent - because you showed them by drawing on the board rather than just telling them. Using the visual, aural and kinaesthetic drawing of cutting and slicing would have made this very clear, I think, and would have helped the students remember the words easily.

This is connected to the next point I will make to compliment you on the strengths of your teaching in this lesson: you **used the blackboard** extremely well. Often I see teachers using the board as a note book only, but you used it to teach with, and this was very impressive. At one point, while the students were watching the screen and listening to the text, you cleaned the blackboard, indicating to the students that there was more to come, and allowing you to be ready for the next part of the lesson. Well done! I could see that you were having trouble moving the board to get a fresh piece of clean board to write on, but I think you turned what could have been a difficulty into an asset, because it demonstrated clearly to the students (and to me) that you were very much in control of the lesson, and that you knew what was coming next! Similarly, when you sent them to a written task, you moved around the room very well, and it was clear that you were focussing on their work, not just 'patrolling'.

Finally, I think that the **sequence of your lesson** was very well designed to assist the students' learning. Near the end of the lesson you had the recipe on the screen, as a cloze exercise for the students to fill in the verbs, as you wanted. By this time, as they worked on this, they had heard the text several times. I think that this amount of repetition would have provided very good reinforcement of new vocabulary, and idiomatic language use. But what I really liked was the way you highlighted for them the time and sequencing connectives in the text - as this is a key language feature of instructional text like recipes. This seemed incidental, but it reinforced that this was something real - a text that could be used, not just a language exercise.

Congratulations- I really enjoyed watching your lesson, and I hope my comments here give you some points to think over and build on to continue to prepare and teach more successful lessons.

Questions for discussion

You say in your discussion questions that you usually have a problem with controlling the students - I did not see that in this lesson - I think you structured the lesson so that they were 'ready' for what was to come, and if you are able to do this in other lessons,

you should not be frightened to test how they work if you put them in pairs or small groups now and then, as that would give them the chance to practice English with each other. For instance, I wrote on your lesson notes that I liked the formal greeting at the start of the lesson - this appeared to have a good long-term meaning for the students, as their behaviour changed quite obviously once you called them together and began the lesson in a formal way. There was a very clear sense of purpose in your movements at the front of the room (though I am not sure what the students were doing while you were setting up the screen at the start - were they watching the first slides on the Powerpoint? The camera was only showing you!)

Then you moved very effectively from the You Tube video to the slide in the Powerpoint that gave the title of the lesson; "How to cook purple potato salad". This is good authentic language text, but as you say, it might be hard for students at this level to understand, although the visuals would give some clues! You could have asked them to think about the video clip and talk about what they saw happening in it. That would help them understand. Then, after only about 30 seconds of this, if you are not confident of control, ask them to think of any words or phrases that they had heard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This might help with your comment that you thought this material was a bit hard for the students.

In this lesson, I think I would have done this once they were focussed on the Powerpoint slide about what sort of text the passage they were reading was (story/recipe), and you started to move into some of the vocabulary they needed,

This could well be a paired activity, as they could help each other, and as the focus is on listening, rather than speaking, the students might not be shy about saying something wrongly. If you do this every now and then, keep the time for them to talk together very short (only about 1 minute) and tell them that you will only take 'the first two or three with hands up' to discuss for the whole class, so that you do not waste too much time, if you are worried about managing to get them back on task. They will talk in Korean, of course, with only one or two bits of English, but that is OK.

You ask which is most important, control or student-centred activity. I think they are both important, but what you need is control over the structure of the lesson, like you had in this case, so that you are confident that YOU know what you want them to do, and they will pick that up from you. Setting a clear (short) time limit for them to speak with a partner, or to hear a partner read something aloud, or repeat what you just said, or repeat phrases from a video or audio recording - and then turn back to you for the next step in the lesson - will give you increasing confidence to be able to do both!

You ask about using English. I am going to suggest that you try to use 'English only' for some small part of each lesson, and that this will have to be very carefully prepared so that you can ask questions in English that seem very natural. You might start by having English only greetings, 'please and thank you' each time you speak and they speak, instruction such as 'please watch the board', 'please take out your books', etc. These are incidental, but I did not hear any of this in the lesson I saw, and you are obviously very capable of doing this. Perhaps just start by repeating the introductory greetings in English, to see how you feel, or do a bit more if you have already done this. I would also suggest that you ask the students to read the English text in every lesson silently to themselves (first) and then aloud to a partner (half of the text each, so that it does not waste time or get boring). The more you can use and have students use English for routines in the classroom, the easier it will be for them to speak in other learning situations.

This might also start to solve your concern about only asking the good students to speak, and not knowing how long to wait for them to respond to a question. They will all be more likely to speak if they are only speaking to a partner, not the whole class. You can then give them a GENERAL praise for good trying, so that they feel they are pleasing you!

2. 수업 2

가. 지도안

Lesson 9. Safe Surfing on the Internet (디딤돌 p179) 2/9차시

Objectives : 1. We are able to read and know about Internet safety rules.

2, We are able to talk about how to use the Internet right.

October. 22nd. 4th period. 2nd grade. 7th class.

Introduction greetings, review(it~to, 가주어 진주어 구문)

Development:

-motivation: survey (What do you think about Internet shopping?/ Internet chatting?)

-presenting today's aims

-preactivity: vocabulary/ listening

-while: read and fill in the chart

-post: check the safety rules in the text and make other safety rules with the group members

Consolidation: wrap up, formative test, closing

나. 자료

<교사 B - 수업자료 4>

<p>Lesson 9.</p> <p>Safe Surfing on the Internet</p>	<p>Revie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주어 it ~ 진주어 to 부정사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thing + 형용사 I have something special for you. 														
<p>Let's have a survey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Where do you use the Internet? Home or PC room For what do you use the Internet? Game, study, shopping, or chatting Do you think Internet chatting is safe or not? Do you think Internet shopping is safe or not? 	<p>Objective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We are able to read and know about Internet safety rules. We are able to talk about how to use the Internet right. 														
<p>Word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at 잡담하다. 이야기하다 These days 오늘날, 요즘 Important 중요한 Through ~을 통하여 However 그러나 Surf 인터넷상의 정보를 훑다 Safety 안전 Personal 개인적인 Be sure of~ ~에 확신하다 	<p>Word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mewhere 어딘가에 Online 통신상의 In person 본인이 직접, 몸소 Disgusting 정말 싫은, 혐오스러운 Give out 알려주다, 제공하다 Right away 당장, 즉시 Download 내려 받다 Agree with~ ~에 동의하다 														
<p>Workshe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se days the Internet is becoming less and less important in our lives. (T/F) more and more What can we do through the Internet? -> We can <u>Send letters, find information, or buy things through the Internet</u>. <Safe <u>Ways to Surf</u> the Internet> 	<table border="1"> <thead> <tr> <th>Questions</th> <th>Safety Rules</th> </tr> </thead> <tbody> <tr> <td>1. Is it OK to give 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td> <td>1</td> </tr> <tr> <td>2. If anybody says they are your age, can you be sure of that?</td> <td>3</td> </tr> <tr> <td>3. Is it OK to go somewhere and meet an online friend in person?</td> <td>2</td> </tr> <tr> <td>4. If anybody says anything bad to you, do you send the same kind of message back?</td> <td>5</td> </tr> <tr> <td>5. If you see or read anything disgusting, do you stop right away?</td> <td>5</td> </tr> <tr> <td></td> <td>4</td> </tr> </tbody> </table>	Questions	Safety Rules	1. Is it OK to give 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1	2. If anybody says they are your age, can you be sure of that?	3	3. Is it OK to go somewhere and meet an online friend in person?	2	4. If anybody says anything bad to you, do you send the same kind of message back?	5	5. If you see or read anything disgusting, do you stop right away?	5		4
Questions	Safety Rules														
1. Is it OK to give 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1														
2. If anybody says they are your age, can you be sure of that?	3														
3. Is it OK to go somewhere and meet an online friend in person?	2														
4. If anybody says anything bad to you, do you send the same kind of message back?	5														
5. If you see or read anything disgusting, do you stop right away?	5														
	4														

<교사 B - 수업자료 6>

Lesson 9. Safe Surfing on the Internet

grade ____ class ____ number ____ name _____

1. Check the true or false! If it is false, correct it!

These days the Internet is becoming less and less important in our lives. (T/F)

2. Answer the question below!

What can we do through the Internet?

-> We can _____.

3. 빈 부분에 해석을 쓰고 179p의 questions과 180p의 rules를 서로 관련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세요.

Also, Make the title of this chart! (with the words in the text 179p)

<Safe _____ the Internet>

Questions(179p)	Safety Rules(180p)
1. Is it OK to give 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해석)	1. Be careful when you give 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It may not be safe to do so. (해석)
2. If anybody says they are your age, can you be sure of that?	2. Be careful when you meet an online friend somewhere in the real world. (해석)
3. Is it OK to go somewhere and meet an online friend in person?	3. Don't believe everyone you meet on the Internet. They may be lying. (해석)
4. If anybody says anything bad to you, do you send the same kind of message back?	4. Be careful when you download something. It may be dangerous to your computer. (해석)
5. If you see or read anything disgusting, do you stop right away?	5. If anybody says anything disgusting, stop talking right away and never talk to them again. (해석)

4. What's the meaning of this?

" It is alway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다. 수업녹취

교사: Hello, everyone. How are you doing?

학생들: fine.... so-so....

교사: Who is missing? who?

학생들:

교사: Okay, have a seat, please. Are you tired?

학생들:Yes,,

교사:Me, too. I'm tired, too. Because I had to prepare for this class. So I hope you will do very well. please, do your best.

Okay,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lesson 9. before we go into the class,,,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last class? do you remember?

first one, 가주어 it. so ...미진, could you read and translate the first sentence? 첫 번째거 읽고 해석좀 해주실래요?

학생들:.....(익고 해석)-안들림

교사:자, 뒤에 to부정사가 진짜 주어여서 요길 먼저 해석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는 것은 쉽다. 여기서는 '이 책을 읽는 것은 쉽다' it은 해석해준다고 했나요?

학생들:아니요.

교사:아니요. 앤 해주지 않고요, 뒤에 진짜 주어만 해주는 거예요. 자, Next one, What we've learned? -thing +형용사. 음...헤빈, 권혜빈!

이것좀 읽고 해석해볼래?... 모르겠어? ...자 여기가 중요한 건데...something special...

자 거기 친구가 도와줘봐봐. 빨랑

학생들:(대답)

교사:네.너를 위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여기 thing으로 끝나는 거 있자나. something, anything,, every thing, nothing 이런것들은 뒤에서 꾸밈을 받아요. 그래서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요.

사탕 빠시는 분 내려놓으시구요. 자. Today our topic is Internet. so I prepared for the some survey. survey는요. 약간의 설문조사 같은 거거든요. 너희가 잘 안보이겠지만 ..여기 큰 제목들은. 여기 1,2,3,4이 있거든요. 너희가..아까전에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스티커를 좀 붙이라고 했었는데 너희반 아이들이. 여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question은요. where do you use the Internet? 자. 무슨 뜻이에요? 인터넷을 어디서 사용하느냐. 선생님이 생각에서는 home이랑 pc방밖에 생각이 안나더라도...home. pc room..

your class friends ...mm...most of friends use the internet at home. 자. 빨간색이 어디에 많이 있어?

학생들: HOME

교사: home에 많이 있죠..선생님은 피씨방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핑장이 적네...is this true?

학생들:yes,,,true

교사:응...사실이에요? 정말? 여자애들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진실을 파악할 수 있어. 두 번째 거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학생들:(교사와 같이)For what do you use the internet?

교사:For what do you use the internet?자. 무슨 뜻이에요?for what?하면은..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do you use the internet?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나요? 선생님은 옵션을 네가지를 달아놨죠. game, study, shopping, chatting,. 자, 볼까요? 모가 켈 많이 나온것 같니?

학생들: 게임!

교사:게임! 자, 스티커에 몇 개 있을까?

학생들: 세 개

교사:How many stickers? only three! only three students use the computer for study? oh, too bad.너네 정말 이렇게 밖에 안 해? 다 게임이야?

학생들:네.

교사:무슨 게임을 그렇게 많이해?

학생들:---대답...

교사:아무거나 딱치는대로? 그다음에 채팅과 쇼핑도 조금씩 있거든요.채팅은 모하니? 무슨 프로그램?

학생들:네이트온.

교사:네이트온?선생님도 네이트온 하는데, 우리 나중에 친구 먹을까?

학생들:(웃음)

교사:자, 채팅이 있고, 쇼핑이 있고, 게임이 있었는데. 게임도...게임하면서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래? 온라인에서 접속해가지고?

학생들:(네)

교사:그러면은 싸움안나? 선생님, 아까 다른반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 pk?알아? 니네? 현실 pk? 온라인에서 만난친구랑 만나가지고 ,,너 주소대,,만나가지고 싸운대매...오늘 그런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울거야...그런짓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 3번이 밑에 있는데,,,3번질문 저기 보고 읽어봐.

학생들: Do you think Internet chatting is safe or not?

교사: safe or not? 뜻 알고 있죠?

학생들: (대답)

교사: 안전하나. 안전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자. How many students think Internet chatting is not safe? You cannot count. but which one is more? 어느 쪽이 많은 거 같아요? safe or not safe?

학생들: Not safe

교사: 너네 하면서 많이 느끼니? 왜? 어떤 경우에서 많이 느끼니? 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채팅이요.

학생들:(대답)얼굴을 모르니깐...(잘 안 들린다)

교사:어..얼굴을 모르니깐. 서로 안 좋은 얘기만 해?

학생들:(사탕주세요)

교사:어휴.. 사탕달라고? 이수업시간 끝나고 잘한사람만 주는 거예요.

왜? 애들아, 채팅할 때 왜 그렇다고 느꼈어? 혹시 다른사람들이 내꺼 비밀 번호를 안다거나 하는 위협을 느껴왔니? 피씨방같은데서 채팅하면은 비밀번호같은거 조심해야한대요. 바로 다음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비밀번호랑 이런걸 다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아니?

학생들:(대답)

교사:자 마지막걸로 넘어가볼게요. 자. 마지막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학생들: Do you think Internet shopping is safe or not?

교사: 자. 이번에는 Internet shopping 이에요. 자. 어느쪽이 많은 것 같애?

학생들: Not safe!

교사: 야. 아까전에는 인터넷 채팅인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not safe하다고 답한 사람이 많으네. 왜 그렇게 생각해?

학생들: (손든다)

교사: 아까 했으니까. 옆에 영배.

영배: 사기 당할수 있어요.

교사: 사기? 아. 경험당해본적 있는 사람 있어?

영배: (대답. 안들림)

교사: 아. 정품인줄 알았는데, 짜가였어? 또 다른 경험있는 사람 있어요? 지용이.

지용: (대답, 안 들림)

교사: 아. 다른데서 더 싸게 팔어? 하하. 그건 니가 더 열심히 찾아보면 되는 거아냐. z 또있어요?

학생들: (대답, 안들림)

교사: 입금했는데, 안 오고 잠수 타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거 같애. 인터넷 쇼핑은 사실은 대개 위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런걸 한거 보니 오늘 모에 대해 배울 것 같애?

학생들: 인터넷

교사: 인터넷. 인터넷을 쓸때?

학생들: 안전한가.

교사: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봅시다. 네. 그래서 today's object! we're going to read today's object loudly together. number one.

학생들, 교사 함께: we are able to read know about internet safety rules.

교사: 인터넷 안전규칙에 대해서 읽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번째;

학생들, 교사 함께: we are able to talk about how to use the Internet right!

교사: 자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before we read this article, let's check the words. 자.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네가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텐데, 아는 단어는 큰소리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chat? 모가 있죠? 무슨 뜻이죠?

학생들: (채팅하다...)

교사: 채팅하다, 잡담하다. 이야기하다. second. these days..

학생들: (요즈음...)

교사: 요즈음, 오늘날에는. 세 번째, important. (학생들 대답) 중요한, 네 번째, through ..모모를 통하여.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나올거냐면요. through the internet...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우리가 모를 하는지가 얘기가 나올거거든요. through the internet 이렇게 나와요. 자. however..however. 이거 못들어본 사람 많을 텐데. 우리가 but,,, B.U.T..but 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 있지?그러나 자자. 사실 글, 문어체에서는 그러나를 but 대신에 however라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다음...surf ...무슨뜻이죠? web을 web surf 한다는 게 모죠? 검색한다.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를 훑어본다. 검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safety.(학생들, 안전한) 안전한이라고 답했는데요. ty를 빼고 safe까지만 하면, 안전한 이라는 건데요. safety 이게 붙음으로써 명사가 됐어. 그래서 안전.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personal. 개인의, 개인적인. 그 다음. be sure of. 처음 들어봐요? sure, I'm sure..할 때. sure.. 모가 있을까? 확실한다는 뜻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자. chat. these days, important, through, however, surf, safety, be sure

of.(학생들 하나씩 따라한다) 그리고 좀더 있어. somewhere. 뜻이몰까요? 어딘가에.어딘가에. the next. online 온라인상에서. 모니 이거? 인터넷 상에서. 통신상에서. 그 다음, in person. 자 위에 말이랑 반대말 이거든. online이랑...(offline) offline에서라기 보다는. 애가 person 대 person 사람대 사람으로 직접 만나는 거야. 그래서 뜻은 모나면, 본인이 직접, 몸소 란 뜻이야. disgusting 이거 저번 시간에 나왔나? 뜻이 모죠? 문가 역겨운, 매우 불쾌한, 몹시 싫은. 그다음거.give out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게 give out일수 있어. 나눠준다. 알려준다. 다음. right away. right now랑 같아요. 다음 download 너네 많이 하죠? 이거 모지? 내려받다. 다음. agree with 이거 모죠? 동의하다. I agree with you. 나 니말에 동의한다 라고 할때 I agree with you 라고 말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somewhere online in person disgusting give out, right away, download, agree with 자 기억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시고요.썹이따 할 때 또 모르는 거 나오면 질문하시면서 하시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번에 우리가 할 거는 모나면요. 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바람가르는 소리가? 자. I'm going to pass out the handout...아.

학생들:(이거 방송 나가요?)

교사: 방송까진 안 나가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수업시간에 물어보면 ...

학생:왜찍어요?

교사:선생님 수업잘하나 보려고요. 너희들 수업 잘하나 보려고요.

학생:감시하는 거예요?

교사:감시하는 거 아냐. 선생님이 볼거예요.

자. please open your book to 179-180. 자 책은 여기보시고요. 우리 평소에 하는 것처럼 worksheet을 채울거예요. worksheet에 보면은 1,2번은 질문에 답을 하는게 있고요. 그다음 3번 보면은 이걸 내가 너희에게 빈칸을 채우라고 하려다가 이렇게 question을 넣어놨어요. 이밑에다 해석을 좀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해석을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면서 왼쪽에 나온거랑 오른쪽에 나온거랑 연결을 해보세요. 줄로. 쉽지? 자. 무슨 소리냐면, 관련있는 주제가 있어. 예를 들어 personal information에 관한 거면, 오른쪽에도 personal information에 관한 규칙이 나와야해. 애들아, 설명 듣고 하자. 자 밑에 3번 먼저 설명해줄게. 3번 왼쪽에 나온 건 question이예요. 180쪽에 나온 거는 rule 규칙이예요. 그런데 서로 1번 1번으로 연결되지 않아.그러니까 1번이 몇 번으로 관련되는지. 2번이 몇 번으로 관련되는지.밑에 해석을 친구들이랑 해석을 같이 얘기해면서 써보시구, 연결하십 되요. 이해가요? 이해가지?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음 물어보고요. 전체 4번까지 답을 다 하시는데요. 대략 ten minute 줄게요. I'm going to give you ten minutes. 자 한번 해보세요. 책 훑어보면 1번 2번도 다 답이 나와요. 위에서부터 쪽 훑어보면서 해보세요.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질문에 답을 해준다.잡담도 있어서 간략히...)

교사: 질문있으시면 하시구요. (학생: 이거 맞아요? ...) 여기 보면,,나와...it is important to know ...여기 이 부분...

학생들:이거 무슨 뜻이예요? correct it. 틀린 부분 있으면 고쳐라. 책에 모라고 나왔지?

교사:야. 1번 문제는 켈 첫줄에 나오자요. 책 첫줄에...2번 문제는 두 번째 문장에 나오고. 책에 나오는 거 같고 찾으시면 되는데...3번에 chart에 제목을 쓰는 부분은요..however 뒷부분에 나오는데, 힌트가 있어요. 3번에 해석을 다 쓰기가 오래 걸린다면 ,해석을 얘기만 서로 해보시고, 맞는 거 줄로 연결하는 것만 먼저 해보세요.

애들아, 모둠별로 앉아있으니까 서로 모르는 거 도와주면서 해. 그리고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석쓰고 왼쪽거랑 오른쪽 거랑 줄로 연결해. 내용을 알아야 연결을 하지.

(조별로 돌아다니면서 또 지시를 해준다)(질문에 답을 해준다)

제목은 safe surfing on the internet을 쓰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온게 however 뒷부분에 나와. 잘 하고 있어? 질문이 별로 없네. 2번은 여기에 나와. through the internet 우리가 모할 수 있는지...

Hey student! Be quiet! Focus on your work! 집중하시고요! are you finished? I'm going to give you three more minutes! please hurry up!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줌)

Is it ok to~진주어, 가주어 구문이죠...~하는 것은 오케이 하나?...

학생: 선생님, 미안한 것보다 안전한 것이 더 낫다.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사: sorry가 미안하단 뜻 말고 후회한다는 뜻도 있어.

학생들:아~

교사:ok, student,,look at the screen. I know some of the students don't finish the worksheet. but let's do it together. 같이 봅시다. 그리고 못 채워온 거는 숙제로 채워오는 걸로 합시다. 자 number one. these days (be quiet) the internet is becoming less and less important in our lives. 자 true or false?

학생들:false

교사:어. where is wrong part?

학생들:(대답)more and more.../less and less

교사:less and less 는 more and more랑 뜻이 반대말이에요. more and more는 뜻이 모예요? 몰까? 점점 더야. 그런데 선생님이 저기 써는 less and less는 점점 덜.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다. becoming ~가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question으로 넘어갈게요. 자 what can we do through the internet?

학생들:(대답)

교사: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학생들, 교사 같이: we can send letters, find information, or buy things through the internet.

교사:자, 아까 두 번째 문장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본문에...누가 해석좀 도와줄래요?우인이 해볼래? 해봐 봐.

우인: (해석)

교사:물건들을 살수도 있다.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물 할 수 있는지가 본문에 나왔어요. 자. 인터넷은 이렇게 대개 유용해요. Internet is very useful, but it can be very dangerous, so when we use the internet, please be careful. 이해했어? 인터넷은 이렇게 유용한 면이 많자나요. 우리 useful 단어 알죠? 유용한 면이 많지만, 그걸 잘 활용해야만. 그 유의한 면을 다 볼 수 있어요.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차트를 만든게. question이랑 rule. 이렇게 나왔는데...그 제목을 한번 쓸때 여기 모라고 쓰셨어요?

학생들:safe ways to surf the internet

교사:safe ways to surf the internet, 이것도 마지막 한 중간 세네문장째 나와요. 인터넷을 surf하는 방법. 인터넷을 검색하는 안전한 방법. 인터넷을 돌아다녀볼때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요.

선생님이 이렇게 question을 써놨어요.자 첫 번째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누가 한번 읽어보까?민주야. 민주가 한번 읽어볼래?

민주:(읽고 해석)

교사:인터넷에서 너의 개인정보를 give out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오케이 하니?라고 했어요. 어떤거랑 연결하셨어요? 몇 번째랑?

학생들:1번.

교사:첫번째 규칙이랑 연결하셨죠...다음장에 보시면 규칙들이 짜악 나왔는데. 우선 연결부터 쪽 해보자. 두 번째거. 이번. 애들아, 조용해봐. 누가한번 읽고 해석해볼까? 하은이?(학생: 사탕안취요?)몰라. 할꺼야 말꺼야? (학생:안해요)그럼 하지마.

자 이번 봅시다. 안할거니? 자. 2번, if anybody says they are your age, 여기서 age 물어보는 사람 많더라? age 모죠? (학생들: 나이) 나이에요. 나이. 너의 나이라면. 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they are your age. 너희 나이라고 말한다면. 나 열다섯 살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확신할 수 있어요?(학생들: 없어요) 없어요~자, 어떤 거랑 연결하셨어요? (학생들: 3번) 3번에 있는 규칙이랑 연결하시면 되죠. Don't believe everyone you meet on the internet. 인터넷 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믿지 말아라. they may be lying 너희 배운거지? lying 모예요? (거짓말) 그들은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윤지영, 3번 읽고 해석해볼래?(학생 : 읽고 해석) 온라인상에서의 친구를 어딘가로 가서 만나는게. in person 직접, 몸소 직접 만나는 것은 오케이~? 괜찮니? 몇 번의 규칙이랑 연결하셨어요?(학생들: 2번) 2번에 있는 규칙이랑 연결했어요. 2번에 모라고 나왔는데? be careful when you meet an online friend somewhere 조심해라 너가 온라인 친구를 만날 때 in the real world. 현실세계에서 온라인 친구를 만나려고 할때 조심해라.

애들아, 그룹별로 앉아있으니까 떠드네. 자는 놈들 잠깐 일어나봐. 자는 놈들 깨워주고. 애들아. 내가 마이크 앞에서 소리지르면 안 되는데. 조용히해.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 너희 떠드는 거...어디까지 했지?(학생들: 4번할 차례예요.)4번 봅시다. 규현아, 뒤로 나가. 그리고 아까 모 던진놈 너도 경고야.

그다음 4번 if anybody says anything bad to you, do you send the same kind of message back?자 anything bad 우리저번시간에 배운건데.해석 어떻게 할까요? anything bad 나쁜 무언가를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 너한테. 욕설 같은거를 했어. 그러면 do you send the same kind of message back? 개한테 되돌려서 똑같은 말을 할거니? 그렇게 할거야? 애랑 연결되는 safety rule 있어요? 애는 5번으로 연결하심 되요. 5번까지 마저읽고 5번 읽어줄게..자. 5번 한번 봐봐. if you see or read anything disgusting, 애들아, anything disgusting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학생들:대답)어 문가 기분나쁜 문가를. 혐오스런 문가를 보거나 읽었어. 누가..채팅하는데. 혹은 게임하다가. 대개 야한 사진을 딱. 정말 토나오는 사진을 보냈다가, 심한 욕설을 보냈다가. 하면은 바로 중지를 할거니? 이것도 어떤 safety rule이랑 연결할까요?(학생들:다섯번째.) 4번도 다섯 번째로 연결하시고요. 5번도 다섯 번째로 연결하세요.둘다 5로 연결하심 되요.5번에 safety rule을 읽어볼게요. if anybody says anything disgusting, 누군가가 역겨운 문가를 말하게 된다면? stop talking right away.. 모야? (학생들 : 말하는 것을 멈춰라)당장 말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never talk to them again.다시는 그들과 얘기하지 말아라.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4번은 연결되는 거 없는데. 4번하고 1번 아까 체크 안 했지? 자. 4번부터 볼게. 4번 한번 봐봐. 규현아. 일어나. 형택아. 4번한번 읽고 해볼래?

형택: (읽는다.)

교사:무슨 내용이예요?...문가를 다운로드 받을 때 조심해라. 뒤에는?

학생 :대답.

교사:It may be (학생대답) 너의 컴퓨터에 위험할지도 모른다. may는요. 선생님이 아까 단어설명할 때 안 했네. ~일지도 모른다. 예요. 그래서 위험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야야.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그룹별로 안 앉혀야겠구나. 자꾸 떠들래? 집중해야지!

첫 번째 썬부터 안전한거 다시 봅시다. 첫 번째 썬 .다숨아 해볼래?

다숨 : 읽고 해석

교사:해석했어? (학생:네)자 너의 개인정보를 give out 줄 때 조심해라. 그럼 뒤에 나온거 .It may not be safe..그럼 무슨 뜻일까요?안전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은. 자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보셨어요. 아. 마지막 썬. 4번 It is alway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손 번쩍 들어봐. 사탕하나 예약.

학생:;/...(대답)

교사:잘했어요. 들었니? (학생들:아니요) 여기서 sorry 가 너네가 I am sorry 할때 sorry 만 생각하면 답을 맞출수가 없어. 그 때 sorry 는 미안합니다. 자나. 근데 다른 뜻 하나 더 있는데, 후회하다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나면요. 후회하는 것보다 자. 모하는게. 안전하게. 안전한 것이 항상 더 좋다. 애는 가짜주어. 알겠니?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더 낫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뒤에 여기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안전 규칙을 더 써보는 거. 안전 규칙을 오늘 배운 거 말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지켜야할 안전규칙들을 더 한번 말해보고할려고 했는데. 생각하는 것 있으면 말해보자. 선생님이 그룹별로 할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보고 넘어가자.

학생:수영장

교사:아니. 인터넷 사용할 때.

학생: 너무 오래하지 않는다.

학생:악성댓글.

교사: 우리 지켜야될거 많자니. 괜히 누구 사람 죽었는데, 지못미 그러지 말고. 소중한 착한 댓글 달아주면 좋겠죠? 너희 글에도 누가 소중한 착한 댓글 달아주면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댓글 달을 때도 그렇게 해주는 센스, 지킬 수 있니? 네티켓을 지킬 수 있냐고요~네티켓 알아?인터넷 할 때 네티랑 에티켓할 때 에티켓이랑 줄여서 인터넷에서 지켜야할예정.. 네티켓이 있자나요. 상식 상식!

자. 마지막. 여기 퀴즈까지만 하고 정리를 합시다. 세문젠데, 전부다 true or false 예요. 지금 짝이랑 한번 해보세요. one minute! 다 적으셨어요?

1번에 누가 답할래?

(학생:대답)

1번에 모라고 답했니?전화가? false라고 답했어요. 조금전에 한 그 부분이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주는 것은 오케이 하다? 아니예요. false예요.

두 번째 썬. 하은이? false. 다같이 읽어보자. you can meet an online friend somewhere in the real world 무슨 소리야? 현실세계에서 너의 온라인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긴 있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false예요.

세 번째 썬까지만 하면 끝나요.. 다같이 읽어보자. it can be dangerous to download something from the internet 자 무슨 내용이야?

(학생들 대답)인터넷상에서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데요. 잠깐요. 숙제가 있는데요. 오늘 준거 다 채워갖고 오세요. 채워갖고 옵니다!!!! 그럼 bye-bye!

라. 자기 관찰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1. We are able to read and know about Internet safety rules. 2. We are able to talk about how to use the Internet right.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읽기 지도(교과서 본문)		
	수업 계획 (수업 실행 계획)	survey를 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교과서 본문 두페이지를 큰 정보 중심으로 정리하 는 worksheet 조별로 작성해보기	교사중심이 아니라 학생중심으로 worksheet를 채우면서 읽기수업을 공 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러나 두 페이지를 다 하는 것이 양이 너무 많지 않나 계속 걱정이 되었는데, 역시 시간 이 모자랐다.	본문을 항상 어디에서 끊어서 수업을 해야하는지가 고민, 큰 맥락을 잡기에 는 한시간에 다 하는게 좋는데, 자세한 이해가 불가능.
	수업 맥락(수업이 이 루어질 환경: 학생, 교 실, 기자제 등)	2-7반, 남녀합반, 비교적 조용한 반	평상시 조별로 앉아서 수업을 하지는 않는데, (초기에 했을 때에도 4명이었 는데) 여기서 5-6명을 앉혀봤더니 떠드 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음.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survey 부분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특히 높음	잘하면 사탕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였으나, 뒤로 가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떨어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끄는 방법?
	상호작용 (학생_학생 간 학생_교사간)	조별로 상의해서 worksheet를 작성하도록 해서 학생간 의사소통은 높고,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이해를 도와주었음.	교사가 조별로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부분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조원들의 더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별로 더 협력하게 만드는 방법?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의 언어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음. 질문을 영어로 하고, 바로 한국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교사의 예시가 너무 개인적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실pk 등 그다지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은 예시를 들. 1차촬영에서처럼, 한국말도 많고, 반말도 너무 많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칭찬에 인색함. 대담을 못하는 학생에게는 친구가 도와주라고 함.	1차에서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칭찬이 너무 인색하다. worksheet의 문제를 어려워하자, 답이 어디에 나왔다는 너무 명시적인 hint를 줌.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worksheet 과업은 읽기 수업에 적합, survey는 흥미도에 좋음.	worksheet 과업은 적절했는지 모르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더욱 어려워한 듯함.	읽기 worksheet를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할 듯함.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의 매 단계마다 적절하게 연결되는 것 같음. 그리고 학생들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간중간 떠드는 학생들과 사탕 달라는 학생들을 적절하게 통제함, 그러나 역시 조별활동에서 떠드는 학생들이 많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봄.	조별활동 등의 보상이 1학기나 어느 정도 긴시간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탕과 같은 일회적인 보상도 효과적인가요?(사탕 달라고 수업중 얘기하는 학생들 때문에 당황했다.)
	학습 점검(평가 요소)	중간중간 질문 활용과, 마무리 형성평가까지 포함.	그래도 중간중간 학생들을 호명하며 질문,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키게 됨.	무엇을 학생들을 끌고 가는 방법?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인터넷안전규칙을 읽고 알 수 있었다고 본다.	다른 하나의 목표인 다른 안전규칙에 대해 얘기해보는 것은 못했다.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듯도 하다.	중학생들에게는 하나의 학습목표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함
	만족스런 점	survey를 활용한점(동기부여 측면), 전체적인 수업계획은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분량도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데, 분량을 잘 생각해서 짧은 부분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했음. 조별로 앉아서 도와주라고 함.	교사 중심인 전체 수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 학생중심에서 읽기 수업을 한 것이 좋았다. 학생들의 예시와 의견들을 수업에 많이 활용함.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 한 성찰 노트)	수업 준비한 건 분량조절만 빼면, 그러저럭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역시 실전은 조금 달랐다. 자는 학생들도 있고, 조별로 앉혀놓으니 떠드는 학생도 있었다. 가장 큰 반성은 수업 내내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새학기 새학년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진 규칙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평상시에도 이 정도 worksheet으로 수업을 하는데 (조별로 앉힌것만 빼면) 학생들이 카메라를 의식하며 다르게 행동했다. 그리고 분량조절이 안 된것이 가장 컸다. 잘 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마치고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 수업시간에 세세한 건 다시 정리를 해주어야만 했다. 분량의 문제 외에도, 학생들이 완벽히 스스로 리딩을 공부하고, 조별학습한 후 테스트를 보게 하는 게 원하는 바인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역시 동기부여와 내 수업의 틀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마.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교사 B - 관찰자료 8>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1. We are able to read and know about Internet safety rules. 2. We are able to talk about how to use the Internet right.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읽기 지도(교과서 본문)		
		survey를 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교과서 본문 두페이지를 큰 정보 중심으로 정리하 는 worksheet 조별로 작성해보기	교사중심이 아니라 학생중심으로 worksheet를 채우면서 읽기수업을 공 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러나 두 페이지를 다 하는 것이 양이 너무 많지 않나 계속 걱정이 되었는데, 역시 시간 이 모자랐다.	본문을 항상 어디에서 끊어서 수업을 해야하는지가 고민, 큰 맥락을 잡기에 는 한시간에 다 하는게 좋은데, 자세한 이해가 불가능.
	수업 맥락(수업이 이 루어질 환경: 학생, 교 실, 기자재 등)	2-7반, 남녀합반, 비교적 조용한 반	평상시 조별로 앉아서 수업을 하지는 않는데, (초기에 했을 때에도 4명이었 는데) 여기서 5-6명을 앉혀줬더니 떠드 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음.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survey 부분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특히 높음	잘하면 사랑을 준다는 말에 후해서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였으나, 뒤로 가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떨어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끄는 방법?
	상호작용(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조별로 상의해서 worksheet를 작성하도록 해서 학생간 의사소통은 높고,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이해를 도와주었음.	교사가 조별로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부분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조원들의 더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별로 더 협력하게 만드는 방법?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의 언어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음. 질문을 영어로 하고, 바로 한국어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교사의 예시가 너무 개인적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실pk 등 그다지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은 예시를 들. 1차촬영에서처럼, 한국어말도 많고, 반말도 너무 많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칭찬에 인색함. 대답을 못하는 학생에게는 친구가 도와주라고 함.	1차에서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칭찬이 너무 인색하다. worksheet의 문제를 어려워하자, 답이 어디에 나왔다는 너무 명시적인 hint를 줌.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worksheet 과업은 읽기 수업에 적합, survey는 흥미도에 좋음.	worksheet 과업은 적절했는지 모르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더욱 어려워한 듯함.	읽기 worksheet를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건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할 듯함.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의 매 단계마다 적절하게 연결되는 것 같음. 그리고 학생들을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중간중간 떠드는 학생들과 시탕 달리는 학생들을 적절하게 통제함, 그러나 역시 조별활동에서는 떠드는 학생들이 많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봄.	조별활동 등의 보상이 1학기나 어느정도 긴시간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탕과 같은 일회적인 보상도 효과적이거나요?(사탕달라고 수업중 얘기하는 학생들 때문에 당황했다.)
	학습 점검(평가 요소)	중간중간 질문 활용과, 마무리 형성 평가까지 포함.	그래도 중간중간 학생들을 호명하며 질문,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키게 됨.	못하는 학생들을 끌고 가는 방법?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인터넷안전규칙을 읽고 알 수 있었다고 본다. 인터뷰 질문을 읽고 알 수 있었다고 본다. 많은 것이 짚은 듯도 하다.	다른 하나의 목표인 다른 안전규칙에 대해 얘기해보는 것은 못했다. 목표를 너무 많이 짚은 듯도 하다.	중학생들에게는 하나의 학습목표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함
	만족스런 점	survey를 활용한점(동기부여 측면), 전체적인 수업계획은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분량도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데, 분량을 잘 생각해서 짧은 부분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했을 조 별로 없어서 도와주라고 함.	교사 중심인 전체 수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생중심에서 읽기 수업을 한 것이 좋았 다. 학생들의 예시와 의견들을 수업에 많 이 활용함.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 한 성찰 노트)	수업 준비한 건 분량조절만 빼면, 그러저러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역시 실전은 조금 달랐다. 자는 학생들도 있고, 조별로 앉혀놓으니 떠드는 학생도 있었다. 가장 큰 반성은 수업 내내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새학기 새학년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진 규칙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평상시에도 이 정도 worksheet으로 수업을 하는데 (조별로 앉힌것만 빼면) 학생들이 카메라를 의식하며 다르게 행동했다. 그리고 분량조절이 안 된것이 가장 컸다. 잘 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마치고 어려웠다고 얘기해서, 그 다음 수업시간에 세세한 건 다시 정리를 해줘야만 했다. 분량의 문제 외에도, 학생들이 완벽히 스스로 리딩을 공부하고, 조별학습한 후 테스트를 보게 하는 게 원하는 바인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역시 동기부여와 내 수업의 룰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교사 B - 관찰자료 9>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목표와 세부적 목표)	인터넷 안전 규칙과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읽기 자료 학습	-너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구체 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지 파악 이 어려움 -학습의 전체적 흐름을 보여줄수 있는 목표 제시가 필요함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중2영어 9과 (디딤돌) -인터넷 사용 환경 시 올바른 사용법에 관 한 읽기 자료(교과서 본문)		-사용 교재와 학생 수준의 적절성은 어 는 정도인가요?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인터넷 사용 장소 조사를 통하여 학습활 동에 동기부여 -학생 중심의 읽기활동 전개 -학습할 새로운 단어 17개 제시	-모둠활동으로 학생중심의 읽기 수업	-pre reading 단계인지 while reading 단계인지 불분명함
수업 맥락(수업이 이 루어질 환경: 학생, 교 실, 기자재 등)	- 중2학년, 남녀합반 - 컴퓨터, 빔 프로젝트, 학습지		- 대형 스크린은 활용도가 높아 보임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찰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장난치거나 없드려 있는 학생이 눈에 띄어 -관찰 수업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게임이나 퀴즈로 학습참여도를 높여봄이 좋을 듯함. -동기부여가 적은 학생에 대한 탐구 필요 -모둠활동에 익숙치않아 산만하거나 무관심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 필요함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협조를 부탁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 수준에 비해 수용하기에 좀 어려운 과제 수행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식 자리 배치는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학습자들이 서로 장난 치는 등 수업분위기를 산만하게 하고 있음 -모듬활동시 교사는 최선을 다하여 개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도움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별 공동의 책임을 지게하고 모듬별 도우미를 정하여 전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듬별 보상을 채택해 보면 좋을 듯함. -교사 주도의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참여를 높여 수업의 긴장감을 주면 좋겠음 -적극적인 학습자들은 손을 들어 도움을 청하고 있으나 전혀 관심이없어 장난치거나 엇드린 소극적인 학습자들에게 수업 부담이 여전히 크게 느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 -학생이 많이 발표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과정을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어휘 설명 시 단조로운 ppt에 여러 개의 단어가 쓰여 있음 -영어로 된 설명을 읽어 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영어 사용 시도는 바람직함 -단어 학습 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활동 제공 -좀 더 친친히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해 가며 여유를 기졌으면 함 -본 시 학생과업 내용을 단 한 번에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영어 사용 시 다시 한 번 유리말로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피드백(오류 수정, 칭찬 등)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을 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음	-학생들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하고 모둠이나 개인에게 답을 유도하고 분명하게 피드백하는 연습이 필요함.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어휘 학습 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봄이 좋을 듯 함. (ICT 활용 방안 연구) -읽기 부분을 전체로 학생들에게 과업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담을 가질 듯함 -어느 정도 Pre-reading 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새 단어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과 짝은 연습 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학습이 되었을까? -문제 해결 학습자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요? -학습 부진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학습에 접근하고 있을까요?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review and survey (9분) -어휘학습 (6분) -읽기활동 (10분을 계획하였으나 15분간 진행됨) -문제해결활동 (13분) -평가 및 과제부과 (2분)	-본 시 내용과 관련된 사전 조사는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시간이 많이 할애되어 본 수업 활동이 줄어들어 수업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임 -Reading 부분을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교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듯함 -수업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충분하지 않음 (앞드린 학생, 장난치는 학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이 다수 관찰됨)	
학습 점검(평가 요소)	-짧은 영어 퀴즈로 마무리함	-할애 시간이 부족하여 아주 짧게 이루어지고 있음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 학습 활동의 속도가 학생 수준에 비하여 너무 빠름	-학생 수준과 관련하여 목표달성이 가능한 만큼 목표를 설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난 후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학생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만족스런 점	-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학습지를 충실하게 제작하였음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영어과 우리말이 끊임없이 혼용되고 있음	-설명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이 영어로 발표하거나 이해도를 확인받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수업과 관련하여 사전 조사까지 실시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고 시도한 점이 우수합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나 단지 본 시 수업의 난이도 때문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되어온 영어 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 부족이 아닐까 싶고, 또 다양한 학생 수준에 비하여 일방적인 학습 진행이 많은 영어 학습 부진아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어교육과 관련된 많은 선생님들의 공감을 형성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사 B - 관찰자료 10>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학습목표: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 용의 글을 읽고, 대의 및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읽기)	본시 학습목표가 PPT화면을 통해 제시 되었는데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시간을 두고 읽어볼 수 있도록 목표를 미리 스크 린에 띄워 놓거나 칠판에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본시에서는 학습목표가 너무 짧 은 시간동안 제시되 학생들이 그것을 기 억할 수 있을까 의문임.	학습목표를 꼭 일정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제시되어야만 하 나?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학습내용: 1)인터넷 안전규칙에 대해 읽고 이해할 수 있 다. 2)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교재: 디딤돌	-전 차시에서 배운 It..to 구문 학습 -본시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 험할 수 있는 소재라서 본문을 읽고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임. -worksheet의 내용이 본시와 관련되었 고 작절해 보임.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도입: 전시 학습내용 복습 후, ppt를 통해 학 습목표 확인하고 단어 학습. -전개: worksheet를 읽고 빈칸을 채우는모둠 학습 -결말: worksheet 작성 후, 확인	수업진, 수업중, 수업 후, 단계별로 지도 안이 짜여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단 계별 안을 세운다면 규모있는 수업이 될 것임.	왜 구체적인 세안이 필요할까?
	-모둠활동을 할 수 있게 모둠별로 자리 배치가 되어있음	-대부분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는 편이었 으나 어떤 학생들을 교사가 지주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p>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남녀학생들로 구성된 혼성반 -학생들의 이름을 교사가 다 알고 있어 학습 동제가 비교적 수월해 보이나 7교시 수업이어서인지 교사의 지도 시, 장난을 치거나 옹드러 있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한 학생들이 보였음. -전면에 스크린화면을 보는데 별 다른 어려움 없어 보임. 	<p>호명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한 시간 내내 옹드러 있는 학생들이 있었음.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p> <p>수업 시작을 영어로 할 때, 낯선 수업에 대한 어색함을 학생이나 교사에게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수업진행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처음의 낯설음에 서로 익숙해질 것임.</p>	<p>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p>
	<p>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모둠 별로 활동하였으나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옹드러 있거나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눈에 띄음. -본시의 주제가 일반적인 것이고 활동에 대한 안내로 학생활동에 어려움이 없어 보임. -열심히 한 학생에게 보상으로 사탕을 주겠다고 학습을 독려했음. 	<p>사탕이라는 보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업에 집중시킬 수는 있었음.</p>	
<p>수업 중 (시작-마무리)</p>	<p>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탕을 타기위해 모둠 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됨. -교사가 순회하며 모둠활동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학습 시 학생 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함. -교사가 순회하며 개개의 학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지도함. 	
	<p>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초기의 인사말과 학습 진행에 필요한 간단한 지시어는 영어로 설명은 국어로 진행되었음. -진시학습 설명과 모둠 순회시 “~해라” 체의 지시어가 자주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의 시종을 영어로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됨. -감자기 경어로 수업을 이끄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p>바람직한 teacher talk는?</p>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교사가 순회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오류를 수정함.	-모둠 활동 시 학생들과 교사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있었음. -학생들이 발표 후, 칭찬이 부족해 보인다. (대부분 학생들은 발표할 때, 자신이 말한 것이 틀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소리가 작은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 교사가 학생이 말한 것을 다시 반복 해주고 칭찬해 준다면 영어교과에 관심이 더 커질 것임.)	수업의 효과면에서 수업의 순서를 본시처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본문 학습 후, 형성평가를 형식으로 본시학습을 하는 게 좋은가?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교사와 학생 사이, 모둠 내 학생 간 상호작용이 원활해 보이며 과업을 완수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과제단 생각됨.	본시는 총9차시 수업 중 2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본문을 학습하기 전 본문 내용과 관계된 worksheet를 완성하는 학습활동으로 계획됨. 인터넷에 관련된 본시내용은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은 과업으로 생각됨.	교사의 지도를 방해하는 몇몇 학생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며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갔으나 뒷줄에서 시간내내 었 드러 있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보임.
학습 점검(평가 요소)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학습 점검(평가 요소)	본시 학습 단원의 내용을 3개 질문으로 만들어 formative test로 제시함.	T/F questions으로 형성평가를 제시하였는데 평가 문항은 학생들과 같이 읽고 교사가 문제의 답을 바로 이야기해 주었는데, 되도록 형성평가 시간을 조금 더 넉히 배정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을 듯.	형성평가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은?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모둠학습과 형성평가 해결과정을 거치며 의도한 학습목표를 이해하였다고 생각됨.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brainstorming 통한 교재 이외의 내용인 급으로 본시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되지만 학생들이 중 몇 명이 본시학습목표를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됨.	
	만족스런 점	-수업 시작 전반부에 학습목표 소개 -영어로 인사말이나 간단한 지시어 사용 -수업 방해자들에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응	-1차에서 제안된 학습목표 소개와 교실 영어 사용을 실천하려는 교사의 노력을 볼 수 있었음. -교사의 학습 진행을 방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학생들이 있었지만, 교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대처해 나갔음.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적절한 영어 사용 -학습부진아를 위한 방안 모색	-교사의 바른 언어 사용 노력이 있었지만 적절한 영어사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으면 좋겠음.(사탕빼시는 분, 애들아, 여기 보세요, oo당해봐어,..) -학생활동에서 본시 내용정리까지 시종 없던데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지도방안을 생각해 보기 바람.	-학습부진아는 부진이로 그대로 남겨 놓아야 하나? -영어교사는 영어만 가르치는 교사인가?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초임교사이지만 시츄기 학생들을 비교적 잘 장려했고 있었음. -칠판에 판서할 때, 신경을 써서 해야 함. (선생님은 학생들의 거울) -한 시간의 수업을 드라마라고 생각할 때, 한 시간 내에 도입, 전개, 절정, 결말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학생들이 즐기거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음. 대부분 교사들이 예상한 수업 진도를 맞추려 하다보면 처음부터 100m 달리기로 내달리기 습상인데... 적절한 시간 배분과 강약이 필요함.	-끝날 때, 인사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자료 3: 초임교사 C

1
수업 1

2
수업 2

V. 자료집 3: 초임교사 C

1. 수업 1

가. 지도안

Objectives of the lesson

1. Students are able to comprehend the meanings of all vocabularies in the text.
2. Students are able to comprehend the overall meaning of the text after listening to it.

The Material of the lesson

1. word cards by ppt
2. the text adjusted by teachers (I changed the name of the person in the text into my student's name)

Geon Young is a farmer and great cook. She makes delicious dishes with the vegetables she grows. Here is one of her recipes. It uses the purple potatoes from her farm.

What You Have.

- 1 pound small purple potatoes (about 10)
- 1 1/2 quarts cold water
- 3/4 cup peas
- 4 tablespoons Italian salad dressing
- 2 tablespoons parsley

3. teacher's questions to ask students

1. Who is the main character?
2. What does she do?
3. Where does she get the vegetables?
4. How much peas do you need to make purple potato salad?
5. How much water do you need to make purple potato salad?

나. 수업녹취

교사 : 반장, 오랜만에 인사 한 번 해보자.

반장 : 차렷.

교사 : 차렷.

반장 : 선생님께 경례.

학생들 : 안녕하십니까.

교사 : 금요일 아침부터 너무 멍하지. 게다가 오늘 영어 두 시간 들었잖아. 아침부터 뒤에서 카메라가 찍어대고 있질 않나. 자, 시험은 6교시에 볼꺼야. 6교시에 볼꺼니깐 점심시간 이용해서 완벽하게 외워두고, 이번 시간에는 단어시험 보기전에 연습을 할꺼야. 어? 앞면만 보라고 했잖아. 일단 단어 프린트는 다 집어넣어. 단어 연습을 하고 오늘 본문 앞부분을 들어 갈꺼야. 내가 일단 한 명을 이름을 부를꺼야. 예를 들어 대은이를 불렀어. 대은이 뒷줄부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대은이 뒷줄부터 내가 클릭을 하면... 사진찍다 있지. 이것에 해당하는 표현을 말해야되.

학생들 : 진짜 많은데...

교사 : 지원자 있지? 너 해봐.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해야되. 쫄지 말고. 자 맞지. 그 다음. 읽고... 발음을 하고 뜻을 말해. boil 뭐야? 지성이. 왜 모른척 하지? 자. 종철이. drain인가가 뭐야? 확신이 있어야지. 자... 발음을 해봐,....여과기...망사..자.. 그 다음..너무쉽다. 식히다. 시원하게 하다. 못하면 뒤로 나가야되. 뒤로 나가서 카메라를 뻗히 쳐다보고 있는 벌칙을 즐겨야. 그 다음dressing.

학생 : 소스.

교사 : 어...케첩...마요네즈 이런거...범주. 발음. theater. 뭐지?

학생들 ...(오답을 말하면서 키득거린다.)

교사 : 조용히해. 극장 같단구? 극장이야? 선생님이야?...극장. 옥빈. 이거 좀 어려운데...해봐. bring.

학생들 : (소곤거린다.)

교사 : 옥빈. 했어 안했어? 자...뒤로 나가서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어. 건영이. 가져오다. 자 이거는 하나 더 해야돼. 이걸 삼단변화가 있어.

학생 : bring-brake..

교사 : brake?

학생 : bring-brang...

교사 : brang? 애들아 brang 이라는 단어가 있지? 뭐지? bring- brought- brought. 자, 그다음.

학생 : bowl.

교사 : 발음좋다.

학생 : bowl (뽀내듯이 한번 더 발음해본다.)

교사 : bowl. 어,,,그릇...음식을 담는 이렇게 생긴 그릇...엄마가 집에서 열반을 때 밥 비벼먹는 그릇,,,그 다음....꿀,,어,,,

학생 : 지하철...

교사 : 어...지하철..하늘~밑에 보면 안돼. 반칙이야. pour...pour,,,,하늘아 pour 몰라? 하늘..뒤에 나가서 카메라를 보고 있어. 벌칙이야. 자.진주. 자 pour 이거는 들이붓다지...너희들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부을 때.....그 다음...choose. 이거도 삼단변화가 있어. 다른놈들은 입다물어...뭐...choo 거리고 있어. 조용해. cheese? choops? 조용해.너네들 뒤로 나가라고 할꺼야. 다시해봐. choose chose chosen. 자 choos chose chosen 해보자, chose chosen이 뭐라 이러면 안돼. choose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돼. 누구? 쉬운거 나왔다고 질투하고 있지. 어...이야기... 이게뭐야. 베지타볼? 어?

학생 : 불.
교사 : 더 크게해봐.
학생 : 불
교사 : 다 발음해야지. 불이 뭐니? 다시해봐, 베?
학생 : 베지타블
교사 : 베지테이블? 다시 해봐, 베지터블.
학생들 : 베지터블.
교사 : 그게 뭔데?
학생 : 야채.
교사 : 이거 테이블이 아니야. 자...도진이.
학생들 : 뭐야 뭐야 쉽다.
교사 : dish 가 뭐야? dish가 뭐야? 너 좋아하는거.
학생들 : 접시를 좋아해~ 킁킁
학생 : 외우고 있는 중인데요...
교사 : 외우고 있는게 뭐야. 너도 뒤에 가서 카메라 테스트. 자, 그다음에...여기까지 왔으면 호성이 옆에서 뒤로...
학생 : dish요? 접시요.
교사 : dish요 접시요. 자. 음식도 되지. 접시에 담아 먹는 음식도 dish라고 해. 너네들 레스토랑에 가며 주 메뉴를 시켜야되. 그 주메뉴를 main dish라고 해.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시킨다고 하면 그 스테이크가 main dish야. 그런데, 레스토랑에 가면 스테이크만 먹지는 않잖아. 감자도 먹고 버팔로링도 먹고...그러면 그 곁들여 나오는안 먹어봤니? 안 먹어봤어?
그럼...갈비집에 갔다고 치자. 갈비집에서 돼지갈비 5인분을 시켰어. 그럼 갈비집에서 갈비를 시키면 갈비만 나오니?
학생 : 밀반찬.
교사 : 아니지. 곁절이도 나오고 콩나물 무침 이런것도 나오고, 감자샐러드도 조금씩 나오고. 그러면 그 곁들여서 나오는 요리를 뭐라고해? 옆에 딸려서 나온다고 해서 뭐라그래?
학생들 : 찌꺼다시. 사이드 디쉬.
교사 : 어.사이드 디쉬라고 해. 밀반찬. 그 딸려서 나오는 요리를 side dish 라고해. 미국가서 스테이크를 시켰어. 요즘 미국 쇠고기는 좀 그런가? 그럼 호주에 가서 쇠고기를 시켰어.
스테이크만 먹을 수는 없잖아. 고구마, 군 고구마 이런것도 시키고 해야겠지. 그 때 이 용어를 모르면 어 영부영하다가 못 먹거나...아니면...맨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만 사먹어야되. 알았지. 그 다음 누구야? 채욱이
학생 : 자라다.
교사 : 어. 너네들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할 때 그 자라다도 되고. 너네가 집에가서 화초를 키울 때 기르다도 되지?
학생들: 머리에 화초를 키워 키득키득.
교사 : 머리에 화초를 키워? 자 삼단변화도 말해봐.
학생 : grow - grew....
교사 : grow!
학생 : grow - grew....

교사 : 너네들 팔흔 이렇게 되어 있는거 하나도 안했지?
 학생들 : 선생님. 저거는 삼단변화 안되어 있어요.
 교사 : 써줘야겠네...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야기한 재욱이는 정말 대단하다.
 자, 읽어봐. grow! 뒤에것은?
 학생들 : 그류~
 교사 : 그류?
 학생들 : 그루~
 교사 : grow-grew-grown. 너 왜 안읽어? 너 혼자 해봐?
 학생 : 저요? grow...음음음....
 교사 : 마치 목을 푸는 모양새가...노래라도 한 곡 할 것 같지. 다시해봐.
 학생 : grow-grow-grow
 교사 : 다시해봐. 뒤로 나가라고 할 것이야.
 학생 ; grow- grow-....
 교사 : 애들이 들리니? 너 혼자 버벅대지 말고 다시해봐.
 학생 : grow...grew..
 교사 : 중간에것 그류라고 발음하면 안돼. 세 번째것은...오우잖아...그로운....
 자. 다시. grow-grew-grown.
 학생들 : grow- grew- grown
 교사 : 자, 이거 뭐라고? 재배하다. 키우다. 너네들이 쑥쑥 크는거 자라다 그것도 돼.
 그 다음, 흥.
 학생 : 요리하다.
 교사 :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되지. 그러면 너희들이 요리할 때 쓰는 아까...그 bowl 이나 냄비 같은 걸 뭐라고해?
 학생 : bowl..cooker.
 교사 : cooker지. 애들아, 요리하는 기구. 조리기구가 cooker지. 나는 요리사다 할 때...
 I am a cooker. 이러면 안 돼. 1학년들한테 시키면...나는 요리사다. 영어로 해보라고 시키면...어디서 들어본건 있어. cook 이라고. 그 뒤에 er을 붙이면 사람이 된다는건 어디서 또 들어봤어. 그래서 I am a cooker.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 그런데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돼. 3학년 중에도 I am a cooker.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자 그다음.
 학생 : farmer.
 교사 : farmer. 뭐하는 사람이야?
 학생들 : 농부.
 교사 : 자 farmer 농부야. 자, 그 다음.
 학생 : purple.
 교사 : 음...purple은 자주빛, 보라색 그지? 자 그다음..
 학생 : dry.
 교사 : 여학생들 아침마다 그거하고 오지 dry. 그거 하고 왔지. 도하은...하고 왔지.
 학생들 : 형준이도 해요.
 교사 : 누구. 형준이도 했다구?
 교사 : 오늘 dry 하고 온 놈들 손 들어봐. 남학생 여학생 불문하고. 선풍기로 말리는 놈 손들어봐.

학생 : 선풍기 낄낄.

학생들 : 자연바람.

교사 : 자연바람. 너네들 머리 말릴 때 쓰는 그걸 뭐라고 하니?

학생들 : 드라이 기~

교사 : 드라이 기~라고 하니? 영어로 드라이 기~??

학생들 : drier.

교사 : 자 그러면 dry는 뭐야? 말리다. 또는 형용사로 마른, 바짝 마른 상태를 뜻하지.

자, 그다음. 형준이. 밑에 보면 안돼. 여기 봐야 돼.

학생 : 놓다.

교사 : 놓다. 두다. 자 이것도 삼단 변화.

학생 : put put put

교사 : 너 밑에 봤으니깐, 하나 더 해야 돼.

학생 : 선생님, 시험 볼 때 삼단변화 다 써야 되요?

교사 : 안 써도 돼. 안들려~ 모르겠다구? 너도 카메라 테스트. 너는 나중에 개그맨이 될 놈이기 때문에 미
리미리 카메라 적응해봐. 자,,,앞에 다슬이...

학생들 : 망했다.

교사 : finally, 뭐지? 마치다?

학생 : 마침내.

교사 : 마침내. 마지막으로. 마침내.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단. 앞에봐 앞에.

너도 반칙이야. 너도 하나 더 해.

학생 : black.

교사 : black? 애들아 이거 black 이니?

학생 : 선생님 이거 제가 할게요.

교사 : 뭐라구? 포크? 블록?

학생 : 제가 할 게요.

교사 : 조용히해. 블랙이 아니고 블록도 아니고 뭔데? 그럼 블랙은 뭔데?

블록, 블락, 이거 뭔데?

학생 : 벽.

교사 : 벽?

학생 : 아니요.

교사 : 자, 잘 들어봐. block 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한 block 이야. 한 구획인데, block 이 어디 나오냐면...

미국 같은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길이 먼저 생겼어. 길이 먼저 생기고 이렇게 차례대로 집이나 건물이 들

어서는 거지. 개네들은 집 찾기가 되게 쉽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영어듣기 할 때 보면, 여기가 우체국이야.

너 위치가 지금 여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것을 어떻게 설명해?

학생들 : Go straight one block...

교사 : 어, Go straight one block, 이 네모칸이 한 블락이야. Go staright one block and?

학생들 : Turn right.

교사 : Turn right.

교사 : 또?

학생들 : Go straight.

교사 : 또?

학생들 : Go straight.

교사 : 뭘 또 go straight 야. 여기서 go straight 하면 이렇게 가잖아.

학생들 : Turn left.

교사 : 응, turn left. 그렇게 하면 It's on your right. 그래서 이게 한 블락이야. 이 블락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길이 먼저냐? 집이 먼저들어서?

학생들 : 길이 먼저나요.

교사 :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이 먼저 들어섰어. 사람들이 지들이 살 집을 먼저 짓고, 나라에서 길을 내줬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찾기가 어려워. 안그래?

너네는 다 아파트 사니깐 그렇지. 아파트에 안 살 수도 있잖아.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할 때 집 위치를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 단경이 하나 더해.

뒤로 나갈래? 하나 더할래?

학생 : 뒤로 나갈래요.

교사 : 자 그다음. 이거뭐야?

학생들 : 당근.

교사 :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당근 커진다.

학생들 : 이야~

교사 : carrot

학생들 : carrot

교사 : 자 뒤에 네 명...패자부활전. 누가 먼저 할래?

학생들 : 아...살았다.

교사 : 아니야 살긴 뭘 살어. 또 돌거야. 누가할래? 패자부활전.

학생들 : 형준이요.

교사 : 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손들어봐. 자, 형준아.

학생들 : 우와 쉽다.

교사 : 아까 했지? 이거 할 때. straight 이거 뭐야?

학생 : 곧장.

교사 : 곧장? 어, 곧장, 직선의, 똑바로. 들어와. 그 다음, 대은이.

학생 : 어?

교사 : '충분히'가 영어로 뭐지?

학생 : enough.

교사 : 자, 그 다음에 동현이.

학생 : 오~플라워~

교사 : 플라워??

학생들 : 까르르~~~

교사 : 이건 아까 블락을 블랙으로 한 것과 똑같은 거야.

학생 : follow~

교사 : 어, follow~. follow 이거 뭐야? 다른 놈들 다 조용해.

학생 : 따르다.

교사 : 따르다. 자, 나 따라와~. 이거 뭐야? 나 따라와.

학생들 : follow me.

교사 :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다음주에 장학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그 분들 앞에서 멋진 수업을 보여줘야 할 텐데...그 수업을 할 때...내 수업 잘 따라오고 있냐?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거야. 그 때, Do you understand? 이거 너무 쉽지?

Do you understand? 이거 모르는 놈들 있냐? Do you understand? 이거 무슨 뜻이야?

학생들 : 책상밑에...

교사 : 뭐? 뭐? 책상밑에야? 자, Do you understand? 이말을 내 말 이해 하나? 이런 뜻이야. 이거 너무 재미없어. 이거 너무 자주 써 먹는 거야. 그래서...내 말 잘 따라오고 있냐? 이것을 영어로 해 줄 거야. 그거 어떻게해?

학생들 : Are you follow me?

교사 : 한 번 더 해봐.

학생들 : Are you following me?

교사 :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Are you following me? 너 내 말 잘 따라오고 있냐? 옆길로 세지 않고 내 말 잘 따라오고 있냐? 이런 뜻이야. 자, 앞에. 어진이. 이거 못하면 이거 해야 돼. twist 이거 뭐야?

학생 : 비꼬다.

교사 : 어, 비꼬다. 비틀다.

학생들 : 뭐야? 하하하.

교사 : end. 그런데 끝 아니야. 얇어. 원석이. 이거 뭐야. 이래 놓고 미끄러지다는 뭐야?

학생 : 얇은...

교사 : 이걸 니들이 직접 해 보고 외워야 돼. 고기나 무 치즈 같은거 얇게 썰면서 해봐야 돼. 또 나왔다. straight 곧장. 똑바로. 자 그다음. help 뭐? help me? help yourself. 자, 내가...저번에 떡볶이 얘기했지. 내가 떡볶이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태양이를 우리집에 초대를 했어. 그래서 내가 태양이한테...이거 내가 만든거니깐, 마음껏 먹어. 양껏 먹어.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해?

학생들 : help yourself.

교사 : 자, 그 다음.

학생들 : 우와...어려워.

교사 : 너무 어렵나? 반장이니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이거 따라 해보자. 이거 단어가 좀 길지. pro hi bi tion.

학생들 : prohibition.

교사 : prohibition 뜻이 뭐야?

학생들 : 설마 이걸 모르는것은 아니겠지?

교사 : 응? 금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못하게하다. 방해하다. 막다. 동사는 뭘까? 추리해봐.

학생들 : prohibit.

교사 : pro hi bit. 어떻게 쓰지?

학생들 : p... r...o...

교사 : prohibit

학생들 : prohibit

교사 : prohibit

학생들 : prohibit

교사 : 자 이거 쉽게 말하면, stop 이야. 지겹지? 그래도 안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되. 재섭이.

학생 : 노력하다.

교사 : try 애쓰다. 노력하다.

학생들 : 변기통 아냐?

교사 : 조용히해.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 이런 것들.

학생들 : 낄낄...로드~사인~

교사 : 어, road sign. 이지 길거리 표지판.

학생들 : 변기통 청소하는 것 같아요.

교사 : 아니야, 이거 길거리 공사하는 거야. 자, 앞에 문찬이.

학생 : delicious.

교사 : 아까 내가 태양이한테 떡볶이를 해주고, 태양아 많이 먹어.

태양, help yourself 라고 말할해. 그게 너무 맛있어. 그럼 태양이가 어떻게 말해?

학생들 : delicious.

교사 : 어, It's delicious. 자, 그 다음에 동주. 30.00

학생 : park, 공원.

교사 : 공원 말고 또 뭐있어?

학생 : 주차하다.

교사 : 응. 주차하다. 그 다음.

학생 : make a noise, 시끄러운거...

교사 : 응. 너희들 잘하는 것, 소음을 만든다. 떠들다. 또 하나 더 있나? 자 이것은 같이 한 번 해보자.

enter.

학생들 : 들어가다.

교사 : 또 있다. 자 이거 뭐야?

학생들 : 쿠키, 초콜렛.

교사 : 자, 쿠키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이거 쿠키야? 쿠키 어떻게 쓰니?

학생들 : i...e...

교사 : 자, 이렇게 쓰지. 그리고 여기에 쿠키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개 있지. 그래서 s를 붙여줘야지. 자, 교과서 본문한번 펴봐.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단어들이 본문에 나오는거야. 그러니깐 그 단어들을 까먹지 말고...6교시에 우리는 조용히 단어시험을 보는거야. 97쪽. 일단 제목을 한 번 읽어보자,

학생들 : How to make purple potato salad.

교사 : 자, purple potato 라고 하면 감자 색깔이 무슨색?

학생들 : 보라색.

교사 : 너희들 집에서 흔히 보는 감자가 보라색이니?

학생들 : 아니요.

교사 : 너희들이 흔히 보는 감자는 베이지색처럼 그런 색이지. 그 감자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배워 볼 텐데, 6교시에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꺼야.

그 전에 이번 시간에는...그 샐러드를 만들 주인공이 우리 반에 있어. 그 주인공이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할 것이고, purple potato salad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간단히 소개해 줄것이야.

학생들 : 샐러드 가지고 와요?

교사 : 가져오냐구? 만드냐구?

학생들 : 집에서 만들어 오면 되는데...

교사 : 그걸 여기서 직접 만들진 못해.

학생들 : 가사실.

교사 : 어? 가사실? 가사실은...그 ...가정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쓰지. 너희들 가정 선생님 누구지?

학생들 : 양정희 선생님.

교사 : 가정 선생님이 우리반을 좋아할까? 아무튼 그건 다시 생각해보고...

이 포테이토 샐러드를 만들 요리사는...건영이야. 건영이가 자기 소개를 할 것이고 포테이토 샐러드를 만들 재료들을 소개해 줄거야. 일단 교과서를 덮어. 교과서에는 Greg Martinez 라고 되어 있는데...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니깐. 마이크 쫓아 줄까?

학생 : 아니요.

교사 : 쫓아 줄게. 크게 해야돼. 해봐.

학생 : Hi everybody. My name is 김건영. I am a farmer and great cook. I make delicious dishes with the vegetable I grow. Here is one of my recipe. I use the purple potato from my farm.

교사 :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봐. 이제 좀 떨지 말고 좀 잘해. 너가 떨고 있으니깐 애들도 다 얼었어.

학생 : My name is 김건영. I am a farmer and great cook. I make delicious dishes with the vegetable I grow. Here is one of my recipe. I used the purple potato from my farm.

교사 : 자, 건영이가 무슨 말하는지 다 들었지. 건영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손.

학생들 : (손을든다.)

교사 : 손 든 놈들은 옆드리고 들어. 너희들이 괜히 쳐다보니까 애가 떨려서 잘 못하잖아.

너네들은 옆드려. 귀만 쫓긋 세우고 들어.

학생 : My name is 김건영. I am a farmer and great cook. I make delicious dishes with the vegetable I grow. Here is one of my recipe. I used the purple potato from my farm.

교사 : 그러면 내가 질문을 몇 가지 할 테니까, 건영이가 한 말에서 그 대답을 한 번 찾아봐. Who is he? Who is she?

학생들 : 하하하.

교사 : Who is she?

학생들 : She is a farmer.

교사 : 어, She is 김건영. 뭐 어 야. 그럴수도 있지. 짜증나니? 자 그 다음에.

What does she do?

학생들 : she is a farmer.

교사 : and?

학생들 : cook.

교사 : She is a cook. 그냥 cook이야?

학생들 : cooker, great cook.

교사 : 어, 아주 대단한 요리사야. 뭐가 cooker야? 사람보고 cooker가 뭐야? 자, 그러면 건영이는 농부이자 아주 위대한 요리사야...그녀가 she makesdishes..무슨 dishes?

학생들 : potato.

교사 : 무슨 potato야 ? potato는 아직 나오면 안돼.

학생들 : purple.

교사 : she makes ...dishes.

학생들 : vegetable.

교사 : vegetable dishes?

학생들 : salad.

교사 : salad dishes? 자, 건영이가 아까 자기는 어떤 음식들을 만든다고 했어? 나는 어떤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요. 라고 했지? 먹으면 바로 토하는 그런 음식? 어떤 음식? 뭐라고 했어? 대답을 해.

학생들 : salad.

교사 : salad? 그 샐러드가 맛이 어떤데?

학생들 : delicious.

교사 : 그러면 그 샐러드를 뭐로 만들어? with what? 고기로 만드니?

학생들 : vegetable.

교사 : 그러면 그 vegetable을 내가 시장에서 사오지? Where does she get the vegetable? From where?

학생들 : 농장. farmer.

교사 : from farm? from garden? market? 자, 농장이나 가든에서 애가 가지고 온다는 말은 그것을 애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학생들 : 재배하다.

교사 : 어, 키운다는 거야. 키운다가 영어로 뭐야?

학생들 : grow.

교사 : grow야 그지. 자, 그 다음에...애가 이제...직접 기른 야채들을 가지고 직접 요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요리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준다고 했어. 요리법이 영어로 뭐야?

학생들 : recipe.

교사 : recipe.그지? 레시피 이리지마. 레씨피. 자, 그러면 그 레씨피는 뭘 만드는 recipe 였지?

학생들 : 감자샐러드.

교사 : 그러면 그 감자샐러드가 yellow potato salad 였니?

학생들 : purple potato.

교사 : 자, 그러면 그 purple potato를 애가 농장에서 갖고 왔겠지. 그 샐러드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있어. 그 재료가 뭐가 있는지 한 번 들어봐. 자, 외웠지?

학생 : 줌. one pound small purple potatoes about 10, one and half cold water, three quarters cup peas, four tablespoons Italian salad dressing, two tablespoons parsley.

교사 : 자 한 번 더, 이번엔 내가 질문을 할 것이야.

학생 : one pound small purple potatoes about 10, one and half cold water, three quarters cup peas, four tablespoons Italian salad dressing, two tablespoons parsley.

교사 : Do you need coffee to make purple potato salad? coffee? coffee? yes?

커피 필요하니?

학생들: 아니요.

교사 : 아까 coffee랑 비슷한 발음의 무언가가 나왔어.

학생들 : three quarters cup peas.

교사 : 응, Three quarters cup peas. cup peas 야. cup peas. pea가 뭐야?

학생들 : 콩.

교사 : 콩이 얼마만큼 필요해? Three quarters. quarter가 뭐야?

학생들 : 사분의 일.

교사 : 사분의 일이지. 그게 세 개 있으면 뭐야?

학생들 : 사분의 삼.

교사 : 사분의 삼이면...그릇에 콩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사분의 삼만 채우는 거지.

자, 그 다음에...one pound small purple potatoes 가 몇 개 필요해?

학생들 : ten. 10개.

교사 : 딱 ten 이었니? 정확히 ten 이었니? exactly ten?

학생들 : No.

교사 : exactly ten? eleven is not allowed? 되지? 아까 about ten 이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china salad?

학생들 : No.

교사 : 응. Italian. Italian salad dressing. 자, one tablespoon parsley.

학생들 : Yes.

교사 : 냐웠어. tablespoon parsley 까지 들었는데, 냐웠어. how many?

학생들 : two tablespoons parsley.

교사 : 자, How about water? The water is cold or hot?

학생들 : cold.

교사 : 분량은? how much? 얼마나 많이 있어야 돼?

학생들 : 충분히.

교사 : enough? exactly? 정확히 얼마만큼? 태양아 얼마만큼의 물이 있어야 돼?

학생 : quarter.

교사 : 두잔? 두 잔 아니야. 세 잔도 아니야.

학생 : three cup.

교사 : three cup 아니야. 자, 얼마만큼의 물이 있어야 되지?

학생 : one and half.

교사 : one and half. 얼마만큼이야? 한 잔이 있어야 되고, 그 한 잔의 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있어야 되지. one and half. half 가 뭐야? 이분의 일이지. 자, 다했어. 그럼. 일단 필요한 부분은 다 했고, 6교시에 이걸 우리가 직접은 아니고...그림으로...해 볼 거야. 이것은 열을 필요로 하는거야. 이게 만약에 열을 쓰지 않는 요리라면, 너네들이 직접 해보면 재미있긴 하겠지만...boil 이런 말 있었지. 열을 필요로 하는 거야. 가스불이 있어야돼. 감자를 날 것으로 샐러드를 해 먹을 수는 없잖아.

학생들 : 집에서 삶아 오면 되잖아요.

교사 : 집에서 삶아 오라고 해서 기어이 해보겠다는 거야?

학생들 : 네.

교사 ; 기어이. 기어이? 우리가 집에서 삶아 왔어. 그런데 우리가 수업이 6교시에 들었어. 1교시에 삶아온 감자가 6교시에 보니까 썩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썩 나있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학생들 : 급식실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교사 : 급식실에서 갖고 오는건 안돼.

학생들 : 1교시에.

교사 : 금요일 일교시에? 자, 이걸 니들이 하는 것 봐서. 그런데, 이거 하는게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우리반은 또 다른 반의 시샘을 받게 될거야. 안그래도 우리반, 우리반 잘한다고 다른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다른 반 아이들이 시샘하는데. 개네들은 포테이토 샐러드 까지 직접해먹었대요. 어떡해? 이러면 어떡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시험 못 보면 감지.

다. 자기 관찰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 및 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에 제시된 단어를 읽고 그 뜻을 말할 수 있다. ● 교과서 본문 내용을 듣고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에 대답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한 것이 적당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본문 도입 단계에서 좀더 흥미로운 어휘 학습 방법은 없을까?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발음하고 그 뜻을 말할 수 있도록 ppt 자료를 제작함 ● 교과서 본문 일부(주어를 학생이름으로 바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예습 해 온 어휘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써, 단순히 단어를 읽고 뜻을 말하는 방법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을 활용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비록 학생 한 명당 2-3개의 어휘를 발음하고 그 뜻을 말하는 정도였지만, 어휘 각각의 발음과 의미를 상세히 지도할 수 있었음.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의 발음과 의미 지도에 중점을 둬 ● 교과서 본문의 내용의 주어를 학생(김건영)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이 들려주는 자신의 이야기(교과서 본문 내용)를 듣고 그것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도록 함. ● whole class work를 통해서 교과서 본문 도입 단계에서 어휘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중점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어휘를 예습 해 온 정도를 파악하는 부분이 수업의 중반부 까지 진행되었는데, 평가를 겸한 수업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진지한 태도로 발표에 임하고 대체적으로 최선을 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수업 시간에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스크린이 교실의 중앙 위치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화면에 주목하기 쉬움 ● 학생들의 자리는 3 3 2 형태의 배열로 배치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3 2 형태의 좌석 배치상 3명이 앉아 있는 좌석은 다소 산만함(가운데 학생의 양 옆의 학생들과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중심 수업에서 가장 효율적인 좌석 배열 방안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 및 논의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휘를 미리 예습해 옴 ● 학생들의 발표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배열된 자리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발표순서가 정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에 단어 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휘를 미리 예습해 옴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있었음이 아쉬움 ●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발표내용을 교사가 보충 설명하고 때로는 수정해주는 차원 ● 수업 초반에 교사-학생간의 eye contact 가 부족했음. (수업 촬영으로 인해 교사가 긴장한 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le class 수업이었으므로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없었음이 아쉬움 ● 수업촬영으로 인해 교사가 긴장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학생들에게 존칭을 하지 않음. 억양이 상냥하지 못함. ● 교사는 '자!', '그렇지?'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함. ● 설명할 때 동일 어휘의 반복이 심하고 강조점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설명이 깔끔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략하고 깔끔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발표 후 교사가 칭찬을 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확인을 함. ●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 교사가 오류 수정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간의 한계상, 오류의 즉각적인 수정이 불가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의 즉각적인 수정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인가?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자료를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을 전체적으로 이끌어냄 ● 과업 자체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학생들의 평균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과제는 아니었으나, 학생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평가의 시간이 길지 않음.(학생 한 명당 어휘 2~3개 정도를 발표할 수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자료는 평이함. ● 과업의 수준이 평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퍼즐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이트가 있나요?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le class 수업의 특성상 대체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함. ● 몇몇 학생들이 어휘예습을 철저히 해 오지 않아서 중간에 발표의 흐름이 끊어지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수업에 집중함 ● 수업의 흐름을 끊은 학생들은 특별보충수업 대상자됨.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예습 정도를 평가. 교과서 본문 내용의 도입을 위한 단계의 수업이었으므로 평가 자체에 중점을 둔 수업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상 평가를 하는 듯 보이는 수업이나 평가에 중점을 두지 않음. 		

단계	영역	관찰	이견	질문 및 논의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한 학습 목표를 달성했음 ● 수업과 관련된 어휘 ppt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냄 ● 교사중심의 수업이어서 그린지 산만하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음. ● 교과서 본문 내용을 소개하는 단계에서 한 학생을 본문 내용의 주인공으로 삼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의 양적, 질적 적합성. ● ppt 자료를 좀더 흥미롭게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쉬움. ● 교과서 본문 내용을 소개하는 단계에서 한 학생을 본문 내용의 주인공으로 삼음으로써 나머지 학생들로부터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냄. 	질문 및 논의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하고 간략한 구성의 worksheet가 필요함 ● 학습목표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형성평가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형성평가 대신 질문과 발표로 평가를 대체 할 수밖에 없었음이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해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 활동 유형은? (직소 제외) 	
수업 후 (self-appraisal)	개선 점			

라.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교사 C - 관찰자료 1>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 표)	1) 스크린에 제시된 단어를 읽고 그 뜻을 말할 수 있다. 2) 교과서 본문 내용을 듣고 전반적 인 내용을 묻는 문항에 대답할 수 있 다.	-본시 학습 목표를 판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 게하면 좋을듯함. -목표를 제시할 때 좀더 수업 목적에 맞게 제시하면 좋을듯함.(단어하고 본문 좀 할거가까 아니라...요리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 단어를 복습하고 본문을 공부할거야.)	질문/논의사항
	학습 내용 (기능, 지 식) 및 과제	-학습내용: 1)본문에 나오는 단어학습 2)본문 듣고 내용 이해하기 -교재: ppt file	-본문 단어학습을 위한 ppt제시함. 너무 단어의 숫자가 많아서 근 30분을 이미 공부한 단어 공부를 다시 함. 단어의 경우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이 이미지화 하는 것이 암기에 효과적임. -본문 내용을 건영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암기해서 제시한 후 질의 응답하게 함. 학생이 암기하여 자신의 이야기처럼 제시한 시도는 새롭고 학 생들에게 본문 내용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함.	-시정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수업 진행 (실행 단계)	실행 계획 (수업 실 행 계획)	-도입: 수업 설명 -전개: ppt통한 단어 확인, 건영을 통 해 본문을 암기하게한 후 내용을 파 악하게 함. -결말: 단어시험 불 예정임.	-근 30분동안 42개의 단어를 한명씩 점검하는 교사 중심의 일제식 수업이었 음. -학생들과 교사의 유대관계가 좋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진행되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루하고 1명은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나머지 30여 명은 수동적인 수업참여를 하는 수업임. 단어를 ppt를 이용하여 빠르게 복 습한 후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읽고 해석하게 하던지 한명이 문제를 내고 돌아가며 답을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더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되었을 것임. -건영의 본문 암기 후 자신의 이야기처럼 나와서 이야기한 시도는 새롭고 학생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주어 본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지만 이왕 준비 하는 김에 요리사 모자나 요리에 나오는 재료를 직접 들고 나와서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음. -자점 만들자는 의견에 수업을 잘하면 그럴수도 있다는 동기부여는 약속이 지켜져야할 것으로 여겨짐.	본문 학습을 위한 수업이 라고 하지만 ppt를 활용한 단어학습에 그렇게 과도한 시간을 배정해야만 하나?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 생, 교사, 기자제 등)	-중 2학년 남녀 혼합반(대부분 동성 끼리 짝을 이루고 있음) -학생들의 이름을 교사가 다 알고 있 어 관계가 좋아보임. -교실 칠판 앞 스크린으로 인해 글자 가 크게 잘 보였음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을 학생들 이 잘 따라하고 순종적임. -ppt 지료가 잘 보임.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며 퀴즈 형식의 단어 공부에 참여하고 못한 학생은 뒤로 나가 뒤 패자부활전을 통해 들어옴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잘 따라오면서 수업에 참여함.	-요리하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휘 공부하면서 이루어진듯함 -전체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기존에 썼던 교사와 학생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즐겁게 잘 진행됨 -단어 공부에만 30여분이 소요되어 다소 지루해짐. -동료 친구인 건영의 스피치카드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임.	-다른 교실에서도 30분동안의 단어 수업이 즐겁게 진행되나요? -또 다른 교실에서도 한 학생에게 제외되어서 외계 시켰나요?
	상호작용 (학생_학생, 학생_교사, 교사_교사)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좋고 교류가 좋음 -학생들간의 상호 작용은 거의 없음.	-교사 중심의 수업 방법과 학생 상호간의 활동이 함께하는 수업이 학습 효과를 더 높으므로 학생 활동을 더 넣는 것이 좋을듯함.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 진행이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해라” 체의 어휘가 두드러짐. -교사가 사소한 일상을 예로 들어 단어와 관련된 설명을 하였음. -후반 부분 설명은 영어로 질문하고 대답함.	-교실영어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좋을듯함. -반말이나 은어, 이분 등 친숙함을 이끌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례를 들어 설명한 것은 잘 한점임. -본문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을 영어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영어로 본문을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평가함.	수업 시 간단한 지시어정도 는 영어로 하는 것이 어떨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학생들을 지명해 개별 발표시킨 후, 오류 수정과 그와 관련된 설명 함. -밝은 미소와 진행으로 비언어적인 호감으로 수업을 이끔	-개별발표 후, 오류 수정과 설명이 바로 제공되어서 좋았으나 대상학생들이 부담반이 아닌 경우에는 오해를 사거나 영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을 수도 있음. -저학년들이므로 좀 더 칭찬이 필요해 보임.	
	학습 활동(과업)- 적절성, 수준, 흥미도	-단어점검: 30여분 -본문 내용 읽고 내용 파악하기 10여분으로 진행됨 -학생들 수준에 맞는 어휘가 선정되고 설명됨. -ppt에 이미지를 넣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끔	-“읽기”단원을 학습하기 위한 전 단계의 단어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과 한꺼번에 학습하기에는 42개의 단어의 숫자가 너무 많았음. -교사 중심이었지만 흥미롭게 잘 진행되었음. -친구 건영을 통해 본문 내용을 듣고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학습에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냄.	-학생들이 하나의 대상에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본시 학습에서 교사가 가장 중점을 둔 항목은 무엇인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전반에 걸쳐 진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음. -발표를 못한 몇 소극적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역시 무난해 보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을 잘 통제하고 수업을 이끌고 있음. -수업의 흐름이나 진행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수동적인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효과적인 수업형태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반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나요?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어학습을 끝낸 후, 학생 한명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이해를 묻는 질문을 평가요소로 채택함. -건의영의 본문 제시 후 말한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여분동안 이미 배운 단어를 다시 점검하는 방법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미 배운 단어를 다시 할 경우에는 단어+문장으로 연결시키는 심화 학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할듯하다. -미리 단어를 훑어보고 자신의 단어를만 맞추면 되는 구조이므로 운이 좋으면 잘 대답하고 그렇지 못하면 뒤로 나갈수도 있으므로 이번 평가는 학습원 모든 학생들의 각 개인의 학습 태도를 점검할 때 사용할 수있는 평가인 것 같다. 따라서 계속 사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인 평가방법이므로 다양한 평가구현이 필요하다 -건의영의 말한 내용에 대해 쉽게 대답하기에는 단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휘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듯하다. pre-reading으로 그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모든 학생이 이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평가 방법인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내용에 따른 적절한 형평성 평가 방법이 무엇인가?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목표한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t로 제작한 퀴즈형식 단어 확인이 학생들과 교사의 상호적인 관계로 인해 즐겁게 진행됨. -단어학습 시, 단어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과 불규칙동사 변화까지 확인하는 교사의 노력이 있었음. -건의영의 등장으로 본문에 대해 동기유발과 pre-reading의 효과를 본 것.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좀 더 많은 교실 영어와 경어 사용을 권함. -본시 수업동안 학생들에게 설명할 경우 예를 들며 지나치게 사적인 경우도 있어서 조절이 필요함.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들의 활동이 적절히 배합된 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학습도 포함되면 좋을듯함.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수업이었음. -인사할 경우 서로 함께 해야 할 것임. 		

<교사 C - 관찰자료 2>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퀴즈 형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음. 본문 부분도 친구의 음성에 귀기울임.	제미있게 단어를 학습할 수 있었다고 본다. 본문도 그냥 CD-ROM을 틀어주는 것보다 훨씬 동기부여가 되었음.	리딩수업에서의 학생-학생간 상호작용을 늘릴수 있는 방안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학생_교사간 상호작용이 빈만함. -학생_학생간은 거의 없음	진재학습이었으니 어쩔수 없지만,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음.	을 늘릴수 있는 방안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	-대체로 반말이고, 한국말임. -추가적인 단어설명에서 단어를 말로만 설명함. -“조용히 해” 등의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는 말들이 몇몇 보임.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칠판을 활용해서 써주면 좋았을 것 같다.(예:main dish 등...) -본문에서 질문하고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적절한 영어단어(반대말 등을 사용하여) 정답 유도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	영어사용의 정도... 그리고 경어를 꼭 사용해야하는가가 고민...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잘못된 발음 등에 대한 오류수정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물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칭찬이 더 필요할 것 같음.	평상시 발음에 대한 지도 방안...
학습 활동(과업)-적절성, 수준, 흥미도	-단어를 보면서 맞추는 과정은 적절한 것 같음 -본문을 친구의 음성으로 듣고 질문에 답하는 것은 흥미로웠으나 약간 어려웠다고 생각됨.	-적절한 수준의 과제더라도 30부이나 할때에는 지루한 감이 올 수 있음..다 른형태의 게임으로 바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미리 질문만 주어도 모든 세제한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만 적절히 찾아내어 짚막히 필기해놓았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수업에서 과업의 형태를 몇 개나 갖는게 좋을까... 너무 적어도, 너무 많지도 안 되겠지 만...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진반적으로 매끄러웠다.	-답을 말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뒤에 나가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더 고민해봐야할 듯. 듣기와 리딩을 연결해서 듣기를 마친후에 못들은 학생들은 리딩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	-학습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에 대한 처벌 방안.	
학습 점검(평가 요소)	-단어 점점은 다음시간... -본문은 듣기후 질문통해 점검(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모르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넘어간 것 같다. 간단하게라도 듣기를 통해 이해한 내용을 리딩으로 확인해보는 작업을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꼭 본 수업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에 해야하는지... 꼭 개별적으로 평가해야하는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단어학습과 본문 이해에 대한 목표 하지만, 학습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주지 않아 달성했다고 보여짐.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t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전체적으로 단어를 복습한 점은 좋았다. -발음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다. -학습친구가 요리사로 등장해 설명해 설명한 부분이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그래서 더 동기부여가 잘 되었을 것 같다.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단어 퀴즈가 너무 길어서 단어학습 후반부엔 약간 지루해짐.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았다. 그림을 통해 힌트를 준다거나 해서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듯. -본문 듣기 활동 전에 과업을 미리 제시해주면 더 도움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교사 C - 관찰자료 3>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학습 내용 (기능, 지 식) 및 교재			
	실행 계획 (수업 실 행 계획)			
	수업 맥락(수업이 이 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대체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잘 따르고 있음	-단어를 사전에 학습해 온 것을 확인하는 상황으로 너무 긴 시간을 배분한 것으로 여겨짐. -학습 내용을 대표학생이 대신함으로써 좀 더 생생한 상황으로 전개한 것은 매우 돋보이는 활동임	
	상호작용 (학생-학생, 교-교, 교-학생, 교-시간)	-주로 교사-학생활동으로 이어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 보임.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도가 높아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주로 지시적 언어 사용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용어 개발이 필요함 -학습내용 확인을 영어로 물어보고 답함으로써 영어사용 상황을 만든 것은 바람직해 보임	
	피드백 (오류수정, 칭찬 등)	-오류 수정을 잘 하고 있으며, 관련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학습관련 별칭이 특이함	-잘못 된 발음을 충실히 수정해주고 있음 -교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감	
	학습 활동(과업)-적절성, 수준, 흥미도	-단어학습 확인-본문학습-마무리	-단어 학습이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음 -단어과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제시하면 좋겠음 -대표학생이 본문을 암기하여 발표함으로써 수업활동이 본문 시작 단계인지 마무리 단계인 지 모호함 -적극적인 상황 설명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음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통제된 수업을 진행함	-오리과정 학습을 한 후 학생들이 실제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호기심을 보임- 실제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학습 점검(평가 요소)	본문 이해 점검을 영어로 묻고 대답함	-후반부 수업 진행 속도가 빨라서 상위권학생에게는 적절해 보이나, 부진학생을 배려하는 여유가 필요해 보임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사전에 개인적으로 단어학습을 해온 상태로 시작하여 확인단계를 거쳐 본문학습으로 간단하게 이어짐	-단어는 사전학습 단계를 거쳐 확인하는 상황이었고 본문학습은 급진적으로 이어져 부진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의아함	
	만족스런 점	-자신있게 수업을 이끌어 가고 있음. -교과서 내용을 한 학생이 대신함으로써 좀 더 생생한 상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 여겨짐		
	개선 점	-교사-학생간 친밀도가 높아 수업진행 및 목표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교실 수업에 있어서 실제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 -시간배분에 있어서 단어학습 확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짧게하고, 본문 학습이 길었으면 완성도 높은 수업이 되었으리라 생각됨. -학생-학생간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수업 시 언어사용 순화 및 교실영어 사용 권장		
기타 (수업 교사의 경-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새내기 교사로서 적극적으로 수업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도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수업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올리는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수업 동영상을 기대해 봅니다.

<교사 C - 관찰자료 4>

단계	영역	의견
	<p>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단어를 읽고 그 뜻을 말할 수 있다. ● 'How to make purple potato salad'의 본문 내용 중 일부분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본시 학습 목표와 수업 절차를 좀 더 명시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함. 또한 단순히 관련 어휘를 익히는 것이 수업의 목표가 아니라, 그 어휘들을 통해 이번 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 목표를 구체화시켜줄 필요가 있음.
	<p>학습 내용(기능, 지식) 및 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학습 및 본문의 내용 듣고 이해하기. (어휘 학습시 읽기 기능, 본문 내용 파악시에는 듣기 기능에 중점을 둠) ● ppt 활용 (어휘 및 그림 자료)
<p>수업 전 (계획단계)</p>	<p>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소개 - 좀 더 체계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함. ● 전개 : 1. ppt를 이용한 어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예측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환경, 한명에게 단어의 발음과 뜻을 물어봄으로써 대다수의 학생들이 발표의 기회를 갖도록 한 점이 바람직함. 2. 미리 지명된 한명의 학생으로 하여금 본문의 내용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외워 말하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게 함. -cassette tape이나 교과서 CD를 사용할 때 보다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집중함. 3. 학생들에게 들려준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가 comprehension checkup 질문을 영어로 함. ● 마무리 : 차시 예고 및 단어시험 공지.
	<p>수업 맥락 (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2학년, 남녀합반으로 3·3·2의 자리배치 형태로 되어있음. ● 교사가 학생들의 이름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 수업 진행이 수월함. ● 컴퓨터와 연결된 Screen이 정면에 넓게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교실 한쪽에 위치해 있는 TV screen 보다 학생들에게 관련 자료를 선포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칠판에 판사할 때 공간적인 제약이 생기는 단점도 있으나 본 차시에서는 많은 양의 판사가 필요치 않음.

단계	영역	의견
	<p>학생 관련 (동기, 참여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수업에 잘 집중하며 수업에 대한 호응도가 좋음. ● 단어 학습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퀴즈 식으로 발표를 시켜 긴장감을 높이고, 본문 학습시에도 직접 반 친구의 음성으로 내용을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했음. ●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킬 때 자리 순서대로 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상자 안에 번호를 써 놓은 공 중에서 뽑기를 한다거나, 먼저 발표한 학생이 다음 발표자를 지목하는 등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음.
<p>수업 중 (시작 -마무리)</p>	<p>상호작용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p> <p>교사 언어 (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활동이나 pair work가 없어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적은 편이었으나, 친구들이 발표하는 내용에 집중하며 함께 웃고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수업 분위기를 밝게 해줌. ● 학생-교사간의 상호작용 비교적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졌음. 교사가 권위있게 학생들을 잘 통제하면서도 유머감을 발휘해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유지했으며, 교사와 학생 간에 rapport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음. ● 대부분의 수업이 한국말로 이루어지는데, classroom English를 되도록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듣기 능력 향상이나 영어에 대한 긴장감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듯함. ● 교사의 목소리에 힘이 있고 설명을 재미있게 잘 함. ● 예를 들 때,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예를 들어 'steak')이 나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면 한국음식(예를 들어 '갈비')으로 바꿔 설명하는 재치를 보임. ● 학생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라 할지라도 '~뎀등의 표현이나 명령조의 반말, 다소 망신을 주는 말투 보다는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번 질문을 해서 학생들이 어휘의 뜻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함.
	<p>피드백 (오류수정, 칭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학생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 발표시 이름을 불러주는 점이 좋았음. ● 학생들이 발표한 후 내용이나 발음 면에서 교사가 즉각적으로 오류를 수정해주며, 본문 듣기에서는 학생들이 헛갈리기 쉬운 'cup peas' 와 'coffee'를 교사가 의도적으로 구분해 줌. ● 학생들에게 좀 더 칭찬을 많이 하여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함.

단계	영역	의견
수업 중 (시작 -마무리)	학습 활동(과업) -적절성, 수준,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를 활용한 어휘 학습은 학생들의 예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어휘 수준도 무난하여 모든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수업 중 지나치게 많은 부분(30분)을 어휘 학습에만 할애한 것은 다소 수정해야 할 부분인 듯. 단어 하나 하나에 관련된 이야기기가 다소 많은 시간은 차지하였음. ● Comprehension check-up questions에서 교사가 본문의 내용을 일일이 해석해주지 않고 간단한 영어 문장으로 묻고 대답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이 흥미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수업 진행 (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활기있게 잘 이루어졌으며 교사가 학생들을 잘 통제하고 있음. ● 수업 중 학생 참여를 많이 유도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엿보이며,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두 번, 세 번 기회를 줌으로써 결국은 발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줌. ● 수업 계획을 세울 때 학습 목표와 관련이 적은 부분은 제외시켜 좀 더 효과적인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recipe 독해를 위한 어휘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road sign', 'straight', 'enter' 등의 단어는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굳이 이번 차시에 학습하지 않아도 될 듯함. 또한 'block'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도를 그리고 길찾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말해보는 등 다소 주제와 벗어난 활동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음. ● 지정된 학생에게 cassette tape를 대신해 육성으로 본문을 들려주게 할 때, 굳이 외워서 하느라 머뭇거리기 보다는 자신있는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주게 하는 것이 듣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음. ●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학생에게 다시 그 부분을 말해주도록 한 것이 바람직함.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는 quiz식 학생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단어를 읽고 뜻을 말해보는 방식만으로 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문장의 내용상 적합한 단어를 넣어보거나 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보는 등 좀 더 수준 높은 활동도 가능할 듯함. ●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는 교사가 영어로 내용을 물어보고 학생들이 답한 내용에 대해 feedback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개별적인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T/F question과 같은 형성평가 문제가 수반된다면 더 좋을듯함.

단계	영역	의견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학습과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 이해라는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음. ● 목표 달성 여부를 가시화 할 수 있는 평가지가 있었다면 더 효율적일 듯함.
	만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학습 위주의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주었음. ● 학생들과 교사간에 rapport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수업 시간 내내 유쾌한 분위기와 집중된 모습이 보였으며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음. ● screen으로 제시된 단어들이 크고 선명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잘 보이며 어휘와 관련된 그림 자료도 적절하게 활용됨. ● 교사가 학생들의 반응에 주의를 잘 기울이고 꼼꼼하게 feedback을 해주려고 노력함.
수업 후	개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학습시 교사가 발음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pour를 [푸어]로, choose를 [츄스]로 잘못 발음함. ● '단어 읽기→뜻 말하기 방식의 단편적인 어휘 학습에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recipe의 이해'라는 큰 주제 내에서 어휘를 익히고 다양하게 활용해보는 방법이 고려되어야겠음. ● 수업 시간을 좀 더 효과적이며 배분하고, 수업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너무 산만해지지 않도록 가르칠 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학생 중심의 개별 활동을 좀 더 수업 계획에 첨가해도 좋을 듯함. ● comprehension check-up 뿐만 아니라 수업 전반에 걸쳐 교사가 classroom English의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함. ● 학생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많이 해주어서 자신감과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함.

<교사 C - 관찰자료 5>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1) 스크린에 제시된 단어를 읽고 그 뜻을 말할 수 있다. 2) 교과서 본문 내용을 듣고 전반적인 내용 을 묻는 문항에 대답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한 내용의 글 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이해한다.	학생들을 잘 장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 지만, 본시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위 해 학습목표를 판서해 놓는 것이 좋을 듯함.	1) 학습목표를 꼭 파서해야만하 나? 2) 설정된 학습목표가 본시 학 습목표로 적절한가?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학습내용: 1)본문에 나오는 단어학습 2)본문 듣고 내용 이해하기 -교재: ppt file	수업에서 퀴즈 형식으로 활용한 ppt 단어 file이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았음. 단 어에 소리까지 넣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시청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 시하는 방법은?
	수업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도입: 수업 설명 -전개: ppt통한 단어 확인 -결말: 학습한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학생 을 통해 발표하게 함으로 형성평가 함.	단어 확인과 형성평가가 전체학습으로 계 화된 수업으로 영어 단어를 퀴즈형식으로 학습한 후, 한 학생을 지명하여 학습한 단어 를 활용한 본문내용을 말하게 하고 추측하 도록 한 흥미로운 수업임.	'본문 학습을 위한 수업이라고 하지만 ppt를 활용한 단어학습 에 그렇게 과도한 시간을 배정 해야만 하나?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 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 재 등)	-중 2학년 남녀 혼합반(대부분 동성끼리 짝을 이루고 있음) -학생들의 이름을 교사가 다 알고 있어 수 업 장력이 비교적 수월해 보임 -교실 칠판 옆에 LCD 빔이 설치되어 있어 판서하는 데 공간적 한계가 있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호응과 집중력에 별 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고 비교적 수업 에 잘 참여하고 있음.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었지만 퀴즈형식으로 단어학습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수업형식과 비교할 때 동기 유발과 참여도가 나아보였음.	수업 시작 후부터 약 30여 분간 ppt로 진행된 단어학습이 다소 지루해 보였음.	학생들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생각해 볼 때 단어 학습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전체학습 형식으로 진행된 수업이라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같음.	퀴즈형식의 학습을 상호작용이 원활한 학습으로 이끌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함. puzzle을 이용한 수업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 진행이 대부분 구어로 진행되었으며, “~해라” 체의 어법이 두드러짐. -교사가 사소한 일상을 예로 들어 단어와 관련된 설명을 하였음.	-간단한 진행어나 설명, 질문은 영어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친숙한 분위기의 수업형태였기 때 문에 “...한 놈”, 과 같은 말이 들렸는데, 반말 사용은 지양해야 될 것 같음.	수업 시 간단한 지시어정도는 영어로 하는 것이 어떨까?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학생들을 지명해 개별 발표시킨 후, 오류수정과 그와 관련된 설명 함.	개별발표 후, 오류 수정과 설명이 바로 제공되어서 좋았으나 대상학생들이 아직 저학년들이므로 좀 더 칭찬이 필요해 보임.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시간적으로 제공된 본시 학습활동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인 것 같고 과업수준은 대상학생들에게 적절해 보임.	“읽기”단원을 학습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하지만 단어 확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게 아닌가 생각됨. 수업 후반(22분 경)에 한 학생으로 하여금 본문 내용을 각색·발표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형성평가로 제공하였는데 시간 배분을 생각해 볼 때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들었음.	-학생들이 하나의 대상에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본시 학습에서 교사가 가장 중점을 둔 항목은 무엇인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 전반에 걸쳐 진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음. -발표를 못한 몇몇 소극적인 학생들이 지도하는 것 역시 무난해 보였음.	학생들을 잘 장려하고 있다고 생각됨. 수업의 흐름이나 진행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수동적인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효과적인 수업 형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수업을 활기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적당한가?
	학습 점검(평가 요소)	단어학습을 끝낸 후, 학생 한명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이해를 묻는 질문을 평가요소로 채택함.	text를 약간 수정한 것을 학생 한명이 교단 앞에서 나와 2번 연속해 말해 주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2번 정도로 들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보통 중학교 2학년이라면 text를 보고 따라들어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도는 좋아 보이나 다수의 학생 수준에 맞을까 의문임.	수업할 때 교사는 교수내용의 수준을 어느 정도에 맞춰야 좋을까? (상, 중상, 중, 중하, 하상, 하)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목표한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교과의 수준을 어떻게 잡고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수동적인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학습목표를 제시할 필요를 느낌.	
	만족스런 점	-ppt로 제작한 퀴즈형식 단어 확인이 학생들에게 적절히 적용되었다고 생각됨. -단어학습 시, 단어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과 불규칙동사 변화까지 확인하는 교사의 노력이 있었음.		
	개선 점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전반이 국어로 이루어졌는데, 간단한 영어로 교실영어와 지시어를 적절히 혼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본시 수업동안 학생들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시죽들이 눈에 띄었는데 전달할 내용을 수업 전에 미리 정리한다면 교사가 의도한 더 일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현재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수업이었음. -수업 시작 시 교사가 모처럼 인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고루한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수업의 시종에서 인사는 서로에 대한 예의이므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음.(수업 시작 시 인사할 때, 인사를 받는 교사가 어색해보임.) -매우 실험적인 수업이었으나 중학교 2학년 영어시간이 범정3시간에 교과재량 1시간을 더해도 4시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본시처럼 단어만 가지고 45분 수업에서 약 30분가량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의아했음. 5.6교시 연속된 수업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진도를 생각한다면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교사 C - 관찰자료 6>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1) 스크린에 제시된 단어를 읽고 그 뜻을 말할 수 있다. 2) 교과서 본문 내용을 듣고 전 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에 대답할 수 있다.	수업 시작시 학습목표가 제시 되지 않아 학생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할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음. 수업목표를 인식하면 동기유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수업에 대한 수업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대부분 이어지는 수업이라 학생들이 알고 있을것이라 인지하고 쉽게 놓치는 경향이 있음)	수업시작전 학습목표 제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학습내용: 1)본문에 나오는 단어학습 2)본문 듣고 내용 이해하기 -교재: ppt file	-수업전체 비율에서 단어 학습이 차지하는 시간이 너무 김 -본문 내용 전달시 학습의 친구를 이용하여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하여 수업에 집중도를 높이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점은 훌륭함.	본문부분 도입을 항상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지?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도입: 수업 설명 -진개: ppt 통한 단어 확인, 진행을 통해 본문을 암기하게한 후 내용을 파악하게 함. -결말: 단어시험 불 예정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단어 학습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이미 학습한 단어를 복습하는 단계인지) 수업전 단어 설명 단계인지 구분이 안났음. 복습하는 단계라면 Activity를 중심으로한 조별 활동을 통한 점검등으로 전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고안아 필요함) -30분정도의 단어학습만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자칫 지루해 할수 있는 부분을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관계가 좋아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인상적임. -본문 암기 후 자신의 이야기처럼 나와서 이야기한 시도는 새롭고 학생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주어 본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단어학습을 Activity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고안?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중 2학년 남녀 혼합반(대부분 동성끼리 짝을 이루고 있음) -학생들의 이름을 교사가 다 알고 있어 관계가 좋아보임. -교실 칠판 앞 스크린으로 인해 글자가 크게 잘 보였음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수업들 학생들이 잘 따라 하도록 노력하는 교사의 자세가 돋보임 -PPT사용시 학생들을 주목할수 없고, 내려보아야 하는 시스템이라 학생들의 주위를 흐트러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의 수업자세가 너무 불편해 보임. 전자칠판등을 사용등으로 수업의 원활한 진행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보임.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며 퀴즈 형식의 단어 공부에 참여하고 못한 학생은 뒤로 나간 뒤 패자부활전을 통해 들어옴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잘 따라오면서 수업에 참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리하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휘 공부하면서 이루어진듯함 -전체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기존에 쌓아 놓은 교사와 학생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즐겁게 잘 진행됨 -단어 공부에만 30여분이 소요되어 다소 지루해짐. -동료 친구인 건영의 스피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임. 	본문 수업이 매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상호작용(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좋고 교류가 좋음 -학습자들간의 상호 작용은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의 주제가 학생중심 Activity를 하면 좋은 주제인것 같은데 교사중심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 진 점이 조금 아쉬움.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수업 중 (시작-마무리)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 진행이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며, “~해라” 체의 어법이 두드러짐. -교사가 사소한 일상을 예로 들어 단어와 관련된 설명을 하였음. -후반 부 본문 설명은 영어로 질문하고 대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수업이니 만큼 가능하면 학생들이 영어로 출시킬 필요가 있는 듯함. 특히 단어 설명시는 영어로 하는 수업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영어사용이 더 많아야 할 필요가 있는 듯함. -반말이나 은어, 이놈 등 친숙함을 이끌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잘 함점임. -본문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을 영어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영어로 본문을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평가함. 	영어노출기회를 점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가면?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을 지명해 개별 발표시킨 후, 오류수정과 그와 관련된 설명 함. -밝은 미소와 진행으로 비언어적인 호감으로 수업을 이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발표 후, 오류 수정과 설명이 비로 제공되어서 좋았으나 대상학생들이 답답한이 아닌 경우에는 오해를 사거나 영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을 수도 있음. -저학년들이므로 좀 더 칭찬이 필요해 보임. 	학생들에게는 시소한 칭찬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어점감: 30여분 -본문 내용 읽고 내용파악하기 10여분으로 진행됨 -학생들 수준에 맞는 어휘가 선정되고 설명됨. -ppt에 이미지를 넣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단원을 학습하기 위한 전 단계의 단어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과 한꺼번에 학습하기에는 42개의 단어의 숫자가 너무 많았음. -교사 중심이었지만 흥미롭게 잘 진행되었음. -친구를 통해 본문 내용을 듣고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학습에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냄. 	본시 학습에서 교사가 가장 중점을 둔 항목은 무엇인가?

단계	영역	관찰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 진반에 걸쳐 진행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음. -발표를 못한 몇몇 소극적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역시 무난해 보였음.	-학생들을 잘 통제하고 수업을 이끌고 있음. -수업의 흐름이나 진행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수동적인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효과적인 수업형태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수업진행이 어려운 점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요?
	학습 점검(평가요소)	-단어학습을 끝낸 후, 학생 한명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이해를 묻는 질문을 평가요소로 채택함. -간영의 본문 제시 후 말한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게함.	-30여분동안 이미 배운 단어를 다시 점검하는 방법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미 배운 단어를 다시 할 경우에는 단어+문장으로 연결시키는 심화 학습으로의 전환이 필요할듯하다. -미리 단어를 훑어보고 자신의 단어만 맞추면 되는 구조이므로 운이 좋으면 잘 대답하고 그렇지 못하면 뒤로 나갈수도 있으므로 이번 평가는 학습된 모든 학생들의 각 개인의 학습 태도를 점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가인 것 같다. 따라서 계속 사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인 평가방법이므로 다양한 평가구현이 필요하다 -간영의 말한 내용에 대해 쉽게 대답하기에는 단어들 많이 나오고 있고 어휘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듯하다. pre reading으로 그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모든 학생이 이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평가 방법인 것 같다.	수업 내용에 따른 적절한 형 성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목표한 학습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다소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음.	
	만족스런 점	-ppt로 제작한 퀴즈형식 단어 확인이 학생들과 교사의 상호적인 관계로 인해 즐겁게 진행됨. -단어학습 시, 단어에 따른 부수적인 설명과 불규칙동사 변화까지 확인하는 교사의 노력이 있었음. -간영의 등장으로 본문에 대해 동기유발과 pre-reading의 효과를 본 것.		
	개선 점	-좀 더 많은 교실 영어와 영어 사용을 권함. -본시 수업동안 학생들에게 설명할 경우 예를 들때 지나치게 사적인 경우도 있어서 조절이 필요함. -교사 중심 수업과 학습자들의 활동이 적절히 배합된 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학습도 포함되도록 좋을듯함.		
	기타(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현재 일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수업이었음. -인사할 경우 서로 함께 해야 할 것임.		

2. 수업 2

가. 지도안

Textbook : Didimdol page 184.

Materials : Textbook, ppt, worksheet

1. Objectives ;

Students are able to make short sentences using -thing + adjectives.

Students are able to make short sentences using It~ to+V~.

2. Introduction

Introducing vocabularies that students are able to use to make short sentences.

Vocabulary

disgusting, soft, dry, wrong, terrible, inexpensive, boring, happen, missing,
expensive, touch, personal information, ride a bike, dangerous, safe, wear, helmet

3. Development

① Introducing the frame of -thing +adjectives and then showing how to make short sentences using the frame.

② Introducing example sentences using the frame ; It ~ to V ~. and then letting students find out the frame. Finally, explaining the reason why the frame is used in many English sentences and letting students make short sentences using the frame.

4. Consolidation

Reviewing vocabularies and the frames ; -thing + adjectives and It ~ to V ~ .

나. 자료

<교사 C - 수업자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gusting ▪ soft ▪ dry ▪ wrong ▪ terrible ▪ inexpensive ▪ boring ▪ happen ▪ helmet ▪ missing ▪ expensive ▪ touch ▪ personal ▪ information ▪ dangerous ▪ safe ▪ wear 	<div style="text-align: center;"> <p>-thing + adjectives</p> <p>형용사</p> </div>
<p>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p> <p style="text-align: right;">+ adjectives</p>	<div style="text-align: center;">  <p>I need <u>something hot</u> to drink.</p> </div>

<교사 C - 수업자료 2>

 <p>Would you like <u>something cool</u>?</p>	 <p>I am poor...so...I can't buy_____. ㅠ.ㅠ OTL...</p>
 <p>난 뭐든 <u>빨간것</u>이 좋아~~~^^ I like <u>something red</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2. It is hard to park this car. 3. It is dangerous to play in the street. 4. It is safe to wear a helmet. 5. It is not good to give 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2. It is hard to park this car. 3. It is dangerous to play in the street. 4. It is safe to wear a helmet. 5. It is not good to give 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p style="text-align: center;"><u>It is ~ to 동사원형.</u></p>
<p>It is fun to play baseball.</p> <p>① To play baseball is fun.</p> <p>② _____ is fun to play baseball.</p> <p>③ (It) is fun to play baseball.</p> <p>가주어 진주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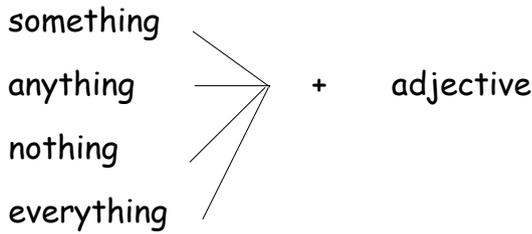
< 랭포 학습지 >

Lesson 9.

name :

number:

< -thing + 명용사 >



역겨운 것 -> _____

잘못된 것 -> _____

부드럽고 건조한 것 -> _____

차가운 것 -> _____

새로운 것 -> _____

재미있는 것 -> _____

낮은 것 -> _____

비싸지 않은 것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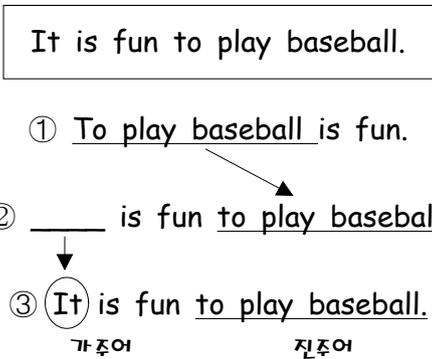
Let's make short sentences after seeing some pictures.

1.
2.
3.
4.
5.

<가주어 it>

1.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2. It is hard to park this car.
3. It is dangerous to play in the street.
4. It is safe to wear a helmet.
5. It is not good to give 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The frame of above sentences : _____



주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구가 긴 경우, 주어 자리에 it을 쓰고 to 부정사구는 문장 끝으로 보낸다. 이 때 to 부정사구를 진주어, it을 가주어라고 한다.

Let's make sentences using the frame ; It ~ to V ~.

1. 영어를 100점 맞는 것은 쉽지 않다.

in easy English it not to score get is 100 test.

-> _____

2.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it, solve, this problem

-> _____

3.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To _____ is impossible. -> _____

<교사 C - 수업자료 4>

- | | |
|---------------|---------------|
| ■ disgusting | ■ missing |
| ■ soft | ■ expensive |
| ■ dry | ■ touch |
| ■ wrong | ■ personal |
| ■ terrible | ■ information |
| ■ inexpensive | ■ dangerous |
| ■ boring | ■ safe |
| ■ happen | ■ wear |
| ■ helmet | |

다. 수업녹취

교사 : 뭐하는 짓이야? 집에 있니? 사물함에 있니? 아예 없어? (교과서 없는 학생숫자 파악중)...니들 오늘 청소에 추가! 자...교과서 184쪽 펴봐. 단원을 훌쩍 뛰어 넘었지. 우리 아직 8과 덜 한 것 같은데, 9과로 넘어 갔어 그렇지? 8과를 덜 한 게 아니라 거의 다 했어. 듣기랑 단어랑 본문 시험만 보면 8과는 끝! 이제 9과를 서둘러 들어가야 되는데...184쪽 랭귀지 포커스 부분이지. 거기 1번에 보면...진한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 읽어보자.

학생들 : anything disgusting, something soft and dry, nothing new.

교사 : 자 그러면 1번을 보면...앞에 단어가 다 뭐로 끝나? 다 thing 으로 끝나지?

thing 으로 끝나고 뒤에는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니? 동사가 나오니? 형용사가 나오 니? soft and dry 그리고 new 이런거 품사가 뭐야?

학생들 : 형용사.

교사 : 형용사가 영어로 뭐야? 여기.(칠판에 판서된 내용을 가리키며) 어려운 단어지. adjective! 읽어봐!

학생들 : adjective.

교사 :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수업해야할 내용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 밑에. 2번 봐봐. 2번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뭐야?

학생들 : It, to give out. It go keep. It to read.

교사 :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내용은 뭐야?

학생들 : it is..to 부정사.

교사 :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문들을 배워보고 그 구문에 맞춰서 문장도 만들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니들 못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써먹어야 할 단어가 있어. 단어장은 내가 미리 췌었지? 거기 단어장에다가 하나씩 뜻을 우리가 써보자. 내가 발음을 해주면 따라하고 뜻을 불러주면 거기에다가 써보자. disgusting.

학생들 : disgusting.

교사 : 이 단어...발음 해보면 느낌이 어때? disgusting. disgusting. Oh, disgusting.

학생들 : 역겨워~

교사 : 속이 메스껍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아?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그거랑 비슷해.역겨운, 혐오스러운. 하를 뭐하고 있어? 필기 도구 없어? 자 그 다음. soft. soft는 뭐야? 이거는 부드러운. 그 다음. dry. 이건 뭐야? 말리다 라는 뜻도 되고...말라있는 상태...마른...건조한...자..그 다음에 wrong. What's wrong with you? 이거 뭐야?

학생들 : 무슨 일 있니?

교사 : 그러면 wrong 이거 무슨 뜻 이지? 잘못된, 틀린. 자 그다음에. terrible. 이건 또 뭐야? 뜻이 결코 좋은 뜻은 아니지? 끔찍한. 자..그 다음에...in..expensive, inexpensive.

학생들 : inexpensive. inexpensive.

교사 : expensive 라는 것은 알고 있지?

학생들 : 비싼.

교사 : expensive 라는 단어 앞에 in 이라는 말을 덧붙여 났어. 그러면 그 말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학생들 : 반대.

교사 : 그럼 비싼 게 아니라 뭐야?

학생들 : 산.

교사 : 어. 값이 싼.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쉽지. boring. 이걸 뭐야?

학생들 : 지루한.

교사 : 자. 그러면 추가로 내가 질문을 해 볼게. 너희들이 제일 많이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언제야? 영어 빼고....

학생들 : 도덕...영어...과학...

교사 : 자 과학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같다. science. 그러면 science 시간에 니들이 꾸벅꾸벅 조는거야. 그러면 science class 그 자체는 어때? 지루하다 그렇지? 그러면... Science class is boring. 그러면 니들이 과학시간에 지루함을 느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니?? I am boring 이 아니면 뭐겠어?

학생들 : (머뭇거리면서 대답한다.)

교사 : bored가 되겠지. I'm bored in science class.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건..i am bored... 그리고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무언가는...something is boring. 그러니깐 주어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boring이 되느냐 bored가 되느냐를 구분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엔...happen.

학생들 : happen.

교사 : 이걸 뭐지? what happened?

학생들 : 무슨 일 있니?

교사 : 그렇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일 이야? happen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helmet.

학생들 : 헬멧.

교사 : 너희들 그 때 단어로 문장 만드는 것에서...그 때 이 단어가 나왔었나? protect. I wear helmet to protect my head. We wear helmet to protect our heads.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helmet을 쓴다고 할 때 그 헬멧이지. 그러면 protect는 뭐지? 그 다음에 missing.

학생들 : missing.

교사 : missing 이걸 뭐야?

학생들 : 놓치다.

교사 : missing은 miss 라는 단어에서 나왔어. miss는 뜻이 두 가지가 있지. 일단은..

학생들 : 그리워하다.

교사 : 그리워하다.가 있고..너희들 버스 탈 때의 경우를 생각해봐. 아침에 학교를 오려고 버스를 타러 갔는데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어. 그러면 (버스를) 놓치다 라는 뜻이 있어. 그렇게 되면 버스를 그리워하겠지? 그래서 그리워하다 라는 뜻도 있어. 버스를 타고 다닐 때 버스를 놓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 단어를 외우기가 쉬울거야. 그 다음...expensive. 이걸 뭐야?

학생들 : 비싼.

교사 : 자 그 다음. touch. touch

학생들 : touch. touch

교사 : touch에 ing를 붙였을 때, 이걸 무슨 뜻이 될까? touching.

학생들 : (묵묵부답)

교사 : 아주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너희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상태가 touching이야. 그 드라마나 영화속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슬쩍 건드리지? 툭 건드리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느껴? 우와...감동적이다...슬프다,,이런식으로 느끼지? 그래서 touching은 감동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된다. 그다음

personal. personal. 이거 뭐야.

학생들 : 개인적인.

교사 : 개인적인 혹은 사람의. 자 그다음...information

학생들 : information.

교사 : personal information 이거 뭐야?

학생들 : 개인정보.

교사 : dangerous 이거뭐야?

학생들 : 위험한

교사 : safe 이건?

학생들 : 안전한

교사 : wear 이거 뭐야?

학생들 : 입다.

교사 : 몸에 착용하는 건 다 wear이지...모자를 쓰는 것 양말을 신는 것...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thing + adjectives 구조를 배울건데...thing으로 끝나는 말들을 너희들이 몇 가지 알고 있지? 뭐가 있어?

학생들 : nothing,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교사 :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을 할게.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건 품사가 뭐야? 명사, 형용사, 동사 등등 이런 것을 품사라고 하거든... 해석을 한 번 해봐. everything 이거 뭐야?

학생들 : 모든 것.

교사 : ~것. 이런건 뭐야. 명사지. ~하다로 끝나면 동사야. ~한 으로 끝나면 형용사. ~하기 ~하는 것 이런 것은 명사야.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야. 그러면 명사가 앞에 오고 형용사가 뒤에 오는 구조네. 뒤에 오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수식해 주는 거지. 니들이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를 봤을 때, 이러한 순서일까 아닐까? 잠깐만...그러면... 예쁜 소녀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지? 어...pretty girl . a pretty girl. 그러면 영리한 남자아이는? a smart boy.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러한 표현들 말들...이런 건 순서가 어떻게 되지? 소연아 너 뭐하나? 오늘 안경은 어디 갔어? 자 pretty girl, smart boy 이런 걸 보면...pretty, smart 이런건...

학생들 : 형용사.

교사 : 어, 형용사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에서는 형용사가 앞에 오고 명사는 그 뒤에 오는 그런 구조로 ...우리는 형용사와 명사가 올 때 그렇게 쓴다는 거야.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수식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울 이렇게... thing 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와 만나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 애들은 형용사를 제치고 앞으로 가는거야. ~인 것 어떤 것..어떤 것인지는 수식을 앞에서 받는다? 뒤에서 받는다? 뒤에서 받는다. 그러면 니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 순서야. 그러면 거기 예를 한 번 보자. 학습지를 줄게. (학습지를 배부) 애들이 즐리니?

학생들 : 아니요.

교사 : 자 학습지 다 받았지. 자 그러면 거기...밑에 8개의 말이 있지. 역겨운 것. 잘못된 것...등등 그걸 한번 써봐. 아까 형용사는 단어장에서 다 가르쳐 줬구...something anything,,,이런 것중에서 하나 골라 쓰면 되지...애들아 이거 제일 간단한거야. 일단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를 하나 쓰고 시작해야 할 거야. something을 쓰던, nothing을 쓰던, anything을 쓰던...그건 니들 마음이고...그걸 하나 쓰구 나서 거기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 줘야되...그 의미에 해당하는 형용사..형용사는 아까 우리가 단어 봤었잖아...거기서 찾아 쓰면 되지...어렵지 않지??응?? 새로운...new...exciting interesting...fun은 명사고 funny가 형용사지. 그

리고 우리반은 뭔가 느리데...애들이 뭔가 느리다는 거야...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같이 해보자. 역겨운 것 이거 뭐야?

학생들 : something disgusting.

교사 : anything disgusting 해도 되고...thing으로 끝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되지. 잘못된 것?

학생들 : anything wrong, nothing wrong.

교사 : something wrong, anything wrong, nothing wrong...등등. 자 부드럽고 건조한 것?

학생들 : something soft and dry...

교사 : anything soft and dry..자...다같이 읽어~니들 즐기고 있으면 촬영 한 번 더 할거야. 촬영 계속할거야. 큰소리로 대답해. 자...차가운 것.

학생들 : anything cold. something cold.

교사 : anything cold, everything cold, something cold. 자 새로운 것.

학생들 : something new.

교사 : 어...something new, anything new, 등등. 재미있는 것.

학생들 : anything funny...

교사 : something funny, something exciting, something interesting. 낡은 것

학생들 : anything old.

교사 : 비싸지 않은 것. nothing expensive, something expensive. 자 학습지 밑에 이제 보면...읽어 보자...let's make short sentences using -thing + adjectives. 그림을 보여 줄거야. 그림을 보구 이걸 이용해서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거야. 자 커피가 나오는 이 그림이 있지. 이런 그림을 보면 연상되는 말이 뭐야? 아~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건 다분히 어른들을 기준으로 한 말이야. 너희들은 커피 안 마시잖아. 자 그러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걸 영어로 옮겨봐. 이건...따뜻한 것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하고 싶다. I want...i would like...그러면 내가 한 걸 봐봐...i need something hot to drink. 자, 그러면 2번 부터는 너희들이 한 번 해봐. 내가 쓴 것처럼 한 번 써봐. 이걸 그대로 옮겨지 않아도되. 목이 마르면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고 싶다. 시원한 것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지? 누가 발표 해 볼래? 발표! 건영아~ 자겸~ 해봐~ 너 오늘 따라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자겸 :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교사 : 자,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이지. 아까 선생님이 말한 문장의 형용사만 짝 바꿔서 했어. 이런 것도 기술이야. 잘했어. 자 그러면 자겸이가 한 말을 다시 생각해서 해보자. I...

학생들 : I ..need...something...cold...to drink

교사 : 나는 이렇게 썼어. 아 목마르시죠~ 시원한 것 한 잔 드실래요? 뭐뭐 드실래요? 뭐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지? would you like? 이렇게 하지?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to drink 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 자 세 번째 그림 봐봐.

학생들 : 어~..(웅성거린다.)

교사 : 누구야?

학생들 : 형준이~하하하

교사 : 뭐가 형준이야~

학생들 : 형준인데 진짜...하하

교사 : 이 사람 누구야? 니들 잘모르는 텔런트인데...혹시 조강지처 클럽 봤니? 조강지처 클럽에...이름이 뭐더라? 길억...길억이 아저씨지~이 아저씨가 무슨 드라마 할 때 인지는 모르겠지만...거지를 검색해 보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이 아저씨랑..예전에 쩐의 전쟁할 때 박신양 거지 모습 생각나니? 박신양이 노숙 하던 모습.....그리고 지현우 알지? 여자가 거지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그건 잘 생각이 안나...그 중에서 켈 real 한게 이거더라구 연예인 스텝지 않고...젤 뭔가 진짜 같구...사실적인게 실감나는게 이거 더라구...자 그러면..이걸 보면...이 아저씨가 할 수 있는 말이...I am poor..거지잖아...so I can't buy...어찌고 저찌고 이걸 완성해봐. 그걸 3번 안에다 써봐. (학생들은 문장을 쓴다.)

교사 : 자, 고민할 것 없지. 일단은 생각이 한 쪽 방향으로 수렴되지~같이 해 보자. I can't buy...자 크게 해봐. 쪼그만 목소리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잘 안들려. 시작..I can't buy...

학생들 : I can't buy...something....new....old...

교사 : I can't buy 까지든 크게 하고 거기 뒤에는 뭐야. 일단 ~thing으로 끝나겠지.. 그러면 이게 무슨 thing일지 정해야되. 일단 가능한게 뭐야? 나는 일단 가능한게 everything 일것같애. 돈이 없어서 쓰레기 통 옆에서 이려고 있잖아. 돈이 없어서 모든 것을 살 수 없어. 어떤 모든 것? 예쁜 모든 것? 멋있는거? 비싼걸 못 사겠지? everything expensive~자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한 답은 그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겠지. 거지라고 왜 무시해? 거지라고 무조건 돈이 없는건 아니잖아. 비싼걸 모든걸 못사는건 아니야...그러면 이번에는 비싼 모든 것이 아니고 비싼 어떤 것...자동차나 집 이런것...어떤것은 thing으로 끝나는 것 중에 뭐가 있어? something 이랑 anything 중에 어느것을 써줘야 할까? 이 경우에는 anything을 써야되. 그 이유가 뭐냐는...can't buy 라고 했잖아. 그건 부정문이지? 부정문에는 anything을 써줘야되. I can't buy something expensive가 아니고 I can't buy anything expensive 가 맞는거야. 자 그리고 4번..장미 노란 장미 본적 있어? 파란 장미? 그럼 이런거...본적 있지...노란 장미 파란 장미 빨간 장미 중에서 어떤게 좋아?

학생들 :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검정색

교사 : 검정색이 있나?

학생들 : 하얀색.

교사 : 하얀색이 있나? 자 하여튼 나는 장미는 빨간색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장미 뿐 만 아니라 빨간 사과 옷도 빨간 것이 좋아. 나는 빨간 것이면 뭐든지 좋아 이걸 영어로 해봐. 아니면...나는 파란색이 좋으면...나는 파란색이면 뭐든지 좋아...혹은 나는 검정색이면 뭐든지 좋아. 이렇게 너희들 취향을 영어로 써봐. 이걸 쉽지? 나는 무슨 무슨 색이라면 뭐든지 좋아 라고 할 수 있잖아. 난 뭐든 빨간 것이라면 좋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걸 영어로 하면 뭐야? I like something red. 지혜 How about you?

학생 : I like something yellow.

교사 : 지혜 likes something yellow. 지성 how about you?

학생 : I like something black.

교사 : 지혜 likes something black. 시현 how about you?

학생 : I like something green.

교사 : 시현 likes something green. 자 그러면 5번이 남았지. 간단하게 영작을 한 번 해보자. 내가 불러 줄게. 여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했었지. 그러면 이번에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나는 지루한 것이면 뭐든지 싫어. 영화도 지루한 것은 싫고 수업도 지루한 것은 싫고...나는 지루한 것이면 뭐든지 싫다... 이걸 영어로 써보자. 지원아. 나는 지루한 것이면 뭐든지 싫다. 해봐. 빨리 해봐.

학생 : I don't anything boring...

교사 : 뭐하나 빠졌지? I don't like everything boring. 자 everything 말고도 또 무엇을 쓸 수 있다고 했지? 어...anything...i don't like anything boring. 자 그러면 thing 형용사는 끝이 났어. 그러면 두 번째 할

것이 뭐지? It is 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뒷장 넘겨봐. 예문이 다섯 개가 있지? 그거 한 번 같이 읽어 보자.

학생 :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It is hard to park this car. It is dangerous to play in the street. It is safe to wear a helmet. It is not good to give out your personal information. 자 그러면 이번에 니들이 해야 될 것은...그 다섯 개의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요소에 밑줄을 그어봐...단어 세 개...쉽지. 뭐하고 뭐야? It is ~ to. 거기서 to의 정체는 뭐야? to 부정사 할 때 to야. 그러면 밑에 the frame of above sentences. 는 어떻게 되지? frame은 틀 이라는 거야...위의 문장 의 틀을 써보자는 거지. 어떻게 해야되? 간단히 이걸 쓰면 되지. 그걸 해 보자는 건데...밑에...박스안에 있는 문장을 같이 읽어 보자. It is fun to play baseball. 그런데 이 문장이 원래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 문장이 이렇게 생겨. To play baseball is fun. 이거 무슨 말이야?

학생들 : 야구경기를 하는 것.

교사 : 야구경기를 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런 말이야. 주어가 뭐야?

학생들 : To play baseball...

교사 : 주어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비중이 크지? 대략 삼분의 이정도? 그 뒤에 is 동사랑 fun 보어가 뒤로 밀려나 있어. 이거 한 마디만 하고 마칠게.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길고 복잡한 부분이 앞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길고 복잡한 부분은 어디로 가야돼? 조용히 뒤로 가 있어야해. 그러면 애가 뒤로 가면 어떻게돼? 앞자리가 비고...is fun to play baseball. 이지. 그러면...여기 앞자리는 비워놓으면 되니? 그러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돼. 그래서 It is fun play baseball. 이라는 문장이 나왔어.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온 거야. 그러면 니들이 영어문장을 쓸 때 1번 이랑 3번 중에 어느 것이 더...그러니까 좀 더 영어답고 세련된 문장일까? 어,,,3번이지...그런데 니들이 to 부정사를 배울 때 봤었던 문장이 1번이야. 그런데 1번만 계속 쓰면 안돼. 1번 같은 문장은 굉장히 촌스러워. 앞부분이 머리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장을 그 과정을 이해하고 3번 같은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해. 월요일은 8과 단어랑 문장 시험을 볼꺼야. 공부해와.

라. 자기 관찰

단계	영역	관찰(개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① -thing +형용사를 이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② It-to 부정사 구문을 이용하여 짧은 문장 을 만들 수 있다.	수업 목표가 2개인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한 가지만 설정하는 것 또한 한 시간 수업 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language focus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 내용 2가지 모두를 학습목표로 설정했다.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① -thing +형용사 ② It-to 부정사 구문(가주어-진주어 구문)	첫 번째 목표보다는 두 번째 목표에 시간 을 더 할애할 계획을 세웠다.	영어 문장에서 가주어-진주어 구문이 사용되는 이유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첫 번째 목표는 연역적인 접근법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두 번째 목표는 귀납적인 접근법으 로 수업을 실행한다.	두 가지 목표 모두 귀납적인 접근법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싶었으나 시간관계상 두 번째 목표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첫 번 째 목표는 연역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 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 재 등)	2학년 8반 교실 (담임반), 44명 학생, 컴퓨터, 빔 프로젝트, 스크린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 IT.IT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명에 의한 발표가 이뤄졌다.	1교시 수업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잠에서 덜 깬 듯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했다.	졸려하거나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영어로 읽기를 시키면 너무나도 힘들어한다.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고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나 그룹 활동이 있었더라면 학생들이 간의 상호작용도 유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는 경어를 쓰지 않고 있다.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평소에 만 아이들에게 경어를 쓰지 않아서 그런지 경어를 쓰는 것이 시도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갑자기 경어를 쓰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아서 시도도 못함.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질문에 대답을 잘 한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준다.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는 도중에 개별적으로 오류수정을 해주고 피드백을 주었다.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과업은 개별적으로 학습지를 통해서 제공되었다.	과업의 수준은 중간중간의 난이도였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를 활용했다.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은 계획한 목표대로 진행되었다. 수업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지나치게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수업과 관련 없는 일로 학생을 통제할 일은 거의 없었다.	
	학습 점검(평가 요소)	학습지를 통해서 과업을 주고 그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 점검을 하고 있다.	형성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내용을 반복하고 학습지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인 하는 과정으로 평가를 대체했다.	매시간 형성평가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학습 목표 달성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지만, 두 번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첫 번째 목표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두 번째 목표는 도입단계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만족스런 점	① 학습 목표를 칠판에 써놓고 수업을 하니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향이 정립되어 학습 목표를 써 놓지 않고 수업을 할 때 보다 훨씬 더 수월했다. ②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익힐 수 있는 학습지의 구성과 내용이 만족스러웠다.		
	개선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① 학생들에게 경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②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시키기 보다는 보다 흥미로운 방법(예 : 멘토 선생님들이 조언 해 주신 방법들 중에서 제비뽑기나 번호가 쓰여진 공 뽑기등)을 사용하여 발표할 학생을 선정해야겠다.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 한 성찰 노트)	수업 지도안도 짜고 학습지도 나름 신경 써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수업이었다. 일단은 첫 번째 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학습목표를 3분의 1도 달성하지 못하고 수업이 끝난 점이 아쉽고,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수업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학생들에게 경어를 쓰는 것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시도해 보아야겠다.		

다.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

<교사 C - 수업자료 7>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① -thing +형용사를 이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② It-to 부정사 구문을 이용하여 짧은 문장 을 만들 수 있다.	전체 수업시간에 비해 학습목표량이 많 아 학습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에는 무 리가 있었음.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환경 교재	① -thing +형용사 ② It-to 부정사 구문(기주어-진주어 구문)	학습내용 및 교재는 학습목표와 일치하 여 잘 구성되었음.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	2학년 8반 교실 (담임반), 44명 학생, 컴퓨터, 빔 프로젝터, 스크린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명에 의한 발표가 이뤄졌다.	교사주도의 수업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참여기회가 적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PPT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준비되어짐	문법위주의 수업이지만, 활동중심으로 학생주도의 수업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면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수 있지 않을까?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고 교사 중심의 일방적 수업진행	교사 주도형 수업의 형태라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 상호작용의 거의 없는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짐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는 경어를 쓰지 않고 있다.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교사의 발화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도 않을까?(니들이 못하잖아, 니들이 알아니까.. 등등, 니들보다는 "너희들이" 좀더 다정하게 들리지 않을까)	한꺼번에 고치기는 쉽지 않으므로 수업시작부분, 즉 목표설명 부분이나 전반적인 설명부분에서는 경어를 쓰고 예를 드는 부분에서는 평어를 써가면서 고쳐가면 어떨까요?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질문에 대답을 잘 한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준다.	오류수정 및 피드백부분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	한 시간에 한가지 수업목표를 정해야 실행하고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 진다면 수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유도할수 있지 않을까요?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과업은 개별적으로 학습지를 통해서 제공되었다.	첫 번째 수업목표는 수업의 진행및 설명정도 흥미도 적절성이 적당하였음.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직결한 통제 등)	수업은 계획한 목표대로 진행되었다. 수업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수업의 진행은 차분하고 깔끔하게 잘 진행되었으나, 학생들이 반응이 너무 없어 한쪽으로 치우치는 수업이 진행된 듯함.	
	학습 점검(평가 요소)	학습지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학습 점검을 하고 있다.	학습지 및 PPT를 통한 반복및 학생들에 대한 질문으로 비교적 목표수행을 무난히 한 것으로 평가됨.	평가를 늘 평가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활동지및 게임을 통한 평가방법도 활용되면 평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지만, 두 번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첫 번째 목표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두 번째 목표는 도입단계에서 그친 것이 아쉽다.	
	만족스런 점	① 학습 목표를 칠판에 써놓고 수업을 하니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향이 정립되어 학습 목표를 써 놓지 않고 수업을 할 때 보다 훨씬 더 수월했다. ②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익힐 수 있는 학습지의 구성과 내용이 만족스러웠다.	학습목표의 분명한 인지로 학생들이 그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알고 수업하는 점과, 수업목표와 일치한 학습지 및 PPT 준비등은 훌륭했음.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① 학생들에게 경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②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시키기 보다는 보다 흥미로운 방법(예 : 멘토 선생님들이 조언 해 주신 방법들 중에서 준비받거나 번호가 쓰여진 공 뽑기 등)을 사용하여 발표할 학생을 선정해야겠다.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전체 진행은 차분하고 깔끔하게 잘 진행되었으나, 교시주도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활동이 너무 적어, 전반적으로 수업에 활기가 부족하였다. ●목표를 수업분량에 비해 너무 많이 잡아 수업목표를 달성할수는 없었으나, 2가지를 다 잡으려는 욕심보다는 한가지를 충실히 하고 2번째를 다음 차시로 넘김으로써 목표달성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목표달성에 맞는 수업내용 구성 및 학습지, PPT 준비로 학생들이 수업목표를 도달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형성평가를 하지 못한점이 아쉬웠으며, 형성평가를 활동을 통해 한다면, 교사 및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끌어들이실 수 있을것임. 			

<교사 C - 수업자료 8>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 와 세부적 목표)	-thing + (adjective) -It ~ to V 구문을 제시하고 연습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학습 목표를 분명하고 간단하게 제시	학습할 내용이 주어진 시간에 비 해 과다하다고 여겨짐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상황과 관련된 ppt 자료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이해를 도움	연관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 획)	-새로운 어휘 학습 이후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 함	-내용을 먼저 제시하여 구문의 맥락을 이해하 도록 돕고 있음	학습목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면 함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 질 환경: 학생, 교실, 기 재 등)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교실이 좁고 학생수는 많음. 학습용 기자재는 갖 추어져 있음	-학생들이 수업 중 제작한 학습지를 서로 공유 할 수 있도록 실물화상기가 있었으면 좋겠음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도 등)	수업 준비를 갖추지 않은 학생들이 있음.	수업 준비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상호작용 (학생_학생간 학생_교사간)	교사 주도적 수업으로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보임	수업 전 간단한 warm-up 활동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적극성을 유도하면 좋겠음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주로 단문을 사용하며 학습내용을 질문으로 하고 있음.	-습관화된 언어는 좀처럼 교정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짧고 지시적인 표현을 영어로 바꾼다면 일석이조가 될 거 같습니다. (경어사용문제 해결 및 교실영어 사용)학습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나 너무 편안하다 보니 학습에 대한 긴장감이 부족함.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학습자들의 대답에 대한 수정이나 칭찬이 소극적임.	전체보다는 개별적인 활동 확인으로 학습자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음	-전체 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피드백을 영어로 하면 어떨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한다.'
학습 활동(과업)_적절성, 수준, 흥미도	-학습목표와 관련된 그림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상황을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관심을 끌고 있음	사전에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와 활동을 돕고 있는 점이 돋보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임	제작한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생각은 있나요?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목표제시(2분)-어휘학습 (12분) - 학습주제 설명(4분)-학생 학습지 활동 (7분)- 피드백 -마무리	수업흐름은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었으며 학생들도 적절히 통제되고 있음		
학습 점검(평가 요소)	학습지를 주고 그 활동을 학습과 연결하여 확인하고 있음	활동확인 후 마무리로 다시 한번 본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 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게 한다.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두 개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두 번째 기주어 + 부정사 구문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수업 중에 자주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활동하다 보면 정작 더 비중 있는 부분이 소홀해 지게 됩니다.	어휘 학습 부분을 빼거나 아니면 더 비중있는 내용을 먼저 학습하면 어떨까요? 꼭 교과서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될 듯 하네요.
	만족스런 점	-학습 목표제시가 분명함 -관련 학습 자료가 잘 제작되고 제시되었음	-시각적 자료와 함께 학습자가 학습지를 펼쳐 힘으로써 관심과 이해를 돕고 있음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교실영어 및 경어 사용 부족	-감자기 개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 수업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엿보입니다.		

<교사 C - 수업자료 9>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thing+형용사”를 이용해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부정사를 사용한 기주어, 진주어 구문 (It~to~)을 이용해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교과서의 Language Focus 부분에 제시 된 2가지 문장 패턴을 익히도록 수업 목 표를 정함. -학습 목표 제시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대로 만 수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교 과서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재 구성해 볼 수는 없을까?
	학습 내용 (기능, 지 식) 및 교재	-교재 : 중2 영어교과서 (디딤돌) -내용 : 두가지 문장 패턴을 활용한 문장 쓰기 연습 -Grammar Point: 1. ~thing+형용사 2. 기주어, 진주어 구문	-학습 목표와 일치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서의 읽기 부분과 연계된 문 법 사항임.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학습목표제시 -관련 단어설명(10분 정도) -“~thing+형용사” 구조 설명 -학습지 풀이 -ppt 그림을 활용하여 문장 만들어보기 -진주어, 기주어 구문 설명 -관련 문제 풀이	-문법 수업시 귀납적, 연역적 접근 방식 을 둘 다 사용하도록 수업 설계가 되 어 있는 점이 바람직함. -단어를 연습하고 패턴에 맞는 문장을 만 들어보는 것으로 모든 학습이 끝나도 록 계획되어져있는데, 기계적으로 문장 단위 학습만 시키지 말고 유의미한 글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문법 요소를 추출해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 까? -수업 내용에 대한 적절한 형성 평가 계 획이 필요함.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p>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고하여 작성함</p>	<p>수업 맥락 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재 등)</p>	<p>-대상 학생 : 중학교 2학년 남녀 일반 (class level)에 대한 언급은 없음 -교실 환경 : 일반교실 -기자재 및 수업 자료 : PPT자료, 학습지, 빔프로젝터</p>	<p>-미리 준비된 ppt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결론하게 수업이 진행됨.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 하고 교사의 수업 진행 방식에 익숙해 있 는 모습이 보임(단어 평가를 매시간 꾸준 히 하고 있었던 듯)</p>	<p>-빔프로젝트의 사용으로 칠판 활용이 많이 제한되는 데 시간을 잘 나눠 두가지를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는 없을까?</p>
	<p>학생 관련 (동기, 참여도 등)</p>	<p>-수업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동기를 강하게 유발할 만한 hook이 없음. -학생들이 비교적 차분하게 수업에 참여하 고 교사의 지시에 잘 따름.</p>	<p>-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 바로 교과서를 펴 고 내용을 훑어보는 방식 보다는 학 생들 스스로 학습 내용을 추론할 수 있도록 힌 트를 주거나 좀 더 흥미를 끄는 방식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방식 이 계속되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할만한 활동들을 좀 더 투입하면 좋 을듯 함.</p>	
<p>수업 중 (시작-마무리)</p>	<p>상호작용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p>	<p>-학생-학생간: 상호작용이 거의 없음. -학생-교사간: 전체 학습시 교사가 학생 들 에게 가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흥미를 유 발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주기도 함. 진반적 으로 교사→학생으로 일방적인 수업 진행 임.</p>	<p>-학생↔학생, 학생→교사로의 상호 작용 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 사가 질문을 많이 하거나 pair work, group work 등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겠음.</p>	
	<p>교사 언어 (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 등)</p>	<p>-우리말로만 수업이 진행됨. -교사가 경어를 사용하지 않음. -교사의 목소리 크기와 속도가 적절함. -단어 설명시 예를 들어 잘 설명함.</p>	<p>-학생들과의 rapport 형성이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듯함. -학생들의 활동 지시나 간단한 설명은 영어 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p>	<p>-문법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 하는 것이 불가능할까?</p>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p>피드백 (오류수정, 칭찬 등)</p> <p>학습 활동(과업) -적절성, 수준, 흥미도</p>	<p>-학습자들의 반응에 대한 칭찬이 소극적인 편임. -오류를 수정해 줄때 교사가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함.</p>	<p>-교사의 예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한 학생에게도 "그것도 기술이다."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좋았음. -학생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칭찬표현을 해서 용기 있게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학생들이 실수할 것을 너무 걱정하는 것 같음) -오류를 수정할 때 교사가 직접 정답을 알려주지 말고 다른 학생들에게 오류를 수정해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학생 참여를 높이는 한 방법임.</p>	
	수업 진행 (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p>-ppt를 이용하여 단어를 설명함. -중요 문법 사항은 별도의 학습지를 통해 학습함.</p>	<p>-전시 학습과의 연계나 review가 있으면 좋겠음. -단어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수업 중점 내용을 학습할 시간이 부족함. -학습지의 내용과 예문이 다소 단순하고 분량이 적음. 두 문장 정도를 작문해보게 하는데 7~8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수업을 너무 지루하게 만들 수 있음.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사용한 것이 좋았음.</p>	<p>-학생 개인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좀 더 심화된 자료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p>
		<p>-교사가 사전에 ppt 자료 준비를 잘 함. -학생들이 예의바르게 수업에 임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잘 통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교사의 의도에 따라 매끄럽게 수업이 진행됨. -수업 시간 배분이 다소 부적절함.</p>	<p>-교사가 단어나 그림에 대해 너무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음.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가꿈찍은 필요하나 핵심 주제에 관해 좀 더 속도감 있는 수업 진행이 요구됨.</p>	<p>-수업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교사가 사용하는 말의 양이나 예시의 양을 축약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p>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습 점검(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지를 통해 이해도를 파악함. -전체적으로 답을 체크해 보고, 개별적인 평가 요소는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부족으로 전체 수업 내용에 대한 형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함. -학생들의 이해도를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학습지에 제시된 문제의 양이 너무 적음. -정답을 체크할 때 학습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 보다는 개별적으로 대답할 기회를 많이 주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오류를 모아 feedback을 해준다면 도움이 될듯함.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가지 학습 목표 중 한가지만 달성함. -두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끝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교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로, 수업 계획시 여유있는 시간 배분이 요 구됨. 	
수업 후 (self-appraisal)	민족스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목표 제시를 단순화하여 칠판에 기재함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킴. -교사가 학생들을 잘 통제하고 있으며 수업 분위기가 시종 차분하고 안정적인. -시각자료(ppt)를 미리 준비하여 수업이 깔끔하게 진행되도록 준비를 잘 함.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rapport 형성이 잘 되어있고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바름. -문법 수업에 대해 영역적, 귀납적 접근법을 모두 시도해 본 것이 좋음. -수업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수업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차시 예고를 정확하게 잘 해줌. 		
수업 후 (self-appraisal)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에게 되도록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음. -수업 시간 내에 계획된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학습 분량을 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연습이 필요함. -교사가 수업 내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해 볼 필요가 있음. -사소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길어져 시간이 낭비되거나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후 (self- appraisal)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의 흐름 및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좀 더 세세하게 쓰면 좋겠음. -단어를 한 개씩 단편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예문과 함께 공부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교사의 설명에서 디소의 오류가 보임.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좀 더 주의를 필요함. (예를 들어, "I don't like everything boring."과 "I don't like anything boring."을 같은 의미로 취급했는데 앞의 문장은 부분 부정으로 의미가 다름. 또한 "I like something red."를 "나는 빨간 것이면 어떤 것이든 좋아."라고 해석했는데 그런 경우는 "I like anything red."가 더 적절한 표현임.) -초임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잘 통제하고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교사 C - 수업자료 10>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사항
수업 전 (계획단계) * 지도안을 참 고하여 작성 함	학습 목표 (교육과정과 연관된 목표와 세부적 목표)	① -thing +형용사를 이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② It-to 부정사 구문을 이용하여 짧은 문장 을 만들 수 있다.	1차시 수업으로 새로운 어휘와 두 개의 문형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되므로 목표는 적절히 구성되었음.	
	학습 내용 (기능, 지식) 및 교재	① -thing +형용사 ② It-to 부정사 구문(기주어-진주어 구문)	학습내용 및 교재는 학습목표와 일치하여 잘 구성되었 음.	
	실행 계획 (수업 실행 계획)	어휘와 두 가지 문형을 가르치기 위해 구체 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음.	ppt를 이용하여 어휘를 설명할 계획을 세웠으며 언어 적, 귀납적 방법으로 가르칠 계획도 세웠지만 학생들의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들어있지 않아 서 교사 자신의 활동, 즉 교수 활동은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일어날 것을 예측해야하는데 가르침만 생각한 것 같아 아쉬움(어떤 반응은 생각지 않음)	
	수업 맥락(수업이 이루어질 환경: 학생, 교실, 기자제 등)	2학년 8반 교실 (담임반), 44명 학생, 컴퓨터, 빔 프로젝트, 스크린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인 일제식 수업 방식으 로 멀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음.	

단계	영역	관찰(객관적 진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 사항)
수업 중 (시작-마무리)	학생 관련(동기, 참여 등)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과 지명에 의한 발표가 이뤄지고 초반 만들어진 단어 단어를 초반 나열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pt의 기능이 거의 없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합지만 보고 수업에 임하면서 그 기간동안 지루한 설명을 계속해야했음.	초반 ppt는 단어를 나열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으나 이후 thing+형용사의 그림 ppt는 나열대로 고개를 드는 학생들이 일어나면서 학습에 참여자가 늘어났음. 문법ppt 설명도 깔끔했음. 하지만 교사 중심수업으로 학생참여는 25% 정도로 일체적으로 수업적이라 할 수 있음. 초반 어휘에 thing+rad를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는 어휘가 많이 있으므로 이미지를 두 개의 문형 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했다면 어휘를 힘들게 말로 설명하는 시간이 줄고 앞에 어휘를 자연스럽게 문형까지 이끌어 가서 시간도 줄고 authentic material이 될 가능성이 많음. 또 다른 ppt 이미지는 동기를 끌기에 괜찮지만 그림은 커피이면서 문장은 뜨거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준다 학생들이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음.	
	상호작용 (학생_학생 간, 학생_교사간)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고 교사 중심의 일방적 수업이 진행됨	교사 주도형 수업의 형태라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 상호작용의 거의 없는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짐. 먼저 어휘를 설명할 때 ppt로 한꺼번에 한 후에 짝과 함께 빨리 어휘 학습지를 채우고 그 후에 교사가 단어의 뜻을 말하면 두명 중 먼저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이 책상을 치고 영어로 말하는 활동을 다섯 개 씩 해서 한번 해석을 쓴 단어를 다시 한기하면 학습이 늘어난다. 또 ~한 것에 단어를 써 넣을 때 짝과 논의해서 적거나 모둠으로 한기하면 해서 빨리 한 팀을 보상으로 하면 좀 더 빨리 동기 유발과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언어(설명, 질문, 예시, 요약 등등)	교사는 영어를 쓰지 않고 있다.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너들이 못하잖아. 너들이 알아니까. 등의 언어는 부정적이지만 우리만이 최고 잘하는 반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비록 거짓말이라고 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다양한 예외 파생어를 설명하였다. 영어, 영어 혼용이 필요할 듯하다.	
	피드백(오류수정, 칭찬 등)	질문에 대답을 잘 한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준다.	개인적인 칭찬과 수정오류를 하고 있음. 하지만 짝 활동이나 모둠활동을 시킨다면 일차적으로 짝이나 모둠 안에서 먼저 오류를 발견하고 가르쳐 주며 그래도 안 될 경우 교사에게 묻게 되므로 2번의 수정 단계가 있을 것 같다.	
	학습 활동(과업) 적 질정, 수준, 흥미도	과업은 개별적으로 학습지를 통해서 제공되었다.	첫 번째 수업목표는 PPT를 이용하여 흥미를 유도하였음. 어휘나 문법수준도 어렵지 않았음. 하지만 It-to-구문을 전통적인 문법 설명은 간단히 한 후 It is easy(difficult) to~를 이용하여 주변의 쉬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다양하게 질문했다면 좀 더 authentic, communicative material로의 전환이 쉬웠을 것 같다.	
수업 진행(흐름, 지도력, 적절한 통제 등)	수업은 계획한 목표대로 진행되었다. 수업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학생들이 반응이 너무 적어 다소 지루하지만 통제는 잘 되었다. 어휘를 thing+rad와 함께 가르치면서 시간을 줄였다면 두 번째 문법도 가르칠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학습 점검(평가 요소)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채워 넣도록 하였음.	전체적으로 thing+rad에 활용된 시간이 많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은 확실히 되도록하며 짝끼리 학습지의 빈칸을 다 채웠으면 서로 사인을 해주는 방법도 한번 더 활동한 내용을 점검하는 방법도 된다.		

단계	영역	관찰 (객관적 기술)	의견(관찰자 의견)	질문/논의 사항
수업 후 (self-appraisal)	학습 목표 달성	<p>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지만, 두 번째 목표 달성은 부족함.</p> <p>① 학습 목표를 칠판에 써놓아서 수업 방향을 정해준 것. ②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학습지를 만들어 한 번 더 반복학습하게 한 것. ③ 문제가 잘되고 지시에 잘 따르는 점 ④ 문법 설명이 깔끔한 것 ⑤ thing+ad; 설명이 풍부한 것 ⑥ 교사의 목소리가 정감 있고 명쾌한 것 ⑦ ppt 사용한 것</p>	<p>어휘 설명을 상세히 한 것은 좋았지만 말로 다 하면서 다소 길어졌고 첫 번째 목표달성은 충분히 되었는데 그로 인해 두 번째 목표는 도입단계에서 그친 것이 아쉽다.</p>	
	만족스런 점		<p>교사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목소리와 진행이 돋보이고 ppt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It~to~ 구문 설명도 명쾌하였다.</p> <p>학습지를 이용하여 한 번 더 학습을 유도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더하려고 하였음. 잘하는 반이라고 칭찬하여 학습의 동기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책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강화도 명쾌하였다.</p>	<p>교과서 등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 방법은 어떤?</p>
	개선 점 (1차에 논의된 점을 고려할 것)	<p>① ppt를 이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려고 한 점.</p>		
	기타 (수업 교사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노트)		<p>한 과를 가르칠 때 마스터 플랜이 있어서 총 8~9시간에 걸쳐 한 과를 가르치고 지금처럼 어휘를 1차시에 가르친다면 그 어휘가 말하기나 본문에서 분명히 반복되는 것이므로 어휘 설명 시 본문에 있는 문장이나 연관된 문형을 이용하면 어휘를 가르치면서 본문의 내용도 깊드려 보고 갈 수도 있으며 따라서 나중에 본문이나 다른 부분을 가르칠때도 더 쉽게 된다. 따라서 한 과를 가르칠 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위한 디자인은 꼭 필요한 듯하다.</p>	

참 고 문 헌

- 곽영순 외(2007). 수업컨설팅 바로하기-PCK로 들여다 본 수업 이야기. 서울: 원미사.
- 곽영순(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과학과 내용교수지식(PCK)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3-3.
- 박은혜 외 역(2004). 교사 발달에 적합한 장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정민사. Reiman, A. J.(1998). *Mentoring and supervision for teacher development*. New York: Addison-Wesley Longman.
- 이화진 외(2005). 2005 KIC교수학습개발센터 콘텐츠 개발·운영-내용 교수법(PCK) 및 온라인 수업장학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5-1.
- 이화진 외(2006). 수업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및 교과별 내용 교수법(PCK)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6-1.
- 이화진 외(2007). 초등 초임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 자료 개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4-1.
- 임찬빈 외(2005). 수업평가 기준 개발 연구(II)-일반 및 교과(영어, 도덕, 체육) 기준 상세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5-3.
- 임찬빈 외(2006). 수업평가 기준 개발 연구(I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6-3.
- 임찬빈 외(2004). 수업평가 기준 개발 연구(I)- 일반 기준 및 교과(사회, 과학, 영어) 기준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4-5.
- 임청환(2003). 초등교사의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의 발달이 과학 교수 실제와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구과학회지*, 24(4), 258-272.
- 장경숙(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영어과 내용교수지식(PCK)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3-7.
- 장경숙, 한은미 (2007). 멘토링을 통한 초임교사 영어수업능력 신장: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13(2), 49-74.
- 조덕주 외(2007). *반성적 교사교육: 실제와 이론*. 서울: 학지사.
- 조희형, 조영신, 권석민, 박대식, 강영진, 김희경, 고영자(2006). *중등 과학교사 양성*

- 교육과정과 교수내용 지식 연구 동향의 탐색. *교과교육학연구*, 10(2). 281-301.
- Andrews, S. (2007). *Teacher language awar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nold, J. (Ed.). (1999). *Affect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ich, G. D. (2007). *Effective teaching methods: Research-based practice*(6th ed.). New Jersey: Pearson & Merrill Prentice Hall.
- Brandes, D., & Ginnis, P. (1986). *A guide to student-centered learning*. Oxford: Basil Blackwell.
- Calderhead, J.(1988). *Teachers' professional learning*. London: Farmer Press.
- Canagarajah, A. S.(1999). Interrogating the "Native Speaker Fallacy": Non-linguistic roots, non pedagogical results. In G. Braine(Ed.). *Non-native educator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pp. 77-92).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randell, J. (1999). Cooperative language learning and affective factors. In J. Arnold (Ed.). *Affect in language learning*(pp. 226-2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Jong, O., Van Driel, J. H., & Verloop, N. (2005). Preservi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f using apticle models in teaching chemistry.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2(8), 947-964.
- Doff, A. (1988). *Teach English: A training course for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eman, D. (2002). The hidden side of the work: Teacher knowledge and learning to teach. *Language Teaching*, 35, 1-13.
- Gebhard, J. C. (1984). Models of supervision: Choices. *TESOL Quarterly*, 18(3), 501-514.
- Gess-Newsome, J. (1999).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 introduction and orientation. In J. Gess-Newsome, & N. G. Lederman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p. 3.17). Dordrecht: Kluwer.
- Grossman, P.L. (1990). *The making of a teacher: Teacher knowledge and teacher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Harmer, J. (199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Essex: Longman.
- Hashweh, M. Z. (2005). Teacher pedagogical constructions: A reconfiguration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11, 273-292.
- Hillocks, G. J. (1999). *Ways of thinking, ways of teaching*.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Hughes, A. (1989).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ersoll, R., & Kralik, J. M. (2004). *The impact of mentoring on teacher retention: What the research says*. Denver, CO: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 Ingersoll, R. M. (2001) Teacher turnover and teacher shortage: an organizational analysi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3), 499-53
- Kang, D. M. (2008). The classroom language use of a Korean elementary school EFL teacher: Another look at TETE. *System*, 36, 214-226.
- Kemmis, S., & McTaggart, R. (1988). *The action research planner* (3rd ed.). Victoria: Deakin University Press.
- Korthagen, F. A. et al.(2001). *Linking practice and theory: The pedagogy of realistic teacher educ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Inc.
- Lang, H. R., & Evans, D. N. (2006). *Models strategies, and methods for effective teaching*. Pearson:, Boston.
- Lightbown, P. M., & Spada, N. (1999). *How languages are lear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ughran, J. Mulhall, P., & Berry, A. (2004). In search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cience: Developing ways of articulating and documenting professional practi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1(4), 370-391.
- Magnusson, S., Krajcik, J., & Borko, H. (1999). Nature, sources, and development of PCK. In J. Gess-Newsome, & N. G. Lederman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p. 95-132). Dordrecht: Kluwer.
- Maingay, P. (1988). Observation for training, development or assessment? In T. Duff (Ed.). *Exploration in teacher training: Problems and issues* (pp.118-131). Essex: Longman.

- Marks, R. (1990a).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 From a mathematical case to a modified concep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1(3), 3-11.
- Moon, J. (1994). Teachers as mentors: A route to in-service development. *ELT Journal*, 48(4), 347-355.
- Nunan, D. (2000).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 textbook for teachers*. London: Longman.
- Ornstein, A.C., & Lasley, T.J II.(2004). *Strategies for effective teaching*(4th ed.). Boston: McGraw Hill.
- Osborne, H.D. (1998). Teacher as knower and learner, reflections on situated knowledge in science teaching.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5, 427-439.
- Porter, A. C., Youngs, P., & Odden, A.(2001). Advances in teacher assessments and their uses. In V. Richardson(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pp. 259-297). Washington, DC: AERA.
- Reid, J. M. (Ed.). (1995). *Learning styles in the ESL/EFL classroom*. New York: Newbury House.
- Richards, J. C., & Lockhart, C. (1994). *Reflective teaching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ulman, L. S. (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14.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 1-21.
- Smith, D. C. (1999). Changing our teaching: The rol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elementary science. In J. Gess-Newsome, & N. G. Lederman.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sui, A.B.M. (2003). *Understanding expertise in teaching: Case studies of ESL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sui, A.B.M., & Nocholson, S. (1999). Hypermedia database and ESL teacher knowledge enrichment.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Teacher Education*, 8(2), 215-237.
- Tudor, I. (1997). *Learner-centredness as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van Dijk, E. M., & Kattmann, U. (2006). A research model for the study of science teachers' PCK and improving teacher educati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Available online 11 July 2006.
- Van Driel, J. H., De Jong, O., & Verloop, N. (2002). The development of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Science Education*, 86, 572-590.
- Van Driel, J. H., Veal, W. R., & Janssen, F. J. J. M. (2001).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 integrative component within the knowledge base for teaching (an essay review).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 979-986.
- Van Driel, J. H., Verloop, N., & De Vos, W. (1998). Developing science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5, 673-695.
- Veal, W. R. & Makinster, J. G. (1999).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axonomies. *Educ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4). <http://unr.edu/homepage/crowther/ejse/vealmak.html/> (검색일: 2006. 05. 06).
- Wallace, M. J. (1991). *Training foreign language teacher: A reflective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ace, M. J. (1998). *Action research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S. M., Shulman, L., & Richert, A. (1987). 150 Different Ways of Knowing: Representations of Knowledge in Teaching. In J. Calderhead (Ed.) *Exploring teachers' thinking*. Sussex: Holt, Rinehart and Winston.